# 50

## 평화통일의 여정
## 1972-202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평화통일의 여정
# 1972-202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50년사


인사말 006

발간사 012

## Ⅰ 연구소 개관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016**

1. 설립 목적 016
2. 주요 기능 017

**2. 50년 역사의 개관 019**

1. 시대별 개요 019
2. 사진으로 보는 50년 역사 028

**3. 조직구성 042**

1. 연구소 조직의 시대적 변천 042
2. 현재 조직 046

**4. 연구소 50년 함께한 분들 047**

## Ⅱ 주요 사업 및 활동

**1. 학술활동 056**

1. 국제학술회의 056
   - 1970년대 공산권, 북한, 동북아 관련 본격 연구 057
   - 1980년대 국제적인 학술·교류·연구의 다각화와 저변확대 058
   - 1990년대 탈냉전 역사적 변화에 선도적 대응 061
     1) 한러 공동포럼 065
     2) 중국 사회과학원·북경대·연변대 등과의 학술교류 068

- 2000년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 전환에 기여 070
  1) 남·북·중 국제학술회의 072
  2) 미국 조지타운대·한국언론재단과의 공동 세미나 074
  3)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정례 학술연구교류 076
  4) 일본 가나가와대·게이오대 공동세미나 082
  5) 한국수출입은행과의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의 084
- 2010년대 해외 학술회의 및 전략대화 확대 086
  1) 한반도국제포럼(KGF) 090
  2) 한국(경남대)·일본(소카대)·대만(중국문화대) 3개 대학 평화포럼 095
  3) 일본·중국 주요 기관과의 전략대화 096
  4) 캐나다대사관 등 주한 외교사절단과의 정례 공동세미나·비공개 간담회 101
-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학술교류 사업 지속 추진 105
  1)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요 연구기관과의 국제학술회의 106
  2)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세미나 109

2. 국내학술회의·세미나 115
  1) 통일전략포럼 115
  2) 통일문제세미나 120
  3) 해외학자초청세미나 121
  4) 테마 중심 국내 세미나 126
  5) 북한경제 세미나·포럼 개최 132
  6) IFES 컬로퀴엄 132

**2. 연구활동 134**

1. 연구총서(단행본) 발간 134
2. 북한문헌연구 : 문헌과 해제 146
3. 노동신문 연구 프로젝트 147
4. 북한의 도시변화 연구 147
5.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147
6. 북한 '새 세대'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148
7. 남북통합연구 현황 자료집 발간 149
8. 한반도 중심의 국제관계 (미·중, 북·중, 한·일, 남북관계) 연구 149
9. 북핵 문제 연구 150
10. 북한 역사 자료의 집대성『북조선실록』 151

**3. 교육활동** 152
1. 북한대학원-북한대학원대학교 153
2. 공산권체험 교육프로그램/북한과의 학술교류 155
3. 통일경제아카데미(남북경협아카데미) 158
4. 한마통일리더십·글로벌한마 프로그램 160
5. 사이버 북한강좌·통일교육프로그램 160
6. K-MOOC, 통일교육선도대학, 경남통일교육센터 등 운영 161

**4. 국내외 학술교류·지원활동** 164
1.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165
2. SSPK (Summer Studies Program in Korea) 169
3. 마그마 170
4. 국내외 주요 학술교류협력기관(MOU) 172

**5. 정기 연구 간행물** 177
1.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177
2. 영문학술지: 『Asian Perspective』 178
3. 『동북아연구』 180
4. 현안평가·전망 자료: 『IFES 브리프』, 『IFES Forum』, 『IFES 현안진단』, 『NK Brief』, 『동북아의 변화동향 평가 및 전망』 180
5. 정세평가 보고서 181
   1) 정세평가·전망 보고서 181
   2) 한반도포커스 183
   3) 정책연구 보고서 183

**6. 자료 관리 및 지원 (북한전문도서관)** 184

**7. 주요공적과 활동** 188

III

새로운
50년의 비전

**1. 미래 비전과 각오** 194

**2. 축하의 글** 199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관계인사 총 61명>

**별첨자료** 295

1. 국제학술회의 296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20년대
2. 국내학술회의·세미나 372
   - 통일전략포럼 373
   - 통일문제세미나 380
   - 해외학자초청세미나 381
   - 국내세미나 386
   - IFES 컬로퀴엄 398
3. 연구총서(단행본) 시리즈 399
   - 북한연구 시리즈 400
   - 통일연구 시리즈 402
   -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402
   - 한국연구 시리즈 404
   - 지역연구 시리즈 404
   - 제3세계연구 시리즈 405
   - 자료집 시리즈 405
   - 번역 시리즈 405
4. 교육활동 406
   - 남북경협아카데미 407
   - 통일경제아카데미 407
   - 한마통일리더십 408
5. 해외학자 연구활동 지원 409
   - SSPK 참가자 410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펠로우 프로그램 참가자 413
   - 해외 북한·통일 정책·학술 연구지원 414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414
6. 연구간행물 415
   - 한국과 국제정치 특집호 416
   - Asian Perspective: Special Issue 416
   - 동북아 연구 418
   - IFES 브리프 418
   - 현안진단 421
   - 북핵·미사일리포트 424
   - IFES FORUM 425
   - NK BRIEF 432
   - ICNK FORUM 434
   - 정세평가·전망 보고서 435
   - 한반도포커스 435
   - 정책연구 보고서 437

# 인사말



경남대학교 총장
**박 재 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일념으로 1972년 9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설립한 지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연구소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국내외 환경과 여건으로 공산권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무모한 모험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산권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러시아(구소련),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대국이 인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닻을 올려 온갖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수많은 연구서와 국영문 학술지 발간, 국내외의 다양한 국제회의와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북한과 공산권 국가를 비롯해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의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연구소는 북한과 공산권을 비롯한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산실이며 연구의 요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석학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모여드는 학문 연구 교류의 장

이 되었습니다. 50년사 발간을 축하하는 이 계기에 연구소가 명실공히 최고의 북한·통일연구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몇몇 성과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소는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국제교류 및 해외학자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북한·통일연구 활성화를 위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구소는 그동안 해외 한반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연구 펠로우십, 석·박사 학위과정)>이 대표적인 최근 사례입니다. 믿을 만한 북한 정보에 접근하고, 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북한과 통일에 관한 다른 시각, 방법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해외 연구자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이 같은 학술교류 사업을 본격화한 데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지한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안팎에서 형성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외 한반도 전문가 그룹이 한정된 탓에 국제 사회 여론은 일부 알려진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들이 한반도 정책을 보는 관점 역시 우리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더구나 해외 젊은 세대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공공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의 젊은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국제사회 여론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시각을 좀 더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동시에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북한 연구를 지원하는 펀딩 사업

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2015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한·미·일·중·러·유럽·아시아 등 주요 10여 개국의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다자협의체인 한반도국제포럼(KGF)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견인해 왔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고 시의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사회주의권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해외 학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무려 45년 전인 1977년에 영문학술지 『Asian Perspective』를 창간했습니다. 초기엔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을 담아내기 위해 애썼지만 점차 논문을 싣기 위해 부탁을 해올 정도로 지명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이제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국제학술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Asian Perspective』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고 학술교류를 증진시키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영문학술지의 학문적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출판부와 함께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문학술지와 더불어 8년 뒤인 1985년에 국문학술지인 『한국과 국제정치』를 창간했습니다. 이 학술지 역시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나 시각, 방법론에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면서 오늘날 정치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일·러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깊이 있게 다루며 담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남대는 국내외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극동문제연구소와 북

한대학원대학교를 통해 '북한 및 통일문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특성화하여 국내외 최고의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통일교육선도대학과 영남통일교육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남대 본교의 통일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통일부가 통일교육을 체계적·전면적·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모델 개발 및 통일관련 교양과목 확대 등 대학 사회의 통일교육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 선정을 계기로 경남대는 명실공히 '한반도 평화·통일 연구와 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학 내 통일교육을 모범적으로 시행해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 통일교육사업의 거점기관으로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확립하여, 학내는 물론 지역 중·고교생 및 지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의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남대는 또한 2020년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울산 등 5개 지역의 통일교육센터를 통합한 '영남통일교육센터'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 내 통일역량 강화와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확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교육 플랫폼 구축 및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왔습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역 통일교육 허브로 안착되고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 통일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주민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 의한 '202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성과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2년부터는 부산, 울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통일교육을 지원, 확산하는 경남통일교육센터로 새롭게 발족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경남대 본교와 함께 통일교육사업을 통해 신세대 사고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통일교육 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 모델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연구소는 지난 긴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연구소에서 '분출'을 꿈꾸며 갈고 닦는 젊은 연구자들, 즉 해외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사회과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소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연구실과 연구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분출'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하는 '마그마'가 바로 그 잠재력입니다. 1993년부터 학문적 의욕이 왕성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자유롭게 연구할 기회를 주고자 '마그마'라 불리는 객원연구위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시 연구소에 머물렀던 많은 학자들은 서로 다양한 사고를 갖고 각자의 학문적 성과를 교류했던 자유로운 분위기가 바로 마그마의 생명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끈끈한 연대가 오늘날 연구소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게 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마그마'를 거쳐간 수많은 인재들은 자기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면서 한국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및 전문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취들을 바라보노라면 실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저는 이 모든 성과들이 연구소 식구들의 헌신과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많은 은인들의 지원과 응원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일어난 수많은 사연과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국제적 냉전체제와 이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 구소련, 중국, 북한과 처음으로 학술교류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의 북한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그야말로 평화통일을 향한 일념으로 한 길을 걸어온 외골수로서 잊지 못할 기억들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출구 없이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미·중, 미·러 간의 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신냉전 도래 등을 지켜보노라면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구소는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지치지 않고 평화정착과 통일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돌이켜볼 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연구소 50년 활동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연구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시기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소가 오늘날 북한, 통일연구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구소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합니다. 발전된 새로운 50년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지난 50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마음가짐을 새삼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

# 발간사

2022년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역사적 발자취를 정리한 5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재규 총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 50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회고하고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소 설립 50주년을 맞는 2022년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고, 미·중, 미·러 간 패권경쟁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북·중·러와 한·미·일이 맞서는 새로운 냉전의 먹구름이 한반도의 하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수립 및 남북대화·교류의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오랫동안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해온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한반도 정세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 지금,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략 모색을 위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구소 역시 5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지혜를 모아 한반도에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학문적 통찰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반도 문제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연구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생산·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50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안뿐 아니라 학술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의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의 변화 등에 대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소는 50년의 성과와 함께 지나온 과정의 성찰을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50년의 발자취를 정리하면서 많은 부분을 다시 알게 됐고, 보람과 반성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0년 사료집 제작 작업에 연구소 교수, 직원 모두가 성심껏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지나온 역사의 자료를 찾고, 재정리하고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소의 정체성과 지나온 역사의 명암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소 역사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공감대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교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이뤄왔던 성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관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50년사

1972-2022



# I

CHAPTER

# 연구소 개관



# 01

##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1972____2022

### 1. 설립 목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연구활동을 통해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소는 북한·통일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와 동북아지역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에 진력할 것입니다.

## 2. 주요 기능

- 북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아시아 및 국제관계 등에 관한 심층 연구
-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통일전략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 학술연구서(한국어·외국어) 및 학술지 발간
  - 정기간행물인『Asian Perspective』(영문),『한국과 국제정치』(국문), 정기간행 연구보고서, 분야별 연구총서 등 출판
- 한반도 및 국제문제 연구학자, 후계세대들을 위한 각종 연구지원
  - 북한 및 통일 관련 해외 전문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
  - 다양한 국제교류 및 해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 통합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확립하여 학내는 물론 지역 대학, 중·고교생 및 지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의식 함양
  -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선도대학 운영 지원
    - 경남대는 통일부 주관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영남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 지역의 지역통일사업 추진에 중추적 역할 수행 중, 202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전국 대학 중 1위)
- 2022년 '경남 통일교육센터' 개소
  - 2022년부터는 부산, 울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통일교육을 지원, 확산하는 '경남통일교육센터'를 새롭게 발족해 사업 추진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경

- 경남대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2016년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영남권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모델 개발 및 통일 관련 교양과목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올바른 북한관과 통일의지 함양·확산에 기여

- 국내외 북한 및 통일 문제 연구자들에게 북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도서관 운영
- IFES Brief, 현안진단, IFES Forum 등을 발간, 국내외 한반도 평화·통일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한반도 변화동향을 수시로 분석·평가한 자료 제공
- 분야별 북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 당사국들이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 설치·운영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정책·전략들을 심층연구하기 위해 북핵·중국·일본센터 설치·운영
-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외 관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일경제 아카데미 운영
- 국내외 북한 관련 학술기관, 연구단체, 산업체,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연구자, 관련정책결정 실무종사자, 학계 전문가, 기업인 DB를 구축하여 상호 간의 공동연구, 상호 교류협력을 활성화

# 02

## 50년 역사의 개관

1972___2022

### 1. 시대별 개요

연구소는 북한 및 한반도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을 심층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소는 1972년 9월 1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소재 광학빌딩에서 '경남대 통한(統韓)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1972년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해로서 연구소는 성명 발표 직후 설립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염원이었던 광복을 맞이하기 1년여 전 일본에서 태어난 박재규 총장에게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의 과제는 어쩌면 숙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국제정치학자가 되기 위해 선택한 미국 유학시절, 피터 와일즈(Peter Wiles) 교수와 존 허즈(John Herz) 교수를 만난 것은 박 총장이 북한문제에 평생 천착하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재규 총장이 북한 및 통일연구를 시작하게 된 시기는 미국 뉴욕시립대(CUNY) 대학원에서 사회주의경제학을 수강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1968년 당시 런던 정경대(LSE)에서 교환교수로 와 있던 와일즈 교수는 〈소련경제〉 강의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와일즈 교수는 "반드시 북한에 대한 학문적, 현실적 요구가 증폭될 것"이라며 한국인으로서 북한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뉴욕시립대 지도교수였던 허즈 교수는 안보딜레마 개념을 제시한 국제정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당시 유학생이었던 박재규 총장에게 "분단국가의 지식인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박 총장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당시 북한·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말조차 언급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던 당시 결정한 연구소 명칭은 '경남대 통한문제연구소'였습니다. 염홍철 연구원(훗날 대전시장 역임)과 고현욱 연구원(훗날 북한대학원대 총장) 3명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반드시 '괴뢰'라 불러야 할 때였지요. 유난히 북한 연구에 집착하던 저를 많은 친구들이 말렸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뤄야 할 통일에 대비해 냉전을 벗어난 참신한 시각을 가진 북한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했지요."**

**박재규 총장의 회고**

연구소는 출범과 동시에 먼저 북한 관련 자료 수집에 주력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학문적 토대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연구소가 북한연구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신문』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획득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바로 극동문제연구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50년 전 태평로에 있던 광학빌딩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박재규 소장과 필자, 이렇게 둘이서 시작했고, 1년여 후에 한 명의 연구원(고현욱 전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합류하여 셋이서 통한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또 전인미답의 북한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큰 모험이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염홍철 제3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전 대전광역시 시장)의 회고

약 6개월 뒤인 1973년 3월 10일 박재규 총장은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구소의 명칭을 지금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로 변경했습니다. 당시로선 색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 모두들 통일을 외치고 반공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국제적 냉전체제와 이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 등으로 형성된 엄혹한 환경 속에서 북한·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가 현재 위치인 삼청동으로 옮긴 것은 1986년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은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함께 소련의 개혁·개방과 붕괴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였던 냉전이 끝나고 국제질서에서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은 통일이라는 명제를 현실화시키는 듯하였습니다.

연구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소는 영문 정기학술지 발간, 해외학자초청세미나, 해외학자 연구지원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한국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외국 학계에 소개하고 외국에서 연구되는 최신의 학술적 이론과 동향들을 국내 학계에 알렸습니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세계를 한국에 또 이러한 세계적 변화 과정에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1990년 5월 31일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민들은 이 갑작스런 사건에 한편 의아해하면서도 기대와 함께 흥분감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일 드디어 독일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경제를 통합하여 45년간의 분단 비극의 막을 내리면서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 연구소는 거

대한 역사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심층연구와 더불어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탈냉전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국 등 강대국과의 교류도 강화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과학의 메카로 불릴 만큼 연구소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연구소의 성장과 더불어 1990년대 초부터 통일문제와 한반도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통일연구원도 1991년 4월 9일 개원하였는데, 통일논의의 확산과 체계적·전문적 종합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구소는 가장 활발하게 당시 대북정책을 정책적,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연구소는 질적 역량 강화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해 6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구소는 당시 대북정책을 정책적·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2010년대에는 남북관계의 측면에서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차원에서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다 참신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2020년대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감염병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경색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정세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세미나를 예년과 같이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로 연구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보다 알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대는 진리, 자유, 창조의 이념 아래 인간과 자연, 사회와 문화, 과학기술에 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연구·교육함으로써 '교양 있는 전문인', '지역발전의 창도자', '주체

성 있는 세계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사명은 경남대의 교육목적에 부응하고, 통일한국을 향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연구하며, '북한 및 통일문제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대학 특성화를 통한 제2의 창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정책·전략을 제시한다는 일관되고 분명한 목적 아래, 1972년부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지구촌 시민들과 공존·공영하는 차원에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동북아 문제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연구기능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동북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의 산실 역할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연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면서 각종 연구프로젝트, 펠로우십 프로그램, 학술지 발간, 세미나, 통일전략포럼,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정세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학술활동을 전개한 연구소는 경남대학생 및 교수들의 연구·교육활동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적극화하여 외연을 확대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북한 및 통일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와 정보망을 통해 대북 투자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자문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도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공' 수준의 북한연구를 '화해·협력'을 키워드로 하는 객관적인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시로선 쉽지 않았던 역발상이 연구소 설립의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연구소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견지명을 갖고 일찍 시작하여 많은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연구소는 일찍이 북한을 아직 '괴뢰'라고 부를 때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참신한 시각을 가진 북한연구자를 키워야 한

다고 판단했습니다. '반공' 수준의 북한연구를 '화해·협력'을 키워드로 하는 객관적인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시로선 쉽지 않았던 역발상이 연구소 설립의 핵심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구소를 설립한 뒤 가장 먼저 북한 관련 자료 수집에 매달렸던 것도 북한연구를 과학화하자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당시 팽배한 반공 분위기로 인해 위축된 상황 아래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소의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수많은 학자들은 대학, 국책연구소, 정부 등에서 중요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통일, 북한, 국제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와 기회를 만들어 제공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자료수집 다음 단계의 과제는 이념적 편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젊은 연구자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조건 없이 연구실을 제공하고 학문적 교류를 하도록 유도하는 객원연구위원 제도를 통해 국내 북한 연구인력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갔습니다.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수많은 학자들은 대학, 국책연구소, 정부 등에서 중요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통일, 북한, 국제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와 기회를 만들어 제공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조치들이었습니다.

냉전시대의 금기를 깨고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를 처음으로 국내에 초청한 것도 연구소였습니다. 198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그때까진 책으로만 접했던 위르겐 쿠진스키(Jürgen Kuczynski),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등 쟁쟁한 외국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초기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소에서 만든『한국과 국제정치』,『Asian Perspective』는 국내외 최고의 권위 있는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1970-80년대부터 북한 및 공산권연구, 통일문제연구, 국제관계, 정책전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서들을 활발하

게 발간했습니다. 1970년대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학술서와 세계적인 관심사였던 핵확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비롯해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권 국가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제3세계의 정치·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 연구서들도 다수 펴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한 정치, 경제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도 시도하였습니다.

**연구소의 주요 관심영역인 북한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련과 동구권의 변혁과 더불어 세계질서의 재편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제3세계의 위상을 확대하기 위한 학술서들도 발간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연구와 출판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연구소의 주요 관심영역인 북한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련과 동구권의 변혁과 더불어 세계질서의 재편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제3세계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한 학술서들도 발간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핵심 내용을 국내에 종합적으로 소개하여 관련 분야 연구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복구 및 산업화 과정속에서 북한의 모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였고,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북한문헌연구 시리즈를 발간하는 등 북한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10여 권의 연구서를 시리즈로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 당시 나라 안팎에 혼란을 불러온 '김정은 건강이상설'의 발생·전개·의미를 분석한 북한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을 다룬 학술서를 발간해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장 이후 제재·코로나19·자연재해가 겹친 '3중고'에 시달린 북한의 경제 실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북중관계,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을 비롯해 김정은 체제의 자력갱생과 경제정책, 그리고 법제의 변화 등을 학술적으로

심층분석한 책들을 다수 펴냈습니다.

기초 연구를 넘어 정부 정책의 분석·평가 및 전략 모색 작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계기시마다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여 정관계 통일정책 담당자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토론함으로써 대북정책 및 통일전략에서 정·관·학계의 담론을 이끌어왔습니다. 북한대학원(현재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이 최고의 전문대학원으로 자리잡게 된 것도 이런 바탕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연구소는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한 연구·교육은 물론 정책연구 싱크탱크로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해외의 저명 정책기관과 네트워크도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이 이념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고 실용적 입장에서 정·관·학계의 정책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8년 국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학 연구기관 1위로 선정되었으며, 100대 국내 외교·안보 연구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학 연구기관 가운데 10위권 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연구소는 2018년 국내 외교·안보분야에서 대학 연구기관 1위로 선정되었으며, 100대 국내 외교·안보 연구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학 연구기관 가운데 10위권 내에 포함되었습니다. 더욱이 북한대학원대와 함께 상호협력체계 하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통일·외교·안보 연구기관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구소는 현재 국제학술회의,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펠로우십 프로그램), 해외 북한·통일 정책·학술 연구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 주요 기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신진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연구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발간하는 다양한 정세평가·전망 보고서 현안진단 등을 국영문으로 발간하고, 국제학술회의는 동시통역 서비스를 통해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세계인들이 한반도 문제를 보

다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인식을 가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상생번영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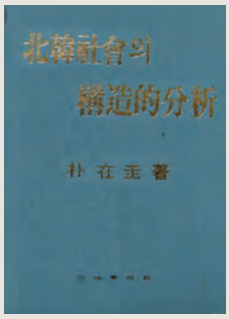
이렇게 연구소는 지난 50년간 북한·통일문제를 비롯한 국제문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 및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잊지 않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 사진으로 보는 50년 역사

## 1970년대




**9.1** 서울시 중구 태평로 소재 광학빌딩에서 경남대학 부설 '통한문제연구소' 설립




**72**

**11.10** 북한 원자료 분석 연구 및 분야별 기본서 『북한사회의 구조적 분석』 발간

**73**

**4.20-21**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주변 강대국"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74** **1.21-24**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뉴욕시립대 정치학문제연구소와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75** **9.18** 한반도 통일문제를 조망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 초청, 제1회 '통일문제세미나' 개최




**76** **1976.10.21-23** "80년대의 동남아와 그 주변국"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 개최




**77** **3월** 영문학술지 『Asian Perspective』 창간호 발간




**10.15** 『북한외교론』 발간, 북한의 대남관계, 대공산권외교, 대서방외교, 제3세계외교 등을 분석



**78** 공산권 경제연구실 및 자료실 개설 (73.5.30 문교부로부터 불온간행물 취급기관 승인)




**79** **10.20**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발간




**10.24-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 금후 10년"을 주제로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 개최(1979-1988 총5회 개최)
**4.20** 현 위치인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독립건물을 마련하여 연구소를 이전

# 1980년대




**81** **10.1** 『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80년대의 미소관계』 등의 연구시리즈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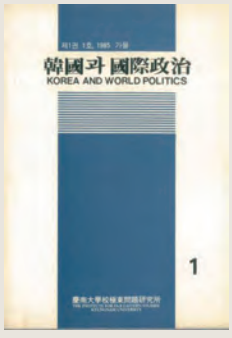

**82** **8.24-25** "소련과 동아시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83** **9.5** 지역연구 시리즈 『인도네시아』 발간




**84** **7.3-6**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해양분쟁을 주제로 미국 하와이대와 공동으로 '아시아해양법회의' 개최




**85** **1.20**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창간호 발간



**86**

**7.12** 연구소 신관 준공
(평화관 지상 2층, 지하 2층)

**9월** 한국대학생 대상 「공산권 체험프로그램」 추진
(중국 인민대)





**87** **2월** 1970년대 중반 10년간(1976.7 - 1986.6) 북한 노동신문 사설 내용을 연구분석한 '노동신문 연구프로젝트'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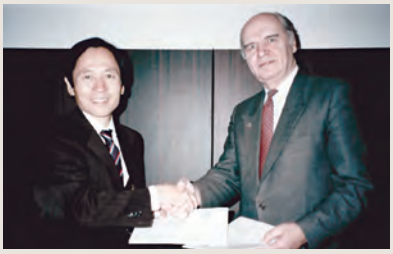









**88** **5월-6월** 『한국과 미국』(정치·안보관계, 경제관계, 사회·문화관계)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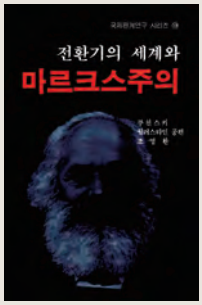


**89** **2월** 소련 동방학연구소와 한국 교수, 학생 학술교류(공산권체험프로그램) 양해각서(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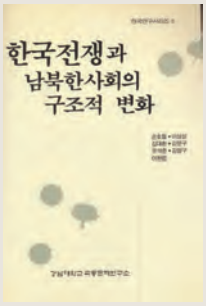
**10.25-27**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국제학술회의 개최



# 1990년대




**90** **11.28**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발간




**91** **5.10** 한국연구시리즈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발간



**6.3-4** 소련 동방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모스크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국제학술회의 개최




**92** **3.26** 미국 하버드대 페어뱅크센터,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함께 "1990년대 중국의 전망" 국제학술회의 개최




**8.25** 제3세계 연구프로젝트 『변혁기 제3세계 사회주의』 발간 (1987-1992 총6권 발간)




**93** **12.15**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 북한연구시리즈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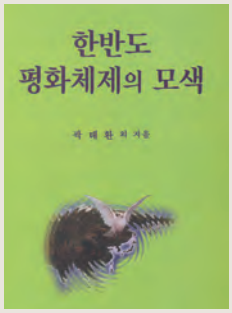

**94** **9.30** 『위기의 세계와 한국』 발간




**95** **10.19** 통일전략포럼 출범(제1회)




**96** **5.22-23** 경남대 개교 50주년 기념, 미국 아메리칸대와 공동으로 "21세기를 위한 한반도 통일전략" 국제학술회의 개최




**97** **11.15**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통일연구시리즈 발간




**98** **3월** 국내 최초의 북한전문대학원인 경남대 북한대학원 개원



**8.25** 김책공업종합대와 학술교류 MOU 체결




**5.28-29** 북한대학원 개원 기념, 미국의 아메리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환기 북한의 정책선택: 국내구조와 대외관계" 국제학술회의 개최




**99** **5.7-6.25**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경협 실무자 양성을 위한 '남북경협아카데미' 개설



**12.24** 박재규 총장 통일부 장관 취임

# 2000년대




**00** **5월** 『Asian Perspective』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사회과학분야 우수 국제학술지로 선정 (96년부터 4년 연속 선정)




**02** **5.23** 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미국 조지타운대, 한국언론재단 공동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2년간의 성과와 전망" 국제학술회의 개최







**03** **5.13** 제1회 북한도시 연구 (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세미나 개최 및 북한도시 연구시리즈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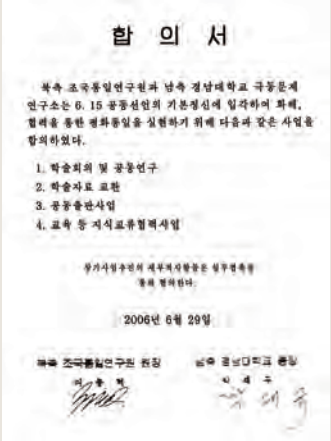
**04** **6.15** 통일관 개관기념식.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북한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 참석







**05**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사업 선정 및 『사회주의 체제전화에 대한 비교연구』 등 연구 시리즈 발간


합 의 서

북측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측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는 6. 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의하였다.

1. 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2. 학술자료 교환
3. 공동출판사업
4. 교육 등 지식교류협력사업

2006년 6월 29일

**06** **3월** 북한대학원대 개교
**6.29** 북한 조국통일연구원과 학술교류 합의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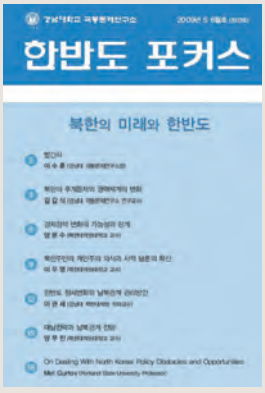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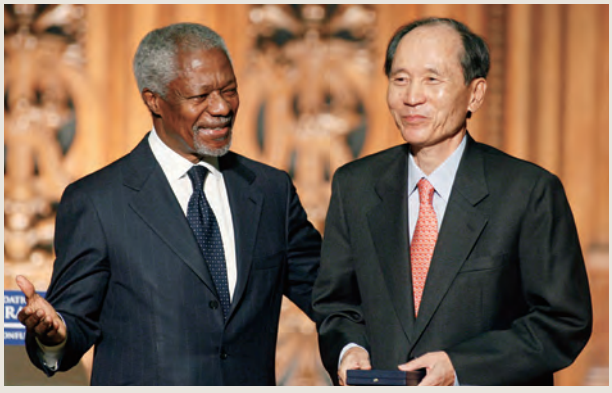

**07** **11.27** "한반도와 동북아-대전환의 시대"를 주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별강연




**08** **5.1** 우드로윌슨센터, 북한대학원대 공동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국제학술회의 개최

**09** **5.1** 계간 『한반도 포커스』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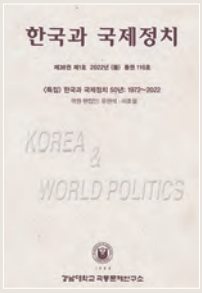


**11.6** 박재규 총장 프랑스 시라크재단 분쟁방지 특별상 수상

# 2010년대




**10** **8.10** 『한국과 국제정치』 창간 25주년·통권 70호 기념행사




**11** **1월** 연례정세보고서 『한반도 리포트』 창간

**2월-12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전문가들과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전략대화




**12** **3.21** 연구소 개소 40주년 기념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동 "동북아시아 핵 문제의 재고" 국제학술회의 개최



**13** **2.26**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대표단 전략대화




**14** **3.29** 온라인정책논단 『IFES 현안진단』 창간(국·영·일·중어)




**4월**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IFES통일경제아카데미」 개설

**15** **6월-11월** "분단 70주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주제로 통일부와 공동으로 서울, 미국 워싱턴 D.C., 유럽 벨기에 브뤼셀 등에서 첫번째 「2015 한반도국제포럼」 개최




**5월** 북한·통일 온라인콘텐츠 K-MOOC 개설 (2016-2022, 8개 과목 개설)




**6.30** 「2015 한반도국제포럼」 서울 회의




**11.10** 『IFES 정책보고서』 창간

**16** **1월** 도서관 북한 원전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구축



외교·안보 부문

| 순위 변동 | 연구소 | 영향력 | 연구의 질 | 연구 역량 | 종합 |
|---|---|---|---|---|---|
| –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243 | 227 | 240 | 710 |
| – | 통일연구원 | 222 | 214 | 198 | 634 |
| – | 세종연구소 | 216 | 217 | 197 | 630 |
| ↑1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183 | 178 | 196 | 557 |
| ↓1 | 아산정책연구원 | 132 | 125 | 124 | 381 |
| ↑2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27 | 120 | 111 | 358 |

**17**

**2월** 외교·안보 분야 대학 연구기관 중 최고 순위 선정(2017, 2018)

**18**

일본회의
(도쿄 게이오대,
5.31)




**5월-11월** "정전 65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주제로 한국·미국·카자흐스탄·일본·중국·독일을 순회하면서 두 번째 「2018 한반도국제포럼」 개최



**3월** 『Asian Perspective』 미국 존스홉킨스대 출판부와 공동발간




**10월** 북한 역사 자료를 집대성한 『북조선실록』 30권 발간(2022년 8월 150권 발간, 총 1,000권 간행 계획)




**11.15** 「2018 제14회 DMZ 평화상」 대상 수상

## 19 1월-12월 중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전문가들과 한반도 정세 변화 및 국제관계 전략대화






**5.14-17** 한국(경남대)·일본(소카대)·대만(중국문화대) 3개 대학 평화포럼 개최
(2017년부터 매년 3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개최)




**9.23** 연구소 47주년 및 북한대학원대 30주년, 『Asian Perspective』 창간 4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20년대




## 20

**2월-6월** 한반도 중심의 국제관계(미·중, 북·중, 한·일, 남북관계) 연구서 발간 및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발간



**3.31**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출범식 (9.24)




**4.17** '영남통일교육센터' 주관기관 선정
('202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성과 평가' 종합 1위 , 2022.5.19 경남통일교육센터 개소)



한미전략포럼 국제학술회의 (5.14)

## 21

**3월-12월** 코로나19 상황 속 경색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주요 연구기관과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개최




**1월-12월** 『김정은 시대의 경제 정책』,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등 7권 단행 연구서 발간




**2.4** 캐나다대사관과 공동으로 정례적 비공개 세미나 개최 및 MOU 갱신 체결(2015-현재)

## 22

**1월** 해외 소재 국책기관, 싱크탱크, 해외 현지 연구자그룹과 연구자 대상 「북한·통일 학술·정책 연구지원」 사업 시작






**5.23** 통일교육 유공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 03

## 조직구성

1972_____2022

### 1. 연구소 조직의 시대적 변천

냉전 시기인 1980년대 들어 연구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북한 및 동북아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내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심층적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는 한반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맞게 조직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경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심층적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전략연구실, 북한연구실, 중소연구실, 미국연구실, 일본연구실, 공산권경제연구실, 제3세계연구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연구실을 신설했는데 이는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5차례 개최한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비동맹회의 의장국으로서 북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983년에는 연구환경과 저변이 넓어지면서 연구소의 조직도 확대되었습니다. 신설된 정책전략연구실을 비롯해 10개 실로 확장·개편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연구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업적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구소가 중점을 둔 북한 연구 외에도 한반도와 동아시아라는 주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서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연구소의 본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졌습니다. 지금은 '평화관'이라고 부르는 지상2층, 지하2층 규모의 신관을 1985년 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7월

12일 완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인재를 품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간의 확대는 바로 연구원들의 충원과 자료실의 내실화로 이어졌습니다. 연구소 내 자료실은 북한 원자료를 입수,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외국의 사회과학 저널들을 구비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자들이 북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 연구소를 내방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5년부터 국제정치 및 공산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실시하였고, 1987년 겨울 첫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1987년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대변혁을 맞이하는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소련 및 동유럽 공산주의가 흔들리는 탈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어 연구소는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조직도 15개 실로 확대되었고, 인력도 늘어났습니다. 현대정치학이 보여주고 있는 학문 간의 연계적(interdisciplinary) 관계를 수용하고자 연구소도 경제학, 사회학, 법학을 전공한 분들을 연구원으로 충원하였습니다. 1985년부터 국제정치 및 공산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실시하였고, 1987년 겨울 첫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소식지에는 연구소 소식과 신착 자료안내, 회원소식을 중심으로 내용을 채웠는데, 적지 않은 연구자들과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1월 기준 회원은 총 200여 명이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도 빈번해졌습니다.

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국제정치 분야에서 손꼽히는 재미 한인 학자들을 소장으로 초빙하여 연구소의 국제협력 역량과 네트워크 확장을 본격적으로 도모했습니다. 조영환 교수(4대 소장)를 시작으로 이만우 교수(5대 소장), 곽태환 교수(6대 소장), 서대숙 교수(7대 소장), 고병철 교수(8대 소장)가 연구소의 질적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95년 10월에는 연구소의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경남대 박재규 총장, 한마법인 조근옥 이사장, 연구소 곽태환 소장), 이외에 서울대 정치학과 구영록 교수와 영일기업(주) 정봉화 대표이사 포함 5명이었습니다.

1998년 북한대학원이 개설,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구소가 이룩한 연구와 자료,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교육과 결합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연구소 고유의 연구기능은 유지하되, 교육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신생 북한대학원이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산파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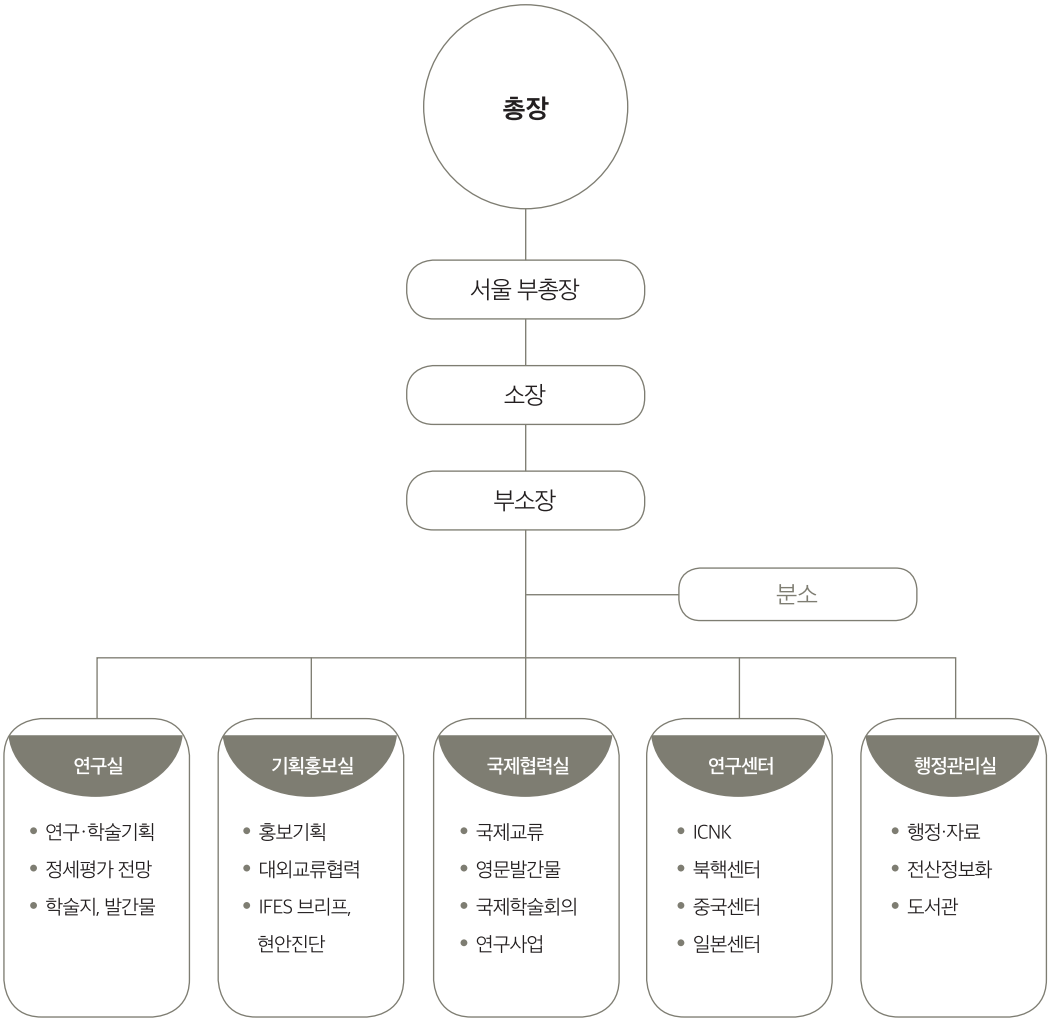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뜻을 새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담아, 2004년 6월 15일 통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학교법인 한마학원은 신입생 모집에 나서게 됩니다. 이로써 연구소의 연구업적과 북한대학원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북한·통일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통일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북측에서도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원동연 아태평화위원회 실장 등의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통일관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요람입니다. 또한 통일관은 민족의 하나됨을 소망하는 온겨레의 숭고한 뜻을 결집시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을 향한 겨레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북한대학원대 전경

## 2. 현재 조직

현재 연구소는 연구실, 기획홍보실, 국제협력실, 행정관리실 등 4개 실과 4개 연구센터(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북핵센터, 중국센터, 일본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 상근 연구자들과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위촉된 초빙·객원연구위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및 국제관계 등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단행본실, 정기간행물실, 특수자료실), 전산정보화실 등이 연구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04

## 연구소 50년
## 함께한 분들

1972___2022

연구소가 5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중한 인연을 맺어 함께 호흡하며 연구소 발전에 기여해온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현 교직원

| 구분 | 이름 | 소속/직위 |
|---|---|---|
| 주요 보직자 및 교수진 | 박정진 |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
| | 이관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 | 딘울렛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 |
| | 김상범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기획홍보실장 |
| | 이병철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 |
| | 이상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
| |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 |
| | 조진구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일본센터장 |
| | 모영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행정관리실장 |
| | 문미리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 | 박서화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 | 이형종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 | 정재욱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 협력대학 연구위원 | 구갑우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김동엽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핵센터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김성경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김 정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박정민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신종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양무진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양문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유영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이우영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분소장 | 조재욱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마산분소) |
| 초빙석좌교수 | 강인덕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통일부 장관 |
| | 곽태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 | 김광운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 | 선준영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주UN대표부 대사 |
| | 송영선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국회의원 |
| | 안호영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주미국 대사 |
| | 이수훈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주일본 대사 |
| | 이용웅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선데이뉴스신문 대표고문 |
| | 정두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중국 절강대학 교수 |
| | 조병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국립외교원 원장 |
| | 하선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주)영광사 대표이사 |
| | 오정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일본 가나가와대학 명예교수 |
| | 오코노기 마사오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
| | 임형신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국가특수정보유공자회 회장 |
| | 차윤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전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
| | 한용섭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 |
| 객원연구위원 | 이웅현 |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 |
| 초빙연구위원 | 강지연 | 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 | 박요한 | 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 | 이성권 |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정책연구소장 |
| | 이승현 | (주)투게더아트 대표이사 |
| | 이찬우 | 일본 테이쿄대학 교수 |
| | 정우곤 | 전 통일부 서기관 |
| | 최천운 | 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 연구·행정 지원

| | | |
|---|---|---|
| 행정·국제팀 | 최승혜 | 회계, 행정 |
| | 서아림 | 국제학술회의 및 대외교류, 한국과 국제정치 |
| | 강윤희 | 국제업무, Asian Perspective |
| | 정다은 | 행정 및 인사관리 |
| | 김희연 | 행정 및 인사관리 |
| 전산정보화팀 | 박상준 | 홍보 및 전산 관리 |
| | 공상호 |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강좌 지원 |
| 연구지원팀 | 유도일 | 행정 및 학술·연구 프로젝트 관리 |
| | 조성근 |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
| | 김단비 | 학술·연구지원 |
| | 김지혜 | 학술·연구지원 |
| | 진영호 | 학술·연구 프로젝트 관리 |
| 도서관 | 박현정 | 도서관 운영 |
| | 임수경 | 도서관 운영 |
| | 이상혁 | 도서관 운영 |
| 시설관리팀 | 이종만, 원영준, 탁춘자, 조장원, 신기철, 이태웅 | |

## 역대소장

| | 성명 | 기간 | 주요 경력 |
|---|---|---|---|
| 제1대 | 김기석 | 1972.09 - 1973.02 | 전 서울대학교 교수, 전 경남대학 학장 |
| 제2대 | 박재규 | 1973.03 - 1988.02 | 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총장 |
| 제3대 | 염홍철 | 1988.03 - 1988.06 | 전 대전광역시 시장 |
| 제4대 | 조영환 | 1988.07 - 1991.02 | 전 미국 Arizona State Univ. 교수 |
| 제5대 | 이만우 | 1991.03 - 1995.02 | 전 미국 Millersville Univ. of Pennsylvania 교수 |
| 제6대 | 곽태환 | 1995.03 - 1999.05 | 전 미국 Eastern Kentucky Univ. 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 제7대 | 서대숙 | 2000.03 - 2002.02 | 전 미국 Univ. of Hawaii at Manoa 교수 |
| 제8대 | 고병철 | 2002.03 - 2005.02 | 전 미국 Univ. of Illinois at Chicago 교수,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 제9대 | 윤대규 | 2005.02 - 2009.02 | 전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
| 제10대 | 이수훈 | 2009.02 - 2014.02 | 전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전 주일본 대사 |
| 제11대 | 윤대규 | 2014.03 - 2018.02 | 전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
| 제12대 | 이관세 | 2018.02 - 현재 | 전 통일부 차관 |

## 역대 (초빙)석좌 교수진

| 이름 | 직급 | 주요 경력 |
|---|---|---|
| 강창희 | 초빙석좌교수 | 전 국회의장 |
| 고병철 | 초빙석좌교수 |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 김기재 | 초빙석좌교수 |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국회의원 |
| 김수홍 | 초빙석좌교수 | 전 (주)인천대교 사장 |
| 송민순 | 초빙석좌교수 | 전 외교통상부 장관,<br>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 염홍철 | 초빙석좌교수 | 전 대전광역시 시장,<br>전 한밭대학교 총장 |
| 윤여준 | 초빙석좌교수 | 전 환경부 장관, 전 국회의원 |
| 이대순 | 초빙석좌교수 | 학교법인 한마학원 이사장,<br>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

| 이름 | 직급 | 주요 경력 |
|---|---|---|
| 이봉원 | 초빙석좌교수 | 전 육군사관학교장 |
| 이원석 | 초빙석좌교수 | 전 국회의원 |
| 정세현 | 초빙석좌교수 | 전 통일부 장관 |
| 정해훈 | 초빙석좌교수 | 북방권교류협의회 이사장,<br>전 KBS기자 |
| 김영진 | 초빙교수 | 전 감사원 감사관 |
| 김용태 | 초빙교수 | 전 신라대학교 총장 |
| 김정부 | 초빙교수 | 전 국회의원 |
| 최명길 | 초빙교수 | 전 국회의원, 전 MBC 기자 |
| 최형두 | 초빙교수 | 국회의원,<br>전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 |

## ‘마그마’ 출신 학자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 강원택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 강하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본부장 |
| 권호연 | 일본 호세이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 김기석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 김도종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 김동찬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
| 김상기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김상태 | 전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
| 김수진 | 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김용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 김용복 | 경남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 김용호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김우상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김유향 | 전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
| 김의영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 김일수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김준기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김진기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교수 |
| 김판석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명예교수 |
| 김형률 |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 김호섭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 |
| 류석진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마상윤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 박건영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백종국 |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 빅터 차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
| 신욱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 신정화 | 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 |
| 안재흥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 유진석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유현석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은용수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동민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성봉 |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충묵 |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원장 |
| 이혜정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 이호철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장 훈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 전 웅 |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
|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 정연정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정철희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조대엽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조원호 | 경상국립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
| 조정관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최대석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명예교수 |

## 『Asian Perspective』 역대 편집장

| NAME | TITLE | YEARS |
|---|---|---|
| Jae Kyu Park | Publisher & Editor | 1977 - 1987 |
| Yung-Hwan Jo | Editor-in-Chief | 1988 - 1990 |
| Manwoo Lee | Editor-in-Chief | 1991 - 1994 |
| Tae-Hwan Kwak & Melvin Gurtov | Editor-in-Chief | 1995 - 1998 |
| Melvin Gurtov<br>(Portland State University) | Editor-in-Chief | 1999 - 2017 (vol. 41, no. 2) |
| Carla P. Freeman<br>(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 Editor-in-Chief | 2017 (vol. 41-3) - 2022 (vol. 46-1) |
| Ho-fung Hung<br>(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 Editor-in-Chief | 2022 (vol. 46-2) - pres. |

## 『한국과 국제정치』 역대 편집주간

| 연번 | 성명 | 기간 | 비고 |
|---|---|---|---|
| 1 | 염홍철<br>(편집인) | 1985.01.01.-1988.06.30. | 85년 1권 1호-88년 4권 1호 |
| 2 | 조영환<br>(편집위원장) | 1988.07.01.-1991.02.28. | 88년 4권 2호-90년 6권 2호 |
| 3 | 이만우<br>(편집위원장) | 1991.03.01.-1995.02.28. | 91년 7권 1호-94년 10권 2호 |
| 4 | 곽태환<br>(편집위원장) | 1995.03.01.-1999.02.28. | 95년 11권 1호-98년 14권 2호 |
| 5 | 함택영<br>(편집주간) | 1999.03.01.-2001.08.31. | 99년 15권 1호-01년 17권 1호 |
| 6 | 이수훈<br>(편집주간) | 2001.09.01.-2017.09.30. | 01년 17권 2호-17년 33권 3호 |
| 7 | 신종대<br>(편집주간) | 2017.10.01.-현재 | 17년 33권 4호- |

## 축하의 글을 보내주신 분들

※ 축하의 글은 PP.199-293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국내인사 |

| 구분 | 성명(직책) |
|---|---|
| 역대소장, 분소장 |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 | 이만우 (Millersville Univ. Dept. of Government and Political Affairs Professor,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 |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 |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전 주일대사) |
| | 조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분소장 겸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역대 국회의장 | 강창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
| 역대 통일부장관 | 강인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통일부 장관) |
| | 정세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
| |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
|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
| 전현직 북대총장 |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 |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주미대사) |
| 전현직 대사 | 신봉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전 주인도대사) |
| | 조병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총장, 전 국립외교원장) |
| | 조성렬 (주오사카 총영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 마그마 출신 | 류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
| |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유현석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
| 전 연구원 | 양길현 (전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 |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 |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 학회 | 이기동 (2022년 북한연구학회장) |
| | 임성학 (2022년 한국정치학회장) |
| |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 | 해외인사 |

| 국가 | 성명(직책) |
|---|---|
| 미국 | Melvin Gurtov (Professor Emeritus/Portland State University) |
| | Ho-fung Hung (Henry M. and Elizabeth P. Wiesenfeld Professor in Political Economy & Chair, Department of Sociology and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SAIS)) |
| | Victor Cha (Senior Vice President and Korea Chair/CSIS) |
| | Frank Jannuzi (President and CEO/The Maureen and Kike Mansfield Foundation) |
| | Christopher A. Capuano (President/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
| | Carla P. Freeman (Senior Expert/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USIP)) |
| 일본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
| | 바바 요시히사 (전 소카대학 총장) |
| | 스즈키 마사시 (소카대학 총장) |
| |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 |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 |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한국학센터장)) |
| | 나카가와 마사히코 (아시아경제연구소 지역연구센터 주임조사연구원) |
|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 |
| | 오구마 마코토 (가나가와대학 총장) |
| | 오정만 (가나가와대학 명예교수) |
| 중국 | 정계영 (복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교수) |
| |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 |
| | 천동샤오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원장) |
| | 박찬규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
| | 오호 (길림대학 동북아학원 원장) |
| | 한헌동 (중국정법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 교수) |
| | 왕성성 (상해외국어대학 조선반도 및 아태전략연구센터 주임) |
| | 왕위민 (상해정법학원 정부관리대학장, 교수) |
| |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전략실 부주임, 연구원) |
| | 조건민 (대만 중국문화대학 사회과학원 원장) |
| | 왕고성 (대만 담강대학 국제사무부총장) |
| | 유창명 (산동대학 동북아학원 원장) |
| 러시아 | Alexander Vorontsov (Head of the Korea and Mongolia Department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 |
| 유럽 |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교수, 한국학연구소장) |
| | 이상우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장 겸 부소장) |
| | 크리스찬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 | 오웬 밀러 (런던 SOAS 대학 교수) |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50년사

1972-2022















II

CHAPTER

# 주요 사업 및 활동








# 01

## 학술활동

한반도와 주변 열강을 비롯한 국내외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남북한 관계를 진단하고 그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협력적 질서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제안과 토론을 하는 학술교류의 장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1972_____2022

### 1. 국제학술회의

연구소는 197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주제를 갖고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북한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진단하고 심층적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개최해왔던 국제학술회의는 분단의 역사이고, 연구소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별 개관

## 1970년대 공산권, 북한, 동북아 관련 본격 연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질 시기는 엄혹한 냉전기였고, 남북한은 최전선에서 대치하여 긴장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미중 간 데탕트(Détente)와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북한 연구를 제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공산권, 북한, 동북아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973년 4월 20일-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주변 강대국"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제학술회의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대학 부설 연구소가 국제정치의 중심지인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당시 저명한 재미 한국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연구소가 미국 주류에서 활동하던 북한 및 동북아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최초로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국내외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연구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문제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제학술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1974년 1월 21일-24일 서울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라는 주제로 국내 최초의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냉전시대의 국제환경에서 북한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당시에는 모험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북아지역은 물론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을




"한국과 주변 강대국" 국제학술회의 (1973.4.20-21)

논의한 첫 국제회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회의 때와 같이 미·일 등 저명한 학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세미나 참석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축하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훗날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들에 국제학술회의의 '매뉴얼' 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소는 이후에도 계속 국제회의들을 연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대별 개관

## 1980년대 국제적인 학술교류·연구의 다각화와 저변확대




"소련과 동아세아문제" 국제학술회의 (1982.8.24-25)

1980년대 들어 연구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북한, 동북아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내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심층적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소는 1970-80년대에 선도적이고 전향적인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시기 연구소는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5차례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비동맹회의 의장국으로서 북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학술서와 세계적인 관심사였던 핵확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비롯해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권 국가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




"양국의 장기적 개발협력 방안에 관한 정책이슈" 한국·인도네시아 국제학술회의 (1984.5.22-24)

한 주제를 발굴해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는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이 막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면, 연구소의 성과는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1981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3회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1982년 8월 24일-25일에는 서울에서 "소련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소련문제를 주제로 공개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회의는 공산권 연구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어서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개최한 다섯 차례의 학술회의에는 두 나라에서 학자·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해 당시의 국제질서 및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는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ASEAN 국가들과 우리나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1984년에는 지금도 최대 지역안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 등을 비롯한 해양분쟁을 주제로 미국 하와이대 해양법연구소와 함께 '아시아해양법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제학술회의 주제는 갈수록 다양해졌습니다. 1986년 7월 29일-31일 사흘 동안에는 "SDI : Implications for the Asian Community"라는 주제 아래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에 관한 학술회의가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연이어 8월 17일-24일 동안 '제11차 세계군사사학회 연차대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 대회에는 미국, 유럽 등 25개국에서 약 150여 명의 학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몇 달 뒤인 11월 24일-27일 4일 동안에는 일본 도쿄에서 '제2차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전략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지의 교포학자들이 모여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해외 한국교포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198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북미 한국인 대학교수협의회와 제1차 북미 거주 한국교포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북미주 한국교포: 역사적 조망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재미 한국인 교수 100여 명을 비롯해 미주 교포 사회의 각 단체 대표단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구한말 이래 오늘날까지의 한국인의 북미주 이민사를 역사, 교육, 정치, 경제, 법률, 종교, 예술, 체육, 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1989년은 80년대를 마무리 짓고 그동안 연구소가 축적한 경험과 자원을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것과 같이

연구소도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취지 아래 연구소는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주제 아래 한국전쟁 40주년을 맞아 마르크스주의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물결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았던 엄혹한 시절에 냉전시대의 금기를 깨고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를 처음으로 국내에 초청하였고, 이들의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학술회의 전까지 책으로만 접했던 동유럽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며 세계노동운동사의 권위자로 동독 및 소련 과학아카데미 회원이었던 위르겐 쿠진스키(Jurgen Kuczynski) 박사를 비롯,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의 대가로 사회과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소련의 노다리 시모니아 교수, 종속이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미국 뉴욕주립대의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교수, Bob Jessob, James O'Conner, Fredric R. Jameson, Alain Lipietz, Elmar Altvater 등 쟁쟁한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을 비롯해 영국, 중국, 대만, 일본, 동독, 서독, 헝가리, 프랑스 등 9개국에서 세계적인 학자 90여 명이 참가하여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소련의 개혁·개방과 동구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체제전환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구소의 존재감과 위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던 한국에서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회의가 열리는 것도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대규모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것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 회의를 기획·추진한 조영환 부소장(경남대 교수·북한문제 전문가)은 훗날 "반공이데올로기가 만연된 상태에서 북방외교 등으로 이념의 혼란이 극심하다고 판단, 세계 유수의 진보적 학자들을 초청함으로써 한국에서도 이러한 진보적 학술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이념의 재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회의를 기획·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학자들은 10월 24일 연구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소련 및 동유럽의 개혁 전망 및 제3세계 문제 등 현대 세계의 여러 문제에 대해 폭넓게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국제학술회의 (1989.10.25-27)

시대별 개관

## 1990년대 탈냉전 역사적 변화에 선도적 대응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은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함께 소련의 개혁·개방과 붕괴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정의했던 냉전이 끝나고 국제질서에서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은 통일이라는 명제를 현실화시키는 듯했습니다. 연구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 연구소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서 발간과 더불어 국제적인 학술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국 등 서방국과의 교류도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에 연구소는 미국 하버드대 페어뱅크센터, 아시아소사이어티,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미국 아메리칸대 아시아연구소, 미국 육군대 전략문제연구소, 소련 동양학연구소,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등과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러시아와 학술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한러공동포럼이 연속적으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1991년 4월 11일부터 3일간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국제학프로그램과 공동으로 "태평양으로 향하는 한국(Korea in the Asia-Pacific Community)"이라는 주제로 포틀랜드주립대 스미스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등 3개국 30여 명의 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논문발표와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6월 3일-4일 이틀 동안 소련 동양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모스크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G. Ghufrin, G.K. Shirokov, Alexander V. Voronstsov, V. Yashkin, A. Maximov 등 소련과 한국의 전문가 40여 명이 함께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소관계의 변화를 세계적 차원 및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진단하고 한소관계 정상화가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소관계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한미관계가 현안으로 부상되었습니다. 1992년 5월 6일에는 한미 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한미포럼 시리즈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한미포럼에는 발표자로서 Gil Latz 미국 포틀랜드대 국제무역연구소 소장이 "한미통상관계"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2차 포럼(10.15)에는 제임스 피어스(James A. Pierce)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이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정책", 3차 포럼(11.10)에서는 다

니엘 러셀(Daniel R. Russel) 미 대사관 Chief of the External Unit이 "북한-미국 관계"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 26일에는 미국 하버드대 페어뱅크센터,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함께 "1990년대 중국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중국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드와이트 퍼킨스(Dwight H. Perkins), 에즈라 보겔(Ezra F. Vogel), 제임스 왓슨(James L. Watson), 로데릭 막파르쿠르(Roderick MacFarquhar) 등 하버드대 교수들이 여러 명 참석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2년 9월 4일 연구소는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탈냉전기 세계와 한반도"를 주제로 한국 주재 미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이 강연회는 연구소가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주한 미국 대사와 알렉산더 파노프(Alexander Panov) 주한 러시아 대사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계, 정계, 각국 대사 및 각계 인사 약 12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UNESCO와 9월 22일-23일 발전과 문화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는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991년 파리에서 열린 "환경과 발전 국제포럼"에 이어 UNESCO가 발전을 주제로 마련한 두 번째 국제포럼으로, 서구 중심적 문화가 아닌 제3세계의 토착문화나 민족문화가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포럼에서는 세계체제이론의 창시자이며 『근대세계체제론』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러스틴의 대표적 저서인 『근대세계체제론』은 16세기 이래 세계사를 단일한 자본주의 세계경제 역사로 재해석한 것으로, 세계체제라는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조망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정치경제사를 다룬 책이라는 점에서 20세기 후반 가장 주목받는 저술로 손꼽혔습니다.

아울러 연구소는 90년대 중반부터는 북미 간 급격한 관계 개선, 그리고 북일 간 대화재개 선언 등과 같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격류 속에서 그 변화의 한 축인 북한사회의 이해 그리고 북한과 관계 당사국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5월 25-26일 "동북아의 신국



미국 하버드대 페어뱅크센터·아시아 소사이어티 공동 국제학술회의 "1990년대 중국의 전망" (1992.3.26)



"탈냉전기 세계와 한반도" 미국·러시아 대사 특별 강연회 (1992.9.4)

제질서와 미래안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다수의 국내학자는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출신의 학자, 언론인 등 40여 명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과거 고르바초프 집권 당시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 입안자였고 당시 러시아 국영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민주당'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야코블레프(Alexander N. Yakovlev)가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1995년 10월에는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한미관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국제 워크숍(세미나)을 개최하였고, 미국 육군대 전략문제연구소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 나라에서 모두 36명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당시 한미 공동주최로 10월 5일-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인 게리 럭(Gary E. Luck) 대장을 대신하여 참모장인 리차드 티몬스(Richard F. Timmons) 중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회의에는 존 메릴(미 국무부 정보국), 피터 헤이스(오스트레일리아 노틸러스연구소), 셀리그 해리슨, 에드워드 올슨(미 해군대학원) 등이 참석하여 한미동맹관계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상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1996년은 미국 아메리칸대와 함께 "21세기를 위한 한반도 통일전략"이라는 주제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회담 논의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5월 22일-23일 이틀 동안 경남대 개교 50주년을 맞아 미국 아메리칸대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벤자민 래드너(Benjamin M. Ladner) 미국 아메리칸대 총장,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도널드 그레그(Donald P. Gregg)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전 주한 미국대사), 데이비드 브라운(David E. Brown) 스탠턴그룹 소장, 발레리 데니소프(Valery Denisov) 러시아 외무부 부국장(전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를 비롯해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10월 24일-25일에는 한미안보연구회와 공동으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모색"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미국 육군대 전략문제연구소 공동 국제워크숍 "한미동맹" (1995.10.5-7)




경남대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1세기를 위한 한반도 통일전략" (1996.5.22-23)

대외정책 및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4자 회담의 전망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당시 냉전적 국제질서 해체 이후 새로운 신질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던 중국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치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1997년 3월 24일 서울에서 '한국·러시아·중국의 발전 및 상호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러시아의 미국-캐나다연구소에서 세르게이 로고프(S.M. Rogov) 소장, 미하일 노소프(M.G. Nossov) 부소장, 중국에서 순 리앙(孫良) 국제무역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한·러관계 및 한·중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5월22일-23일 개소 25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미래와 동북아시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36명의 학자와 더불어 200여 명의 청중이 참가해 진지하면서도 뜨거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9월 4일-5일 이틀간 연구소는 역시 개소 25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과 공동으로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국가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왔던 리더십의 현대적 함의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민주화, 언론관계에 대한 과거의 경험과 오늘의 현상을 진단하였습니다. 나아가 21세기 통일한국의 건설에 요구되는 올바른 리더십, 민주화,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건 국무총리의 축사에 이어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수상이 기존연설을 하였고,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 미국 국무장관이 영상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강경식 경제기획원 장관 외 국내외 학계, 정관계, 언론계 등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 10월 10일 홍콩 반환 100일이 된 시점에서 홍콩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미국 아메리칸대 아시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홍콩 반환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998년 5월 28일-29일 이틀 간 연구소는 북한 대학원 개원을 기념하기 위해 "전환기 북한의 정책선택: 국내구조와 대외관계"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41명의 학자들과 15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어 1999년 미국 아메리칸대 아시아연구센터는 5월 27-28일 이틀 동안 연구소에서 "격동 속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미·일·러·중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역내 지형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노다리 시모니아(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엘빈 소(홍콩 과학기술대), 모리 료이치(일본 복지대), 멜 거토프(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곽태환(미국 이스튼 켄터키대) 교수 외 미국 아메리칸대, 런던 정경대, 일본 복지대, 홍콩과학기술대, 포틀랜드 주립대, 러시아 IMEMO 등 세계 여러나라의 학자들도 참여해 동북아 발전의 위기, 동북아 열강의 세력변화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 1) 한러 공동포럼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환경원자력감독청장 겸 러시아-한반도 경제과학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박재규 경남대 총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한러 사이의 최초의 민간 포럼인 21세기 한러 공동포럼이 2005년 결성되었습니다. 한러 공동포럼은 양국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학술적 논의를 통한 민간부문의 교류활성화가 양국의 상호발전에 필요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해 마련됐습니다. 정치,




미국 아메리칸대 공동 국제학술회의 "전환기 북한의 정책선택" (1998.5.28-29)




"한국·러시아·중국의 발전 및 상호협력" 국제학술회의 (1997.3.24)

경제, 문화, 역사,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 교류협력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갔습니다.

2005년 11월 28일에는 당시 글렙 이바쉔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을 초청해 제1차 21세기 한·러 공동포럼을 열었습니다. 한러 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한러 간 교류협력 발전방안 및 전망을 논의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청사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박재규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6자 회담 참여국으로서 북한핵문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러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의 경협 관계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양국이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철도 중심의 물류와 에너지 자원, 과학기술 등을 들었습니다. 이 포럼은 총 2분야로 나눠 제1회의는 정치, 경제협력을, 제2회의는 사회,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다뤘고,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오찬연설을, 안드레이 볼로딘(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박수헌(경희대), 빅터 이바노프(상트페테르부르그대), 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탈리아 쇼토비치(상트페테르부르그대), 김종곤((주)이엔페이퍼 사장), 알렉산더 이브리예프(역사민속고고학연구소), 유리 쉬왈츠코프(마린스키 극장 총감독), 정은상(경남대) 등이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러 공동포럼은 2006년 10월 내한한 폴리코프스키 위원장이 경남대를 방문해 박재규 총장과 양국의 발전과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경제·문화·학술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증진해 갈 것을 합의함에 따라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어 2007년 8월 31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건축대에서 "한러 협력 전망"을 주제로 제2차



한러 공동포럼에 참가한 폴리코프스키 러시아극동전권대표의 경남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2004.11.17)




"Perspectives on Korean-Russian Cooperation" 한러 공동포럼 (2006.11.28)

21세기 한러 공동포럼이 열렸습니다. 한러 경제과학공동위원회와 연구소는 양국 간 외교안보 관계 발전에 따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빅토르 이바노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교수는 상호 투자 증가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러 간 금융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알렉산드르 페트로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축토목공대 교수는 인적교류의 확대와 양국 간 정보교환 및 미니 프로젝트 공동연구, 기업 컨설팅, 건설 및 토목 분야의 교류의 중요성을 강

**한러 공동포럼**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1991.06.03.-06.04. | 한·소 학술회의<br>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br>Peace and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Korean Peninsula | 소련 모스크바<br>동양학연구소 |
| 1997.03.24. | 1997년도 국제학술회의<br>한국·러시아·중국의 발전 및 상호협력<br>Development and Mutual Cooperation of Korea, Russia, and China | 힐튼호텔 |
| 2000.10.05. | 한·러수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br>새천년의 한러관계:<br>한러수교 10주년의 회고와 전망<br>Korean-Russian Relations in the New Millennium | 러시아<br>블라디보스토크 |
| 2006.11.28. | 제1차 21세기 한-러 공동포럼<br>Perspectives on Korean-Russian Cooperation | 롯데호텔 |
| 2007.08.31. | 제2차 21세기 한-러 공동포럼<br>Perspectives on Korean-Russian Cooperation | 러시아<br>상트페테르부르크<br>건축대 |

조했습니다. 2차 포럼에는 러시아 연방 기술감독청 관계자와 함택영 경남대 부총장 및 정태익 전 주러 한국 대사, 양국 학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 중국 사회과학원·북경대·연변대 등과의 학술교류**

중국의 연구소, 대학 등과의 학술교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공식, 비공식 세미나를 열어 왔습니다.

중국 연변대 동북아정치연구소와 공동으로 1994년 9월 15일 연변대에서 "동북아 신질서와 정치·경제협력"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애초에 북한 측 학자들이 참가해 동북아의 신질서 속에서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북측 학자들은 불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과 토의를 시작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10일-11일 연구소는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북·중 경제협력과 동북아 공동체"라는 주제 하에 중국 북경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대·심화되는 북중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19일 중국 연변대를 방문해 연변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북중관계와 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번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연구소와 연변대의 인적 교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 2011년 8월 17일에도 연변대를 방문해 연변대 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변화하는 동북아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전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2014년 4월 24일에는 KDI국제정책대학원, 연변대 경제관리학원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윤대규 소장과 남상우 원장(KDI국제정책대학원)과 더불어 연구소 교수진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교수진들이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과 진전 상황 및 북중 경제협력의




중국 인민대와 경남대 학술교류 협정 체결 (1993.4.15)



중국 사회과학원·중앙당교·상해국제문제연구원·복단대 전략대화 (2016.11.2-4)

현황 등에 대한 발표·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소는 이어 4월 25일 중국 연변대 경제관리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교류협력하여 학술역량을 제고하고, 학술 및 경제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일-4일 사흘간 중국 사회과학원과 중앙당교 및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복단대 '중국과 주변국 관계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동북아 안보딜레마와 한·미·중 전략적 협력방안 및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주변국가 간 협력방안 모색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북경·상해 전략대화를 통해 한중 간 학술적 교류를 도모하고, 북한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중국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딜레마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활발하게 토론하였습니다. 같은 해 경남대 관광학과 교수진과 함께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국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및 조선반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동북아 관광 교류협력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동세미나에서 연구소 연구진은 "중국의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추진실태 및 한중 간 협력과제", "북중 간 관광교류협력 실태와 과제" 등에 대하여 심층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경남대-연변대 공동세미나에서는 중국 측의 관광진흥정책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식품산업과 융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6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2017년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2018년 상해정법학원과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학술발전을 도모하고자 중국에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술역량을 제고하고 학술 및 관심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공동 학술회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 및 운영, 연구진 상호교류 활성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북경대·연변대 등과의 학술교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1994.09.15. | 1994년도 국제학술회의<br>동북아 신질서와 정치·경제 협력 | 중국 연변대 |
| 2005.12.10.-12.11. | 한·중 국제심포지엄<br>북-중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 중국 북경대 |
| 2010.08.19. | 연변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br>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 중국 연변대 |
| 2011.08.17. | 연변대 공동<br>변화하는 동북아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 전망 | 중국 연변대 |
| 2014.04.24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KDI·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공동 워크숍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5.08.11. | 중국 사회과학원-연변대 한반도문제연구소 3자 공동학술회의<br>한반도 정세 및 한중 협력 | 중국 북경<br>사회과학원 |
| 2016.09.28. | 연변대 공동 세미나<br>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현황 및 전망 | 중국 연변대 |

시대별 개관

## 2000년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 전환에 기여

2000년대 들어 연구소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라는 정세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해 6월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연구소는 가장 활발하게 대북정책을 정책적·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연구소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국내기관들과 협력하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 기관들 중에는 미국의 조지타운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WIC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일본의 가나가와대, 일본 게이오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학술회의와 국제냉전사프로젝트에 착수하여 매년 워싱턴 D.C.와 서울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과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외교문서를 발굴하여 학계에 널리 알렸습



러시아 극동국립대 공동 국제학술회의 "새천년의 한러관계: 한러수교 10주년의 회고와 전망" (2000.10.5)

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연구소와 협력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이룩한 연구 성과와 노하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최고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분단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었고, 또한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남북간의 대결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전환시키려는 분기점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남북교류의 가능성과 북한의 현실을 진단하는 연구발표가 활발했습니다. 그동안 학계는 정치학 분야를 제외하면 관련분야 연구발표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고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장벽 허물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은 한러 수교 1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해 10월 5일에는 러시아 극동국립대 한국학대학과 공동으로 "새천년의 한러관계: 한러수교 10주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회의는 대한매일신보사와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하고, 연구소와 러시아 극동국립대 한국학대학이 주관하였습니다. 2004년 9월 7일에는 외교안보연구원과 "동북아의 지역협력"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변화와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04년 당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정책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1일 미국의 대테러 전쟁 및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의식변화 등 한미관계의 현안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적 동맹관계의 방향과 추진방안 등에 관한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 23일에는 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반도평화연구회(KOR-US)와 협력하에 전환기 한미관계의 현안과 문제점 및 발전적 동맹관계의 추진방안을 논의를 위한 제2차 한미관계 비공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지면서 2005년 2월 20일 한반도평화연구회(KORUS)와 공동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한·미 국민들의 동맹에 대




"북한인권 개선과 국제협력" 국제심포지움 (2006.11.30)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국제학술회의 (2007.11.19)

한 의식변화, 북핵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정책 갈등,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등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해 12월 29일 "북핵 실험 후 북미관계"를 주제로 제5차 한미관계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1월 19일에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주제로 200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관련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검토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로버트 갈루치(미국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학장)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개별국가 및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동향을 객관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에서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공통적 인식의 장을 넓히고 북한인권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1) 남·북·중 국제학술회의

연구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 간 학술교류를 통해 화해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북한, 중국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로 경제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길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북 학자 간 세미나의 지속성과 성공 여부는 늘 남북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남북 학자 간 비교적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가 잘 이뤄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접촉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2004년에 이어 2005년 6월 4일-5일 양일간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중국 북경대 동북아연구소, 중화문화교류와 합작촉진회와 공동으로 중국 북경대에서 "근현대 동북아국가발전의 회고와 전망"




남·북·중 공동 국제학술회의 “근현대 동북아 국가발전의 회고와 전망” (2005.6.4-5)

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송동근 조선사회과학원 김일성동지혁명역사연구소 소장, 김춘근 김일성종합대 철학학부장 등 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어 2006년 8월 21일-22일 중국 북경대에서 북경대 동북아시아연구소,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화문화교류협력추진회 등과 공동으로 제3차 남·북·중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리암송(중국 북경대 국제협력부장), 윤대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윤우철(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장소홍(중국 중화문화교류협력추진회 부사무총장), 송성유(중국 북경대 동북아시아연구소 소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남·북·중 국제학술회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04.08.25.-08.26. | 남·북·중 국제학술회의 (1)<br>항일건국이상과 동북아시아국가의 개혁발전<br>The Idea of Anti-Japanese State-building and Reform and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 중국 북경대 |
| 2005.06.04.-06.05. | 남·북·중 국제학술회의 (2)<br>근현대 동북아 국가발전의 회고와 전망<br>The Review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 중국 북경대 |
| 2006.08.21.-08.22. | 남·북·중 국제학술회의 (3)<br>항일전통, 민족문화와 사회발전<br>Traditions in War of Resistance, National Culture, and Social Development | 중국 북경대 |
| 2007.08.09.-08.10. | 남·북·중 국제학술회의 (4)<br>항일의 역사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 중국 북경대 |

2007년에는 북한의 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 단장: 송동원), 중국의 북경대 동북아연구소(소장 송성유)와 공동으로 8월 9일-10일 양일간 중국 북경대에서 "항일의 역사와 동북아시아 번영: 회고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4차 남·북·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개최된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의 독립투쟁운동과 중국의 반제국주의 항쟁의 기폭제가 된 '중·일전쟁'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항일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찰하였습니다.

**2) 미국 조지타운대·한국언론재단과의 공동세미나**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명하고, 특히 한국 및 미국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언론재단, 미국 조지타운대와 함께 연속적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이 회의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북미협상 및 남북협상에 대한 한국 및 미국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 학자 및 언론인들이 참석하여, 정책 제안과 토론을 하는 학술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2001년, 2002년에 이어 2005년 미국 국무부 인사를 포함해 워싱턴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02년은 북한연구의 기초를 닦은 것은 물론 화해·협력에 바탕을 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연구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해 5월 23일-24일 미국 조지타운대,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2년간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북미 간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의 미국 측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국제대학원장, 클린턴 행정부 북미 대화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 미사일전문가회담을 이끌었던 로버트 아인혼(Robert J. Einhorn)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 상임고문) 등이 참가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2005년 5월 17일에는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여론형성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인들을 초청해 한미언론인들의 한미관계 인식, 한미언론의 보도태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한반도 여론




미국 조지타운대·한국언론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2년간의 성과와 전망" (2002.5.23-24)




한국언론재단 공동 학술회의 "미국의 대한반도 여론형성과 한미관계" (2005.5.17)

형성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전망하였습니다. 한미 간의 인식 차이를 진지하게 고찰하고 한미관계의 환경적 요소의 변화,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인식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 점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6년 10월 19일에는 미국 조지타운대,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중일갈등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한국언론재단과의 공동세미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02.05.23.-05.24. | 미국 조지타운대, 한국언론재단 공동 주최<br>연구소 개소 30주년-대학원 개원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br>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br>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mmit:<br>Two Years of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 롯데호텔 |
| 2005.05.17. | 경남대-한국언론재단 공동 주최 학술회의<br>미국의 대한반도 여론형성과 한미관계<br>U.S.Public Opinion Regarding the Korean<br>Peninsula & ROK-U.S. Relations | 프레스센터 |
| 2006.10.19. | 조지타운대 공동 학술회의<br>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중일갈등과 한미관계<br>Northeast Asian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br>Sino-Japanese Rivalry and U.S.-ROK Relations | 미국 워싱턴 D.C.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국제학술회의 (200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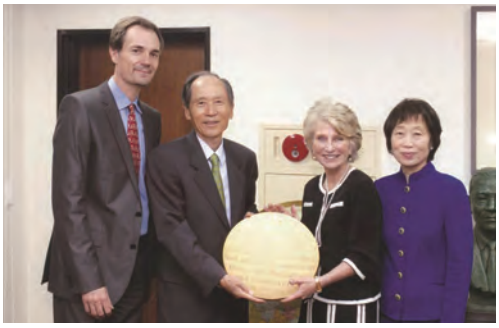
**3)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정례 학술연구교류**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는 2005년부터 냉전사, 한반도 평화·통일분야 등에 대한 공동학술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북한대학원대와 함께 워싱턴포럼을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핵문제, 한미관계 등 현안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워싱턴의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사회과학분야 최고 연방의회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는 1968년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을 통해 미국의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역사, 정치, 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연간 60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입니다.

2008년 5월 1일 북한대학원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주제로 경남대 개교 6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때에 한미 관계의 방향과 미래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미래 및 남북관계가 지역의 안정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그 밖의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과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에 관한 각국의 시각을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국제학술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09년 6월 4일 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 화동사범대,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워크숍이 중국 화동사범대 뉴캠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중국-북한, 중국-미국 관계 및 한반도 문제, 북한의 대외 관계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고 국제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6월 5일에는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을 방문해 "오바마시대 미중관계와 동북아안보"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시대에서의 중미관계와 동북아시아의 협력 및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21일에는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협력: 도전과 과제 Korea-US Cooperation: Challenges and Tasks"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까를로스 구티에레스



연구소를 방문한 제인 하먼 우드로윌슨센터 회장이 Martin L. King 목사의 유명한 어록이 담긴 기념품을 전달 (2012.4.23)

(Carlos Miguel Gutierrez) 전 미국 상무장관을 초청하여 한미협력에 대한 기조연설을 청취하고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상호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0년 1월 29일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당면한 국가들의 역할과 해결책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연구소는 북한대학원대와 함께 북한 국제문서조사사업(NKIDP: The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및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A Critical Oral History"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술회의에서는 데탕트 시대에서의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그리고 남북한의 국내정치에 대한 저명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문제의 해결점에 다가설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어 2011년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드로윌슨센터와 함께 "The Korean Peninsula after Détente, 1973-1976: A Critical Oral History"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2일에는 "Security and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2차 IFES-WWICS 워싱턴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2006년 5월 11일 연구소는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동 센터에서 15년 동안 추진해 온 '냉전사 프로젝트(The Cold War History Project)' 중 북한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워싱턴포럼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2010.1.29)

으로 "냉전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은 북한과 구 공산권(헝가리) 및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룬 해당 국가의 문서고(archives)에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그에 기초해서 북한과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냉전시대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6일에는 "남북한의 자주적 안보연구: The Quest for Self-Reliant Security in the Two Koreas, Then and Now"를 주제로 워싱턴 D.C.에서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냉전기 남북한의 대외관계 관련 연구성과를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국제적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5월 2일 "냉전과 한반도: 냉전기 남북한의 대외관계와 국제냉전사적 의의"를, 같은해 9월 8일-9일 양일간은 "한반도 위기와 대립: 1968-69"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공동 워크숍은 매년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열렸습니다.

2015년 8월 28일-29일 동안에는 "Nuclear History in the Asia-Pacific"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경남대와 우드로윌슨센터가 201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핵 역사 부트캠프(Nuclear History Boot Camp) 개최를 앞두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20명이 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 전문가들과 함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트캠프는 핵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신진학자 교육을 위해 윌슨센터가 2011년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한 집중훈련과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The Asia-Pacific Nuclear History Institute (APHNI)" (2016.11.5-12)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국제냉전과 남북한" (2008.9.8-9)




"아태지역의 핵무기 역사" 부트캠프 (2018.3.4-10)

정으로, 한국에서는 경남대가 2016년에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냉전과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은 7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냉전을 신진학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라스테이 광화문에서 부트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7일간 15명의 세계 각국의 교수진과 18명의 석·박사생 연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아태지역의 핵무기 역사, 핵기술의 발전, 국가별 심층분석, 아카이브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연속적인 사업으로써 연구소는 한국냉전학회·북한대학원대와 공동으로 3월 30일 "냉전, 두 세계 사이에서: 정보, 스파이, 삶"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6일에는 "냉전의 과학, 기억 그리고 체제"를 주제로 냉전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미국, 소련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에너지 분야에서 냉전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접경지역과 분단 전시 시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분단이 기억되고 기록되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정례 학술연구교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06.05.11.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 - 냉전사(1)<br>냉전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br>Foreign Relations of the Two Koreas during the Cold War Era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06.09.06.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 - 냉전사(2)<br>남북한의 자주적 안보연구<br>The Quest for Self-Reliant Security in the Two Koreas, Then and Now | 미국 워싱턴 D.C. |
| 2007.05.18.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3) - 냉전사(3)<br>냉전과 한반도: 남북한의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br>The Cold War and the Korean Peninsula:<br>The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 중국 북경대 |
| 2007.09.21.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4) - 냉전사(4)<br>The Cold War and the Korean Peninsula:<br>State Formation and Foreign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 미국 워싱턴 D.C. |
| 2008.05.02.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5) - 냉전사(5)<br>국제냉전과 남북한<br>The Cold War and the Two Koreas<br>냉전기 남북한의 대외관계와 국제 냉전사적 의의<br>ROK&DPRK Cold War Era Foreign Relations and its Significance to<br>International Cold War History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08.09.08.-09.09.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6) - 냉전사(6)<br>국제냉전과 남북한<br>The Cold War and the Two Koreas<br>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br>1968-1969, A Critical Oral History | 미국 워싱턴 D.C. |
| 2009.06.04.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7)<br>Sixty Years of Sino-DPRK Relations | 중국 상해 |
| 2009.06.05. | 우드로윌슨센터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공동 학술회의<br>The Current Security Issue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br>China-US Relations and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in the Obama Era | 중국 상해 |
| 2009.09.21.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포럼 (8)<br>한·미 협력관계: 도전과 과제<br>The Korea-US Cooperation: Challenges and Tasks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0.01.29.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9) - 워싱턴포럼 (1)<br>1st IFES/UNKS Washington Forum at the WWC<br>"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미국 워싱턴 D.C. |
| 2010.07.01-07.02.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포럼 (10) - 구술사(1)<br>The Rise and Fall of Detente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br>A Critical Oral History | 미국 워싱턴 D.C. |
| 2011.10.31.-11.01.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1) - 구술사(2)<br>The Korean Peninsula after Detente, 1973-1976:<br>A Critical Oral History | 미국 워싱턴 D.C. |
| 2011.11.02.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2)-워싱턴포럼 (2)<br>2nd Washington Forum:<br>Security and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 미국 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12.11.26.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3)-냉전사(7)<br>Workshop on the Cold War & the Korean Peninsula | 미국 워싱턴 D.C. |
| 2012.11.27.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4)-워싱턴포럼 (3)<br>3rd Washington Forum: Regional Dynamics and Inter<br>- Korean Relations, Past and Present | 미국 워싱턴 D.C. |
| 2013.06.14.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5)-워싱턴포럼 (4)<br>4th Washington Forum: Leadership Changes in East Asia<br>- How Do They Affect the Koreas? | 미국 워싱턴 D.C. |
| 2013.12.03.-12.04.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6)-구술사(3)<br>The Carter Chill: US-ROK-DPRK Trilateral Relations, 1976-1979 | 미국 워싱턴 D.C. |
| 2014.12.05.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7)-워싱턴포럼 (5)<br>5th Washington Forum: Marketization, Social Change,<br>and the Impact of the Korean Wave in North Korea | 미국 워싱턴 D.C. |
| 2015.08.28.-08.29. | IFES-WWC 부트캠프 워크숍(1)<br>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워크숍(18)<br>Workshop on Nuclear History in the Asia-Pacific | 서머셋팰리스 서울 |
| 2015.11.10. | Korea Global Forum 2015: 미국회의<br>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워크숍(19)<br>미국과 동북아관계에 대한 한반도 통일의 정치, 안보 경제적 영향<br>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Impacts of Korean Unification on<br>Relations with the U.S. and on Northeast Asia | 미국 워싱턴 D.C. |
| 2015.12.11.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0)-냉전사(8)<br>역사적 맥락에서 본 남북한 관계<br>Inter-Korean Relations in Historical Context | 미국 워싱턴 D.C. |
| 2016.04.19.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1)-냉전사(9)<br>냉전과 두 개의 한국<br>The Cold War and the Two Koreas | 미국 워싱턴 D.C. |
| 2016.11.05.-11.12. | IFES-WWC 부트캠프 워크숍(2)<br>우드로윌슨센터 공동국제워크숍(22)<br>The Asia-Pacific Nuclear History Institute (APHNI) | 경기도 파주 |
| 2018.02.12.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3)-냉전사(10)<br>2018년 한반도 냉전사 워크샵: 냉전과 한반도<br>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ld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8.03.04.-03.10. | IFES-WWC 부트캠프 워크숍(3)<br>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24) | 경기도 파주 |
| 2018.11.16. |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5)<br>한국 현대사 워크샵<br>Workshop on Contemporary Korean History | 미국 워싱턴 D.C. |
| 2020.02.06. | 한국냉전학회 주관,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워크숍<br>냉전의 과학, 기억 그리고 체제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4) 일본 가나가와대·게이오대 공동세미나

연구소와 일본 가나가와대는 오랜 파트너입니다. 2000년부터 가나가와대와 파트너십을 맺고 연례적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게이오대와 한일관계의 재정립은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협력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학술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연구소와 북한대학원은 가나가와대와 맺어진 학술교류협정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첫 번째 국제학술회의를 2000년 5월 25일-26일 이틀간 일본 동경에서 "새천년의 한일관계"를 주제로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무라야마 전 일본 수상과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이 "새천년의 일본과 한반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12일-13일 연구소는 북한대학원, 가나가와대 국제교류센터와 공동으로 "동북아 질서의 재구축"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2005년 11월 24일-25일 이틀간 연구소와 가나가와대는 "동아시아의 협조체제를 위해"라는 주제로 제7회 한·일·중 국제교류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5일에는 "동아시아 공동체: 갈등을 넘어 상생과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동아시아에서의 화해와 상생을 탐구하는 자리였습니다.

2016년 3월 25일에는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소 연구진은 오코노키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본의 전·현직 외교·안보 관련 당국자 등을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토자키 히로시(일본 국제문제연구소), 히라이 히사시(리츠메이칸대) 등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대 공동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질서의 재구축" (2001.10.12-13)




일본 게이오대 공동 심포지엄 "새로운 전화기를 맞고 있는 김정은 체제" (2016.3.25)

## 일본 가나가와대·게이오대 공동세미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00.05.25.-05.26. | 가나가와대 북한대학원 공동 국제학술회의 새천년의 한일 관계<br>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w Millennium | 일본 도쿄 및 요코하마 |
| 2001.10.12.-10.13. | 가나가와대 북한대학원 공동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질서의 재구축<br>The Re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n Order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05.11.11. | 개교 60주년 기념 가나가와대 공동 한·일·중 국제학술세미나<br>세계화시대의 동아시아 법과 정치·경제 | 마산 본교 |
| 2006.11.24.-25. | 2006 한일중 국제교류 심포지움 동아시아의 협조체제를 위해:<br>정치, 법, 경제 및 사회학적 시점에서 | 일본 가나가와대 |
| 2010.10.22. | 가나가와대 공동 한일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지역 협력과 공동체 구상 | 일본 가나가와대 |
| 2013.02.15. | 제8차 가나가와대 공동세미나(비공개)<br>동아시아 공동체: 갈등을 넘어 상생과 번영으로<br>Northeast Asian Community: Overcoming Conflict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13.12.06. | 가나가와대 아시아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br>아시아 패러다임 전환: 협력과 공생의 길을 묻는다.<br>Paradigm Shift in Asia: Path toward Cooperation and Co-existence | 일본 가나가와대 |
| 2016.03.25. | 연구소-일본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공동 심포지엄<br>새로운 전화기를 맞고 있는 김정은 체제 | 일본 게이오대 |
| 2017.11.08. | 연구소-일본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공동 심포지엄<br>북한의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일본 게이오대 |

### 5) 한국수출입은행과의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의

2005년 이후 북한은 인도적 지원보다 개발협력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제 및 사회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잘 조율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북한 또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발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소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개발협력과 경제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주요 쟁점 및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해 왔습니다.

2006년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을 위한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7월 6일-7일 이틀간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 회의에서는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현안과 제안"에 대해 선준영 전 유엔대사의 사회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정무관(주한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이 "북한 경제변화와 국제개발협력"을, 루디어 프랭크 교수(오스트리아 비엔나대)가 "대북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 모색"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제2회의는 "북한개발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현정택 KDI원장의 사회로 에릭 와인가르트너 대표(와인가르트너 컨설팅)가 "북한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방안"을, 아카츠카 유조 교수(일본 도쿄대)가 "북한의 ADB 가입: 도전과 기회"를, 다니엘 머로우 교수(미국 조지워싱턴대)가 "세계은행의 북한 원조:쟁점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3회의는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 향후 과제"에 김광림 전 재경부 차관의 사회로 라이 홍이 교수(싱가포르국립대)가 "중국의 경제특구 및 해외투자:경험 및 교훈"을, 이근 교수(서울대)가 "북한의 도약형 경제개혁 가능성: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배종렬 선임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을 주제




한국수출입은행 공동 국제심포지엄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2006. 7. 6-7)

**한국수출입은행과의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05.07.06.-07.07.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대학원대 공동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1)<br>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신라호텔 |
| 2006.07.06.-07.07.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2)<br>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조선호텔 |
| 2007.11.29.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3)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08.11.27.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4)<br>북한체제의 미래전망과 남북/국제협력 추진전략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0.11.25.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5)<br>북중경제관계와 주변국의 시각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3.11.19.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을 위한 워크숍 (6)<br>한국수출입은행 공동 국제학술회의<br>동북아평화증진과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b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hancing Peace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s Development | 콘래드 서울 |

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7일 제4회의에는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고경빈 단장(통일부 개성공단지원사업단)과 임을출 교수(경남대)가 "개성공단을 둘러싼 현안과 국제협력 과제"를,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개성공단과 한미FTA"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9일에는 "동북아 평화증진과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시각과 전략을 다루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입장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 중에는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자문위원, 디팍 미쉬라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로스카 나기 유럽부흥개발은행 국가전략정책 소장, 자호후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이소자키 아츠히토 게이오대 교수,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원 원장, 멜빈 거토브 포틀랜드주립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경제개발 평가와 국제 개입 전략"을 주제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계획: 글로벌 관점과 대응,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북한의 경제특구: 주변국들의 역할, 북한의 경제 기반 개발: 한중러 삼각협력,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제 개입 전략 등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학술회의를 통해 관련 정부 및 기관,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시각과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개발기구들의 지원하에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논의되었고 북한의 경제 개발과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대별 개관

## 2010년대 해외 학술회의 및 전략대화 확대

2010년은 남북관계 측면에서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차원에서 최악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하여 퇴보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전면 차단되었고, 한반도에는 새로운 전쟁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었으며, 동북아에는 과거 냉전기와 유사한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핵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어 우라늄농축 시설까지 공개되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열리고 오랜 휴업상태에 빠진 6자회담은 재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합이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도 연구소는 북한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북한 장마당 새 세대 등 새로운 연구주제와 대상에 주목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대에는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경남은행, 대만 담강대, 대만 중국문화대, 일본 소카대 등과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재단과 공동으로 2010년 2월 4일-5일 이틀간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다각적인 토론과 탐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제1회 북




"북한과의 비즈니스: 기회와 도전" 국제학술회의 (2015.1.28)




"동아시아 안보질서 속의 한국과 대만" 국제학술회의 (2016.4.5)

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관련 정부 및 기관, 국제기구, NGO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북공여자로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향후 국제적 차원의 대북지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중국 북화대 동아연구센터를 방문해 "한반도 정세와 한·중 협력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소 연구진과 북화대 연구진들이 머리를 맞대며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분석하고 대북한, 대중국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2015년 여전히 남북관계는 엄혹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및 연변대와 함께 3개 기관 공동 주최 학술회의뿐 아니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과 함께 통일·북한 문제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은행 후원으로 "북한과의 비즈니스: 기회와 도전(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국제학술회의는 북한 현지에서 실제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귀중한 경험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석한 기업인들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고, 그간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주한 외교사절 등을 포함해 많은 청중이 참석해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기획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사람들, 특히, 북한 사회의 '새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2015년 6월 23일에는 미국민주주의재단 후원으로 "북한 장마당 새 세대: 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North Korea's 'Jangmadang' New Generation: Who Are They and What Is Their Impetus for Change?)"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의 새 세대를 둘러싼 인구학적인 변화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과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2016년 4월 5일 대만 담강대 국제연구학부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안보질서 속의 한국과 대만"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술회의를 통해 양 기관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과 대만의 국내정치적 동학,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변화,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안정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학술토론을 펼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5일에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국제학술회의에는 드미트리 키쿠와 닐 와츠 UN 전문가 패널, 윌리엄 뉴컴 존스홉킨스대 방문학자를 비롯, 외교부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략과 현지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북한의 이동, 북한 사람의 이주(Mobile North Koreans in a Global Age: Trajectories of Displacement, Settlement, and Bordercrossing)"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현상과 이주 이후 그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집중하던 사이 북한 내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의 도입에 힘입어 현대화,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한 시장화를 넘어 새로운 소비문화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안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6월 14일 "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문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국제학술회의는 북한 변화 현장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북한 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제1회의에서는 "새로운 북한 비즈니스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채드 오캐럴 대표(NK News),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연구실장(조선익스체인지)이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금융, 소비문화 및 국산화"를 주제로 한 제2회의에는 마이클 스페이버 대표(백두문화교류), 최문 교수(연변대), 임을출 교수(경남대)가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8일-11일 기간에는 일본 동경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과의 의견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소 연구진은 일본 방문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게이오대 현대한국학연구센터와 공동 심포지엄을 주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8일에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FNF)와 함께 "한반도 전환기의 교류와 협력: 경험과 새로운 방향"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전환기에 접어든 남북한 역학관계를 평가하며,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다방면의 문화 교류를 이해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제1회의에서는 에이든 포스터-카터 리즈대 명예교수가 "화해의 일년을 평가하며: 남북 관계와 햇볕정책의 교훈"을 주제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남북 관계와 평화로의 여정: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계획, 제약조건,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 북한대학원대 30주년 기념, 『Asian Perspecitve』 창간 4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9.9.23)

판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제2회의에서는 버지니 그레젤직 애스턴대 교수가 "북한과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해: 양상, 활용,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김동선 경기대 교수가 "스포츠외교 2018: 남북 스포츠교류의 가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딘울렛 경남대 교수가 "북한과의 교류: 관광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FPRI연구원이 '남북한 경제교류 바로보기: 원대한 꿈일까 혹은 그 부작용에 관하여'를 발표하여 많은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9년은 연구소 47주년 및 북한대학원대 30주년, 연구소 발간 SSCI 영문 학술지 『Asian Perspective』 창간 42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9월 23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 좌담회에서 칼라 프리만(Carla P. Freeman)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 알렉산더 제빈(Alexander Zhebin)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주한 외교 사절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1) 한반도국제포럼(KGF)

한반도국제포럼(KGF)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및 지지 제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각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창설 이래 매년 한·미·일·중·러·유럽·아시아 등 주요 10여 개국의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다자협의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연구소는 2015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KGF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 2015년 연구소는 통일부와 공동으로 '한반도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분단 70주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서울회의와 미국(워싱턴 D.C.) 회의, 유럽(벨기에 브뤼셀)회의로 이뤄졌습니다. 이 포럼은 분단 70년을 맞은 한반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심도깊게 논의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 30일 열린 서울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24명을 포함, 주한 외교사절·전문가·일반청중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성 김(Sung Kim)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국에서는 팡 쿤(方坤) 외교부 아주국 제1과장, 호주에서는 존 랭트리 외교부




"미국과 동북아 관계에 대한 한반도 통일의 정치, 안보 경제적 영향" 2015 한반도국제포럼: 미국 회의 (2015.11.10)




"정전 65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2018 한반도국제포럼: 서울회의 (2018.6.27)

북아시아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 독일 대사, 크쉬슈토프 마이카(Krzysztof Ignacy Majka) 주한 폴란드 대사, 올레그 다비도프(Oleg Davydov) 주한 러시아 부대사, 카나스기 켄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 주요 나라 외교관들도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유럽회의는 유럽 정치의 중심지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10월 1일 개최되었습니다. "분단 70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EU의 역할"을 대주제로 한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이슈 해결"을 주제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한국의 관점에서, 니르 데바(Nirj Deva)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이 EU의 관점에서 각각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미국회의는 2015 한반도국제포럼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로, 북한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관·학계 전문가 등 140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핵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빌 리차드슨(Bill Richardson)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6자회담 수석대표는 오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서 7회에 걸쳐 국제학술회의를 진행했습니다. 6월 27일 서울에서 "정전 65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이틀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타마라 트로야코바(Tamara Troyakova)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 장혜지(張慧智) 중국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2018 KGF"에는 이수혁 국회의원, 손재식, 송정호, 조완규, 박호군 전 장관, 정종욱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준위




"북한·통일학 신진학자포럼" 2018 한반도국제포럼 (2018.7.5)

〈2020-21 한반도국제포럼(KGF)〉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2021.8.31)

부위원장), 황진하, 송영선 전 국회의원, 이대순 이사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주한 외교 사절, 각 계각층의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2018 한반도국제포럼(KGF): 일본회의"는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현대한국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5월 31일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을 비롯해 하세야마 아키라(長谷山彰) 게이오대 총장,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등이 참가했습니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를 주제로 열린 일본회의에는 이대순 경남대 이사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바바 요시히사 소카대 총장, 마키우치 요헤이 가나가와대 이사장, 미도리카와 히로시 동일본국제대 이사장, 오구라 카즈오 전 주한 일본대사 등을 비롯해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연구자 및 우리 교민들과 게이오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8 한반도국제포럼(KGF): 카자흐스탄 회의"는 민주평통 중앙아시아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1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9월 15일에는 중국 베이징 중국인민대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한중협력"을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2018 KGF 다섯 번째 행사로 열린 중국회의에는 닝푸쿠이(寧賦魁)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 양광빈(楊光斌)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중국 국무원 외교고문을 겸임

##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15.06.30. | Korea Global Forum 2015<br>분단 70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br>70 Years of Division: Past, Present, and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 신라호텔 |
| 2015.10.01. | Korea Global Forum 2015: EU회의<br>분단 70년: 한반도 미래를 위한 EU의 역할<br>70 Years of Division:<br>The Role of the EU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br>-Learning After 25 Years of German Reunification | 브뤼셀<br>유럽의회 |
| 2015.11.10. | Korea Global Forum 2015: 미국회의<br>우드로윌슨센터 공동 국제워크숍(19)<br>미국과 동북아관계에 대한 한반도 통일의 정치, 안보 경제적영향<br>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Impacts of Korean Unification<br>on Relations with the U.S. and on Northeast Asia | 미국 워싱턴 D.C. |
| 2018.05.18. | 2018 KGF: Kazakhstan<br>한반도의 평화와 미래, 디아스포라 역할 | 알마티<br>카자흐스탄국립대 |
| 2018.05.31. | 2018 KGF: Japan<br>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 | 일본 게이오대 |
| 2018.06.27. | 2018 KGF: Seoul<br>정전 65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br>The 6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br>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신라호텔 |
| 2018.07.05. | 2018 KGF: Seoul<br>북한·통일학 신진학자포럼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8.09.15. | 2018 KGF: China<br>한반도 신경제구상,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한·중협력 | 중국인민대 |
| 2018.10.02. | 2018 KGF: Germany<br>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 독일 베를린자유대 |
| 2018.11.15. | 2018 KGF: United States<br>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br>A New Path Forward:<br>Charting a Roadmap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미국 워싱턴 D.C. |
| 2020.09.08. | 2020 KGFP<br>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br>"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 성과 평가와 전망" | 신라호텔 |
| 2021.08.31. | 2021 KGFP<br>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 전경련회관 |

하고 있는 스인홍(時殷弘)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학술위원장, 안국산(安国山)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중심 경제연구소 소장 등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비롯해 현지 유학생과 교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한반도 국제포럼 미국회의"는 11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18 KGF 마지막 행사인 미국회의에는 박재규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북한·통일학 신진학자포럼"을 7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대진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지금까지 남북한 간 체결된 합의서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했고, 도지인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사회주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용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남북한 간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의 발표에 대해 김연호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Martina Sophie Aberg Somogyi 스웨덴 외교부 1등 서기관, Lyubov Nikolaevna Yakovleva 러시아 모스크바대 박사과정생이 지정 토론하였습니다.

2018 KGF 일환으로 진행된 북한·통일학 신진학자포럼에는 지정토론자 3명을 포함해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21명의 해외 신진학자들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소는 2020년 9월 8일 "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 성과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통일부가 주최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2020)의 세션을 주관하였습니다. 이관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션에서 임을출 교수가 '정면돌파전의 경제분야 평가와 전망'에 대해, 김동엽 교수가 '정면돌파전의 외교군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이정철 숭실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세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8월 31일에는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을 주제로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2021)'의 세션을 주관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인 에바 모틸리스카(Ewa Motiylińska)와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가 각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조진구, 이병철 교수와 초빙연구위원인 엄빠벨(Pavel Em)과 량미화(梁美花)가 각각 토론했습니다. 이 세션은 동북아 및 글로벌 현안이자 핵심과제인 북핵 문제와 미래 문제인 생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전략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2) 한국(경남대)·일본(소카대)·대만(중국문화대) 3개 대학 평화포럼

경남대와 소카대, 중국문화대는 동아시아 평화연구 활성화 및 3개국 간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순번제로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 하치오지시에 위치한 소카대는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창가학회) 회장에 의해 지난 1971년 설립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명문사학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문화대는 1962년 설립돼 법대, 예술대 등 12개 단과대학을 운영 중인 대만 명문대입니다. 경남대, 일본 소카대, 대만 중국문화대는 매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학술 교류를 꾸준히 증진시켜 왔습니다.

2017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첫 평화포럼은 "아시아 평화 커뮤니티 구축"을 주제로 열렸으며, 2018년 평화포럼은 "양안관계 및 동아시아 발전 전망"을 주제로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9 평화포럼은 제주도에서 "동아시아의 갈등, 협력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5월 15일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협력', '대만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 각 세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포럼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바바 요시히사 소카대 총장, 차오 치엔민 중국문화대 사회과학대학장, 김봉현 제주평화연구원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전 주미대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전 통일부 차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등 한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 30여 명을 비롯해 제




한국(경남대)·일본(소카대)·대만(중국문화대) 공동 평화포럼 "동아시아의 갈등, 협력 그리고 평화" (2019.5.15)

**한국(경남대)·일본(소카대)·대만(중국문화대) 3개 대학 평화포럼**

| 개최일자 | 발표주제 | 장 소 |
|---|---|---|
| 2017.09.08. | 오키나와 평화포럼(Peace Forum in Okinawa 2017)<br>아시아 평화 커뮤니티 구축<br>Building a Peace Community in Asia | 일본 오키나와 |
| 2018.10.07. | Taiwan/Japan/Korea Peace Forum 2018<br>양안관계 및 동아시아 발전 전망<br>Prospects of Cross-Strait Relations and East Asian Development | 대만 중국문화대 |
| 2019.05.14.-05.17. | Peace Forum 2019<br>동아시아의 갈등, 협력 그리고 평화<br>Conflict, Cooperation, and Peace in East Asia | 제주 한국SGI |
| 2020.12.12. | Peace Forum 2020<br>회복력 있는 세계를 위한 창조적 협력<br>Creative Collaboration for a Resilient World | 온라인회의 |
| 2021.12.10. | Peace Forum 2021<br>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 수립<br>Building a Better East Asian World Order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 온라인회의 |

주도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2일에는 일본, 대만지역 대학교와 함께 "회복력 있는 세계를 위한 창조적 협력"을 주제로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21년에는 '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수립'을 주제로 한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 공동 국제학술회의는 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대만의 관점', '일본의 관점', '한국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 3) 일본·중국 주요 기관과의 전략대화

비공개 전략대화는 급변하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고 한·중, 북·중, 미·중, 중·일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한반도 주변 관련국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건설적인 구축을 논의하면서, 현지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연구소 간 유대관계를 심화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4일 연구소는 동북아 시대 지역 질서의 핵심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거시적인 전략을 영역별로 분석하고, 중국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략대화(비공개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6월 1일에는 대만 NSC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동북아 국제협력 및 한반도 평화문제를 중심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주관으로 Alan

Romberg(Senior Associate of The Henry L. Stimson Center) 박사를 초청하여 "The Future of U.S.-Korea Alliance"에 관한 주제 발표 후 내부 연구진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8년 7월 8일에는 연구소와 아시아재단 공동 주최로 북한 현안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1월 11일에도 아시아재단과 공동으로 "북한 경제실태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에 대응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나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민주당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출현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북한의 경제개선을 위한 대외적 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이 처한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북한 경제상황의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31일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대표단과 비공식 전략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포괄적인 질의응답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점에 다가서는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16일 연구소는 NSDP 평양프로젝트 연구소 방문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서방 청년학술동맹의 평양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한 21명의 미국, 캐나다의 학생들과 관련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17일에는 주한미군(CFC/USFK) 산하 전략분석팀(C/J 5 division)과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경제상황, 북중관계 및 대북정책 등 관련주제들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및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였습니다. 6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미국 및 아시아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중국, 파키스탄, 대만, 미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에서 11명의 언론인이 참가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일본 와세다대 한국연구센터를 방문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어 일본 내 북한연구자들의 대표적인 모임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및 한반도문제연구회 회원들과의 비공개 전략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화하는 동북아의 정세를 파악하고 특히 한일, 북일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였습니다.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유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



일본 와세다대·동아시아무역연구회·한반도문제연구회 전략대화 (2014.6.17)

습니다. 9월 17일-20일 4일간 중국 북경에 머물며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전략연구원 및 국제우호연락회, 기타 유관 연구소들과의 세미나 등 전략대화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세르게이 이바네츠 러시아 극동대 총장이, 4월 24일에는 Boris Michael ICRC 본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등이 연구소를 방문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지역 정세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ICRC는 1863년에 설립된 국제적십자운동의 모체로 전 세계 80여 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에는 류세충(Liu Shih-Chung) TBT(Taiwan Brain Trust) 선임정책고문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TBT는 2010년에 개소한 대만 민진당 싱크탱크로 외교통상, 안보, 양안관계, 동북아 정세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8월 10일-12일 사흘간 중국 북경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과 연변대 한반도문제연구소와 3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중국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 및 미·중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에서 KDI SCHOOL·요녕성 사회과학원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단동에 위치한 요동학원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 및 북·중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0일 "2016년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한일 전문가 토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연구소 연구진과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일관계, 한국의 정치 및 외교정책, 북한의 4차 핵실험, 북한정세, 남북관계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3월 23일에서 26일까지 연구소 연구진들이 일본을 방문해 현지 전문가들과 한반도 및 북한 문제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일본경제신문(Nikkei),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와 국제문제연구소(JIIA) 등을 방문하여 비공개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소 연구진은 오코노키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본의 전현직 외교안보 관련 당국자 등을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대미 공공외교 관련 미국 전문가 Shannon Tiezzi 『The Diplomat』 편집장과 Adam Mount 미국 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이 5월 11일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Michael Fuchs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5월 17일 연구소를 방문하여, "U.S. Presidential Election 2016 and U.S. Foreign Policy"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월 7일에는 츠치야마 지츠오 교수(아오야마가쿠인대) 등을 비롯한 총 11명의 일본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함께 한미관계,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연구소는 KDI SCHOOL과 공동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길림대 동북아연구원과 연변대 조선한국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중국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현황, 동북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전략대화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갖는 함의와 동북아 변화의 전망,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간 협력과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



러시아 극동대 세르게이 이바네츠 총장 (2015.4.23)



일본 정치외교 전문가 간담회 (2016.9.7)

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중국 사회과학원과 중앙당교 및 상해 국제관계연구원, 복단대를 방문하여, 한·미·중 전략적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북경·상해 전략대화를 통해 한중 간 학술적 교류를 도모하고, 북한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중국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딜레마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활발하게 토론하였습니다.

2017년 2월 8일 스웨덴 국회의원 및 관계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웨덴 국회의원 소피아 아켈스텐과 젠 안더슨, 주한 스웨덴 대사 앤 호글런드 등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세변화를 둘러싼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핵문제 대응, 한일관계 개선방향, 스웨덴의 난민법, 북한과 스웨덴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심양, 단둥 지역을 방문해 요녕대, 요동대의 전문가들과 동북아지역 관광 교류협력의 현황, 과제 및 전망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단둥시 등과 접한 북한 지역(신의주 등)을 관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뤄지는 가운데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복단대와 남경대 국제관계학원을 방문하여 동북아의 리더십 변화와 각국(미·중·일·남·북)의 대응방안 모색과 운명공동체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개척 두 주제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연구진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국무원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CIIS)에서 중국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대외정책, 특히 동북아 정세 및 북핵문제 등을 중심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10월 27일 중국 민족대와 공동으로 "한중관계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일본 평화안보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RIPS)의 연구진이 9월 4일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Jitsuo Tsuchiyama(RIPS Fellowship Program Director) 외 12인이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Korean Affairs"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 관련 주요 동향에 대한 평가, 북한 내부 변화, 한국의 대북·외교안보 정책, 북일관계 정상화 등에 관해 연구소 교수진과 상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19년에도 연초부터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1월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연구자들은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내용, 동북아 정세 및 한일관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교수,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등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다시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연구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교수,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구라타 히데야 방위대 교수, 후루카와 카츠히사 전 UN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위원회 위원,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이이무라 토모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소는 매년 수 차례에 걸쳐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 주관 하에 연구소를 방문한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6월 7일에는 중국 화교대 국제관계학원 연구진과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관세 소장을 비롯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진은 린훙위 국제관계학원장 등 화교대 연구진과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그리고 한중관계"를 주제로 비공개 좌담회를 진행하고, 양 대학 간 교류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진 방문 (2019.8.13)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해외 학술연구기관과의 대면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규모있는 전략대화 개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비대면 형식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략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4) 캐나다대사관 등 주한 외교사절단과의 정례 공동세미나·비공개 간담회

2015년부터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공동으로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북한의 정치·군사, 경제, 인권과 남북관계, 지역 안보를 주제로 한 비공개 세미나를 공동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돈독한 협력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소속의 북한 담당관들이 회원이 되어 정례적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한 동향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온 것입니다.

이는 2015년 이전부터 캐나다대사관과의 교류에 따른 신뢰에 기초해 만들어진 파트너십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공동으로 "북한의 환경파괴와 식량안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퍼스트스텝(First Steps) 수잔 리치(Susan Ritchie) 대표는 2001년 이래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고아원과 탁아소 아이들의 영양실조 해소와 식량지원을 해 왔으며 그동안 수집한 북한방문 사진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북한 식량문제와 환경파괴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2013년 10월 30일에는 미국 의회조사처 인사들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연구소와 국회입법조사처, 북한대학원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남북관계 현안, 한반도 통일문제,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 및 대북의료지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에는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공동으로 "글로벌파트너쉽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감소"라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에 관해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글로벌파트너쉽 프로그램과 캐나다의 경험을 검토하고 북한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미국 민주주의기금, 북한대학원대와 함께 2018년 6월 21일 "북한의 변화: 새로운 경제전략과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의 시장화와 새로운 경제전략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으며, 이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제1회의에서는 채드 오캐럴 코리아리스크그룹 대표가 "최근 북한의 변화: 시장활동과 제재의 영향"을 주제로, 최문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교수가 "새로운 경제발전과 미래의 변화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 편집장은 "시장화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과 북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4일에는 주한 캐나다대사관(대사 Michael Danagher)과의 MOU를 갱신하였습니다. 2015년 최초 MOU를 체결한 이래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정기적으로 다른 주한 대사관들과 함께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남북관계, 동북아 및 국제질서 등을 주제로 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양 기

관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MOU 갱신체결에 이어 14개 대사관의 한반도 담당 책임자들의 참여하에 북한의 8차 당대회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2021년 10월 26일에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주한캐나다대사관 공동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재개: 북한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통일부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진과 주한 대사관 북한 담당관들이 참석하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내각 구성 변화, 탄도미사일 발사 및 무기 개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반 구축,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남북교류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캐나다대사관 외에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이스라엘, 대만, 아랍에미레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대사관 관계자 등 많은 한국 주재 외국 공관들과의 교류가 이뤄져 왔습니다.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들과 공식·비공식 설명 모임을 갖고 수시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하였습니다.

2018년 5월 2일 서울 외교대사부인협회(ASAS: Ambassadors Spouses Association in Seoul) 회원들을 초청,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ASAS 회원들은 현




캐나다대사관 MOU 체결 및 공동 국제학술회의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남북관계, 동북아 및 국제질서" (2021.2.4)




"남북정상회담 및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 서울 외교대사부인협회 설명회 (2018.5.2)

재 국면 변화에 대해 한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의 남북 협상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북한이 앞으로 정상국가화를 이뤄갈 수 있는지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는 김선향 이사장, ASAS 회장인 코눌 테이무로바(Konul Teymurova) 아제르바이잔 대사 부인, 노주코 글로리아 밤(Nozuko Gloria Bam)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등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축사를 했습니다. 특히 김선향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ASAS 회원 외에도 로디 엠브레흐츠(Lody Embrechts) 주한 네덜란드 대사, 아드리앙 떼아뜨르(Adrien Theatre) 주한 벨기에 대사 등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캐나다대사관 등 주한 외교사절단과의 정례 공동세미나·비공개간담회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08.02.01. | 주한 캐나다대사관 공동 국제학술회의<br>글로벌파트너쉽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감소<br>Reducing the Threat of WMD through the Global Partnership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5.11.03.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 (1)<br>Aftermath of Major DPRK Developments in October:<br>Interpreting Motivations and Possible Short-Term Scenarios | 캐나다대사관 |
| 2016.03.08.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 (2)<br>Assessing Kim Jung Un's "Byungjin" Policy | 캐나다대사관 |
| 2016.05.31.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 (3)<br>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br>What Was Revealed, and Where Does It Lead? | 캐나다대사관 |
| 2016.12.06.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 (4)<br>Assessment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br>Strategy and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Response | 캐나다대사관 |
| 2017.05.24.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 (5)<br>North Korea Policy of the New ROK Administration and<br>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7.09.15.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 (6)<br>North Korea's Missile Milestones and the Moon Agenda-What Next for<br>ROK Defense, Deterrence, and 'Driver's Seat' Diplomacy | 캐나다대사관 |
| 2018.01.23.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 (7)<br>North Korea's Olive Branch: Drivers, Opportunities, and Risks | 캐나다대사관 |
| 2018.05.02. | 북한대학원대 공동<br>서울외교대사부인협회(ASAS) 초청 설명회<br>Changing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8.10.22.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8)<br>From Panmunjom to Pyongyang: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and<br>Progression in Inter-Korean Cooperation | 캐나다대사관 |
| 2019.01.28.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9)<br>Evaluations on Kim Jong Un's New Year Address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9.10.15.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10)<br>Assessment of the Outcome of the U.S.-DPRK Working-level Talks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20.01.13.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11)<br>Assessment of the Yearend Plenary Meeting: Prospects for<br>DPRK's Strategy in 2020 | 캐나다대사관 |
| 2021.02.04.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12)<br>The 8th Party Congress and 4th Session of the 14th Supreme People's<br>Assembly: Key Outcomes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 in 2021 | 온라인회의 |
| 2021.10.26. | 캐나다대사관-IFES 공동 비공개간담회(13)<br>Restart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br>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Implications for Policy | 캐나다대사관 |

시대별 개관

##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학술교류 사업 지속 추진

2020년에 들어서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감염병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2020년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경색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정세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연구소는 주인도 한국대사관(대사 신봉길)의 후원하에 인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ORF)과 공동으로 8월 25일 "한반도의 안정성: 중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How Has China's Interests Evolved?)를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대북경제 제재의 지속 상황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정성과 이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였습니다. 박재규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2019년 12월 이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 그리고 체제 결속을 통해 대내체제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패널로는 인도 측에서 만프릿 세티(Manpreet Sethi) CAPS연구소 핵안보 연구팀장, 스리칸트 콘다팔리(Srikanth Kondapalli) 네루대 교수가 참석하여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북한경제 실태와 전망, 북미·남북관계 전망, 북한 정세 전망 등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6일에는 변화하는 북한의 도시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북한의 도시 만화경(Urban Kaleidoscope of North Korea)"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평양과 도시계획, 강과 북한 도시, 도시 국가 평양: 과거에서 미래로 3개 분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독일, 스페인, 호주 측에서 각각 발표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도시와 관련한 학술적 논의는 주로 국내 전문가들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동 학술회의는 북한 도시 관련 논의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북한 도시 발전은 최고지도자의 중장기적 국가 발전노선과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체제 안정성을 평가, 전망하는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21년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를 평가, 조망하기 위해 한미, 한중, 한일, 한러 등 국제학술회의를 11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 정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한미관계, 미중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요 연구기관과의 연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동 한·미 평화통일포럼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 (2021.12.10)

적인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GFP, 8.31)을 개최하고,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개최, 11.2), "2021 평화포럼" (한국, 일본, 대만, 12.10), "한·미 평화통일포럼" (민주평통 공동개최, 12.10) 등의 국제학술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새로운 쟁점과 담론을 선도하고, 시의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는 글로벌 안보현안인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의존에 따른 국경을 초월한 지역협력 의제로 부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에서는 김정은 정권 10년을 맞이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및 대외 분야에서의 김정은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와 공동으로 2021년 12월 10일 개최한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북미 관계 및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1)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요 연구기관과의 국제학술회의

연구소는 북한·통일학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펠로우십)의 일환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요 연구기관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국내외 학자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2021년 3월 31일 한중 국교정상화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산동대 동북아국제관계학원과 공

동으로 “한중 국교정상화 30년: 상생, 협력,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이영학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미중관계와 한반도: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를, 장혜지 길림대 교수가 “‘쌍순환’신발전 구도하에 중국 CPTPP 가입의 정치 경제적 사고”를, 필영달 산동대 교수가 “미중 전략경쟁 속의 한중관계: 성과, 새로운 도전 및 발전 방향”을, 이민규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중 국교정상화 3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한중 국교정상화 30주년을 앞둔 시점에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미중, 한중관계의 측면에서 심도있는 분석,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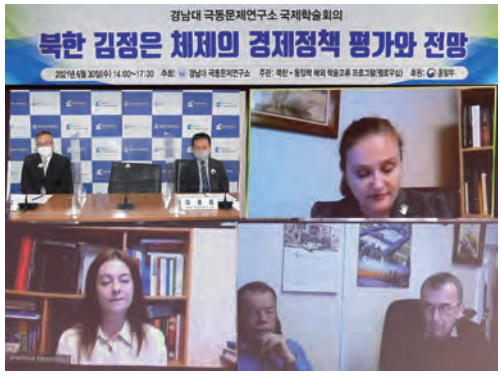
이어 5월 14일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및 동아시아 국가자원센터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전 주한 미국 대사),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전 주미 한국 대사),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이사장,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한미, 북미, 남북관계를 세부 주제로 하여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분야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6월 8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일본측 다양한 파트너들과 한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군사안보전략 중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분석,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 시대의 한반도라는 대주제에 따라 미중 갈등 속 남북관계와 북한 경제에의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 이 회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개된 가운데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간 건설적인 역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중 국교정상화 30년: 상생, 협력 그리고 과제” 한중관계 국제학술세미나 (2021.3.31)

곧바로 6월 30일에는 러시아 측 해양주립대, 극동연방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통한 니콜라이 페레슬라브체프 해양과학&교육 아태저널 편집장 겸 연구원 등 러시아의 학자들과의 논의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고와 정책방향과 실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7월 15일에는 중국 측 인민대, 남경대, 정법대, 중국 사회과학원,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를 주제로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창 복단대 미국연구소 부소장, 청샤오허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 이 회의는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생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중 양국의 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평가와 전망” 한·러 국제학술회의 (2021.6.30)

중, 대미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양국의 전략적 경쟁 관계 변화가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나아가 미중 경쟁시기 한중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향후 협력방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요 연구기관과의 국제학술회의**

| 개최일자 | 발표주제 | 장 소 |
|---|---|---|
| 2021.03.31. | 한중관계 국제학술세미나<br>“한중 국교정상화 30년: 상생, 협력 그리고 과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21.05.14. |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및<br>동아시아 국가자원센터 공동<br>“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온라인회의 |
| 2021.06.08. | 국제학술회의(한일)<br>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전망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21.06.30. | 국제학술회의(한러)<br>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평가와 전망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21.07.15. | 국제학술회의(한중)<br>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세미나**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연구소의 오랜 동반자입니다. 돈독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해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을 진단하고, 기회와 도전적 요소들을 발굴해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2008년 6월 10일 연구소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베트남의 경험과 북한의 경제 현대화"라는 주제의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베트남 등의 경제 개혁 성공 사례와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개혁이 북한의 사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5월 29일에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동북아 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당시 국제금융위기가 동북아에 갖는 함의는 물론, 6자회담과 아세안지역포럼, 그리고 유럽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협력의 제도화의 필요성과 전망을 타진하고 이를 위한 진일보된 동북아지역의 공조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서독 간의 통합은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 냉전이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에서는 당시의 독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민족적 화해 지역으로 변하였고, 유럽 통합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동안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분단과 군사적 대결지역으로 남아있기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다시 한 번 직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소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200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0년과 한반도에의 교훈 (Twenty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국제워크숍 "베트남의 경험과 북한의 경제 현대화: 교훈과 과제" (2008.6.10)

Lessons for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점,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능성, 그리고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14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및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한국학센터(센터장 박경애 교수)와 공동으로 남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안보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North Korea"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15일 역사적인 동서독 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국제학술대회 "독일통일의 정치: 한반도에 주는 교훈"을 통해 독일 통일 경험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 관련 교훈과 함의를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 6월 3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China and Its Strategic Neighbors"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정치 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및 역할, 그리고 주변국인 북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와의 정치 및 경제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국과 주변국의 정치, 경제 관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1일에는 연구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동북아시아 핵 문제의 재고"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소 4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 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의 핵심 안보 주제 중 핵 문제를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고찰하면서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2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 핵문제의 재고" (2012.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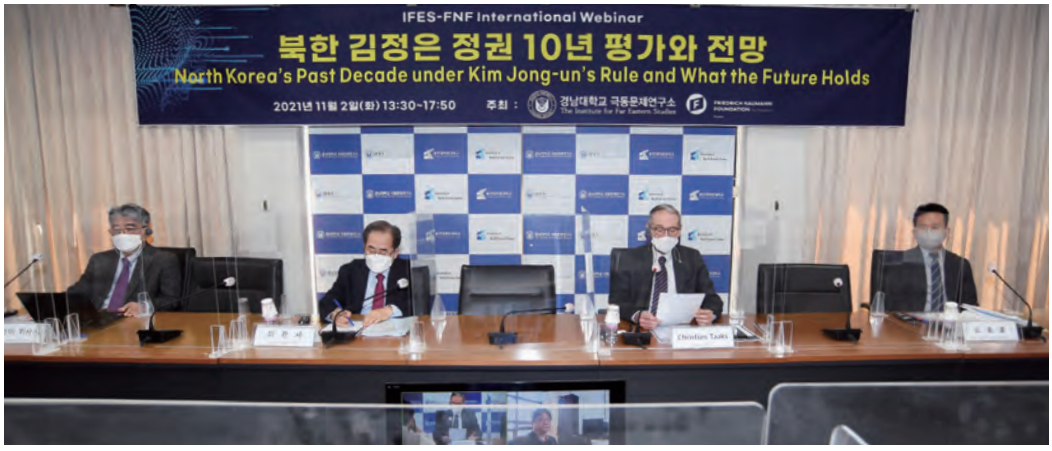
유: 성과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 공유, 농업협력에서 북한의 역량 강화, 북한 관광사업의 개발역량과 지식 공유에 대한 국제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사업을 진행해 온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의 가레스 존슨(Gareth Johnson) 매니징 디렉터(Managing Director)와 트로이 콜링스(Troy Collings) 북한 담당자(DPRK Manager)가 발표자로 참석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 130명 이상을 교육한 '조선교류(Chosun Exchange)'의 닐스 와이젠시 기업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북한의 비즈니스 여성"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에서 4개 농장과의 협력을 통해 식량 수확을 증산시킨 미국 프렌드교회 사회복지사업회의 린다 루이스 북한 담당자도 관련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연구소는 또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2015년 6월 10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Business and Finance in the DPRK(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을 주제로 열린 이 학술회의에서는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을 초청해 북한의 사금융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2016년 6월 15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실행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북제재의 현지 효과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1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략"을 주제로 드미트리 키쿠와 닐 와츠(UN전문가 패널),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국장), 윌리엄 뉴컴(존스홉킨스대 SAIS 방문학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제2회의에서는 "대북제재 효과의 현지조사"를 주제로 공커위(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 강미진(데일리NK 북한팀장), 이용석(스탠퍼드대 SK센터 연구원), 크리스토퍼 그린(SinoNK 공동편집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의 도입에 힘입어 현대화,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한 시장화를 넘어 새로운 소비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변화 현장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북한 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9일에는 "북중 관계: 진화, 상호의존, 접경지대(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Evolution, Interdependence, and the Frontier)"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북중 관계" 주제의 제1회의에서는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아담 캐스카트 영국 리즈대 교수가 "북중 관계의 신호 읽기"에 대해,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가 "정치적 차원의 북중 관계"에 관해 각각 발표, 토론하였습니다. 제2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 경제적 상호의존과 접경지역"을 주제로 딘 울렛 교수의 사회로 옌 위에 중국 상해리신회계금융대 교수가 "경제적 차원의 북중 관계"에 관해, 정은이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이 "북중 접경지역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2021.11.2)

상호의존과 변화동학"에 대해 발표 토론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8일에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함께 "한반도 전환기의 교류와 협력: 경험과 새로운 방향"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술회의에서는 전환기에 접어든 남북한 역학관계를 평가하며,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다방면의 문화 교류를 이해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2019년 6월 19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 사무소와 함께 "북한의 도시: 변화와 교류"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청중이 많이 참석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국제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와 북한의 도시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류를 논의함으로써 북한이 현재 어디에 자리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려 하는지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7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북한과 세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평가, 다시보기, 재연결"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과 세계: 관계와 제재의 재평가", "향후 관계 초석을 다지기 위한 북한 '다시'보기" 등을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였습니다.

2021년은 김정은 정권 10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의 내구력과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등 체제 내부의 안정성을 종합 준석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연구소는 2021년 11월 2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웨비나, 동시통역)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분야 평가와 전망"과 "군사 및 대외관계 평가와 전망"의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하였는데, 시의적절한 주제와 빠른 분석, 평가를 통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김정은 정권 10년을 평가하고 전망하였습니다.

##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세미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08.06.10. | FNF-IFES 국제 워크숍<br>베트남의 경험과 북한의 경제 현대화: 교훈과 과제<br>North Korea's Path to Economic Modernization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09.05.29. | FNF-IFES 국제 워크숍 (2)<br>동북아 협력의 제도화와 북한<br>Institutionalizing Regionalization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09.11.09. | FNF-IFES 국제 워크숍 (3)<br>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20년과 한반도에의 교훈<br>Twenty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br>Less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0.07.14. | FNF-CKR-IFES 국제 워크숍 (4)<br>북한의 비전통적 안보<br>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North Korea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0.10.15. | FNF-IFES 국제 워크숍 (5)<br>독일 통일의 정치: 한반도에 주는 교훈<br>Politics of German Unification: Less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조선호텔 |
| 2011.06.03. | 경남대 개교 6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br>FNF-IFES 국제워크숍 (6)<br>중국의 전략적 주변국<br>China and Its Strategic Neighbors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2.03.21. | 연구소 개소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br>FNF-IFES 국제워크숍 (7)<br>동북아시아 핵문제의 재고<br>Rethinking Nuclear Issues in Northeast Asia | 프라자호텔 |
| 2012.10.17. | FNF-IFES 국제 워크숍 (8)<br>한반도 에너지 협력과 평화 구축<br>Energy Cooperation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3.06.12. | FNF-IFES 국제 워크숍 (9)<br>북한의 개발역량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성과 및 향후전망<br>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Sharing with North Korea:<br>Past Successes and Future Prospects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장 소 |
|---|---|---|
| 2014.06.11. | FNF-IFES 국제 워크숍 (10)<br>북한의 개발역량강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지식공유<br>North Korea's Development Capac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nowledge Sharing: Gender, Agriculture, and Tourism Perspective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5.06.10. | FNF-IFES 국제 워크숍 (11)<br>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br>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Business and Finance in the DPRK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6.06.15. | FNF-IFES 국제 워크숍 (12)<br>국제사회의 대북제재<br>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Sanctions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7.06.14. | FNF-IFES 국제 워크숍 (13)<br>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 문화<br>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Mordernization and New Consumerism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7.11.29. | FNF-IFES 국제 워크숍 (14)<br>북중관계: 진화, 상호의존, 접경지대<br>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Evolution, Interdependence, and the Frontier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8.11.28. | FNF-IFES 국제 워크숍 (15)<br>한반도 전환기의 교류와 협력: 경험과 새로운 방향<br>Engaging North Korea: Past Experience and New Directions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9.06.19. | FNF-IFES 국제 워크숍 (16)<br>북한의 도시: 변화와 교류<br>Urban North Korea: Changes and Exchanges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20.10.07. | FNF-IFES 국제 워크숍 (17)<br>북한과 세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평가, '다시'보기, '재'연결<br>North Korea International: (Re)Evaluating, (Re)Viewing, and (Re)Connecting in a COVID World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21.11.02. | FNF-IFES 국제 워크숍 (18)<br>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br>North Korea's Past Decade under Kim Jong-un's Rule and What the Future Holds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 국내학술회의·세미나

연구소는 국제학술회의의 활발한 개최와 더불어 국내의 대학, 언론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왔습니다. 포럼, 공동세미나와 워크숍, 아카데미, 여론조사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현안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제안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 1) 통일전략포럼

정확한 정세파악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합리적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1995년 '통일전략포럼'을 처음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각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통일전략포럼은 계기 시마다 불거진 현안들을 시의적절하게 다루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 관료,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포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안보 정책의 회고와 전망" 제1차 통일전략포럼 (1995.10.19)

1995년 10월 19일에는 강영훈 전 총리(당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차 포럼에 참석해 "통일·안보 정책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열린 2차 포럼에서는 노신영 전 총리(당시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가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통일·안보 정책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첫 포럼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당면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장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북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소, 한중 수교 이후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북한이 기아 사태에 직면하면서 북한·통일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면서 이를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정책포럼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96년 4월 12일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을 주제로 제4차 통일전략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에는 정태익 외무부 차관보, 임동원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을 발표, 토론자로 초청해 "4자회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일에는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남북한 경제협력: 무엇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6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서진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 이호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이 참가했습니다.

1997년 6월 18일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제9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의 통일안보정책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보도 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1998년 이후 수년간은 햇볕정책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소 소속 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연구소 소속 학자들의 활발한 정책아이디어 제공과 1995년부터 열렸던 연 4회 이상의 통일전략포럼 등 각종 연구활동은 대북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999년 새해 벽두인 1월 7일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4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해 김정일 정권의 정치, 경제, 군사안보,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4월 22일에는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과 전망"을 주제로 제15차 통일전략포럼을, 6월 8일에는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을 주제로 제16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남북 정상 간 첫 회담이 열렸던 2000년 3월 20일에는 "2000년대의 남북한", 5월 9일에는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제18, 19차 통일전략포럼을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 3월 23일에는 "현 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3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05년 4월 29일에는 2004년도 조문파동과 북한이탈주민의 대량입국으로 인해 상반기 남북 간 대화는 거의 중단되었고, 민간부분의 교류도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여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따져보고,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연구소는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의 소모적 갈등을 불식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제37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8일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제38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로서 2.13 합의가 순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불고 있는 정세를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북핵 문제를 전망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 9월 1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9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의제, 합의가 필요한 내용, 그리고 준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북한 측의 예상 태도와 우리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6일 연구소는 2009년 한반도 정세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올바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의 외교안보 관련 연구소장들을 모시고 제41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3월 24일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을 주제로 제42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6월 11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이 어떤 것이고 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는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논의해보는 자리로서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을 주제로 제43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9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제44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북핵문제의 진전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연구소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상호 연관성을 전제로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대화 국면과 변화 움직임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9일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초청해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을 주제로 제45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북미 간 쟁점은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어젠다는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12월 10일에는 2009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주제로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여 연평도 포격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의도 분석, 각국의 동향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정세 전망 및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황진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 보수와 진보 측 견해를 청취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제65차 통일전략포럼 (2019.11.28)

2011년 3월 17일 천안함 사건 이후 1년을 맞으면서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를 주제로 제47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7월 28일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48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발리 비핵화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진전 가능성을 전망하고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11월 18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경색국면의 한반도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필요조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49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6일에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논의하고자 제51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이후의 권력구조를 진단해보고, 경제적으로는 ‘6.28 방침’ 및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2013년 5월 10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되는 한반도의 긴장이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강경 대 강경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것인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52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8월 30일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미래와 발전방향 그리고 외교안보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제53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55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자리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구소는 사드(THAAD) 논란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6일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제56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은 당시 미국이 주한미군에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종인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HAAD)’체계를 배치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을 통해 사드 논란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2015년 5월 21일에는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57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광복·분단 70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 관료,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6일 “유엔제재 이후 북한 핵문제의 국제정치”를 주제로 제58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은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 관료,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제59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불확실한 한반도 정책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여 한반도 안보질서와 대북정책이 나아갈 길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12월 5일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중국 시진핑 2기 체제 출범, 일본 아베 내각 재집권 등에 따른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평가와 2018년 전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2018년 12월 6일에는 "전문기자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제62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미 등의 집중적 논의가 지속되는 전환적 시점에서, 북한·통일 문제와 관련해 언론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기자를 초청해 한반도 정세에 관한 다양한 평가와 전망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4일에는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63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8월 8일에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제64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8일에는 "긴급진단: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제66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11월 28일에는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을 주제로 제65차 IFES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북한전문 취재기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보다 현장감이 있고, 사실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18일에는 당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대북 전단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제66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지속되었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도 좀처럼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소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국제회의를 활발하게 개최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북한과 한반도




"우크라이나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제질서 재편과 군사 그리고 경제안보" 제70차 통일전략포럼 (2022.6.8)

주변정세를 감안해 다른 어떤 연구기관보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30일에는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를 주제로 제67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이왕휘 아주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 교수, 최순미 아주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해 바이든 정부의 향후 방향성, 코로나19로 인한 미국과 북한의 변화, 북한 경제 현황 및 전망, 한·미·일 삼국 관계의 예측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1월 14일에 열린 제68차 통일전략포럼은 1월 12일 북한의 제8차 당 대회가 종료된 직후에 열린 것입니다.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제1세션 “제8차 당 대회와 북한 체제의 정치·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제2세션 “8차 당 대회와 경제 분야 종합평가 및 전망”으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정치 부문’에서는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북한의 통치사상과 권력구조”, 사카이 다카시 전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이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체제 안정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대외부문’에서는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북한의 대미 정책 기조와 전략”,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 ‘대남 부문’에서는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이 “북한의 대남정책”,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이 “북한의 통일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연구소는 북한 정세 분석평가와 전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였습니다. 1월 7일에는 “2021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22년 전망”을 주제로 제69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례적으로 외국 전문가들을 배려해 동시통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사업들에 대한 첫해의 성과·한계 평가 및 2022년 전망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분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8일에는 제7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995년에 시작하여 27년간 포럼을 지속개최하여 70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날 포럼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제질서 재편과 군사 그리고 경제 안보" 주제를 갖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발표·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질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어떻게 질서가 재편될 것인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안보개념 확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특히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 2) 통일문제세미나

1970년대 국내세미나는 주로 ‘통일문제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어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담론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개소 직후인 1975년부터 다양한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조망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일문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회 통일문제세미나는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남북한 가치관의 형성에 관한 비교”를 주제 삼아 1975년 9월 18일 마산 본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해마다 “북한의 통일정책 평가”, “통일의 전망 -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생과 통일운동”, “분단직후 남북협상론의 재평가”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한관계" 통일문제세미나 (1991.9.19)

이후 통일문제세미나는 80년대, 90년대 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9일에는 "동북아 질서변화와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통일문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급격한 국제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변화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동북아질서의 역동성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회를 맞은 1995년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탈북자들의 주제발표와 생생한 증언을 경청하였습니다. 1998년 9월 23일에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후원으로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한 민간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문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문제세미나는 1975년 이래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2009년 제30차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종료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통일전략포럼에서 주제, 참여자(국내외) 등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자들도 참석하는 정책·전략포럼으로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해외학자초청세미나**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학술회의가 다양하게 개최되어 온 것에 비해 해외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외학자초청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해외에서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매 시기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저명한 학자, 전문가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역사의 종말』의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뉴욕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인 이매뉴얼 월러스틴,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로버트 스칼라피노(Robert Scalapino)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전문가, 학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제1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는 1979년 6월 미국 아칸사스대의 Saul Bello 교수가 "대리전쟁"이라는 주제

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에 여러 차례 해외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어 중국 외교정책, 중소관계와 한반도, 미국의 대중국·대만 정책,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혜안과 통찰을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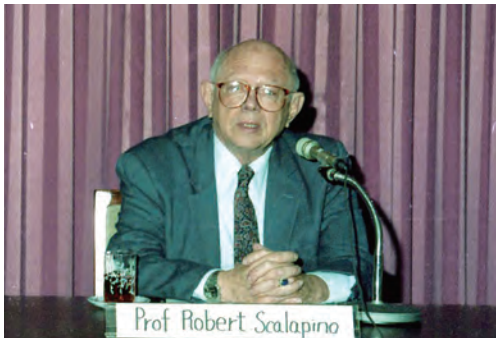
1988년에는 도날드 맥로린(Ronald McLaurin) 미국 Abbott Associate 연구소 박사 등이 초청되어 "페르샤만의 긴장과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강의했고, 이후 4차례의 워크숍을 열어 국가와 사회와의 상호관계라는 맥락에서 민주화의 의미, 민주화의 제도화 과정 등을 깊이 있게 분석,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91년 12월 15일에는 한반도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의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을 제60차 해외학자 세미나에 초청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 세미나에서 북한,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권의 장래,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역할,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안보정책, 미군의 핵철수 이후의 한반도 군사전략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1992년 3월 26일에는 미국의 하버드대 페어뱅크 동아시아연구소,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와 공동으로 사회주의 대개혁기를 맞이한 "90년대 중국의 개혁정치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제61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는 미국 하버드대 소속의 Dwight H. Perkins, Ezra F. Vogel, James L. Watson, Roderick MacFarquhar 등 4명의 교수가 중국 경제개혁, 중국의 농민문화, 차기 권력승계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1994년 10월 6일 Isaac Revah 프랑스 항공우주국 국제관계국장과 Chen Rongying 중국 우주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고문을 초청해 "첨단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교류"라는 당시로는 매우 이례적인 주제로 제69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첨단기술과 각 개별 국가의 개발전략이 당시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9월 7일 오덕렬 중국 사회과학원 APEC 연구센터 이사를 초청, "중국과 APEC"을 주제로 제73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열었습니다. APEC의 발전과 중국 경제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21일에는 경남대 개교 50주년 기념 세계 석학 초빙강연으로 뉴욕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을 초청해 "1989년 이후의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1991.12.15)


이매뉴얼 월러스틴 뉴욕주립대 사회학과 교수 (1996.12.21)

세계"에 대해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월러스틴 교수는 경제, 역사적 체제, 문명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1997년 4월 14일에는 조호길 중국 공산당학교 교수가 "최근 북한 상황을 보는 중국의 시각", 4월 21일 방수옥 중국 연변대 교수가 "오늘의 중국: 경제개혁과 등소평 사후의 역할", 5월 30일 Robert Sutter 미 국회도서관 연구처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미중관계와 한반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1998년 3월 16일에는 제80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에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Asia Society 및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위원을 초청해 "남북한, 미국 삼자관계 전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5년 4월 2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랄프 코사 퍼시픽 포럼 소장을 초청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시 행정부와 미 공화당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후버연구소 출신이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랄프 코사 소장의 다년간의 연구 성과로 유의미한 정책 과제 및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6월 8일에는 대니얼 마로우(Daniel Morrow) 조지워싱턴대 교수(전 세계은행 총재 특별보좌관)을 초청해 "북한개발과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1일에는 전 유엔사무총장 한반도특사인 모리스 스트롱(Maurice F. Strong) 박사를 초청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UN의 역할"에 관한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소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미래 비전을 찾고자 남북한 화해협력의 길을 개척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2007년 11월 27일에 초청해 "한반도와 동북아: 대전환의 시대"를 주제로 특별강연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 5월 21일 미 대사관 공보과 주최로 스튜어트 토슨(Stuart Thorson) 미국 시라큐스대 교수(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 Syracuse University)가 연사로 참여하는 "Prospects for Futur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n Institutes"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09년 12월 17일에도 토슨 시라큐스대 교수를 초청하여 "북미 과학기술 현황과 과제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14년 9월 23일에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제93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독일의 Lutz Rathenow 슈타지 작센주 담당관을 초청, "The State Security of the GDR: Ways to Deal with the Past"라는 주제의 발표를 경청하였습니다. 동독비밀경찰인 슈타지의 설립 이유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 과정, 통일 후 슈타지를 둘러싼 사후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10월 10일에는 와카바야시 히로유키 동아시아 무역연구회 이사장을 초청하여 제94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와카바야시 히로유키 이사장과 함께 당시 북일관계의 변화와 전망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3일에는 미무라 미쓰히로 일본 ERINA 조사연구부장을 초청해 "최근 나진-하산 등 두만강 유역 개발 및 북한경제 동향"을 주제로 제97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9일에는 방수옥 중국 복단대 교수를 초청해 "시진핑시대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이념과 대한반도 정책"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제98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2015.5.6)

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21일 Ulrich Niemann(Director of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박사를 초청해 "유로위기(Euro Crisis)"를 주제로 제99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6일에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역사의 종말』의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를 초청하여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시각을 논의하는 제100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0일에는 Stefan Wolle(역사학자/Academic Director, DDR Museum) 박사를 초청해 "통독 25주년을 바라보는 독일의 시각"을 주제로 제102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0월 30일에는 왕성중국 길림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를 초청해 "지정학적 회귀 배경하의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6일 궁커위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아태연구실 부주임을 초청하여 "북한 4차 핵실험과 중국의 시각"을 주제로 제104차 IFES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22일 김학재 베를린자유대 전임연구원을 초청하여 "두 개의 냉전, 두 개의 평화"를 주제로 유럽과 동북아의 화해, 협력, 평화의 제도화 과정 비교 등을 다루는 제105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24일 서승 리츠메이칸대 교수를 초청하여 "나와 우리에게 조선, 조선인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07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2일 Mimi Miryung Kim 브뤼셀자유대(Free University of Brussels) 교수와 Dong Xiangrong 국제전략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CASS) 연구원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 중국과 EU의 견해"를 주제로 각각 듣는 제110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곧바로 열린 제111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에는 Klaus Larres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가 "The China Factor in Transatlantic Relations: Do Germany and the U.S. Pursue Very Different Policies toward Beijing?"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9월 8일 John Everard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를 초청하여 "North Korea: What Next?"를 주제로 제112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0일 Marc DeVore 교수(University of St Andrews)를 초청하여 "방위산업의 국가 안보요구 충족 실효성: 한국과 북한 사례 연구"와 "한국 비대칭방어전략의 효용성: 2006년 레바논 전쟁의 교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연구소 연구진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11월 1일 제113차 IFES 해외학자초청세미나에는 김강일 연변대 교수가 "미·중 전략경합 구도 속의 중·한 관계"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11월 9일에는 세계프로젝트경영협회(IPMA) 라인하르트 와그너(Reinhard Wagner) 회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강은 연구소와

세계프로젝트경영 한국협회(IPMA Korea), 북한대학원대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와그너 회장은 "PM(Project Management)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정부가 독일의 통일과정을 선례 삼아 프로젝트 경영(Project Management·PM)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1월 18일에는 제114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에는 스인홍 인민대 교수가 "중국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과 "미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2일 오드 웨스타드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근대적 관계"를 주제로 제116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5일 Ken Gause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을 초청하여 "북한 지도층의 위기 시 의사결정방법"을 주제로 제117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17일 문범강 교수(조지타운대)를 초청하여 "미술작품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의식"을 주제로 제119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북한대학원대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와 함께 2018년 9월 17일 한스 모드로(Hans Modrow) 동독 전 총리를 초청해 "통일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 행사에는 북한학 연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통일 과정을 들여다보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1928년 출생한 한스 모드로 전 총리는 동독의 정치인이자, 공산당 마지막 수장을 지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1942-1945, 국민돌격대 소속으로 참전) 당시



한스 모드로 전 동독총리 (2018.9.17)

전쟁포로가 된 후 사회주의통일당(SED)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를 초청하여 "아베내각의 대내외 정책과 북한"을 주제로 제125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서옥란 중국 연변대 교수를 초청해 "남북 방송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28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22일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 겸 38노스(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대표가 연사로 나선 제129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엘 위트 수석연구원은 당시 5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하였습니다. 조엘 위트 수석연구원은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담당관을 지내며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곧이어 11월 11일에 열린 제130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에는 미국 스탠퍼드대 카타리나 젤위거(Kath-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회장 (2020.10.23)

arina Zellweager) 연구위원이 "북한 내 장애인 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제131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가 열려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역사학부 헨릭 비스핀크(Henrik Bispinck) 선임연구원이 "베를린 장벽붕괴 30주년, 통일독일의 현황: 역사적 배경 및 당면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2월14일에는 제132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에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장을 초청해 "유럽의 시각에서 보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스웨덴의 역할"을 청취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맨스필드재단 회장을 초청하여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제133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의 미중관계 및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연구소 내외 전문가들과 상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프로그램은 2020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고 해외 한반도 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북한·통일학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세계 각국의 학자,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4) 테마 중심 국내 세미나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통일문제세미나, 현실적인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통일전략포럼 외 연구소는 수시로 현안에 대한 국내 다양한 대학, 언론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통일문제에 대해 테마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공동세미나 혹은 공동워크숍, 아카데미, 여론조사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현안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11일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 첫돌을 맞이해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난 1년간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의 거리를 좁히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10월 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금강산 관광이 남북한 간 교류협력, 북한의 적대적 태도 변화, 긴장 완화를 통한 국가신인도 증가, 서해 교전 사태의 조기 진정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2000년 초반 실제 대북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당시의 남북 경협을 점검하고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를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와 연구소(소장 서대숙)가 2000년 4월 27일 공동주최한 세미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은 기업인들이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잘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북한에 구두생산공장을 운영했던 엘칸토의 정주권 이사, 금강산 관광사업을 이끌고 있었던 현대아산의 김

고중 부사장, 북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한민족물자교류협회의 김영일 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남북경협 활성화와 과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경협의 환경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6월 23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인터넷과 북한"이란 이색적인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첨단매체와 북한학 연구를 결합해 인터넷 민족공동체의 마스터플랜을 그려보고자 기획된 이 행사는 통일문제에 대한 색다른 관심을 환기한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정보통신, 정보통신과 남북통합, 남북경협과 e-business 등의 3개 세부 주제별로 박찬모(포항공대), 이광형(카이스트), 전하진(한글과컴퓨터) 씨 등 통일·정보 전문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연구소는 9월 20일 당시 아시아 전체 지역을 순회하면서 법의 지배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던 맨스필드센터의 한국 측 파트너로서 "한국에서의 법의 지배"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법조계의 저명한 인사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실무전문가 및 연구자 다수가 참가하여 법의 지배와 공적 권위, 사회, 기업 부문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제롬 코헨(Jerome Cohen) 뉴욕대 교수를 비롯한 외국의 전문가들도 참가해 국제적인 관점에서 법의 지배를 다루었습니다.

2001년 4월 10일에는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급변하는 남북한과 러시아 관계에서 한러 정상회담 및 북러 정성회담의 주요 의제를 분석 및 전망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소와 KBS, 한국방송학회는 6월 1일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사회와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6.15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정치, 사회, 그리고 언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였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향한 유익한 제안과 토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북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념 심포지엄 (2000.6.23)




KBS·한국방송학회 공동 심포지엄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사회와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01.6.1)

2002년은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파격적인 개혁 실험을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연구소는 10월 2일 "최근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9.12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북한을 직접 방문한 전문가를 초빙해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 9월 1일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관 개관기념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도와 4.15 총선을 거치면서 국내 정치 이데올로기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대북·대미정책에서도 '남남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연구소와 북한대학원은 통일관 개관에 맞추어 "남남갈등의 진단 및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저명 학자들과 언론계, 정계 인사 및 해외의 교포학자들이 함께 모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10월 14일에는 석원화 교수(중국 복단대 한국·조선 연구중심 소장)를 초청해 신의주행정특구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청취했습니다.

2005년 5월 3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환경 그리고 그 전제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풍성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6월 9일에는 통일농수산사업단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면서 북한 농업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의 농업개발과 남북 및 국제협력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6월 2일 제주평화통일포럼, 제주시, 한라일보, 제주대 평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 평화통일 그리고 제주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평화의 섬 제주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08년 2월 12일에는 참여정부 5년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가 떠안아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자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객관적인 학술적 검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잣대에 의해 공론화된 측면이 많았기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잣대로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연구소, 한겨레신문사, 현대아산,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후원하고 '남북경제협력포럼'이 주최하는 6·15 공동선언 8돌 기념 특별기획행사인 '남북경제협력촉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2월 2일 동북아공동체연구회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제4회 동북아미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9월 23일 21세기정치학회와 함께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의 변화"를 주제로 2009년도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과 함께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된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에 참여하여 "Creating on Asia Together"라는 대주제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주요 현안 및 이슈를 다루고 세계적 권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위기하의 아시아 문제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0년 9월 9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원장 김흥규)과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역사와 인식론, 정치·경제·시민사회 분야, 문화·예술·미디어분야, 동북아질서와 평화체제 등의 국제관계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논의를 통해 민족화해와 통일에 관련된 지속적인 공동연구의 출발을 위한 다양한 통일 관련 현실과 구상을 풀어놓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1년 5월 3일 연구소는 연세대 통일연구소와 공동으로 "평화통일과 남북경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저명한 국내 전문가와 함께 관련 주제들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및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였습니다. 6월 24일 한국시민윤리학회(회장 설한)와 공동으로"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하계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분단과 대결의 극복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다듬어가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9월 19일 연구소는 경남발전연구원, 한겨레평화연구소와 함께 "분권화 시대의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주제로 한겨레-경남포럼을 개최하여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과제를 정리해 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남북관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국면을 맞아 북한 정치와 한반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5일에는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상남도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2 남북교류협력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0월 31일에는 통일부·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 전망"을 주제로 하는 남북관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소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지난 2010년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통해 새로운 통일론을 구상해보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1개월 남짓 남겨둔 11월 13일 연구소와 뉴스1은 주요 대선 후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남북경협 정책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고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2012년 11월 21일 두 연구소는 통일론을 넘어서 남북한의 주요한 사건들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성

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각각의 사건을 긴장과 위기, 경쟁과 견제, 소통과 화해라는 주제로 나누어 그 의미를 짚어봄으로써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놓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3년 2월 28일에는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이호철)와 함께 "주요국의 한반도 정책과 새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기획학술회의를, 5월 2일에는 연구소·국회입법조사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11월 12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북한 SOC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한 경험의 재구성"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건설산업 50년, 독일통일 그리고 남북경협사업으로부터 시사점을 찾고, 북한의 정치 변동, 체제이행국가에 대한 ODA의 관점에서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경험과 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 2월 13일 북한사회문화학회와 공동으로 "북한과 남한 사이: 민족, 사상, 문화"를 주제로 2015년 북한사회문화학회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제1세션: 북한에서의 남한, 제2세션: 남한에서의 북한을 주제로 북한과 남한을 잇는 다양한 연결선을 민족, 사상, 문화라는 측면에서 추적해보고, 이러한 연결선이 현 상황에 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4일에는 북한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경제개발구, 경제개혁의 출구인가?"라는 주제로 북한 중소도시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창원에서 경남신문과 공동으로 경남대 개교 70주년과 경남신문 70주년을 맞이해 '7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크콘서트는 역대 정부에서 외교안보, 경제, 남북관계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전 통일부 장관) 등 전직 관료와 학계 원로를 패널로 초청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혜안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관계의 현실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박재규 총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달곤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공동위원장, 조현배 경남지방경찰청장, 손교덕 경남은행장, 최충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부의장, 남영만 경남신문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변화하는 북한: 분단, 대중 문화, 그리고 일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남대 통일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회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시장화 현상과 외부 문화 유입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싱가포르국립대의 추아 뱅 홧(Chua Beng Huat) 교수가 "북한 일상의 변화 가능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연설

을 하였습니다. 이어 “문화 속 분단 트라우마와 그 너머”라는 주제의 제1회의에서는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이흥 리우(Yi-hung Liu) 미국 하와이대 연구원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문화 전환의 가능성: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주제로 한 제2회의에서는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잉그리트 미테(Ingrid Miethe) 독일 기센대 교수, 로 샤오밍(Xiaoming Luo) 중국 상하이대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3월 30일 연구소는 한국냉전학회·북한대학원대와 공동으로 3월 30일 “냉전, 두 세계 사이에서: 정보, 스파이, 삶”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냉전을 체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와 삶의 차원에서 재생산해 온 장치와 그 기능, 과정을 제한적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치들 중에서 두 세계를 오가며, 불가피하게 적을 체화함으로써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냉전의 간첩 또는 스파이로 두 세계를 살아야 했던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이 냉전의 적과 삶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김상숙 교수(단국대)가 “조작 간첩의 생애를 통해 본 냉전의 사회사”를 이하나 교수(서울대)가 “대중문화 속 스파이와 냉전 산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이혜령 교수(성균관대)의 사회로 이동기 교수(강릉원주대)가 “냉전의 첨병에서 평화의 사도로?: 동독 슈타지의 자기인식”을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민주화 전후 한국 정보기관의 방첩(대간첩) 활동의 연속과 단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이어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11월 12일에는 당시 남북관계의 뜨거운 현안인 금강산관광 문제를 풀기 위한 “금강산관광에



경남대·경남신문 7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국제관계의 현실과 한반도의 미래” (2016.10.11)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금강산관광 전개과정 및 의미: 회고와 평가", "북한의 관광산업 전략과 금강산관광: 평가 및 전망", "우리의 대응전략 제언: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1월 10일에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원회의를 통해서 드러난 정치, 군사, 경제, 남북관계, 대미관계 분야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북한 정세를 전망하였습니다.

#### 5) 북한개발협력 세미나·포럼 개최

연구소는 전략적 연구사업으로 중장기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2004년 4월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남북한은 물론, 해외의 전문가,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북한과 통일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국제관계와 현안 이슈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ICNK는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개발이슈와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센터의 활동은 북한개발문제의 중요성을 학계에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시기가 도래할 때,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외부 원조를 수용하고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을 촉진해 자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은 빈곤 감소를 위해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국제기구들과 공조 아래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고 경제·사회를 종합적으로 '선진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만의 도움으로 북한의 경제·사회를 종합개발하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통일비용을 덜 수 있는 길이며, 국제사회와 협력으로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모적인 '일방 지원'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빈곤 탈출과 경제적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역량을 한 데 모으려는 민간 최초의 싱크넷을 내세운 ICNK는 다양한 연구, 세미나,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사업인 '북한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개발을 위한 법·행정적 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했고, 장기 과제로 '사회주의 국가 개발지원 사례 비교분석'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세미나를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센터는 국제금융기구의 전·현직 관계자들이나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그룹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고, 국내 전문가들과 분야별 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15일에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박정희 모델: 적용가능성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특별세미나(2005.6), "북한 GNI(국민총소득) 추계방법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2007.4), "베트남의 경험과 북한경제 현대화" 등을 주제로 국내세미나 등을 연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6) IFES 컬로퀴엄

연구소는 연구 활동의 활성화와 참신한 연구주제 발굴과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 학자들을



"제7차 조선로동당 당대회의 함의와 전망" 제26차 컬로퀴엄 (2016.6.7)

초빙해 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교수 및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IFES 컬로퀴엄을 연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2001년 "북한의 가족국가 체제의 형성"을 주제로 당시 강진웅 연구원이 발표한 이후 2016년 6월의 제26차 컬로퀴엄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5월 22일에는 당시 송민순 민주당 의원(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해 6자회담과 북핵문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6월 25일에는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DPRK: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Question?"이라는 주제로 제13차 IFES 컬로퀴엄을 개최하였습니다. UC San Diego 국제관계 및 태평양 지역학 대학원의 Stephan M. Haggard 교수를 초청해 북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9일 컬로퀴엄에서는 Narushige Michishita 박사(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를 초청해 동북아 안보정세와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2일에 이어 2011년 4월 8일에도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를 초청해 고견을 들었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데이비드 오스틴(David Austin) 미국 머시코(Mercy Corps) 북한담당조정관을 초청해 "미국 비정부기구 대표가 본 북한 기아실태"를 주제로 제19차 IFES 컬로퀴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4일에는 빌라하리 카우시칸(Bilahari Kausikan) 싱가포르 전 외교차관(현 외교부 본부대사)을 초청해 제24차 컬로퀴엄을 진행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s in East Asia)"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컬로퀴엄에서 카우시칸 대사는 패권전환기에 든 동북아 현실과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한반도 상황, 북한에 대한 인상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핵문제에서 ASEAN의 구실은 무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양 대국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2016년 6월 7일 제26차 컬로퀴엄에서는 "제7차 조선로동당 당대회의 함의와 전망"을 주제로 김근식 교수(경남대),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당대회의 의미와 전망을 두고 유익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02

## 연구활동

1972____2022



북한사회의 구조적 분석 (1972)

### 1. 연구총서(단행본) 발간

박재규 총장은 연구소를 세울 당시의 각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2년 남짓 동안의 군 생활은 북한 원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저서 『북한사회의 구조적 분석』(1972)은 그 결실입니다. 그는 책 서문에서 “학문에는 항상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고 과학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객관성의 확립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을 연구하는 자세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견 없이 북한을 바라보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 도구와 여론조작의 실태를 비롯해 북한 정치권력의 구조, 김일성 주체사상의 허와 실,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주민의 가치관형성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북한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지금 읽어봐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연구소가 다른 쟁쟁한 연구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데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초심을 유지하며 한 우물을 팠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 총장은 보다 심층적 연구를 위해 북한의 원전 자료들을 수집하고 필사했습니다. 또 홍콩·일본·유럽 등지로 출장을 갈 때마다 사회주의와 공산권 국가 전문 서점들을 찾아다니며 관련 서적들을 수집했습니다. 당시 냉전시대에 북한 자료를 갖고 다니며 연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통일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원전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973년 5월 문교부(文敎部)로부터 '불온간행물' 취급기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 1) 북한에 대한 분야별 기본서 발간

1970년대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학술서와 세계적인 관심사였던 핵확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비롯해 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권 국가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1975년에 『북한평론』 등 다양한 연구서를 출판하였습니다. 당시는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였고,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이 막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연구소의 이러한 성과는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북한평론』에서는 북한의 정치·사회 구조와 선전전략을 분석하면서 이데올로기, 김일성 주체사상, 정치문화, 권력구조를 다루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북한의 전략·전술을 설명하였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남북은 경쟁과 대결을 치열하게 벌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 등 남북대화가 처음으로 열리면서 각종 정기간행물을 통해 북한에 대한 논문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회의와 단행본의 발간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계에서는 북한 연구의 양이나 깊이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



북한평론 (1975)



북한외교론 (1977)



북한무역론 (1979)



북한군사정책론 (1983)

소는 북한연구의 분야별 기본서를 출판한다는 계획 아래 『북한외교론』, 『북한무역론』, 『북한군사정책론』,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등을 연속적으로 출간했습니다. 1977년에 나온 『북한외교론』에서는 북한의 대남관계, 대공산권외교, 대서방외교, 제3세계외교 등과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북한경제분야 서적은 1972년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의해 『북한경제구조』가 최초로 출간되고, 또 1977년 북한연구소에 의해 『북한경제론』이 발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무역분야에서는 당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개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1979년 북한 무역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북한의 무역관, 무역정책 및 계획무역, 무역제도, 무역방식, 무역규모와 구조 등을 처음으로 소개한 『북한무역론』을 발간하였습니다. 1983년에는 『북한의 군사정책론』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북한 군사정책과 정치, 경제, 외교, 전략, 대남관계 측면과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또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함으로써 당시 북한이 취해온 군사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는 북한의 사회통합이데올로기, 관료제, 엘리트구조, 사회계층, 공업화와 농업협동화, 가족제도, 언론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문예정책 등의 문제를 망라하여 북한의 사회구조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감한 연구서로서 북한 사회의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 2) 동아시아, 공산권, 제3세계에 대한 지역연구

196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 사이에는 원자에너지를 보유하려는 욕구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1979년 1월 "개발도상국의 핵확산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해 『핵확산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관계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당시 미국 카터 행정부의 개발도상국 핵확산금지정책,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이 미국에 주는 함의, 캐나다와 서독의 개발도상국 핵수출정책, 카터의 핵정책과 일본의 반응, 이스라엘과 핵무기, 대만과 한국의 핵정책 비교분석 등 오늘날에도 참고할 만할 유익한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은 미국과 중국 간 화해, 일본과 중국 사이의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대화의 시작 등이 동아시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시기였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새로운 정세 변화가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관계의 미래를 고찰하여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라는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소는 이전까지 수행해온 북한 및 공산권연구, 통일문제연구, 국제관계, 정책전략 연구 등 주요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두면서 좀 더 광범위한 학문영역을 제공하는 의미로 쿠바, 베트남, 니카라과, 탄자니아 등 제3세계의 정치·경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 발전의 정치경제연구』 등이 발간되었습니다.

공산권, 제3세계에 대한 지역연구는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연구서들이 발간되었습니다. 『중공의 개혁정치: 구조, 과정, 정책』,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인도네시아』 등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중공의 개혁정치: 구조, 과정, 정책』은 당시 일련의 변화과정 끝에 제도화 단계를 밟고 있는 중국의 개혁정치의 실상을 밝히려는 시도였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과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당시 중국 개혁정치의 구조와 과정, 그리고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는 소련사회의 모든 부문을 이념적 토대에서부터 당시 현실적인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룸으로써 소련의 정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동남아지역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지역의 핵심국가로서 역내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비중과 비동맹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이 증대되었으나 동남아 개별 국가들의 역사,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인도네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던 중 1981년 12월에 개최된 '제3회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에서 서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양국에 관한 개설서를 출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전통문화, 지리,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전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현황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연구소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련에 대한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에 이어 『80년대의 미소관계』 등의 연구시리즈 발간을 통해 소련의 정치, 경제 동향과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널리 공유하였습니다.

1988년 북한의 법을 총체적으로 고찰한 이론서 『북한의 법과 법이론』을 펴냈습니다. 국내외 대학의 법학교수 15명이 1987년 1월부터 자료수집에 들어가 집필을 완성한 『북한의 법과 법이론』은 북한의 법사상에서부터 헌법, 국가체제와 선거제도, 사법제도,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해양법, 재산법, 계약법, 혼인법, 노동법, 경제법, 합영법에 이르기까지 북한 법의 각 분야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북한법에 대한 1차 자료의 부족과 자료 접근의 어려움으로 단편적인 연구에 그쳐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북한법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이론서로 평가받았습니다.

### 3) 한미관계 재조명

1987년 10월 21-23일 3일 동안 연구소에서 주최한 "한미관계의 재조명"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토론내용을 정리해 1988년에 『한국과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정치·안보관계, 경제관계, 사회·문화관계로 구분해 시리즈 3권을 발간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한미관계의 전개양상을 정치·외교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군사·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



한국과 미국: 정치·안보관계 (1988)



한국과 미국: 경제관계 (1988)



한국과 미국: 사회문화관계 (1988)

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미래 관계 설정을 모색함으로써 학문적인 차원에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잖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 4) 전환기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1989년 10월 25일-27일 3일간 서울에서 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을 묶어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핵심 내용을 국내에 종합적으로 소개하여 관련 분야 연구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멀고 먼 이웃이었던 소련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소련』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국가연구에 이어 미얀마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역연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버마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통해 버마식 사회주의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성과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1990년대 초반 당시 세계는 새로운 전환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련 및 동구 등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이 급격한 변혁과정에 놓여 있었으며 그 여파로 동,서독의 통일이 이룩되고 있는가 하면 세계 정치·경제의 재편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사회도 마르크스주의와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진보세력이 등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소련 및 동구 등 사회주의권과의 활발한 교류로 이념적 혼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1990)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대변혁은 역사학자들과 사회과

학도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및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94년 연구소는 번역시리즈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절대주의국가의 계보』를 출간하였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의 『Lineages of the Absolute State』 전문을 우리 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 책은 연구소 연구원들의 공동참여로 이뤄진 것으로 역작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어 번역시리즈로서 『농민혁명』, 『동원에서 혁명으로』, 『제국의 신화』 등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공산권연구협의회의 장기 연구과제의 하나로 진행한 북한연구시리즈로서 1990년에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등을 출간하였습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한 정치, 경제전반에 대해 객관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책들은 당시 고조된 북한 바로 알기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책들의 발간을 통해서 연구소는 정치, 외교, 사회, 법,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연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91년 연구소는 연구와 출판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주요 관심 영역인 북한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련과 동구권의 변혁과 더불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세계질서의 재편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제3세계의 위상을 점검하고자 했던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와 한국』이 국내학계의 역량 있는 소장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5) 남북한 사회에 대한 질적 연구 심화**

한국연구시리즈도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였습니다. 1989년부터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한국 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인민당연구』,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 등의 연구서를 잇달아 발간해 한국연구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민주화의 현실적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한국민주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앞날을 전망하였습니다. 1991년에 발간된 『한국 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1990년 한국전쟁 발발 40주년을 맞아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 연구가 그 원인 및 전개과정에 치중하는 바람에 전쟁이 끼친 파급 영향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어 이에 따른 연구의 공백을 메워보려는 구상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전쟁 연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분단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평가받았습니다. 같은 해 발간된 『인민당연구』는 해방 이후 등장한 뒤 짧은 기간 존재했던 인민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방정국에서 차지하는 인민당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통해 해방정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여하였습니다.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91)

1991년 12월 연구소는 북한연구시리즈 제13집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을 출판했습니다. 북한의 인민정권 수립기의

개혁과정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다룬 이 책에서는 우리 현대사의 또다른 분기점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을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주체노선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연관성이 어떠한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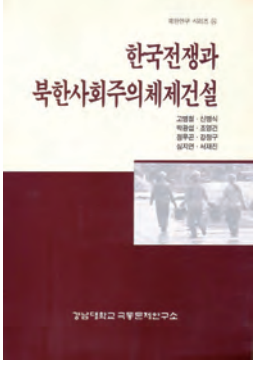
### 6) 사회주의 위기 진단 및 사례 연구

연구소는 사회주의 위기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많은 이론적 논쟁과 사례연구 결과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제3세계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기 세계적 차원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3세계의 위상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의도에 따라 제3세계 연구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등이 대표적인 결과물들입니다. 이 가운데 1992년에 발간된 『변혁기 제3세계 사회주의』는 구체적인 개발국가의 경험에 대한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3세계 사회주의를 연구하려는 학자들은 물론이고, 이들 나라와 외교, 교역관계를 갖고 있거나, 갖고자 하는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쿠바, 니카라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를 이해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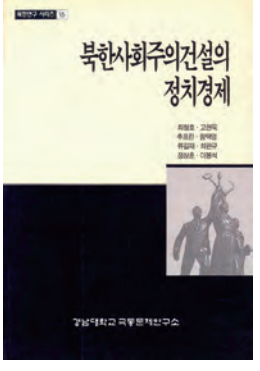
북한연구시리즈로서는 1992년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복구 및 산업화 과정속에서 북한의 모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였고, 사회주의 체제전환 건설과정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을 후속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북한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함께 현재와 미래의 북한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연구시리즈는 총 60권(1975-2021)이 발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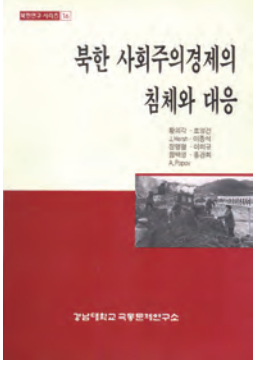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1991)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1992)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1993)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1995)

### 7) 통일연구시리즈 발간

통일연구시리즈는 1983년 12월부터 발간을 시작하여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등 총 22권(1983-2021)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는 당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다룬 연구논문이 대종을 이루는 상황에서 당시 남북한을 비교관점에서 설명한 선구적인 연구서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분단 이후 이질화된 남북한의 사회문화의 변화 실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한 사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2012년에 발간된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과 함께 약 2년의 기간에 걸쳐 공동학술사업으로 진행했던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학술 단행본으로 엮은 것입니다. 두 기관은 지구적 차원의 사회변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치, 제도, 생활세계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통일담론이 새롭게 구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냉전질서의 도래, 지식정보화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 환경, 평화, 인권 등 시민사회가치와 다문화현상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통일론은 기존의 국가주의, 정치주의, 나아가 폐쇄적 민족담론을 넘어서 새롭게 구상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통일정책 또한 이러한 진전된 통일담론을 기반으로 재조정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필요성에 부응해 기획된 것이었고, 관련 내용을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통일연구시리즈로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독일 통일과 분단한국』 등의 통일관련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 8) 북한 현대사 연구

북한 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우리 민족사 전체의 현대사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1990년대 초반 국제정치의 큰 흐름이 탈냉전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더구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전 지구적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현대사는 통일에 대비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북한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규명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주의 정치경제에 대한 학제 간 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991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에 이어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역연구과제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한국 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 건설』,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등을 출간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건설기에 관한 대담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시도되었고, 그 성과는 괄목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여 일관된 큰 흐름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9월에는 해방 직후부터 46년까지의 지방 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인 미 군정 기록을 3권의 자료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한국현대사 자료집 시리즈의 첫 간행물로 펴낸 영문으로 된 2천6백여 쪽 분량의 『지방 미군정자료집』은 이 기간에 경상남북도

와 전라남북도를 관할한 미군 6, 7, 40사단의 통치 기록이었습니다. 해방부터 1948년까지 실시된 미군정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갈등구조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현대사 연구의 주요 대상이 돼왔지만 자료부족이라는 일차적 벽에 부딪쳐 근본적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방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무대에 비해 자료빈곤 현상이 더욱 심했던 바, 지방미군정 자료집은 지방현대사 복원의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9) 탈냉전기 동서독 통일, 한러관계 탐구**



한국과 러시아관계-평가와 전망 (2001)

1980년대 말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국가들의 변혁 이후 1990년대 초기 세계질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성격을 감안해 '탈냉전' 혹은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념적, 군사적 대립보다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제적 무한경쟁이 지배적인 세계질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소는 1994년 9월 탈냉전기의 이른바 '새로운 세계질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그 연원과 특성, 표출양상 그리고 해결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21세기의 미래에 대비하고자 『위기의 세계와 한국』이라는 제목의 연구서를 펴냈습니다.

1991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이라는 민주적 과업을 이뤘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장벽의 무너지고 난 이후 놀랍게도 불과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독일통일이 실현된 것입니다.

연구소는 2000년 한러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한러관계 10년사: 양국간의 정치 쟁점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도 펴냈습니다. 이 책 발간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진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러 관계에 대한 성격과 역사를 짚어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실태를 분석, 평가한 뒤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대한 제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10)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변화, 남남갈등, 한미동맹**

분단사에서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기대한 만큼 빠르게 진전되지 않았고, 다시 침체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반 세기 동안이나 갈라져 있었던 남북한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상회담 하나로 화해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리한 기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김정일 시대 북한이 어떻게 체제를 유지하면서 생존전략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기 위해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을 펴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당면한 대내외적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변화의 방향과 폭, 그리고 속도 등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어 연구소는 2002년 2월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 국내정치와 정책,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변화 등을 짚어보았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2008)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2016)

한편 2004년 3월에는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6권을 출간하였습니다. 북한문헌연구는 북한연구에서 필수적인 원전 200여 개에 해제를 덧붙인 것으로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사상·통일, 대외관계·군사 및 안보, 경제발전, 사회·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북한 체제의 구조적 실체를 파헤친 것입니다. 2004년 연구소·북한대학원이 6·15공동선언 4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한 통일관 건립 첫 행사로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논평을 모아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는 남남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햇볕정책과 남남갈등,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상관관계 등을 조명하고, 남북갈등의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미동맹의 조정 문제가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연구소는 2003-2008년 사이에 논의되었던 한미동맹 관련 다양한 논의들을 모아 2009년에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이라는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서에는 조정기 한미동맹의 이론적 과제, 한미동맹 내부의 구체적 쟁점 과제, 노무현 정부 기간의 한미동맹 조정에 대한 평가와 미래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라는 대주제 아래 시작한 중장기 연구사업의 결과물로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등 10여 권의 연구서가 시리즈로 발간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분단 70년을 맞이해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 및 사상을 분석하고 동시에 한반도 분단을 둘러싼 국제관계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 사회·문화연구를 통해서 남북한의 이질적 문화와 정서가 주는 함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단 및 통일 관련 주요 이슈를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분단 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로 분류해 총 3권 17편의 논문을 수록한 연구서를 시리즈로 발간했습니다.

### 11) 시장화에 따른 북한 변화, 청년 정체성 변화 연구

연구소는 2010년에 접어들어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다각도로 북한의 변화를 분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런 학문적 노력의 결실이 2015년에 발간된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위주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는 북한 연구를 행위주체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시 학문적 담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북한 청년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한사회에 숨겨진 다양한 인민의 역동을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발간된 『김정은

## 중점연구 지원사업

| 연도 | 구분 | 연차 | 대주제 | 세부과제 |
|---|---|---|---|---|
| 2006 | 1단계 | 1년차 |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br>-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
| | | | |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과 국제협력<br>-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
| 2007 | | 2년차 | |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과 국제협력<br>-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
| | | | |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과 국제협력<br>-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
| 2008 | | 3년차 | |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br>- 북한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
| | | | |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과 국제협력<br>-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
| 2009 | 2단계 | 1년차 |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 |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br>-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
| | | | |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br>-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
| 2010 | | 2년차 | |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br>-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
| | | | |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br>-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
| 2011 | | 3년차 | |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br>- 동북아 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과제와 전망 |
| | | | |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br>-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과제와 전망 |
| 2012 | 3단계 | 1년차 |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사회주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 | | | |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 2013 | | 2년차 |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
| | | |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
| 2014 | | 3년차 |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
| | | |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

시대의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도 김정은 정권 아래 일어나고 있는 경제 변화의 본질을 사금융과 돈주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돈주나 사금융은 체제전환이나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된 연구서였습니다.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인 핵확산과 비확산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모색하기 위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연구소는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2012년에 나온 『핵의 국제정치』입니다. 10명의 전문가들이 핵무기개발과 국제정치이론, 핵폐기의 성공적 사례, 북핵문제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 북한 외교행태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핵문제의 심각성을 재고하고 나아가 향후 대응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 12) 북한 허위정보 문제점 제시와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재조명

2020년 연구소는 당시 나라 안팎에 혼란을 불러온 '김정은 건강이상설'의 발생·전개·의미를 분석한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를 발간했습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 사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대안 제시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라 나중에 더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문제의식 아래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제재·코로나19·자연재해가 겹친 '3중고'에 시달린 2020년 북한 경제의 실상을 다각도로 분석한 352쪽의 연구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101가지 질문·답변-』을 펴냈습니다. 101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압축한 한글·영어 결합 '요약본'을 202쪽 분량의 별도 책자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두 책자를 미국대사관을 포함한 주한 외국 공관의 북한 담당자들, 그리고 미국 등의 북한 경제 연구자와 싱크탱크에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지난해 초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로 일부 외국학자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붕괴론이 다시 떠돌아 북한경제의 현주소가 어떤지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자는 생각에서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2020)

2021년 한해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북중관계 1945-2020』,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 문서 번역과 해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 101가지 질문·답변』,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김정은 체제와 자력갱생: 계승과 변화』 등 7권의 저서와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새로운 한일관계를 향하여』 등 연구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2021)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2021)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2021)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2021)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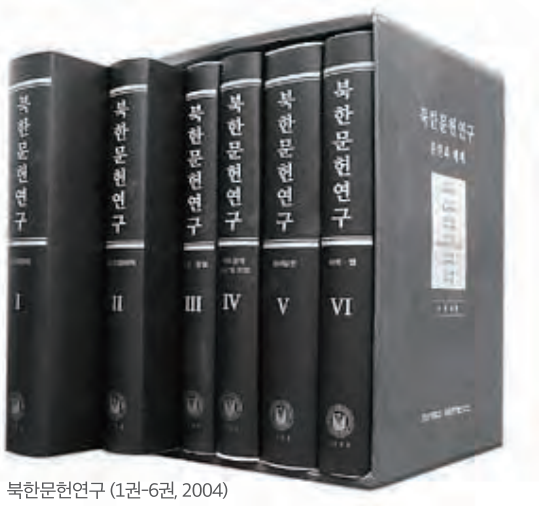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2021)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하여
(2022)

## 2. 북한문헌연구 : 문헌과 해제

서대숙 소장(8대)은 2000년대 초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2004년에 발간된 총 6권의 북한문헌연구는 제1권 조선로동당, 제2권 최고인민회의, 제3권 사상·통일, 제4권 대외관계·군사 및 안보, 제5권 경제발전, 제6권 사회·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대숙 소장의 주도로 이뤄진 북한문헌연구는 북한연구에서 필수적인 원전 200여 개에 해제를 덧붙인 것입니다. 북한 연구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자료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권 '노동당'에서 6권 '사회·법'까지 주제별로




북한문헌연구 (1권-6권, 2004)

6권에 걸쳐 모두 3,270여 쪽에 이르는 자료집입니다. 2004년 3월 초 400질 한정판으로 발간돼 연구기관 및 학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북한연구의 권위자인 서대숙 하와이대 석좌교수의 구상과 지난 30년 이상의 연륜으로 북한학 연구의 메카가 된 연구소의 물적, 인적지원이 4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 3. 노동신문 연구 프로젝트

연구소는 1970년대 중반 10년간(1976년 7월-1986년 6월) 북한 노동신문 사설 내용을 연구분석한 '노동신문 연구프로젝트'를 1987년 2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이 연구는 북한연구에 있어서 최초의 본격적인 대규모 계량분석으로서 344개의 표본을 총 70여 개의 변수를 통해 북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변동과 추세를 추적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연구소에 비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완성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선도적이었던 노동신문 사설분석연구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했음은 물론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1차 완료에 이어 이후 계속적인 내용분석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4. 북한의 도시변화 연구

2002년 8월 연구소는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육성 취지에 공감하고 북한연구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도시변화 연구: 청진, 신의주, 혜산을 중심으로"라는 3년 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실증적 자료와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도시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구체성의 결여라는 북한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최완규 북한대학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전임연구원 5명, 공동연구원 7명 등 총 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1차 년도 연구에서는 전후복구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 도시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총론에서는 북한도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본론에서는 도시화과정, 당사업체계, 자립적 지방경제, 농민시장, 도시여성, 의료보장제도, 주민의식 등 7개 분야를, 결론에서는 7개 분야를 종합하여 북한 도시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고찰하였습니다.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2004)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2006)

### 5.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라는 대주제 아래 중장기 연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를 대학 내 연구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2009)

거점으로 육성하여 대학의 전반적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단계(2006-2008)에서는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에서 북한 국내적 수준의 체제전환을 연구하였습니다. 2단계(2009-2011)에서는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분석수준을 도입하여 동북아와 북한의 체제전환 연관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소는 1-2단계 연구결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3단계(2012-2014)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단은 심사평을 통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구실적도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개인들의 연구역량도 탁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심사단은 연구소가 다루고 있는 연구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여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호평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박사급 연구교수 6명과 대학 교수진 6명이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단계 연구 주제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체제 전환과 관련된 북한 체제 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과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 전환 촉진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변수들의 작용을 보강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6. 북한 '새 세대'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이전까지 북한 사회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이해, 정치권력이 유지되는 방식에 대한 인류학적인 해석, 국가와 사회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그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은 대개 북한 정권과 그 특유의 정치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북한사회와 문화를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사람들, 특히, 북한 사회의 '새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새로운 대상과 관점을 소개하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새 세대'를 장마당(비공식 시장)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연구소는 수개월에 걸쳐 '북한 새 세대'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의 의식이 기성세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젠더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15일 "북한 새 세대: 체제전환 혹은 체제수호의 축?"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부 후원으로 이뤄진 이 학술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북한 '새 세대'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2015)

다. 제1세션 '북한 새 세대: 정치·젠더 인식 변화'를 주제로 '경과보고 및 북한 새세대 연구의 의미', '북한 새 세대 인식조사: 정치영역', '북한 새 세대 인식조사: 젠더영역'에 이어 제2세션 '북한 새 세대: 경제·사회문화 인식 변화'에서는 '북한 새 세대 인식조사: 경제영역', '북한 새 세대 인식조사: 사회문화영역'을 주제로 심층토론을 하였습니다. 폭넓은 연구와 토론 결과를 담아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 7. 남북통합연구 현황 자료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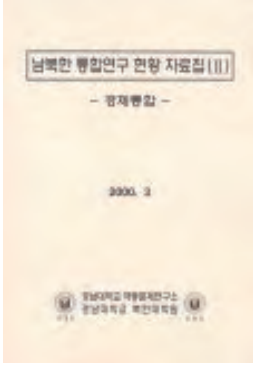
북한연구에 중점을 두어왔던 연구소는 당시 학계에서 이뤄져왔던 거시적, 형식적 통일논의를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방식을 모색하고자 그 첫 과제로서 1998년부터 남북통합 연구현황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통일이 현실화되었을 때 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 및 통합의 전략 등을 연구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남북한 통합연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심화·확대시키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8. 한반도 중심의 국제관계 (미·중, 북·중, 한·일, 남북관계) 연구

연구소는 한반도 중심의 급변하는 국제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연구소는 『북중관계 : 1945-2020』,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미중 전략적 경쟁』, 『한일관계』 등 국제관계연구시리즈 총 38권(1974-2022)을 발간하면서 주요 관계들 사이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북중관계 : 1945-2020』에서는 북중관계 75년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외 관련 학계의 오랜 화두였던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 측면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였습니다.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에서는 2018-2021년 동안 한반도에서 나타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변화의 양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심



남북한 통합연구 현황 자료집
(정치, 2000)



남북한 통합연구 현황 자료집
(경제, 2000)



남북한 통합연구 현황 자료집
(사회·문화, 2000)



한일 관계 (2020)



미중 전략적 경쟁 (2020)



북중관계: 1945-2020 (2021)

층 분석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군사와 남북관계, 국제정치 등 지난 몇 년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과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주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 군비경쟁, 무역·통화경쟁, 해양분쟁, 양안관계 등 현안을 분석하고, 미중 전략적 경쟁 가운데 남북한의 대미·대중 전략의 발전방향과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이후 한일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한일관계』에서는 법학, 정치학, 역사학, 국제정치, 경제, 언론 분야에서 한일관계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한일관계의 문제들과 이를 풀기 위한 고견들을 담았습니다.

연이어 2020년에 『한일관계 기본문헌집』을 발간하여 한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9. 북핵 문제 연구

연구소는 북핵, 미사일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북핵, 오늘과 내일』, 『북핵 문헌집』입니다. 특히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 및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연구소는 비교적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개념, 주요 쟁점과 역사를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2016년 9월에 발간한 『북핵, 오늘과 내일』은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현 연구소 소장)를 비롯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현 주오사카 총영사),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현재 서울대 교수), 장철운 연구교수(현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필진으로 참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전



북핵, 오늘과 내일 (2016)

략, 핵-경제 병진 노선, 북한의 핵개발과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 도발-제재의 모델,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검토하고 모색해 보았습니다.

연구소는 2016년 6월 24일 처음으로 웹사이트에 '북핵·미사일 리포트'를 게재하였습니다. 첫 리포트에는 이틀 전인 6월 22일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 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담았습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리포트를 게재하였습니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해설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개념 등을 가능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이르는 길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2021년에 발간한 북핵문헌집은 제1부 북핵 위기 이전 북한의 핵개발, 제2부 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기본합의, 제3부 2차 북핵위기와 6자 회담, 9.19 공동성명, 제4부 3차 북핵위기와 상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45건의 북핵 관련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10. 북한 역사 자료의 집대성 『북조선실록』

경남대·북한대학원대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Korea Data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조선실록』은 전쟁을 포함한 북한정권 초기를 살았던 인민들의 흔적이자 파편의 역사를 모은 사료집입니다. 『북조선실록』은 편년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역사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1차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총 30권 발간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현재까지 총 130권이 발간(동년 8월 150권 발간 예정)되었으며, 권별 분량은 800쪽 내외입니다. 해당 시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김일성 주석 사망시기까지의 사료를 종합해 총 1,000권까지 간행할 계획입니다.




북조선실록 (2018-현재진행중)

# 03

## 교육활동

1972___2022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고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장벽 허물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이면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고자 연구는 지속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 현실을 명확히 분석하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과 교류에 나섰습니다.

## 1. 북한대학원-북한대학원대학교

지구적 차원의 냉전이 종식되는 조짐이 확연해질 즈음 소련,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국내 최초로 경남대 행정대학원에 북한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이를 모태로 1998년 국내 최초의 북한전문대학원인 경남대 북한대학원을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대학원은 2004년 지금의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승격·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중추적인 역할과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북한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개척되고, 국내에서 제대로 된 학문분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습니다.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대학원대에서 수학한 수많은 동문들이 정·관·학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1998년을 맞아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때는 연구소와 더불어 북한 통일문제의 쌍두마차가 될 북한대학원이 발족한 시기였습니다. 북한대학원 설립은 비로소 연구소의 연구 기능과 대학원의 교육 기능 간 결합과 환류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보다 실사구시적인 남북한 관계정립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통일일꾼을 키우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였기에 북한대학원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연구 성과와 폭넓은 국내외 전문가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




북한대학원대 통일관 개관식,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학계 주요인사 및 북한 측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 (2004.6.15)

니다. 국내 몇몇 대학과 대학원 안에 하나의 학과 형태로 북한학과가 개설돼 있긴 했지만 북한문제 전문 단일대학원이 세워진 것은 최초였습니다. 개원 초부터 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북한대학원에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정부관료, 법조인, 기업인, 문화계 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석사과정에 지원하여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대학원은 교수 중심의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임 교수진 외에 리영희(전 한양대 교수). 한배호(전 세종연구소장), 서대숙(미 하와이대 교수), 조명철(전 김일성대 교수 출신), 미하일 노쏘프(러시아 미국캐나다연구소 부소장) 등을 초빙교수로 위촉했습니다. 남북문제가 국내문제에 머무르지 않는 만큼 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들도 수시로 참여,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외국의 전문가들보다 훨씬 많음에도 국제감각이 부족한 탓인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소를 거치거나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어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등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초빙교수진으로 모셨습니다.



통일관 건립기 앞에서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함께 (2004.6.15)

당시 처음으로 뽑은 첫 신입생 32명의 면면은 북한대학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행정, 경제협력, 사회개발, 통일정책 등 4개 전공으로 나눠 뽑은 신입생들 대부분은 북한이나 통일 관련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로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부, 국방부, 안기부,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을 비롯해 북한 취재기자까지 두루 망라돼 있었습니다. 이미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강단에서 남북관계를 강의하고 있는 대학강사도 좀 더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했습니다. 북한과 교역 및 투자협력을 협의 중인 기업인, 재미동포 기업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직간접으로 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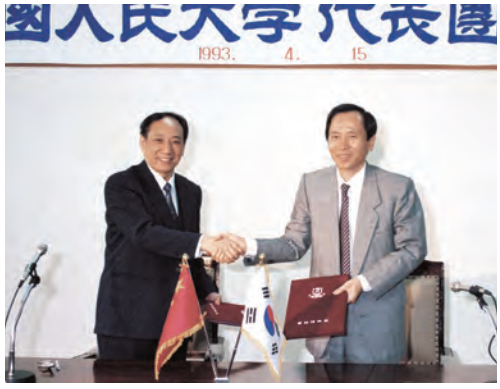
북한대학원 설립 허용을 정부에 처음 요구한 때는 지난 197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남북 사이의 '7·4 공동성명' 발표 뒤 '반공' 일변도의 교육에서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남북한 교류협력체체로의 전환에 필요한 실무자 양성과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체제전환을 시작한 1989년 무렵부터 다시 1971년에 구상했던 계획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학자보다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정부 측에 제안하고, 마침내 대학원 설립을 승인받았습니다.

북한대학원과 함께 북한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1998년 11월 20일 창간호를 낸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였습니다. 북한대학원은 북한학의 세계화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북한

전문 학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연구영역을 기존의 정치, 군사 중심에서 문화,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학계의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80년대 이후 새롭게 축적된 북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성과를 수용하였습니다.

## 2. 공산권체험 교육프로그램/ 북한과의 학술교류

국제적인 냉전체제가 종식되어 가던 1986년 당시 박재규 총장은 우리나라와 수교도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을 방문해 한국 대학생들의 '공산권체험프로그램'을 중국 측과 합의하고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부의 초기부터 전국의 대학캠퍼스에는 민주화·자유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더불어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올바른 현실인식을 돕기 위해 박재규 총장은 중국, 소련을 방문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태를 교수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86년 9월 중국 정부와 일본 무역회사 협조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공산권국가 체험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생들과 교수들을 경남대가 직접 선발하고, 교육지원은 중국 측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체험교육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1986년 가을부터 시작된 체험교육이 2년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1988년부터는 국내 다른 대학들도 뒤이어 중국 대학들과 직접적인 학술교류에 나서게 됩니다. 경남대가 중국과 수교도 맺기 전에 시작한 학술교류는 당시 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와의 학술교류, 나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민대와 학술교류 합의 (1993.4.15)

1988년 민주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처음으로 함께 하는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박재규 총장은 올림픽이 끝난 직후 소련 정부와 소련 동양학연구소의 초청에 의해 당시 노태우 정부의 허가를 받고 1989년 2월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구소와 소련 동양학연구소는 상호 학술교류와 한국 학생과 교수들의 소련 사회주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9월 17일에는 소련 과학원 산하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인 티타렌코(Michael Titarenko) 박사가 연구소를 방문하여 두 연구소 간의 자료교환을 비롯한 학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중국 사회주의 체험교육과 더불어 1989년 여름에 시작된 학생과 교수들의 소련 현지 체험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에 따라 이 프로그램 참가자가 빠르게 증대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학생과 교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분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게 된



Sadovnichy 모스크바국립대 총장과 함께 (1989.2)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비 부담조건으로 방문과 체험교육이 소련에서 동구권 국가들로 확대되면서 사회주의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도 하기 이전에 시작한 사회주의국가 체험교육 연수프로그램은 훗날 이들 나라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수교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위에서 무모하다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연구소는 이 과정이 평화통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믿으며 정면돌파했습니다. 중국 인민대, 소련 동양학연구소와 교류협약 체결 소식은 당시 국내학계 등 전문가들에게 매우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사회주의 연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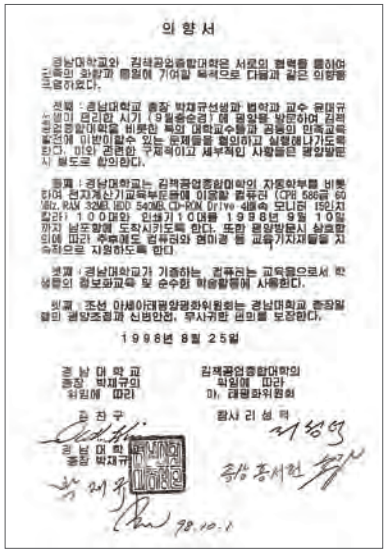
1998년 9월 26일-10월 3일 8일간 박재규 총장은 남북한 학술교류를 선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김책공업종합대(총장 홍서헌)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를 방문해 남북한 대학들이 상호교류협력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전까지 집중했던 중국, 소련에 이어 북한의 대학들과 학술교류와 공동연구의 문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일반인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것에 부응하고자 민간교류의 실질적인 지원기관이 되기 위해 연구소는 '남북한교류협력실'을 열었습니다. 북한 및 남북교류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외 북한 관련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 실무전문가 및 연구자들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대북사업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박재규 총장은 2002년 9월 16일부터 7일 동안 KBS 교향악단 남북합동연구 대표단 고문자격으로 평양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김책공업종합대 홍서헌 총장과 협력 의향서 체결 (1998.8.25)



의 향 서

경남대학교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

1998년 8월 25일

경 남 대 학 교 총장 박재규의 위임에 따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직일에 따라 대표단 단장

경남대·김책공업종합대 의향서 (1998.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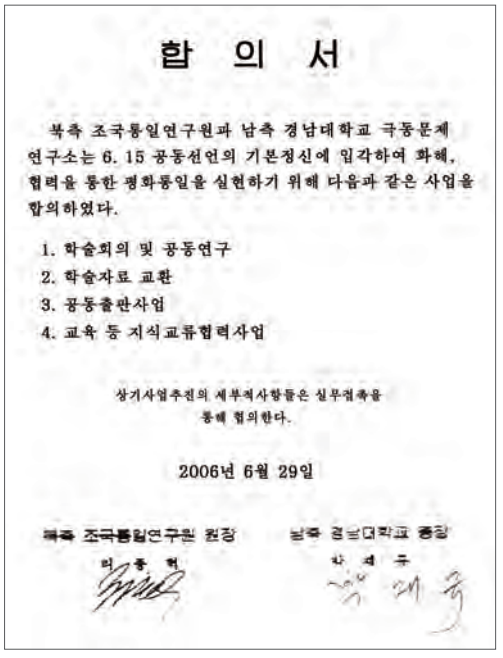
을 하며 북한 측 대화파트너였던 전금진 북측 대표,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 등과 조우하였고, 1998년 방북 시 MOU를 체결했던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 총장도 다시 만나 학술교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4주년을 맞는 해인 2004년 6월 15일 통일관 건물을 개관하였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북측에서도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원동연 아태평화위원회 실장 등의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여 커다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용순 대남비서,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과 함께 (2002.9.20)

개관식에 참석했던 리종혁 부위원장과는 이전부터 논의했던 남북한 간 학술교류·협력과 관련해 진전을 보였고, 이는 2006년 6월 29일 경남대와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사이의 합의서 체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 북측 조국통일연구원과 연구소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학술자료 교환, 공동출판사업, 교육 등 지식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5년 6월에는 북한의 통일문제 전문연구기관인 조국통일연구원과 학술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합 의 서

북측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측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는 6. 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의하였다.

1. 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2. 학술자료 교환
3. 공동출판사업
4. 교육 등 지식교류협력사업

상기사업추진의 세부적사항들은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한다.

2006년 6월 29일

북측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남측 경남대학교 총장

경남대·조국통일연구원 합의서 (2006.6.29)

### 3. 통일경제아카데미(남북경협아카데미)

1999년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경협 실무자 양성을 위한 남북경협아카데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후 이 아카데미를 계기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남북경협아카데미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의 확대심화와 남북경제공동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기업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한다면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 남북경협아카데미에서부터 다져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연구소는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남북경협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고 정부 당국자 및 북한전문 학자 등 대북 사업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과제, 북중경협의 현주소와 미래상, 대북 NGO와 남북 교류협력, 남북경협과 분쟁사례 등의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남북경협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류협력 및 북한 경제 강좌를 개설해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남북경협아카데미는 현재 '통일경제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5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1999년 6월 1기생 40여 명을 배출한 아카데미는 '통일이 될 때까지' 꾸준히 벌이기로 한 교육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아카데미는 북한의 실상을 사실 위주로 전하는 데도 힘을 쏟았고,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연구소는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외 및 북한 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초빙하여 남북관계의 현안인 북한 경제의 실태와 경제변화 노력, 그리고 경험적 사례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아카데미를 수료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을 함께 방문하기도 하고, 포럼을 개최하여 남북경협과 북한경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 남북경협아카데미 회원 20여 명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통일기원 방북단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양시내 관광, 평안북도 정주 방문, 묘향산 등산, 남포 '평화자동차' 공장 견학 등의 일정



남북경협아카데미 개설 (1999.5.7)



제7기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 (2019.5.23)

을 무사히 마쳤으며, 창광유치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이 사용할 문구류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 중 한 회원은 "남과 북의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우리 겨레의 통일이 그다지 멀지 않음을 느꼈다"고 방북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 5월 28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남북경협의 새 시대 어떻게 열어야 하나"를 주제로 남북경제협력포럼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이어서 그 다음날인 5월 29일 남북경제협력포럼에서 주최하는 제1차 통일기행에 6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도라산역, 남북출입사무소, 대성동마을, 임진각 등을 둘러보며 포럼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6월 4일-7월 23일 사이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8강 일정으로 통일여성아카데미 강좌를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후원을 받아 지역민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2012년 4월부터 '남북경협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4월 기존의 남북경협아카데미에서 달라진 남북관계, 대내외 정세변화 등을 감안해 북한경제와 통일경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제시 등을 위해 '통일경제아카데미'로 개명한 뒤 처음으로 제1기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경협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개설되었음에도, 아카데미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 소속된 44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1월 29일에는 제1-6기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 수료생들을 초청해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 총동문회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의 첫 순서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통일경제아카데미는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동반성장 및 대외경쟁력의 확보는 국가와 기업 차원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된다면,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 4. 한마통일리더십·글로벌한마 프로그램

연구소는 매년 경남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과 통일현장 학습을 포함하는 '현장실습형 통일심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최근 북한사회 및 남북한 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분단 현장방문 견학 및 특강, 도라산역 및 판문점 견학,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방문, 탈북대학생들과의 만남 등을 4박 5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타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할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글로벌한마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이 연구소를 방문해 왔습니다. 글로벌한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중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경남대 재학생들과 체험적 교류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세계화를 적극 실천한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2018년 글로벌한마 프로그램에는 미국, 독일,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 27개 대학의 79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 5. 사이버 북한강좌·통일교육프로그램

2000년에는 국내 최초로 일반인들을 위한 사이버 북한강좌가 개설됐습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과 연구소는 5월 29일부터 하나로통신과 공동으로 '북한법과 남북경협'에 대한 인터넷 강좌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좌는 14주 동안 '공동강의(팀티칭)'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북한 관련 강좌가 늘었으나 대부분 전문 학위과정이란 점을 감안해 대중을 위




2019 한마통일리더십 (2019.6.24-7.11)

한 인터넷 강좌를 기획한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이버 북한강좌'를 개설했을 뿐 아니라, 남북한 간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여러 기업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사이버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campus.hananet.net)'은 하나로통신의 초고속 망을 활용해 경남대 원격교육연수원이 주관하였습니다. 초·중등교 교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12주 강의프로그램으로 1기가 개설됐습니다.

## 6. K-MOOC, 통일교육선도대학, 경남통일교육센터 등 운영

2016년부터 K-MOOC을 통한 '세계인의 북한읽기', '세계인의 북한경제읽기', '세계인의 북한문화읽기', '북한 관광의 이해' 등 독창적인 북한·통일교육 콘텐츠를 해외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인의 북한문화읽기'는 북한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을 거시적으로 다룬 '세계인의 북한읽기'의 심화 강좌로서, 사회문화 부문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 강좌들을 통해 북한의 역사, 사회, 교육, 예술, 문화의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여,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K-MOOC은 2015년 시작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입니다.

**※ K-MOOC 강좌 개발·운영 현황**

| K-MOOC 강좌명 | 개발연도 | 담당교수 |
|---|---|---|
| 세계인의 북한읽기 | 2016 | 딘 울렛, 허은경 |
| 세계인의 북한문화읽기 | 2017 | 김성경 |
| 세계인의 북한경제읽기 | 2018 | 양문수 |
| 한반도의 국제관계 | 2019 | 조진구, 이상만, 김동엽 |
| 북한관광의 이해와 전망 | 2020 | 임을출, 고계성 |
|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인식과 화해 | 2022 | 이상만, 조진구 |
| 전쟁과 평화 | | 이병철, 정재욱, 김상범 |
| 글로벌 이슈와 세계시민 | | 문미리, 박서화 |

2016년 3월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경남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경남대는 교육부의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안보 전문인재 양성사업'과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을 4년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12일에는 연구소 정산홀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남대 외 광주교대,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등 6개 '통일교육 선도대학'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통일준비! 통일교육 선도대학이 앞장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박재규 총장을 비롯해 6개 통일교육 선도대학 총장이 모두 서명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공동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사회 통일논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통일교육 우수모델 개발·확산, 통일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 양성 노력 및 실질적 통일준비 추진, 선도대학 간 상호 협력 확대·발전 등입니다.

경남대는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통일교육센터'사업에서 '경남 통일교육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교육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교육의 전문성, 체계성, 효과성을 창출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2022년 평화·통일교육 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적 제공을 위해 기존 7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10개 체계로 확대·개편했습니다.



"대학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통일선도대학 학술회의 (2016.8.12)

경남대는 이미 2020년부터 경남과 부산,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의 통일교육센터를 통합한 '영남권역 통일교육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 내 통일역량 강화와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확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교육 플랫폼 구축 및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왔습니다. 초대 센터장은 경남대 박재규 총장이 맡아 왔습니다. 특히 통일교육 TV 개국과 홈페이지 운영 및 다양한 시스템으로



경남통일교육센터 개소식 (2022.5.19)

지금까지 강의실에 갇혀 있던 통일교육을 현장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통일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경남대는 이번에 개편·확대된 사업을 통해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역 통일교육 허브로 안착되고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 통일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한 '202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성과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선정되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북한·통일연구의 메카로서의 명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경남대는 '경남통일교육센터'가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 기여하는 지역 통일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통일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다 특성화된 통일교육과 지역 통일교육의 허브로서 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변화와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04

## 국내외 학술교류·지원활동

연구소는 국내외 학술기관 및 학자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북한·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핵확산, 동남아, 해양 문제 등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국내외에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연구자들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1972_____2022

해외학자들과의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 해외학자 하기연수프로그램과 해외학자초청세미나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과학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와 관련 학계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용역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일련의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참신하고 의욕적인 신진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1.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통일 및 북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어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교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가진 해외 전문가 집단의 확대와 역할이 매우 긴요합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2020년은 한반도 북한·통일 관련 해외 전문 인재를 폭넓게 양성한 신(新)한류를 일으킨 한 해로 기록됩니다. 연구소가 통일부가 지원하는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통일학 분야 연구를 위한 외국 연구자 학술지원 프로그램으로, ① 한반도 문제 해외 전문가 양성, ② 국내외 연구자 간 논의 및 교류의 장 확대, ③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목표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소가 북한·통일학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해외 인재 양성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소와 국내 유일의 북한문제 전문대학원인 북한대학원대와 공동으로 북한 및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해외 전문가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연구자에게 국내 연구기회 및 북한·통일 등 한반도 문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해 기반을 확대시키고, 국내외 연구자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연구자의 대외활동을 지원하여 북한·통일 문제 관련 공공외교를 실현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2020-2021년 본 사업을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북한·통일학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의 장학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기존 추진하던 프로그램과 더불어 대상자를 해외 거주 외국 연구자로 확대하여, '해외 북한·통일 정책·학술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추가·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북한·



2020년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사업 출범식 (2020.9.24)

통일학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제도화 기틀을 마련한 연구소는 앞으로도 우수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전문가를 유치·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1)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구소에서 운영한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해외의 북한 및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을 선발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을 원년으로 하여 2년간 9개국 18명의 펠로우를 지원하였고,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도 7명의 펠로우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연구자 개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펠로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및 전·현직 장·차관,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특별강좌가 있습니다. 특강은 북한·통일·국제관계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2년 동안 총 41회를 진행했으며, 각 강의를 부록집으로 제작해 신규 펠로우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역사와 분단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총 4회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참여, 언론 기고 등 대외 연구 활동 활성화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기존 개설된 프로그램인 통일경제 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등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체계적·직접적 연구자 관리와 수요에 따른 맞춤형 운영을 함으로써 타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정기적 연구 발표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피드백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최종 연구결과물에 반영하는 등 질적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펠로우들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북한·통일 관련 전문성 있는 강의와 자료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020년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사업 오리엔테이션 (2020.9.1)

## 펠로우 및 학위과정 프로그램 참가자

| 구분 | 성명 | 국적 | 연구 주제 |
|---|---|---|---|
| 2020 | Christopher McCarthy | 미국 | Inventory and monitoring of North Korea's national parks and wildlife habitats using multispectral satellite imager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conservation and ecotourism framework. |
| | Anastasiia Barannikova | 러시아 | New approaches to nuclear DPRK |
| | James Banfill | 미국 |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at the Local Level in the DPRK |
| | Peter Moody | 미국 | 1. Reformed Folk Music and the Search for the Third Sound: Is Indigenous Cosmopolitanism a Useful Way to View North Korea?<br>2. Can the US Learn from South Korea's Reconciliation Policies?: A Diplomatic Outcome Analysis of Inter-Korean Separated Family Reunions and Music Exchanges |
| | Sijia Xu | 중국 | 김정은 시대 북한 대형가전의 '공급·유통·소비' 매커니즘을 통해 본 북한 주민의 소비양상 |
| | Ruoying Yu | 중국 | 소유관계에 대한 논의와 사회주의 농업관리체계의 수립 - 북한과 중국의 비교 |
| 2021 | Mark Kim | 미국 |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국인기업 경영사례 연구 |
| | Pavel Em | 러시아 | Songbun: A Comrade's Destiny Has the Emergence of the Market Influenced Social Mobility in North Korea? |
| | Ewa Motylinska | 폴란드 |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Transformation Feasibility Study – Theoretical Approach |
| | Hisashi Hirai | 일본 | 김정은 정권의 지도이념 변천 |
| | Meihua Liang | 중국 | 북한의 대 중국 상대적 자율성 형성에 관한 연구 - 1953~1961년을 중심으로 |
| | Xiao Niu | 중국 | 김정일과 김정은의 집권 스타일 비교 |
| | Motin Dylan | 프랑스 | When Does the Peaceful Unification of Divided States Become Possible? Balance of Power and its Implication for Unification |
| | Chanhyun Cho | 캐나다 | 북한 핵문제는 왜 해결하지 못했나?: 이익과 불이익 사이의 미국의 딜레마 |
| | Yuko Nagasawa | 일본 |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기 북한의 정기간행물의 대외인식 -역사학·고고학의 「1965년 체제」 및 「한·미·일 제국주의」 비판 |
| | Jonathan Yainishet | 독일 | Land and aspirations in the Korean DMZ: Observations from division's frontier |
| | Owen Miller | 영국 | The Hŭngnam Fertiliser Factory between the Pacific War and the Korean War |
| | Qian Xu | 중국 | 중국과 한반도의 '일대일로' 협력가능성에 대한 연구 |
| 2022 | Osamu Koike | 일본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일본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 |
| | Peter Ward | 영국 | 북한 군사경제 및 인민군의 관계 |
| | Taichiro Yoshino | 일본 | 한국의 북한 이탈주민 대안학교의 현황과 과제: 남북통일시대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
| | Christopher Green | 영국 | 현대 북한의 제도적 변화의 맥락에서 소비패턴을 탐색 |
| | Hemant Dubey | 인도 | 한국정치문화에서 '북한'과 '통일'의 포지셔닝 |
| | Manon Prud'homme | 프랑스 |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이해 |
| | Junya Nishino | 일본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방위·억지를 넘어 공통의 평화 구상으로 |

### 2) 해외 북한·통일 정책·학술 연구지원

2022년부터 연구소는 국내와 해외 연구자들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외 북한·통일 정책·학술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소재 국책기관, 싱크탱크. 해외 현지 연구자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하여 남북관계와 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촉진 방안,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 및 평화구축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공모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깊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35개 기관·연구그룹·연구자가 지원하였으며, 그중 7개 대상이 선정되어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심을 받은 만큼 이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물들이 남북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참신한 대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발전시킬 것입니다.

### 3) 북한·통일학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 지원

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지원'은 해외 대학생 또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한국 내 체류하며 북한대학원대에서 북한·통일학 학위과정 이수 및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4명(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3명), 2021년 2명(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1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총 22명이 지원을 해서 5.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으며, 2021년은 15명이 지원하여 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6명의 학위과정 장학생들은 북한대학원대 석·박사 과정 대상 개설 교과목을 수강하며 학업을 원활히 수행하였고, 모든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Course work 외에도 학위과정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 페이퍼 작성 등 과제 수행 및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학기 중 월 2회씩 총 9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 강좌'와 '글쓰기 첨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 구분 | | 성명 | 국적 | 연구 주제 |
|---|---|---|---|---|
| 2020 | 박사 | Dan Gudgeon | 영국 | 남북 평화구축, 스포츠 교류 |
| | | Gabriela Bernal | 네덜란드 | 통일한국과 동북아 평화 |
| | | Liyuan Fu | 중국 | 한반도와 동서독, 중국·대만 비교 |
| | 석사 | Spencer Steinbach | 미국 | 북한 정치체제와 외교정책 |
| 2021 | 박사 | Samantha Marie Marcoux | 미국 | 북한의 주체사상이 개인·사회·국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교육체제를 중심으로 |
| | 석사 | Elizaveta Rekler | 러시아 | 정치체제, 이념, 민족주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글쓰기 첨삭 프로그램의 경우 총 28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경남대 글쓰기센터의 전문교수진들의 한국어 첨삭을 통해 학위과정생들의 작문 실력 배양 및 학위논문의 질 제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펠로우 프로그램에서 추진한 특강, 학술대회, 현장학습 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북한대학원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SSPK (Summer Studies Program in Korea)

연구소는 매년 여름 한국 및 남북한 관계, 동북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를 초빙하여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학술교류와 한국학 연구 활성화, 한반도 문제 관련 해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즉 하기 해외학자 초빙 프로그램(SSPK: Summer Studies Program in Korea)을 시작하여 한반도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연구공간과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국외에 거주, 활동하는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이 여름 동안 한국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학문적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학자들은 국내외에서 저명한 학자들로 한 몫을 다하고 있는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소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자인 피터 에반스(Peter Evans) 교수도 그중의 한 명으로서 그는 연구소를 연구자들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미국 사회학의 거장인 피터 에번스 교수는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초청되어 1988년 4월 23일-5월 26일까지 연구소내에서 거주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종속적 발전개념과 삼자동맹(triple alliance) 개념 등을 제시해 발전문제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에번스 교수는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San Diego) 캠퍼스에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학자들 중에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박사 과정, 또는 박사후 과정 학생의 신분으로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마그마(Magma)'라고 표현하여 연구소와의 연계뿐 아니라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금도 학계에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 등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따라 사회주의권과의 교류확대와 남북한 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연구소의 실천적 학술활동으로 인해 존재감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해외학자들이 앞다투어 연구소에 체류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문제를 연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연구소가 운영하였던 하기 해외학자 초빙 프로그램에 해외학자들의 신청이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오랜 기간 성공적인 운영경험은 2020년 통일부가 후원하는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을 맡게 된 토대가 되었습니다.

## 3. 마그마

연구소는 일찍부터 공인된 식견과 능력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지식기반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우수한 신진학자들에게 연구 및 다양한 인적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그마'란 연구소를 거쳐 간 객원연구위원들의 모임으로서, 1987년 이래 연구소 지하 연구실에서 '분출'을 꿈꾸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던 소장학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현재 마그마는 5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구소에서 분출한 후 적지 않은 마그마 출신 학자들이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을 맡는 등 학계를 위시하여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오래전부터 북한 및 사회주의와 관련해 새로운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박재규 총장은 젊은 학자들의 학문적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념적 편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젊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조건 없이 연구시설을 제공, 학문 교류의 터전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력 확보가 결국은 오늘날 연구소 도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그마는 해외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사회과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은 객원연구위원으로서 연구실과 연구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분출'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마그마라는 명칭은 학문적 의욕이 가장 왕성한 젊은 연구자들이 지하에 머무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고 함택영 교수가 1993년에 지은 이름입니다." 마그마로 4년 넘게 연구소 지하실에 머물렀던 이호철 현 인천대 정외과 교수의 회고입니다.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숙합니다. 만일 특별한 색깔이 강제되는 분위기라면 생명력이 없을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각자의 학문적 성과를 교류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곧 마그마의 생명력입니다." 역시 마그마 회원이었던 서강대 유석진 교수의 회고입니다. 또 다른 마그마 출신인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대학원장도 마그마로 지내는 동안 "극동연으로부터 어떤 제약도 없었다"며 마그마들




'마그마' 라운드 테이블 (2012.8.27)

## '마그마' 출신 학자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 강원택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 강하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본부장 |
| 권호연 | 일본 호세이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 김기석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 김도종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 김동찬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
| 김상기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김상태 | 전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
| 김수진 | 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김용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 김용복 | 경남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 김용호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김우상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김유향 | 전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
| 김의영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 김일수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김준기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김진기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교수 |
| 김판석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명예교수 |
| 김형률 |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 김호섭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 |
| 류석진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마상윤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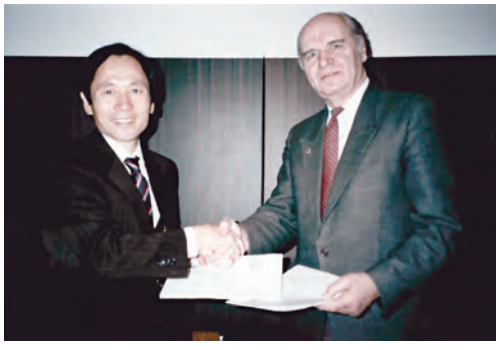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 박건영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백종국 |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 빅터차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
| 신욱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 신정화 | 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 |
| 안재흥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 유진석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유현석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은용수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동민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성봉 |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충묵 |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원장 |
| 이혜정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 이호철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장훈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 전웅 |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
|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 정연정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정철희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조대엽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조원호 | 경상국립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
| 조정관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최대석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명예교수 |

의 친교는 "학문적 통찰력을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4. 국내외 주요 학술교류협력기관(MOU)

연구소는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해 양질의 연구 결과를 많이 생산하는 동시에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교류의 폭을 확대하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와 저변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기간 연구소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의 연구기관 등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동안 세계 각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등 16개국의 약 40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며 학술 교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역사·정책 연구소로 권위 있는 우드로윌슨센터,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일본 와세다대, 중국 사회과학원, 소련 극동연방대 등과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박재규 총장은 1989년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소련 과학아카데미 미국·캐나다연구소(Institute of the USA & Canada, USSR Academy of Science) 초청을 받아 소련을 방문하였습니다. 체류기간 동안 동양학연구소(Institute of Oriental Studies)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소련 내의 대학과 학술기관을 두루 둘러보고 자매교류 추진을 비롯한 학술교류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방문은 당시 국내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소련 정부의 초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27일 소련 동양학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소장 제나디 아이 츄프린(G.I. Chufrin) 박사를 한국에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1986년 7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블라디보스토크선언' 이후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한계와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소련 동방학연구소 Kapitsa 소장(전 소련 외무차관)과 MOU 교환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베트남, 중국, 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동아시아 문제 연구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학술교류·협력을 추진했습니다. 1992년 1월 19일-26일 기간 동안 니콜라이 말리세프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교육·과학·문화담당 보좌관이 마라트 쿠리예프 러시아 연방 과학고등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블라디미르 쿠릴로프 소련 극동대 총장 등과 함께 연구소를 방문하여 민간학술교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러시아경제아카데미 Vitality I. Vidiapin 총장 일행이 같은 해 9월 2일부터 9일까지 본교와 연구소를 방문해 학술교류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누었습니다. 9월 19일에는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대학교의 Cao Van Phuong 총장과 본 연구소와 학술교류 관계에 있는 호치민시 대학교 동남아연구소의 Nguyen Van Lich 소장이 방문해 "베트남 대학교육 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995년에는 러시아 분소와 동남아 분소를 열었습니다. 러시아 분소는 러시아 사회과학아카데미 US-Canada 연구소 내에 설치되었고 초대 소장은

Mikhail Nossov 박사가 맡았습니다. 동남아분소는 태국 타마사트대 동아연구소 내에 설치되었고 Medhi Krongkaew 박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분소들은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동남아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곽태환 소장은 12월 22일-27일간 태국의 타마사트대 동아연구소를 방문해 방콕에서의 공동학술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잠롱 전 부총리와 탁신 부총리와 만나 연구소 내 태국연구센터 설립 기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1999년 1월에는 뉴질랜드의 빅토리아대 아시아학연구소(Asian Studies Institute)와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경남대는 9개국 11개의 연구소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연구소는 영국 버밍엄대(University of Birmingham)의 일본센터(The Japan Center),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의 사립대학교인 Universidad Catolica Andres Bello와 교류협력을 추진했습니다. 남미지역과도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세계 유수의 연구소와 지속적인 교류협정체결을 통해 국제적인 학술·연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3일 연구소는 북한대학원대, 대한주택공사와 상호 간에 북한의 주택 및 도시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하여 산학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 도시·주택에 관한 정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긴밀한 협조 및 상호협력이 이뤄졌습니다. 2008년 9월 11일 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는 대만 국립정치대(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Affairs)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0일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유피스AP재단(이사장 권태신) 및 유엔평화대 아시아태평양센터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2일 경남발전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북아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연구과제 의뢰 및 정책자문 등 공동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경상남도의 후원을 받아 지역민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2012년 4월부터 '남북경협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9월 13일에는 중국 북화대 동아연구센터와 연구교류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분석하고 대북한, 대중국 정책 수립에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자료의 제공과 학술성과의 교류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0일에는 KDI국제정책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교류·협력하여 학술역량을 제고하고, 학술 및 경제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연구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연구소는 4월 25일 중국 연변대 경제관리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교류협력하여 학술역량을 제고하고, 학술 및 경제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연구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구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9월 17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중국 내 최대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아태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학술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특히 공동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 연구진의 상호교류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학술교류협정서(MOU) 체결에 의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정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다른 주한 대사관들을 초청하여 북한의 안보, 경제, 인권과 남북관계, 지역 안보관련 등을 주제로 한 비공개 세미나를 공동 기획·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2021년 2월 4일에는 주한 캐나다대사관(대사 Michael Danagher)과의 MOU를 갱신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9일 길림대 동북아연구원과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학술발전을 도모하고자 중국에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술역량을 제고하고 학술 및 관심연구분야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공동 학술회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 및 운영, 연구진 상호교류 활성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에는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과 연구 및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내외 기관과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평화통일 및 남북협력에 관한 인적 교류와 학술행사·학술자료 교류, 공동 프로젝트 추진, 양 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국외기관 등과 추진하는 공동사업, 기타 평화통일, 남북협력과 관련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8일에는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북한 빅데이터 관련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2022년 5월 11일 중국 산동대 동북아학원과 학술교류협정서를, 동년 6월 23일 국회도서관과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전략 및 미래전망 자료 생산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캐나다대사관과의 MOU 갱신 체결 (2021.2.4)



국회도서관과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2022.6.23)

## 주요 교류협력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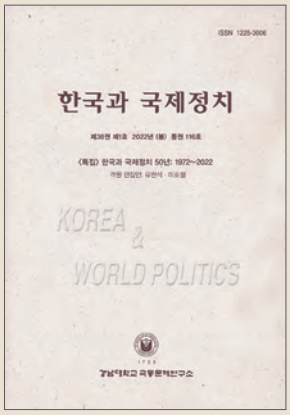
| 국가 | 기관명 |
|---|---|
| 한국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
| | 경남연구원 |
| |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
| |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
| | 국회도서관 |
| | 굿뉴스 |
| | 대한주택공사 |
|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 시스젠그룹 |
| | 에드퓨처코리아(주) |
| | 연합뉴스 |
| |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 |
| | 하나로통신(주) |
| | 한겨레신문사 |
|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
| | 현대경제연구원 |
| | KDI국제정책대학원 |
| | 국회도서관 |
| 미국 | Center for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Oregon |
|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merican University |
| | Korean Studies Program,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
| | The Hatfield School of Government, Portland State University |
| |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 중국 |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
| | 길림성 사회과학원 |
| | 대련대 중조교류센터 |
| | 동북사범대 동북아연구소 |
| |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중심(구 한국문제연구중심) |
| | 북화대 동아연구센터 |
| | 산동대 동북아학원 |
| | 상해국제문제연구원 |
| | 상해정법학원 |
| | 연변과학기술대 |

| 국가 | 기관명 |
|---|---|
| |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
| | 연변대 동북아국제정치연구소 |
| | 연변대 동북아연구원 |
| | 요동학원 조선반도연구소 |
| |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
| | 중국개혁개방논단(China Reform Forum) |
|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 |
| | 중국요녕성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
| 일본 | 松山大学 綜合研究所(마츠야마대 종합연구소) |
| | 神奈川大学 アジア問題研究所(가나가와대 아시아문제연구소) |
| | 早稲田大学 韓国学研究所(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
| |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
| 러시아 |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 |
| | The Institute of USA and Canada, Russian Academy of Social Science |
| | The Vladivostok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
| 독일 |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Korea Office (FNF) |
| |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
| 프랑스 | La Fondation Chirac |
| 스웨덴 | The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ISDP) |
| 이탈리아 | Center for European Strategic Research (CESR) |
| 오스트리아 |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Vienna |
| 캐나다 | Embassy of Canada to Korea |
| |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Montreal |
| 호주 | Monash Asia Institute, Monash University |
| 뉴질랜드 | Asian Studies Institute,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 아르헨티나 | Center for Korean Studies, IRI, National University of La Plata |
| 대만 | 國立政治大學 韓國研究中心(국립정치대 한국연구중심) |
| | 國立政治大學 東亞研究所(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
| | 淡江大學 陸研所(담강대 대륙연구소) |
| 싱가포르 | Choson Exchange |
| 베트남 | Center for Vietnamese and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o Chi Minh City |

# 05

## 정기 연구 간행물

1972___2022




### 1.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일·러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문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오랜 기간 연구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구소를 대표하는 저널에 걸맞게, 남북관계와 통일 등 한반도 문제는 물론 주변 국제정치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학술적·정책적으로 현실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높은 학술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여 평화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 전체,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습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최초 1년에 두 차례 발간되다가 2002년 봄에 간행된 통권 제36호부터 계간지로 전환되었습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2010년 창간 25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국가전략』과 더불어 정치학 분야의 4대 학술지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현재 학술지 재인증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다시 한번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과 국제정치』 초록집 (2022)

## 2. 영문학술지: 『Asian Perspective』




연구소는 대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머물지 않고 각종 회의에서 논의되고 연구소 자체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는 영문학술지 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문제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에 관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연구논문을 수록한 『Asian Perspective』 영문 학술지를 1977년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1970년대는 국내 사회과학계의 암흑기였습니다. 사회주의권 연구나 체제이론에 관한 연구결과를 우리 글로도 섣불리 쓸 수 없었던 1970년대 중후반에 연구소가 영문학술지를 창간한 것은 획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권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성과를 해외 학계에 제대로 알려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주요 편집자들도 당시 북한문제 최고전문가들인 조영환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이만우 미 밀러즈빌 주립대 교수, 김주봉 미 의회도서관 한국담당관장, 이정복 서울대 교수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어설픈 영어로 쓴 논문 투고를 독촉해가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만든다는 심정으로 시



『Asian Perspective』 초록집 (2022)

작했던 이 학술지는 단기간에 국내의 대표적인 영문 학술지로 성장했습니다. 창간 이래 동북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과 변화를 분석, 조망하고 이에 대한 이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외 석학들의 우수논문들을 엄정한 심의과정을 통해 게재해 왔습니다. 애초엔 남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지역연구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한반도와 관련된 사회과학 전반의 논문들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엔 문화, 환경 등의 새로운 분야까지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자크 허슈 등 저명한 해외 석학들을 편집자문위원으로 초빙해 편집기획의 질을 보강한 것도 이 책을 돋보이게 한 시도였습니다. 출판 체제도 연 2회 발간에서 1999년부터 연 4회 발간하는 계간지로 바꾸었습니다. 1995년부터 미국 포틀랜드주립대와 협정을 맺어 공동 편집체제를 운영하고, 1999년에는 해외 학자들의 초빙 편집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알찬 학문적 투자가 이런 권위를 쌓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996년 기준으로 본 학술지는 세계 49개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주립대와의 공동 출판은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를 통해 영어권 학문의 중심지인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동북아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고 학술교류를 증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21일 미국 포틀랜드주립대에 본 연구소의 미주 분소 겸 『Asian Perspective』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1995년에는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제개편을 단행하여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Portland State University)와 공동 출판·편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Asian Perspective』를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저널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 및 동북아 문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인 학술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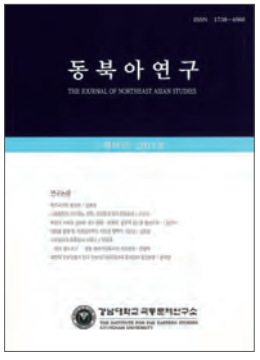
『Asian Perspective』는 1996년, 1997년에 이어 1998년 12월에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국제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1999년부터 『Asian Perspective』를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학술지로 발전시킨다는 취지 아래 3년간 발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학술논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1997년부터 발행되는 모든 논문에 초록이 붙기 시작했고, 1999년에는 객원 편집자(Guest Editor)가 게재하는 연간 '특별호'가 도입되었습니다. 실례로 2000년 1월에 출시된 제23권 제4호에서 컬럼비아대의 Samuel S. Kim 교수가 객원 편집자로서 "동양의 세계화"라는 제목의 특별호를 출간했습니다. 중국 사회의 세계화와 사스, 글로벌 시스템의 브릭스 국가들,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등 현대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소를 다루는 국제적인 사안들에 초점을 맞춘 특별호들이 연이어 발간되었습니다. 『Asian Perspective』 저널은 2005년 유럽의 SCOPUS (초록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고, 2008년에는 미국 사회과학 논문의 권위 있는 인용 지수인 SSCI에 선정되면서 국제적 학술 저널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

습니다. 『Asian Perspective』의 이런 시기적절한 발전과 순위 상승은 연구소가 한경 비즈니스 주관 외교 및 안보 문제 관련 대학 싱크탱크 중 1위로 선정되는 데 있어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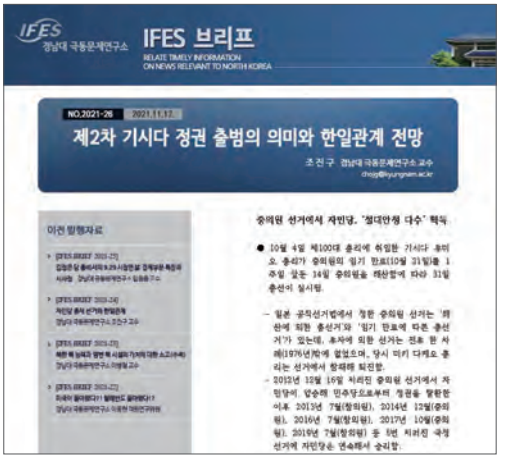
『Asian Perspective』는 국제적인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11년 Lynn Rienner Publishers와 출판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어 2019년에 최장수 대학 출판사인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와 함께하였고, 이는 곧 저널의 가치, 접근성, 그리고 위상을 모두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Asian Perspective』 저널의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22년 동안 수고해 준 Mel Gurtov 교수를 비롯해 총 7명의 편집장들이 저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Asian Perspective』는 2022년부터 Carla P. Freeman 교수의 편집장 직책을 물려받은 존스홉킨스대의 Ho-fung Hung 교수의 리더십을 환영하고 또 기대합니다.

### 3. 『동북아연구』




『동북아연구』는 연구소에서 매년(연 1회) 발간하였던 전문 학술지입니다. 이 학술지는 남북한의 대내외정치와 한반도의 주변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일·러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정책을 다룬 논문들을 게재하였습니다. 1995년 8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2013년 모두 18권까지 발간하였습니다. 『동북아연구』는 연구소의 다른 학술지인 『한국과 국제정치』에 집중할 필요성과 게재 논문들의 중복 우려 등으로 2014년부터 발간을 중단하였습니다.

### 4. 현안평가·전망 자료: 『IFES 브리프』, 『IFES Forum』, 『IFES 현안진단』, 『NK Brief』, 『동북아의 변화동향 평가 및 전망』




매 시기마다 불거진 주요 현안들을 시의적절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현안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는 『IFES 브리프』와 『IFES FORUM』을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이름은 조금씩 달랐지만 주로 북한문제, 남북관계, 동북아 분야에 종사하는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이 시사적인 현안들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교수진과 연구진 및 해외 초빙연구위원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정세를 분석·평가하고 공유하였습니다. 『IFES 브리프』는 최신 북한 및 동북아 정세 동향을 분야별로 압축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한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다

양한 이슈들을 빠르게 분석·평가하고 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IFES Forum』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최신 북한 및 동북아 정세 동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IFES 현안진단』을 통해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치, 안보, 경제 및 사회 동향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분석 평가를 하였으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되어 각국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는 북한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문자료인 『NK Brief』와 『ICNK Forum』을 통해 북한 변화 및 개발에 관한 사실 및 분석 자료를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연구소 영문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콘텐츠가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주로 북한의 변화와 관련된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영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영문자료 『NK Brief』를 생산, 배포하였고, 이는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국문으로 북한자료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외국인에게는 이런 자료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전문가의 분석시각을 외국인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료들을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14년-2016년 사이에는 매년 KDI School과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필진으로 구성해 『동북아의 변화동향 평가 및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영문으로 번역해 세계은행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 5. 정세평가 보고서

### 1) 정세평가·전망 보고서




2010년부터는 매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한반도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한반도리포트』는 국내 민간연구기관에서 최초로 발간된 연례 정세보고서였습니다. 10여 명의 집필자들이 매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10가지 이슈를 선정한 후 수차례의 토론과 집필, 수정 작업을 거쳐 20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정확한 정세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에 비판적 정책 제시를 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와 달리 민간연구소의 자율적·비판적 정책 기조를 현 정부에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북한 연구에 강조점을 둔 연구소는 매해 초에 그 전해의 북한 정세를 평가, 정리하고 새해의 북한 정세를 전망해주는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금은 매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전망 책자 발간이 자리를 잡아서 종합보고서 형식의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보고서 발간 이전부터 정세 평가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은 광복 60돌,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연구소는 2004년 12월 초부터 2005년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두 가지 큰 과제를 북한 핵 문제와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원로 및 전문가 57명을 선정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핵문제 해법(분석과 전망), 핵문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의 역할(정책 제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필요성(실천적 과제 제시) 등 모두 20여 항목에 걸쳐 구체적인 의견을 구했습니다. 임동원 세종연구소 이사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강인덕 경남대 초빙교수, 정세현 이대 석좌교수 등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네 원로를 비롯해 한태규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박영규 통일연구원 원장 등 연구소와 대학의 외교·안보·통일분야 전문가 등 모두 28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언제가 좋은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2009년에는 한반도 기상도에서 태풍의 눈은 미국 오바마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2008년 남북관계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렀고, 6자회담도 조지 부시 미국행정부의 퇴진과 맞물려 2단계 불능화를 마무리하지 못해 북핵 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는 빛이 바랬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역동성을 새로운 미 행정부 출범이라는 외적 변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2009년은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북한의 단기적 수습과 주변국들의 대응은 대체로 순탄하였지만 그 파장은 2012년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후계체제는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졌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 2011년 평가와 2012년 전망"이라는『한반도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정세평가 및 전망 보고서 작성과 세미나 개최는 더욱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성명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에는 총 44개 신문 및 방송사에서 48명의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경제 발전전략 평가와 전망, 미·중·러·일 동북아 정세 평가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0일에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에도 어김 없이 이전해의 정세를 평가하고, 다음 해에 대한 전망을 세미나와 포럼 개최, 그리고 보고서와 책자 형태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2) 한반도포커스

북핵문제,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불안해진 한반도와 주변정세를 고려해 2009년 5월부터 시의적절한 정책제안을 제공하고자 연 6회 발간되는 격월간지 『한반도 포커스』가 2018년까지 발간되었습니다. 『한반도 포커스』는 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였습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이 소식지는 학술지 논문과 언론 칼럼의 중간 쯤 되는 논평문이 실리며 '정책 생산'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정세에 따른 하나의 주제 아래 각기 다른 글 5편 가량으로 채워졌습니다. 2020년부터는 『IFES Brief』라는 제하의 남북 및 국제적 현안을 분석·평가하는 리포트를 평균 매주 1편씩 발간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3) 정책 연구 보고서

연구소는 2004년부터 다양한 국내외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도 발간해 왔습니다. 『김정은 시대 식량증산정책: 축산업, 수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인도-태평양 지역 내 쿼드(Quad)를 통한 협력과 전망』, 『핵무기금지조약(TPNW)과 세계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소고(小考)』, 『AUKUS 동맹과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담론』,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 딜레마』 등 총 13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는 현안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배경, 경과 이론적 틀 속에서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서 단행본보다는 적지만 주요 핵심에 방점을 두어 작성한 연구 보고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추적하고 분석·정리할 분야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할 것입니다.



# 06

## 자료 관리 및 지원 (북한전문도서관)

1972____202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은 국내외 통일 및 북한 문제 연구자들에게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통일·북한분야 전문도서관입니다. 본 도서관은 1978년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 한반도 주변국들과 연관된 각 분야를 종합·분석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50년간 대학 내 유일한 통일·북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내외 통일·북한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북한원전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관은 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 간 상호협력 체계 하에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사회과학분야 6만여 권의 장서 및 610여 종의 정기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경남대 중앙도서관과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 연구자들에게 국내외 학술 자료 및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특수자료실에는 2만여 권의 북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노동신문, 경제연구 등 107종의 북한 발행 최신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신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신간자료를 확보하여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북한발행 자료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장서구축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연구기관, 학술단체 및 연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북한 발행 자료 접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특수자료전용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연구소 50년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아카이브를 활용한 북한발행 정기간행물, 단행본 자료의 관리 및 접근성 개선, 시청각 자료의 원문 제공 등의 지속적인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통해 아카이브 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내외 통일·북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자료 보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 특수자료실 확장, 자료 분실 방지 시스템 업그레이드(자료실 내 CCTV 추가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등 도서관 환경 개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학술연구 지원서비스로 연구진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다양한 지식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972년 연구소를 처음 설립한 뒤 박재규 총장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 전경



북한특수자료실

무엇보다 먼저 북한 관련 자료 수집에 주력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물리적 토대를 먼저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연구소가 북한연구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자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북한 자료를 찾기 위한 외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988년 1월 기준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는 단행본은 5,000여 권, 정기간행물 180여 종, 기타 학회논문 및 연구기관의 논문집 등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이전과 더불어 5,000여 권의 장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서비스하는 다이얼로그(DIALOG) 데이터베이스에 연구소의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가 연결되어 각종 분야의 최신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보고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는 전 세계의 정보를 600여 개의 분야별 파일로 취급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세계적인 데이터뱅크입니다. 또한 1985년부터 시작된 논문색인은 당시 200여 종의 국내외 주요 사회과학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색인하는 본격적인 1차 자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988년 이전에 발행되었던 논문색인들을 한데 묶은 통합본으로 『사회과학논문색인집』 제1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정치학은 물론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으로 분류한 약 4,000여 편의 논문들을 정리했는데, 매 2년 마다 발간될 색인집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많

은 분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도서들도 대량 구매해 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사회학이론, 정치사회학, 정치경제학, 사회주의 경제학 등의 도서가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1945년-1948년까지의 미국 국무성 보고서, 과도정부 의회속기록 등의 기초자료도 구입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회원제에 가입하는 회원들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와 공산권연구에 대한 연구자와 관심 있는 분들이 활동을 더해가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연구소의 활동이 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인 바실 드미트리션(Basil Dmytryshyn) 박사가 슬라브학 관계에 관한 자료(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약 3,000여 권을 본 연구소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하기 위해 연구소는 도서관에 슬라브연구 드미트리션도서관(Dmytryshyn Library of Slavic Studies) 코너를 별도로 개설하였습니다. 미국 소재 Westview Press가 연구소 출판물에 대한 공동출판을 제의하여 1987년부터 실행하였습니다. 외국 출판사와의 공동출판은 당시로서는 국내 출판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로써 발간 도서를 외국에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북한연구에 매진해온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2,500여 권의 조선총독부 자료, 조선공산주의 운동사료집, 중국 공산당과 소련, 동유럽의 체제전환, 한일관계를 주로 다룬 도서들을 기증하였습니다. 이 도서들은 '강인덕 문고' 코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도서관은 통일, 외교, 안보, 국제관계 중심의 사회과학분야 4만여 권의 장서와 500여 종의 정기간행물 등 일반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만여 권의 북한 원전자료와 『노동신문』, 『경제연구』 등 107종의 북한 발행 간행물 및 북한 영화(DVD) 등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그간 국내외 통일·북한 연구의 기반 마련을 이끌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통일·북한 연구 학술지원 서비스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북조선실록』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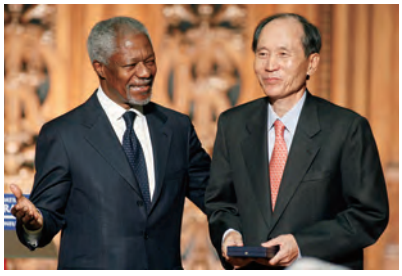
## 주요공적과 활동

1972___2022

1999년 12월 24일 연구소 창설자인 박재규 총장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극동문제연구소라는 민간 연구기관이 이룩해 온 연구성과와 역량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평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박 총장은 개인적으로 북한과 통일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안보, 동북아 평화 문제 등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북한 연구의 토대를 구축해온 것이 입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라크재단이 수여하는 분쟁방지 특별상 수상 소감 연설 (2019.11.6)


심사위원장이었던 Kofi Annan UN 사무총장이 수상자인 박재규 총장을 소개하는 모습


프랑스 Chirac 전 대통령과 Sarkozy 대통령이 박재규 총장을 축하하는 모습

2000년대 들어 연구소는 질적 역량 강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해 6월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연구소는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민간교류를 지원하는 실천적인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더구나 당시 박재규 총장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최고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분단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었고, 또한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남북 간의 대결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전환시키려는 분기점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6일에는 박재규 총장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시라크재단이 수여하는 분쟁방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구소 설립과 북한대학원 설립과 운영 등을 통해 북한 및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라크재단은 Jacques Chirac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08년 문명 간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존중 및 빈곤퇴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시라크재단은 특히 분쟁 예방, 의료 및 보건시설 제공, 산림벌채와 사막화 방지, 문화적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시

외교·안보 부문

| 순위 | 순위 변동 | 연구소 | 영향력 | 연구의 질 | 연구 역량 | 종합 |
|---|---|---|---|---|---|---|
| 1 | –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243 | 227 | 240 | 710 |
| 2 | – | 통일연구원 | 222 | 214 | 198 | 634 |
| 3 | – | 세종연구소 | 216 | 217 | 197 | 630 |
| 4 | ↑1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183 | 178 | 196 | 557 |
| 5 | ↓1 | 아산정책연구원 | 132 | 125 | 124 | 381 |
| 6 | ↑2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27 | 120 | 111 | 358 |
| 7 | ↑4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 108 | 114 | 104 | 326 |
| 8 | ↓1 | 동아시아연구원 | 82 | 112 | 64 | 258 |
| 9 | ↓3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82 | 58 | 109 | 249 |
| 10 | ↓1 | 제주평화연구원 | 45 | 30 | 51 | 126 |
| 11 | ↓1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38 | 38 | 48 | 124 |
| 12 | ↑1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34 | 43 | 30 | 107 |
| 13 | ↑9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32 | 44 | 29 | 105 |
| 14 | ↑3 |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23 | 37 | 34 | 94 |
| 15 | ↓3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33 | 26 | 27 | 86 |
| 16 | ↓2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30 | 21 | 28 | 79 |
| 16 | ↑5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 17 | 22 | 40 | 79 |
| 18 | ↑9 | 성균중국연구소 | 19 | 31 | 21 | 71 |
| 19 | ↑4 |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 16 | 13 | 7 | 36 |
| 20 | ↑5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14 | 12 | 8 | 34 |
| 21 | ↑3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 9 | 8 | 12 | 29 |
| 22 | ↓6 | 김대중평화센터 | 12 | 7 | 7 | 26 |
| 22 | ↓3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10 | 3 | 13 | 26 |
| 24 | ↓4 |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 5 | 11 | 5 | 21 |
| 25 | ↓7 | 동아시아재단 | 5 | 2 | 12 | 19 |
| 26 | ↑1 | 평화네트워크 | 6 | 5 | 6 | 17 |
| 27 | ↓1 | 연세대 북한연구원 | 6 | 2 | 5 | 13 |
| 28 | 신규 | 북한인권정보센터 | 3 | 2 | 4 | 9 |

외교·안보 부문은 15위까지 '100대 싱크탱크'에 포함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중 외교·안보부문 6위 차지

라크재단은 설립 다음해인 2009년 처음으로 분쟁방지상을 제정·시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심사위원 특별상과 시라크재단상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박 총장은 분쟁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전 UN사무총장인 Kofi Annan, Boutrou-Ghali, 전 IMF 총재인 Michel Camdussus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작업을 위해 분쟁방지 및 평화증진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분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위기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의 분쟁방지 또는 해결에 헌신한 인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부문'에서 대학 연구기관 중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경비즈니스 제1157호(2018.1.29.-2.4)에 따르면, 연구소는 영향력 127점, 연구의 질 120점, 연구 역량 111점 등 총 358점을 획득해 외교·안보 부문에서 전체 6위, 대학 연구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연구소 앞뒤로 대부분이 국책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한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의 성과는 단연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의 높은 성과와 위상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구소 출신 학자들은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사 등으로 임명되어 현실 정치에서 이론과 실무를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연구소 출신인 당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연구소가 2명의 통일부 장관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훈 교수(11대 소장)는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주일본 한국대사로, 역시 연구소 출신인 심지연 교수는 2010년 3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018년 3월 28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좌장으로 하는 원로 자문단 21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을 선정했습니다. 원로자문단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등 2000년과 2007년 남북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김영남, 김여정, 리선권 등)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박재규, 이낙연, 임동원 등)이 오찬 회동을 마치고 기념촬영 (2018.2.11)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2005.8.5)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임명장 수여 (2010.3.22)



류길재 통일부 장관 임명장 수여 (2013.3.11)




「제14회 DMZ 평화상」 대상 수상 (2018.11.15)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박재규 총장은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00년 4-6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주역입니다. 전문가 자문단에는 당시 통일부 차관으로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추진 책임을 맡았던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와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 교수는 2020년 평화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는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제14회 DMZ 평화상' 시상식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국내외 담론을 선도하는 동시에 북한대학원대와의 긴밀한 연구·교육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 및 전략 모색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DMZ 평화상은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2005년부터 매년 남북 교류·협력 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대상, 남북교류, 학술 등 3개 부문에 걸쳐 수여하는 상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2008년), 대한적십자사(2013년) 등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통일강좌, 통일체험한마당, 통일교육박람회 등 평화통일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통일 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통일 교육 인식 제고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박정진 경남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이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50년사

1972-2022

III

CHAPTER

# 새로운 50년의 비전

# 01

## 미래 비전과 각오

1972___2022

연구소의 지난 50년은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북한 연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연구소는 명실공히 1989년 설립된 북한대학원대와 함께 북한 연구 전문가들의 산실입니다. 연구소가 늘 주목받아온 이유는 주요 대북정책들의 이론적 기반을 닦아내고 있는 사회과학자들의 '산실'이며, 통일지향 시대에 걸맞는 사회과학계의 학문적 지원을 도맡아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란스런 시기에 연구소는 우리 대학의 상징인 '땀 흘리는 말(汗馬)'처럼 과거 파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기여라는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가일층 성실하게 연구하고 정책적 조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1972년 9월 개소 이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며 담론 형성을 주도해왔습니다. 저명 학술지인 『한국과 국제정치』, 『Asian Perspective』를 비롯한 학술적 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수시로 전략대화를 개최해 왔습니다. 한반도국제포럼(KGF) 개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해외 북한·통일 정책·학술 연구지원 등 굵직한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학문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안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국내외 학술회의 및 통일전략포럼 등 다양한 세미나 개최, 매년 정세평가 및 전망 보고서 발간, 『IFES 브리프』 등의 수시발간을 통해 현안에 대한 진단과 분석·평가 등과 함께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경제아카데미(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로 북한 정세 분석·평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실천적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실사구시적 접근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연구에 대한 일념으로 앞으로도 정진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연구에 대한 일념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북한의 변화를 논리적, 합리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연구역량을 배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그러했듯이 통일문제도 국제질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가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며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나아가기 위한 인식과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구기관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 및 선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변화를 예측해 국가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연구기관과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노력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한문제는 크게는 세계정치, 좁게는 동북아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적 국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해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연구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특히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첨예해지고 역내 새로운 질서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연구소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연구소는 그동안 이뤄온 많은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한문제는 크게는 세계정치, 좁게는 동북아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통일문제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

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극동문제연구소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 연구소는 그동안 축적해 놓은 연구와 대내외적 활동 성과들을 토대로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확산시키고, 평화증진에 더욱 헌신하고 매진해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북한 연구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 정책결정자들이나 학자, 전문가들이 한국 사람이 만든 북한연구들을 더 많이 참고하도록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연구소 설립 5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로서 연구소의 국내외적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해외 북한·통일 정책·학술 연구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대내외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사업들입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평화공공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과 연구소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뿐 아니라 평화공공외교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고정된 인식과 관점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과 연구활동에 매진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주목할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다가오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평화·통일역군의 산실,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학술적 성과를 토대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정립뿐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한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통일한국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뿐 아니라 미래 이슈를 선점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이후의 본격적인 개혁·개방까지 내다보면서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반도 문제에는 무엇보다 유비무환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상황은 얼어붙어 있고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해 보입니다. 더구나 통일은 더 멀고 먼 목표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기상도는 과거에 그러하였듯,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변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필연이고 남북관계의 변화도 필연입니다. 한반도의 변화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위기와 시련,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민족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장차 도래하게 될 위기와 기회의 시기에 잘 대처하여야만 우리는 새롭게 웅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다가오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평화·통일역군의 산실,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 02

## 축하의 글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관계인사 총 61명>**

1972____2022

#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경남대학교와의 인연은 제 인생을 결정짓고 큰 영향을 준 계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박재규 총장님을 모시고 극동문제연구소를 창립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광화문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총장님과 단둘이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지요. 일요일과 국경일에도 쉬지 않았고, 난방이 꺼지면 스토브를 놓고 배달음식을 먹으면서 일했지요. 이렇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의 근무는 20대에서 출발하여 50대까지, 그러니까 제 젊음과 같이 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설립된 1972년은 국내외 대학에서 '북한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연구의 불모지였다고 말할 수 있지요. 따라서 확실한 것은 극동문제연구소가 북한연구를 개척하고 그 지평을 넓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북한'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시되었으며, 군이나 정부기관에서는 '북괴'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논문 몇 편을 발표하는 것도 학계의 이목을 끌 정도였는데, 극동문제연구소는 과감하게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하여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학계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1973년 4월 재미 동포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주변 강대국"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여 학계차원, 그 이상의 의미까지 갖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듬해 1월, 국내 최초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연례행사로 자리잡았지요. 북한문제는 물론이고 평화와 통일, 그리고 4대 강국의 세력관계를 폭넓게 분석하고 조명했습니다.

1988년 제가 물러난 후 후임 소장님들과 연구자들이 제가 근무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연구 업적을 만들어 내었으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연구소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동안 극동문제연구소를 거쳐간 학자들은 현재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북한연구를 비롯한 국제정치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연구소의 자산이자 역량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50년간 극동문제연구소와 함께하신 박재규 총장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4월 6일

염홍철

# 이만우

Millersville Univ. Dept. of Government and Political Affairs Professor,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극동문제연구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72년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안보, 북한연구, 동북아와 세계평화연구 등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업적과 공로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50년 동안 연구소는 크게 발전하였고 이제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이유는 연구소 설립자 박재규 총장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념과 탁월한 리더십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 총장은 5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남북문제라고 지정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북한자료를 수집, 북한연구 인맥을 양성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09년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박재규 총장을 시라크재단 '분쟁방지상 심사위원 특별상(The Foundation Chirac Prize for Conflict Prevention)'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연구소의 발전과 업적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연구소는 북한연구의 세계적 연구소로서 세계 우수 연구기관과 제휴하는 국제적 교류 구축도 성공적으로 해 왔습니다. 연구소의 국제적 얼굴인『Asian Perspective』영문 학술 잡지를 통해서 해외학계와 한국을 연계하게 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더 생산적인 학문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주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연구소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2022년 3월 22일

#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먼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5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가 되길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6대 소장으로 4년간 재직한 필자는 금년 극동문제연구소의 5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을 감축 드리며 향후 보다 권위 있는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나와 연구소의 인연은 1974년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재미학자로 참석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 나는 당시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학교(Eastern Kentucky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국내에서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1975-1976)로 재직하였고 대구대학교에서 대학원 특별 초빙교수(1980-1992)로 재직한 바 있다. 1972년 이후 매년 2번 이상을 서울을 방문하여 연구활동을 하면서 연구소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제6대 소장 재직 4년 동안 창의적인 국제학술회의를 총 12회 기획, 준비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물을 모두 영문 혹은 국문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특히 1997년에는 5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국제학술회의의 결과물은 반드시 영문 혹은 국문으로 책으로 출판하여 당시에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프로그램은 1995년에 처음으로 '통일전략포럼'을 시작하여 1999년 1월까지 총 14회 포럼을 직접 주관했고, 지금도 상당히 권위 있는 명품포럼으로 성장하여 70여 차례 본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권위 있는 연구소로 성장했다. 나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연구소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학술 연구활동과 업적이 질적으로 더욱 향상되고 국제적 수준에 버금가는 연구 성과물이 지

속적으로 생산되길 기대한다. 특히 우리 연구소의 특성을 잘 살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비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대사항이다.

나는 한반도 문제의 학술연구와 문제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이 방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난 48년 동안 인연을 맺는 우리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과 특히 4년간 연구소장 재직 시절에 박재규 총장님이 내게 베풀어준 후의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보다 세계적이고 최고 권위 있는 연구소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22년 5월 16일

#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전 주일대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모색하고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 싱크탱크로 성장해왔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다음 50년에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에 이바지하는 연구소로 무한히 발전해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5일



# 조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분소장 겸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마산 분소장을 맡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입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어느덧 개소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현 이관세 소장님을 비롯한 역대 소장님들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극동문제연구소는 평화통일을 향한 일념으로 한 길을 걸어오신 박재규 총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설립 이래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은 물론 통일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그 결과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북한·통일연구의 메카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오랜 역사와 성과는 이곳 마산 캠퍼스가 통일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최초로 옴니버스 통일교양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통일교육 관련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감 있는 통합형 통일교육 시스템 구축과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역주민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통일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이곳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미래한국의 혁신과제는 단연코 '평화'와 '통일'일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부탁드리며, 이곳 마산 캠퍼스도 이에 발 맞춰 지역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극동문제연구소의 50주년 개소를 축하드리며,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일

# 강창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북한과 통일문제 연구의 선도자로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반세기에 걸친 역할과 기여에 대해 제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이미 오래 전에 북한과 동북아 연구에 있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우리 국민에게 북한을 바라보는 창(窓)이 되어 주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의가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는 세계의 정세분석가들과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지방 소재 대학 부설 연구소의 불리(不利)를 딛고 극동문제연구소가 이처럼 북한연구의 메카로 확고히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박재규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소장님들과 연구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출범 반세기 동안 세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냉전 종식과 구소련의 해체, 독일 통일, 중국의 G2 국가 부상 등 세계사적 사건이 벌어졌으며 세계질서는 재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전한 민주국가에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역동성을 자랑하는 선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물결친 기간이 있었으나,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으며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주변 정세 또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격랑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립과 대결 국면에 진입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 기회에 각별히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남북이 화해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목표임을 생각할 때 오늘의 MZ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공론의 장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5일

# 강인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통일부 장관

먼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설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유력한 북한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게 성장시킨 박재규 총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고해 보니, 1972년 봄으로 기억됩니다만 당시 중앙정보부 북한국장 겸, 남북대화사무국장으로, 진행 중에 있는 남북 적십자회담과 준비 중에 있던 남북정치협상(남북조절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던 저에게 "대학 산하에 우선 북한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연구범위를 넓혀 동아시아 전 지역 국가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창설키로 하고 그 이름을 극동문제연구소로 명명키로 했다"는 박 총장의 전갈이 왔습니다.

나로서는 물론 대환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대화·협상의 성과적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태부족이고 민간 지식인들의 절대적 지원이 절실함을 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엄격한 보안규정을 지켜야 하는 북한 자료(『노동신문』, 『근로자』 등 1차 자료)수집은 물론 막대한 연구자금과 연구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았을 터인데 하는 기우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박 총장은 겹쌓이는 난관을 극복하고 이 삼청동 마루턱에 도서실, 크고 작은 개인 연구실, 세미나실, 그리고 국제회의장과 각종 연구시설을 갖춘 이 넓고 아름다운 연구소 건물을 세웠습니다. 나는 가끔 도서실에 들러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때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보내주는 정기·비정기 간행물과 연구결과 출판물을 받을 때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강한 연구 저력과 넓은 연구 기능에 탄복하곤 합니다.

앞으로 이 연구소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정책에 건설적인 제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 어떤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제시하는 각종 요구에 즉답하고 자문하면서, 자유, 민주, 평화 통일 비전의 공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연구소의 육성에 정성을 다해주신 박재규 총장과 역대 소장, 교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2022년 3월 24일

# 정세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1972년 9월 1일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문제 연구와 정책대안 개발의 선봉장 겸 등대 역할을 해왔다. 국제적 위상과 명성도 사회과학 분야 국내 유사 연구소들 보다 월등하다.

1971년 8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고, 1972년 7월에는 남북 당국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 당국이 1970년대 초 미·소 데탕트, 미·중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던 국제정세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분위기는 아직 냉전적 정서가 지배하던 시기에 수도권 대학들을 다 제치고 서울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산의 경남대학교가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극동문제연구소(초기에는 통한문제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선견지명이 없으면 벌일 수 없는 일이었다.

설립 이후 극동문제연구소는 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왔고,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대학에 북한학과를 설치함으로써 북한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시켰다. 극동문제연구소의 탄탄한 학문적 인적 기반을 토대로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1989년 10월)를 시작으로 경남대 북한대학원(1997년 10월), 북한대학원대학교(2004년 11월)로 키워 나오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양성의 요람이 되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1970년대 초 20대 중반 나이에 연구소 설립 아이디어를 내고 초창기에 부소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극동문제연구소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이제는 국제적 명성도 드높은 연구와 교육의 전당으로 키워온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님께도 특별한 축하를 드린다.

2022년 5월 12일

#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72년 남북대화가 겨우 첫발을 내디딘 시점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연구소를 세우신 박재규 총장님의 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관세 소장님을 비롯해 그동안 연구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연구진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50년간 극동문제연구소가 쌓아온 학문적·정책적 업적은 너무나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시절 연구소에서 편찬된 책과 논문집을 읽으며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책장을 찾아보니 표지는 누렇게 바랜, 하지만 밑줄 친 흔적은 아직도 뚜렷한 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East Asia and the Major Powers (1975),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79), 『북한정치론』 (1983) 등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제가 학자의 길을 걷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교수로서 대학원생을 가르치며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2016), 『미중 전략적 경쟁』 (2020) 등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고 처음 맞이한 대규모 행사가 '한반도 국제포럼'이었습니다. 당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연구소와 박재규 총장님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학자의 위치로 돌아와 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 특집호로 출간된 『한국과 국제정치』에 논문을 게재한 것도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여전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극동문제연구소가 평화통일의 여정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2년 4월 22일

# 김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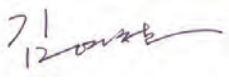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극동문제연구소와 함께 했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나는 공간이었고, 시의적절하게 열리는 각종 세미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연구소의 경륜도 쌓이고, 이제는 젊은 연구자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원로, 중진, 신진 연구자들이 격의 없이 토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학문의 초입에 들어섰을 때, 연구소에서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오랜 세월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북한 자료들도 학문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했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했던 북한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단행본이 많이 생각납니다.

연구소의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과 격려, 지혜를 전해주신 박재규 총장님, 통일분야에서 가장 열정과 아이디어가 출중하신 이관세 소장님, 그리고 극동문제연구소를 거쳐 간 모든 선배, 동료, 후배 연구자들에게,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오랜 세월 연구소가 외교안보 분야의 담론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력 있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연구소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 최완규

신한대 설립자 석좌교수,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개소 이래 지난 50년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와 북한연구라는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대학 부설연구소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신진 학자들의 인큐베이터 역할도 훌륭하게 해 왔습니다. 더불어 관련 분야 학자들의 교류의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연구소답게 정책연구보다는 본격적인 학술연구와 학자들간의 교류 협력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8일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경남대학교 부설 극동문제연구소(IFES)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외의 다른 학술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견고하면서도 특유한 시각에서 요동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관찰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대표적 정기 간행물인 『한국과 국제정치』와 『Asian Perspective』, 그리고 수시 간행물 『IFES Brief』와 『현안 진단』은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정부와 연구 기관에서 지역 정세에 대한 동아시아의 관점을 알고자 할 때 찾는 대표적 자료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아울러 극동문제 연구소는 북한과 통일 문제, 그리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학자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변하듯이 세계는 지금 격변과 무질서의 먼지에 덮여 있습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공존보다는 대결의 경로로 기울었고, 더불어 북한의 행보도 더 불안정해 보입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후의 세계 및 지역 질서를 예견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를 제시하는 과제가 연구소의 큰 몫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50년에 걸쳐 세계 유수의 지식요람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4월 27일

#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주미대사

극동문제연구소 50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걸어 온 지난 50년을 회고해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선구자"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미미하고, 관심도 부족한 공산권 연구의 불모지에서 다른 이들이 가 본 적이 없는 길에 나서는 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생각하면 이 길에 나섰던 우리의 선배, "선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50년간 한반도는,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환경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겼었습니다. 냉전의 종식, 그리고 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확산에 힘입어 우리 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화, 민주화, 국제화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50년 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 7개국밖에 없는 3050 클럽의 하나가 된 것이지요.

국제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나,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동문제연구소가 "선구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동북아의, 그리고 국제 사회의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냉전의 확산, 국제 시장의 분절화, 뉴 노멀의 도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는 특히 고도로 개방된 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동북아의 여러 안보 위협에 노출된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히 엄중한 외교·안보·경제의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려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50주년을 맞이하는 극동문제연구소에 거는 우리나라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가 이룬 괄목할 발전의 과정에서 극동문제연구소가 앞장서 왔듯이,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선도적 역할을 해 주리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큽니다!

2022년 3월 31일

# 신봉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전 주인도대사

나에게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몇 가지 뚜렷한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첫째, 연구 비전(vision)입니다. 북한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 여정입니다. 설립자(박재규 경남대총장)의 엄청난 집념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둘째, 국제적 네트워크(network)입니다. 미,일 중,러, EU 등의 연구기관과 오랜 교류를 해왔습니다. 내가 주인도대사로 재임시에는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ORF), 비베카난다(Vivekananda) 재단 등 인도 최고의 연구소들과도 교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펀딩(funding)능력입니다. 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소장을 지내면서 연구소 운영에 펀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국책연구소가 아닌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가 이런 규모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넷째, 로케이션(location)입니다. 서울의 최고의 장소(삼청동)에 자리잡았습니다. 연구소 캠퍼스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구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신봉길

# 조병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총장, 전 국립외교원장

출범 50주년을 맞는 극동문제연구소에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보냅니다.

연구소가 출범한 1973년은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해입니다. 견고한 한반도 분단체제를 깰 수 있겠다는,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나타난 때입니다. 이 희망과 함께, 극동문제연구소는 통일 한국의 원대한 꿈을 안고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소의 탄생에는 이만큼 절실한 의미가 담겨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어렵습니다. 불모지에서 시작한 북한·통일 문제 연구의 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국가 정보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북한 연구를 민간 영역으로 끌어내고 통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넓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기에, 성과와 보람도 컸을 것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남북관계는 정상 간의 만남이 특별히 낯설지 않을 만큼 변해왔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이 축적해온 연구 성과와 인적 역량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50년. 길다면 길지만, 짧다고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아직도 분단의 골은 깊고, 통일의 길은 여전히 멉니다. 연구소 앞에 쌓이는 과제는 많고, 밖에서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큽니다. 50주년을 맞이한 극동문제연구소는 또다시 50년을 내다보는 출발선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앞날에 끝없는 발전이 있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 조성렬

주오사카 총영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저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인연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 들어와 연구소의 자료회원에 가입한 것이 첫 인연이었습니다. 자료실에는 연구소 발간자료뿐만 아니라 국내 학술회의 발표문들도 모아놓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각종 논문과 자료들을 복사할 수 있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연구소 주최의 통일전략포럼에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맡기도 하고 정책보고서에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북핵, 오늘과 내일』(2016), 『미중 전략경쟁』(2020)을 출간했습니다. 정년퇴직한 뒤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위촉되었고 2020년 1월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에서는 주제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 극동연구소는 한경비지니스가 매년 실시하는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의 외교·안보부문 조사에서 상위를 차지한 대표적 싱크탱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7년 창간된 『Asian Perspective』는 SSCI에 등재된 세계적인 학술지이며, 1985년 창간된 『한국과 국제정치』 외에 『한반도포커스』, 『IFES 브리프』 등 각종 정책보고서, 북한연구시리즈, 국제관계시리즈 등 단행본 발간을 통해 권위 있는 싱크탱크의 위상을 잘 보여줘 왔습니다.

연구출간 활동 외에도 시의적절한 세미나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정세분석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69차례의 통일전략포럼과 133차례의 해외학자초청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밖에도 삼청 컬로퀴엄과 통일문제세미나를 비롯해 각종 공동학술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비대면의 웨비나 국제학술회의를 갖는 등 열정적인 학술교류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연구소는 소장학자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1987년부터 유망한 신진학자들에게 연구공간과 토론의 장을 제공한 마그마 펠로우십 외에도 해외학자방문프로

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아카데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한마통일리더십, 인턴십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학술교류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뛰어난 점은 다양한 연구·출판·학술교류 활동의 엄청난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중대한 계기마다 올바른 정세분석과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남중국해의 긴장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한국의 정권교체를 틈탄 북한의 잇단 전략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올바른 정세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체의 연구역량과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극동문제연구소야말로 격동의 시대에 싱크탱크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극동문제연구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2022년 4월 7일

조성렬

# 류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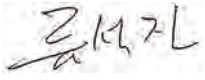
서강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극동이 50살이 되었다. 나와 극동의 첫 조우는 극동이 10살을 좀 넘긴 1980년대 중반 미국 유학 중 방학을 틈타 귀국한 늦은 봄이었다. 가까운 선배 동료들의 평판과 소개로 찾아간 삼청동 공간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작은 사무실 하나에 자리 잡은 '구멍가게' 연구소가 아니었다. 넓은 정원과 다양한 연구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적·학문적 토론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후 인연이 닿아 박사 논문 필드워크 거점 공간을 제공받기도 하였고, 피터 에반스(Peter Evans), 실비아 맥스필드(Sylvia Maxfield)가 한국 필드워크할 때 RA를 이 공간에서 하기도 하였다. 학위를 마치고 '보따리' 장사를 하던 시절 '마그마'로서 분출을 기다린 장소이기도 하다. 극동의 '안'과 '밖'에 있으며, 세미나 심포지움 등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물론이고 별일이 없어도 자주 방문하여 항상 북적이는 지하 1층 라운지에서 일상과 전공을 포함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연이은 식사 자리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다.

지금은 많은 연구소가 탄생하여 극동도 더 이상 '유일한' 존재가 아닌 '그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극동의 '독보적'인 장점은 많다. 동아시아, 북한, 통일 등 분야에서 축적하여온 연구 역량, 내부 연구인력은 물론 국내외로 다양하게 연계된 외부 연구인력풀, 전문성으로 자리 잡은『Asian Perspective』,『한국과 국제정치』등 학문적인 측면의 장점이 첫 번째이다. 학문공동체로서 가지는 사회자본이 두 번째 장점이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문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지는 '연대', '소속감'과 '정체성'이다.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무슨 얘기를 하여도 괜찮을 것 같은 분위기 등등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장점을 꼽고 싶다. 큰 마음을 먹어야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시내에 나왔다가 별 의도나 의무감 없이 들릴 수 있는 위치이다. 단순히 가까운 장소라는 지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마음 편히 들려 어떤 이야기든 편히 나눌 수 있는 심정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연구에서의 메카, 사회자본을 가진 학문공동체의 지속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발길이 가는 연구소. 이러한 장점이 향후 50년에도 지속되고 발전하는 극동이기를 기원해 본다.

2022년 3월 31일



#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 문제, 나아가 동북아 평화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에 있어서 타 기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리더십을 발휘해오신 박재규 총장님, 그리고 연구와 학술 활동에 매진해 오신 여러 교수님, 연구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990년대 초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 극동문제연구소의 '해외학자 방문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 연구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여름방학 동안에 본 연구소 지하에 연구실을 배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며 연구에 몰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 연구실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소위 '시간 강사'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유사한 꿈을 꾸며 학문적 열정을 분출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한 여러분들이 연구소의 '마그마 펠로우십'을 정착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배출한 마그마 펠로우들은 국내외 유수 대학의 학자, 통일부 장관, 외교부 대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 고위관료직을 맡으며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비전에 걸맞은 역할을 해왔고, 극동문제연구소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일조했습니다.

지난 50년간 극동문제연구소의 끊임없는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기여한 바가 지대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이 활발히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마그마 펠로우의 일원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소 개소 50주년을 맞이하여 박재규 총장님과 연구소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7일

# 유현석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기해외학자초청프로그램(SSPK) 수혜자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연을 맺은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 몇 해 후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 다시 연구소의 신진학자 지원프로그램으로 지하에 연구실을 배정받고 '마그마'의 일원이 되었고 덕분에 2년 반의 시간강사 생활을 잘 마치고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최근 아직도 SSPK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사립대학의 부설연구소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이 정도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크게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지난 50년 동안 북한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학문공동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개소 50주년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축하를 보낸다. 앞으로의 50년도 북한관련 연구는 물론 한국 학문사회의 담론을 주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의 위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2022년 3월 28일



#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올해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설립 50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 50년 중 40년을 연구소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삼청동 연구소가 그냥 보통명사 연구소입니다. 재직 중인 우리 대학에도 수십 개의 연구소가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고유명사 연구소입니다. 인연이 오래되면 연구소도 자기화되는 시간의 화학반응이 진행되나 봅니다.

20대 연구원 시절『한국과 국제정치』창간을 맡았고, 이제 2022년 봄호로 통권 11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 분야 최고 학술지로 성장한 것은 개인으로서도 큰 기쁨이지만 연구소가 우리 학계에 기여해온 실증이기도 합니다.

1986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과장님과 면담을 할 때 제가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는 서가에 꽂혀있던『Asian Perspective』를 꺼내 보이시며 훌륭한 연구소라 칭찬하시던 일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 듯합니다. 면담 이후 저는 학과장님의 TA로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30대 중후반을 연구소 마그마로 인연을 계속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더 컸던 시기에 훌륭한 학우들이 마그마로 뭉쳤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주요 대학들에는 마그마들이 분야의 석학으로 시대를 앞서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평생을 같이 할 절친한 학우들이고 연구소로서는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인적 자산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연구소는 '한반도의 국제정치'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축적해왔습니다.『한국과 국제정치』와『Asian Perspective』가 이 분야의 두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업적에 자족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분야의 학술적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소가 글로벌 연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술적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학술적 연구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에 쓰임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가 이러한 실용적 학술 기여에도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50년 후.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는 저와 연구소의 인연이 계속될 수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만, 연구소는 한반도의 국제정치 분야에서 학술과 정책의 글로벌 중심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신합니다.

2022년 4월 9일

이 호 철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개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북한 연구가 많은 제약을 받았던 냉전시대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연구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탈냉전시대에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개별 연구소로는 가장 많은 북한 원전들을 입수해 그것들을 북한 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북한학 연구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학위를 막 마친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왔고, 본인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회과학, 특히 북한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소 10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앞으로도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길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개소 반백 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2년 4월 1일



# 양길현

전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5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연구소 50주년은 충분히 축하 받으면서 또 다른 50년의 미래 찾기를 다짐할 만합니다.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려운 만큼이나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않을수록, 연구소의 존재 의의와 활력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다만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특히나 16년간 칸막이 연구소 생활이 더 기억이 나는 필자에게는 연구소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뿌듯함과 바람이 교차하곤 합니다. 그것은 1980년대-90년대 연구소 초창기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필자의 염원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는 또한 지난 50년간 전문 연구기관으로 매진해 온 연구소가 어떻게 실천적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는 없을까 하는 소망이 항상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구소 50년의 주역은 박재규 총장님일 것입니다. 1972년대 이후 80년대-90년대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한 북한 및 통일 문제 연구소가 오늘날처럼 어엿하게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박재규 총장님의 리더십 하에 경남대학교가 남다른 애정으로 연구소를 뒷받침해 주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202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미래에서 무엇을 어떻게 새로이 찾아낼 것인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의 경륜과 네트워크라면 한 번 무엇인가를 도모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엔가 남북한 교류협력의 결실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될 때, 평양에서 경남대학교 가족분들의 헌신을 기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꿈꾸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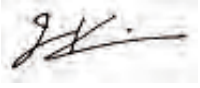
2022년 4월 22일

#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에게 삼청동은 안암동을 떠난 이후 첫 직장이었고, 뉴헤이븐으로 떠나기까지 여섯 해 동안 사회를 배운 학교였으며, 귀국 이후 을지로를 거쳐 다시 여섯 해를 보내고 있는 요람입니다. 제 인생의 갈림길마다 삼청동 식구들의 따뜻한 후원이 있었던 덕택에 조금이나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 한 귀퉁이에서나마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소 50주년을 성심으로 감축합니다.

2022년 3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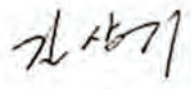


#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걸어온 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연구 역사의 큰 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척박한 환경에서 극동연이 뿌린 씨앗이 없었다면, 그동안 극동연의 한결같은 연구와 인재 양성이 없었다면, 북한,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오늘날처럼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우리 학계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2022년 6월 1일



#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먼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께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제가 처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진학을 위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를 찾아갔던 때가 2003년 가을이니, 벌써 20년 가깝게 지났습니다.

이후 저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 진학해 북한에 관해 공부했고, 석사과정을 마친 뒤에는 운이 좋게도 통일부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에서 퇴직한 뒤에는 다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북한 연구자'의 길을 제대로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연합뉴스 북한부에서 기자로 일했던 저는 기자 생활을 마치고 다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다가 약 3년 전에 현재의 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대학 졸업 이후 삶의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자리한 삼청동을 종종 찾아갈 때면 마치 고향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 연구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박재규 총장님의 회고록 작업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총장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일념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걸어오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셨던 박재규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로 개소 50주년을 맞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더 큰 일익을 담당하며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미력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개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일

# 이기동

2022년 북한연구학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와 학술부문에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고의 학술연구기관들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과 국제정치』, 『Asian Perspective』와 같은 유수의 학술지를 발간하여 국내외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아울러 『통일전략포럼』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사계의 전문가들이 서로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둘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연구자료의 보고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은 방대한 북한연구 1차 자료와 2차 자료들을 소장하여 자료 부족을 겪는 북한연구자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연구의 저변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전문가의 산실입니다. 북한연구학계의 발전과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육성하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거쳐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도 학계와 관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쌓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또하나의 빛나는 50년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북한연구학회에 대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물심양면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을 소망합니다.

2022년 4월 3일



# 임성학

## 2022년 한국정치학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9월 통일과 북한문제가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공고화되었고 국내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북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연구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 분야 연구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도에 외교·안보 대학 연구기관 싱크탱크 중 최고 순위로 선정되어 통일과 북한 등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식 생태계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먼저 북한, 남북관계, 통일 및 국제정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분석한 연구를 공유하였습니다. 『IFES Brief』, 『IFES Forum』, 『한반도 포커스』 등을 발간하여 북한과 통일현안에 대한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전문 학술지를 발행하여 연구자들의 연구를 대내외적으로 소개하고 학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77년에 창간된 『Asian Perspective』 영문 학술지를 발행하였고 이 학술지는 2008년에 사회과학논문이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했습니다. 1985년 창간된 『한국과 국제정치』 국문 학술지도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정치학 분야의 중요한 저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통일 관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진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북한과 통일관련 교육에도 힘을 썼습니다. 연구소 상근 연구자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인 초빙·객원연구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학자 초빙연구 프로그램으로 해외학자와의 교류도 지원하였습니다. 마그마 펠로우쉽을 통해 신진학자의 연구를 지원하여 북한 통일연구 후속

세대의 성장을 도모해왔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해 남북 간 경제협력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번영 시대의 도래를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북한, 동북아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인턴십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세대를 키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분야의 최고 싱크탱크가 될 수 있는데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50년도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 발전하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패권경쟁으로 인한 국제정치체제의 위기, 미중 갈등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 국내정치갈등으로 파생된 남남갈등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내외적 도전을 직시하고 보다 과학적 연구에 기초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5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번영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싱크탱크가 되는 다음 50주년을 기대해봅니다.

2022년 3월 27일

임 성학

#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극동문제연구소의 개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강대국들로 둘러 쌓인 분단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학문 발전과 정책 연구,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추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정책 연구가 한국 사회에 활성화되기 훨씬 이전인 1972년에 일찍이 한국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 연구의 필요성 인식 위에 극동문제연구소는 심도 있는 연구와 미래지향적인 정책 어젠다 개발로 한국의 정책 연구와 전략 개발에 많은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정부 산하의 연구소들이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대학 연구소는 훨씬 어려운 정책 연구 환경에 처해왔고 이러한 가운데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연구, 남북관계연구, 한국 외교안보 연구의 중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학술회의와 전문 저널, 현안에 대한 논단과 연구자 지원, 정부 정책 지원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활동을 통해 한국 정책연구와 싱크탱크 발전에 귀감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한국과 국제정치』제38권 제1호(봄)의 기획에 참여하면서 과거 50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50년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7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냉전기 데탕트와 신냉전, 그리고 냉전의 종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쳐왔고 이후에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북핵 문제를 거쳐 미중 갈등의 시대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외교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극동문제연구소는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이상을 지켜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자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성과,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을 넉넉하게 지원해 준 여러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와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많은 도전과 시련

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격변 속에서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항상 만들어왔듯이 극동문제연구소도 학문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연구자 육성으로 더욱 큰 발전과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 극동문제연구소의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5일



# Melvin Gurtov

Professor Emeritus/Portland State University

To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Congratulations to IFES on its 50th anniversary. It has been my privilege to be associated with the Institute for most of that time through my work on Asian Perspective. IFES is a distinguished research center that has drawn any number of foreign as well as Korean scholars to its resources. And thanks to the Institute's support, Asian Perspective has thrived as a major periodical on regional and global affairs. May the next 50 years be even more fruitful.

April 25, 2022

Dr. Mel Gurtov
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Science
Portland State University
Senior Editor, Asian Perspective

# 멜빈 거토브

포틀랜드주립대 명예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게

극동문제연구소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Asian Perspective』 활동을 통해 50년이라는 기간 중 많은 시간을 연구소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저명한 연구소로서 많은 국내 및 외국 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연구소의 지원 덕분에 『Asian Perspective』는 지역 및 국제 현안들에 대한 주요 학술지로 활약했습니다. 다음 50년은 부디 더 많은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 Ho-fung Hung

Henry M. and Elizabeth P. Wiesenfeld Professor in Political Economy & Chair, Department of Sociology and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SAIS)

Over the last five decades, the Korean peninsula, Asia, and the world have undergone profound transformations. In these five decades, we see the end and legacies of the Cold War, waves of democratization,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integrations, and the shift of the world economic center to Asia. In these times of rapid changes and great challenges, high-quality analysis, understanding, and policy advocacy grounded in an Asian perspective and dialogue with different perspectives in the world are of utmost importance to maintain peace and promote development in the region and the world. The IFES has been making impressive contributions to exactly that in its first five decades of work. Through its numerous publications, academic programs, and events, the IFES has developed into a global center for intellectual discourses and understanding of Northeast Asia. I congratulate IFES for these impressive achievements over the last fifty years. I look forward to its continuous growth and contributions to world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next fifty.

April 25, 2022



# 홍호펑

존스홉킨스 폴 H. 니츠 고등국제학대학(SAIS) 정치경제학과장 겸 교수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아시아, 그리고 세계는 심오한 변화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50년 동안 우리는 냉전의 종식과 유산, 민주화의 바람, 지역 및 국제적 경제통합, 그리고 세계적 경제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 및 대단한 도전 과제들로 설명되는 이 시기에 아시아, 다양한 지역, 및 세계의 관점을 담고 있는 수준 높은 분석, 이해, 및 정책창도는 평화 유지와 지역 및 세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이에 있어서 첫 50년 동안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학술지 출판, 학술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극동문제연구소는 지적 담론 및 북동 아시아 이해에 관련해서 글로벌 중심으로 거듭났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50년 동안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하하며, 다음 50년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 Victor Cha

Senior Vice President and Korea Chair/CSIS

In honor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Kyungnam University, I wish to extend congratula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2,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has served as a leading institution to promote peace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scholarly research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FES's past studies and activities, scholars and opinion leaders have gained a holistic understanding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irection of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My sincere gratitude to Dr. Jae Kyu Park, the Founder of IFES, as well as Dr. Kwan-se Lee, the Institute's Director, and all members of IFES for their contribution,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promoting education on North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It is my hope that IFES will continue its research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issues can be resolved and South Kore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can continue to improve for a distinctly peaceful future in Korea.

Again,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Most sincerely,

Victor D. Cha

April 22, 2022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1972년 설립된 이후,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에 대한 학술 연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연구소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과거 연구와 활동을 통해, 학자들은 남북 관계에 대한 전체론적인 관점 및 평화와 통일 방향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설립자이신 박재규 총장님, 그리고 연구소의 현재 소장이신 이관세 박사님, 그리고 연구소의 모든 구성원들의 북한과 통일 관련 교육에 대한 기여, 헌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한반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종결되고 남한과 주변국들의 관계가 평화적인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의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행운을 빕니다.

진심을 담아서.

2022년 4월 22일

# Frank Jannuzi

President and CEO/The Maureen and Kike Mansfield Foundation

To the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I am delighted to extend my sincerest congratulations to all of you as we welcome the 50th Anniversary of your fine Institute this September. I first became involved with IFES through my work at the United State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in the late 1990s examining the many challenges posed by the DPRK. Since then, I have continually been impressed by the quality of scholarship produced at all levels of the institute. Students, teachers, and staff should all be proud of their roles in building the tradition of academic excellence, objectivity, and fact-based analysis for which IFES is internationally renowned. I appreciate the special role IFES has played in deepening my own understanding of the fluid security dynamics of Northeast Asia, and am grateful to the many IFES affiliates who have guided my along the way.

I hope that the next 50 years will be full of creative ideas, bold decisions, and much success for IFES and its entire community.

Warmest regards,

March 28, 2022



#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및 이사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 직원, 학생들에게

이번 9월에 있을 연구소의 50주년을 환영하며 진심을 담은 축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저는 1990년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극동문제연구소와 처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항상 연구소 전반을 걸쳐 진행되는 학문의 수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생, 교수진, 직원 모두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문적 우수성, 객관성, 사실 기반 분석의 전통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극동문제연구소가 동북아시아의 유동적 안보 역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특별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저의 길을 이끌어준 수많은 연구소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극동문제연구소 공동체 전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결정들, 그리고 많은 성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8일

# Christopher A. Capuano

President/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Dear Dr. Jae Kyu Park,

On behalf of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we are very pleased to congratulate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of Kyungnam University on the occasion of its 50th anniversary. We are very proud of the work done by the Institute, and we are especially proud that it was founded by the prestigious FDU alumnus Dr. Jae Kyu Park. Dr. Park is well known for many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including serving as South Korea's Minister of Unification.

When the IFES was founded, the idea of nongovernmental research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was not widely accepted and there were many who questioned such a project. But Dr. Park proved them wrong and built an incredible institute. Under his leadership, the IFES grew quickly and became the most active research organization in the area of Korea's reunification and security. In fact, it was referred to by the Korea Times as "the Mecca of North Korean Studies."

While Dr. Park moved into other leadership positions and became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the IFES continued its important mission to promote and support scholarly research on North Korea. Moreover, the IFES has helped provide important understanding as its graduates and scholars have played active roles in peacemaking and unification efforts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honored to join those in saluting the outstanding work of the IFES, and we wish the Institute continued prosperity and success in the future.

Sincerely yours,

March 23, 2022



# 크리스토퍼 A. 카푸아노

##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 총장

친애하는 박재규 총장님께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을 대표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50주년을 축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연구소의 업적이 매우 자랑스럽고, 특히 저희 대학 동문인 박재규 총장님이 설립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미가 더욱 큽니다. 박재규 총장님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수많은 놀라운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설립되었을 때, 북한과 통일에 대한 민간 연구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이런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재규 총장님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며 곧 놀라운 연구소를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지도하에 극동문제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통일과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제일 활동적인 연구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심지어 코리아 타임즈에 의해 "북한학의 메카"라고도 언급되었습니다.

박재규 총장님이 다른 지위로 자리를 옮기고 추후에 경남대학교의 총장이 된 이후에도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구소 졸업생들과 학자들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노력에 있어서 활발한 역할을 하며 연구소는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극동문제연구소의 탁월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는 데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연구소가 계속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 Carla P. Freeman

Senior Expert/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USIP)

Dea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 am honored to express my congratulations to you on five decades of success publishing your esteemed journal, Asian Perspective. Having had the privilege of serving as editor-in-chief of the journal for several years, I am familiar with the deep commitment of the journal staff and editorial board and committee to Asian Perspective and I extend special congratulations to them as well.

For 50 years, President Jae Kyu Park's visionary publication has shared incisive policy-relevant research on Asia, highlighting the scholarship of experts from the region but also encompassing writings from scholars around the world. After its founding in 1977, "AP" quickly became a go-to publication for scholarship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e journal publishes cutting edge analysis reflecting diverse points of view on inter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s through a wide aperture on Asia under the imprimatur of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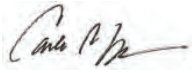
The significance of Asian Perspective goes beyond its nuanced coverage of Asia by scholars today but also includes the half century of perspectives on the region that have accumulated in its now 46 volumes. Scholars will find within AP some of the earliest scholarship from a multidiscipli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n important emerging trends in Asia. Again, as is core to AP's mission, much of this research is generated by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located in Asia, like Kyungnam's IFES itself.

As the global center of gravity continues to shift to Asia, Asian Perspective's distinctive mix of analytical lenses and voices on and from Asia make it an all the more relevant and important window on current issues across its many regions. Here is to another half century of publishing excellence by Asian Perspective!

Best wishes,

Carla P. Freeman

April 26, 2022



# 칼라 P. 프리먼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게

연구소의 존경받는 학술지 『Asian Perspective』의 50년 동안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Asian Perspective』의 편집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몇 년 동안 누렸습니다. 『Asian Perspective』 스태프, 편집국 및 위원회의 깊은 헌신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특별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Asian Perspective』는 박재규 총장님의 선구적인 출판 활동으로 간주되고, 50년 동안 아시아에 관한 예리한 정책 관련 연구를 담당하며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들의 학문을 부각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학자들의 글 역시 포함시켰습니다. 1977년부터 출간된 『Asian Perspective』는 곧바로 한반도 관련해서 주목받는 학술지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Asian Perspective』는 존스홉킨스대학 출판부의 승인 하에 아시아에 대한 넓은 시야를 통한 지역 및 국제 발전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최첨단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sian Perspective』의 중요성은 오늘날 학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수준 높은 보도에서도 강조되지만, 무엇보다 총 46권으로 축적된 반세기 가량 되는 관점들을 담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Asian Perspective』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향에 대한 가장 초기의 종합적이며 비교적인 연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sian Perspective』의 핵심 과제인 만큼, 진행되는 연구 중 대다수가 경남대학교의 극동문제연구소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연구소 및 대학교로부터 나옵니다.

세계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계속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로부터 나오고 아시아로 향하는 목소리와 분석적인 관점을 적절히 섞어 담는 『Asian Perspective』의 독특함은 수많은 지역의 현안들과도 관련이 있고 또 중요합니다. 『Asian Perspective』의 또 다른 50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행운을 빌며.

2022년 4월 26일

# 小此木政夫

## 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

極東問題研究所開設50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朴在圭総長、半世紀もの長い間、本当に御苦労さまでした。研究所の発展史は朴総長の本当の勲章です。

思い起こせば、極東問題研究所が徳壽宮に近い太平路に開設された頃、私は延世大学校の大学院政治外交学科の学生(博士課程研究生)でした。7・4共同声明が発表された後のことです。

いまとなっては記憶が定かではありませんが、1973年のある日に研究所を訪問したことがあります。慶応大学の恩師である石川忠雄教授のメッセージを朴在圭所長に届けました。朴所長はニューヨークから戻つて間もない若々しい青年でした。

失礼ながら、その頃、北朝鮮研究は高麗大学校亜細亜問題研究所の共産圏研究室がほとんど独占する状態でした。独立運動の英雄である金俊倖所長が絶対的な権威者でした。極東問題研究所はり`戦者としてスタートしたのです。

しかし、研究所が三清洞に移転した頃から少しずつ変化が始まりました。「継続は力なり」と申しますが、現在では、韓国だけでなく世界中の北朝鮮研究者が何らかの形で極東問題研究所と関係しています。慶南大学極東問題研究所なしに韓国の北朝鮮研究は成立しません。COVID 19のために中断しておりますが、私も日本の研究者たちを率いて、毎年一度極東問題研究所を訪問して意見交換に努めてまいりました。

ところで、極東問題研究所の北朝鮮研究の優れた特徴は、韓国政府の対北政策に反映されるような多角的で緻密な情勢分析と、『北朝鮮実録』100巻の編纂に見られるような地道で純学術的な研究という二つの努力を並行して進めていることでしょう。

前者の目に見える成果として、研究所は何人もの統一部長官や次官を輩出しました。後者の資料収集・刊行は他の追従を許しません。これに大学院教育を加えれば、三つの努力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国外の研究所を含めても、これは他に例を見ません。

一時期、朴在圭総長が北朝鮮に極東問題研究所の分所を平壌に置きたいとの夢を語つているの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が、それはまだ成就できそうにありません。しかし、実現可能な夢もあります。米国のウィルソン・センター(Woodrow Wilson internauond Center br Schdars)のように、世界中の北朝鮮研究者が三清洞に集まって自由に研究 できるようなセンターを形成することです。

それができるのは慶南大学校極東問題研究所だけです。

2022年 3月 14日

小此木政夫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박재규 총장님, 반세기에 걸친 오랜 시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소의 발전 역사는 박 총장님에게는 진정한 훈장입니다.

돌이켜보면 극동문제연구소가 덕수궁 근처 태평로에 설립되었을 무렵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학생(박사과정 연구생)이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뒤의 일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1973년 어느 날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게이오대학의 은사이신 이시카와 타다오(石川忠雄) 교수의 메시지를 박재규 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소장은 뉴욕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당시 북한 연구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공산권연구실이 거의 독점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영웅 김준엽 소장이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도전자로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삼청동으로 옮긴 뒤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하면 힘이 된다"고나 할까요. 지금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북한 연구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극동문제연구소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없이 한국의 북한 연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만, 저도 일본 연구자들을 인솔해 매년 한 번 극동문제연구소를 찾아 의견 교환을 해왔습니다.

한편,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 연구의 뛰어난 특징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각적이며 치밀한 정세 분석과 『북조선실록』의 편찬(2021년 12월 말 현재 130권)처럼 손이 많이 가는 순수한 학술적인 연구라는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하여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눈에 보이는 성과로서 연구소는 몇 명의 통일부 장관과 차관을 배출했습니다. 후자의 자료수집과 간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기에 대학원 교육을 추가하면 세 가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소를 포함해도 전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때 박재규 총장이 극동문제연구소 분소를 북한의 평양에 두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꿈도 있습니다. 미국의 윌슨 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처럼 전 세계 북한 연구자가 삼청동에 모여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뿐입니다.

2022년 3월 14일

# 馬場善久

## 前創価大学学長

SOKA University Discover your potential

祝　辞

貴慶南大学極東問題研究所におかれましては、創立50周年の佳節を迎えられることを心よりお慶び申し上げます。

貴研究所は韓半島の平和とアジアの平和を創造するための学術研究において卓越した成果をあげてこられました。そしてさらに、優れた研究成果に基づいた具体的な平和構築への実践に取り組まれており、アジアの平和構築に欠くべからざる最重要な研究機関であります。

創価大学および本学平和問題研究所は、幸いにも貴研究所と協力して「ピース・フォーラム」という共同研究を行うことができました。貴研究所と本学平和問題研究所並びに中国文化大学の3大学による、アジアならびに世界の平和促進を目指す共同研究を提唱してくださったのは、南北統一問題の第一人者であり、偉大な信念の教育指導者であられる、貴慶南大学の朴在圭総長でありました。

朴総長の卓越したイニシアティブによって創設された貴研究所のさらなる発展を御祈念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貴研究所との協力関係がより堅固なものと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創立50周年を迎えられましたことに重ねて祝意を申し上げます。まこと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した。

2022年3月1日

馬場善久

創価大学学長

馬場善久

# 바바 요시히사

전 소카대학 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뜻깊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 연구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창조하기 위한 학술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나아가 우수한 연구성과에 입각한 구체적인 평화구축의 실천을 위해서도 노력해왔으며, 아시아의 평화구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입니다.

소카(創価)대학과 저희 대학 평화문제연구소는 다행스럽게도 귀 연구소와 협력하여 '평화 포럼(Peace Forum)'이라는 공동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귀 연구소와 저희 평화문제연구소, 그리고 대만 중국문화대학 등 세 대학이 참여하는 아시아와 세계 평화 촉진을 목표로 한 공동연구를 제창해주신 것은 남북 통일문제의 제1인자이며 위대한 신념의 교육지도자이신 경남대학교의 박재규 총장이셨습니다.

박 총장님의 탁월한 이니셔티브로 창설된 귀 연구소가 더욱 발전할 것을 기원함과 더불어 귀 연구소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한 것이 될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

# 鈴木将史

## 創価大学学長

慶南大学極東問題研究所の創立50周年への祝辞

創価大学学長　鈴木 将史

慶南大学極東問題研究所の創立50周年、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私はつい先日、韓国を訪問した際に貴研究所を見学させていただき、北韓大学院大学と合わせて、研究の規模の大きさや資料の充実ぶりに感嘆いたしました。また、貴研究所が世界をリードする研究機関として広く認められていることも、すべて朴在圭総長の南北統一にかける意気込みと、粘り強い信念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がよく理解できました。

私ども創価大学も2021年に創立50周年を迎え、100周年へ向けて新たな前進を開始したばかりです。統一問題は今や両国のみの問題ではなく、その一日も早い解決は、世界平和へと直結する重要なテーマです。「人類の平和を守るフォートレスたれ」という建学の精神を掲げる本学は、今後も貴研究所と力を合わせ、ともに平和な世界の実現を目指して参ります。貴研究所のますますの発展をお祈りいたします。

2022年 5月 15日

# 스즈키 마사시

소카대학 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말 한국에 갔을 때 귀 연구소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대학원대학교와 함께 방대한 규모의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실의 충실한 자료를 보고 감탄했었습니다. 또한, 귀 연구소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연구기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은 모두 박재규 총장님의 남북통일에 관한 의지와 강한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소카대학도 2021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전진을 막 시작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이제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세계평화와도 직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가 돼라(Be a fortress for the peace of humankind)!"라는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저희 대학은 앞으로도 귀 연구소와 힘을 모아 평화로운 세계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귀 연구소가 더욱 발전할 것을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15일

# 伊集院敦

##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首席研究員

極東問題研究所創設の 50 周年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が極東問題研究所と本格的に研究交流を始めてから 7 年ほどですが、この間、交流を通じて様々な成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

日韓国交正常化 50 周年の節目の 2015 年に、両国にとっての喫緊の課題である北朝鮮リスクへの対応を共同研究したのが始まりで、ソウルと東京で共同研究会を開催。研究成果をまとめた書籍が両国で出版されたほか、韓国側メンバーに日本各地でご講演いただき、大きな反響を呼びました。その後も様々な機会を利用して交流を重ね、極東問題研究所の皆様から貴重な知識や情報をいただいていること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

このような交流が可能なのも、極東問題研究所が創立時から一貫して北東アジアの地政学的分析から朝鮮半島問題に取り組み、関係国とのネットワークを重視されてきたからだと拝察しています。今後とも地球的、地域的視点から朝鮮半島を鳥瞰し、日本に対しても有意義な知的協力を継続していただけ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首席研究員

2022年 3月 2日

伊集院敦

#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극동문제연구소와 본격적으로 연구 교류를 시작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교류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했던 2015년, 한일 양국의 긴급한 과제였던 북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동연구를 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성과를 묶은 책이 양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 측 참가자들이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강연하시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에도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 교류를 계속했으며, 극동문제연구소 여러분들로부터 귀중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교류가 가능한 것도 극동문제연구소가 창립 때부터 일관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국과의 네트워크를 중시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적, 지역적 시점에서 한반도를 조감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지적 협력을 계속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일

# 平井久志

## 慶南大極東問題研究所招聘研究委員

慶南大学極東問題研究所５０周年、お祝い申し上げます。
私は大学３年生だった 1973 年秋に初めて韓国を訪問し、それが記者として、研究者として韓国や北朝鮮について考えるスタートとなりました。極東問題研究所が設立されたのが 1972 年ですので、私自身の朝鮮半島とのかかわりと、極東問題研究所の 50 年はほぼ重なります。その意味で、朝鮮半島を見つめてきた者として、極東問題研究所の 50 年に大きな敬意を払います。
共同通信のソウル特派員、ソウル支局長として 3 回のソウル勤務でも極東問題研究所の方々からお世話になりましたが、朝鮮半島の研究を始めた研究者としても大変、研究所のお世話になりました。私もメンバーとなっている日本の国際問題研究所の朝鮮問題研究チームの研究においても研究所から大きな助けを受けました。特に私個人としても、2021 年 3 月からは同研究所 FELLOW として、研究所のお世話になりました。
極東問題研究所は北朝鮮研究において特段の業績を積み上げてきました。特に、「北朝鮮実録」の刊行は韓国だけでなく、北朝鮮研究に携わる日本をはじめ世界の研究者に大きな助けになります。早期にデジタル化が実現し、世界のどこからでもアクセスできるようなものになることを期待します。
韓国には多くのシンクタンクがあります。政府と関係のある国策研究所も多くありますが、国策研究所は、どうしてもその時の政権の姿勢が研究所の方向性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す。特に北朝鮮研究、南北関係に関する研究は政府との「距離感」がどうしても問題になります。そういう状況の中にあって、重要な役割を果たすのが民間のシンクタンクの役割です。慶南大学極東問題研究所は、民間大学の付属シンクタンクとして、特に北朝鮮研究における実績のあるシンクタンクとして、建設的な研究、建設的な提言を行ってきました。個々の研究者が自身の見解を自由に表明しながら、研究所全体としてバランスの取れた論文や提言を示すことは韓国だけでなく、東アジアの地域研究にとってかけがいのないものです。
あらためて 50 周年を祝賀します。

2022年 3月 29日

平井 久志

#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학 3학년이었던 1973년 가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그것이 기자로서, 연구자로서 한국과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설립된 것이 1972년이기 때문에 제가 한반도와 관계를 맺은 것과 극동문제연구소 50년은 시간이 거의 겹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극동문제연구소의 50년에 경의를 표합니다.

교도통신 서울특파원과 서울지국장으로서 세 번 서울에 근무하면서도 극동문제연구소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한반도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로서도 연구소에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 한국문제연구팀의 연구과정에서도 연구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2021년 3월부터 연구소 객원연구위원(펠로우)으로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연구에서도 특별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북조선실록』의 간행은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 연구를 하는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연구자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디지털화되어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가 있는 국책연구소도 많습니다만, 극동문제연구소는 당시 정권의 정책 자세가 연구소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북한 연구,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무래도 정부와의 '거리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대학 부설 연구소로서 특히 북한 연구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쌓아온 싱크탱크로서 건설적인 연구, 건설적인 제언을 해왔습니다. 개별 연구자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면서도 연구소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논문과 제언을 발표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연구 분야에서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2년 3월 29일

# 西野純也

## 慶應義塾大学教授

設立50周年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私にとって極東問題研究所は、いつ訪れても先生方が温かく迎えてくれる重要な研究交流の場です。会議やセミナーがなくても気軽に研究所を訪れて、先生たちと率直に意見交換ができる、朝鮮半島研究の開かれた研究拠点であることに敬意を表し、深く感謝します。

2009年に慶應大学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を設立してからは、学術会議を共催するパートナーとして大変お世話になってきました。朴在圭総長はじめ、尹大奎所長、李洙勲所長、李寛世所長のご指導とご協力いただいたことに改めてお礼申し上げます。慶應大学と慶南大学校との間の研究交流をさらに活性化させるべく、今後より多くの学術会議やセミナーを共催できるよう期待しています。

毎年、日本国際問題研究所の朝鮮半島研究プロジェクト・メンバー一行（小此木政夫先生や伊豆見元先生など）とソウルを訪問し、研究所の先生方と意見交換をするのが楽しみで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り2年間実施できませんでしたが、対面交流の再開を待っています。

2022年 3月 29日

#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한국학센터장)

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극동문제연구소는 언제 방문해도 교수님들께서 따듯하게 맞아주시는 중요한 연구 교류의 장입니다. 회의나 세미나가 없어도 가볍게 연구소를 찾아가 교수님들과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한반도 연구의 열린 연구거점이라는 것에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를 설립한 뒤에는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하는 파트너로서도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박재규 총장님을 비롯하여 윤대규 소장님, 이수훈 소장님, 이관세 소장님의 지도와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게이오대학과 경남대학교가 연구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학술회의나 세미나를 공동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연구 프로젝트 연구진 일행(오코노기 마사오 선생님과 이즈미 하지메 선생님 등)과 서울을 방문해 연구소 교수님들과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2년간 왕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면 교류가 재개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9일

# 中川雅彦

## アジア経済研究所 地域研究センター主任調査研究員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IDE-JETRO)
3-2-2,Wakaba,Mihama-ku,Chiba-shi,Chiba-261-8545,JAPAN

日本貿易振興機構
アジア経済研究所
〒261-8545 千葉県千葉市美浜区若葉３丁目２番２

慶南大学校極東問題研究所創立 50 周年を熱烈に祝賀いたします。わたしは 2006 年 3 月から 2007 年 3 月までの 1 年間、そして 2017 年 3 月から 2019 年 3 月までの 2 年間という長い期間を貴研究所の客員の身分で過ごす機会を、故・柳吉在元統一部長官を介して、尹大奎所長、李寛世所長より与えられました。これらの期間、研究所や北韓大学院大学校の優秀な方々より多くの知見をいただき、また、研究所の研究成果と収集資料が所蔵されている図書館のお世話になりました。

三清洞キャンパスの地下に位置する図書館、そのなかでもとりわけ特殊資料室には研究所関係者の皆様が長きにわたって収集した北朝鮮関連の一次資料が蓄積されている世界に類のない資料室となっています。まさに貴研究所によって 50 年かけて造られた北朝鮮研究の宝物庫だといえます。

貴研究所の研究業績と収集資料は朝鮮半島の統一、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に大きく寄与しており、その蓄積は統一後の後世にも伝えられていくことでしょう。貴研究所の今後の発展を祈願します。

アジア経済研究所 地域研究センター 主任調査研究員
中川雅彦

M. Nakagawa

2022年 3月 18日

# 나카가와 마사히코

아시아경제연구소 지역연구센터 주임조사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간,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간이라는 긴 기간을 귀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모두 고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을 통해 윤대규 소장님과 이관세 소장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 연구하는 동안 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우수한 분들로부터 많은 지견(知見)을 얻었으며, 또한 연구소의 연구성과와 수집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에도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삼청동 캠퍼스의 지하에 있는 도서관, 그 가운데서도 특히 특수자료실에는 연구소 관계자분들이 오랜 기간 수집한 북한 관련 1차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료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귀 연구소에 의해 50년에 걸쳐 만들어진 북한 연구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 연구소의 연구업적과 수집자료는 한반도의 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축적은 통일 후의 후세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귀 연구소의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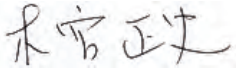
2022년 3월 18일

# 木宮正史

## 東京大学大学院教授

慶南大学校極東問題研究所創立50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私が韓国高麗大学大学院に留学したのは1985年、今から37年前です。おそらく1986年だったと思いますが、初めて、三清洞にある極東問題研究所を訪問しました。今でこそ、韓国には、政府系、民間など数々のシンクタンクが、日本などと比較しても豊富に存在しますが、当時は、その存在感がほとんど感じられないような状況でした。その中で、極東問題研究所は、北朝鮮研究や共産圏研究を始めとして、非常に優秀なスタッフを揃えた、韓国を代表する研究所として有名だったので訪問したのです。確かに「極東」はFar Eastの意味で、日本でも使われる言葉でしたが、それほど流通している言葉ではなく、非常に珍しい名前だと思った記憶があります。当時、韓国はまだ民主化以前の状況で、それほど学問の自由が保障され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うした中でも、極東問題研究所は『한국과 국제정치』という学術誌を発行しており、旺盛な研究活動を展開していました。当時、会員になって、研究所が刊行した雑誌や書籍をむさぼるようにして読みました。この間、研究所が主催する国際会議などにも参加させていただくなど、貴重な研究の機会を提供していただきました。。今後とも、研究所の益々の発展を祈念いたします。

2022年 2月 24日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국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유학했던 것은 1985년, 지금부터 37년 전입니다. 아마도 1986년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처음으로 삼청동에 있는 극동문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에야 한국에는 정부계와 민간 등 많은 싱크탱크가 일본과 비교해도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당시는 존재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연구나 공산권 연구를 비롯해 상당히 우수한 스태프를 갖춘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소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극동'은 Far East라는 의미로 일본에서도 사용되는 말이었지만, 널리 통용되었던 말은 아니었고 아주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민주화 이전 상황으로 학문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극동문제연구소는『한국과 국제정치』라는 학술지를 발행하고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원이 되어 연구소가 내는 잡지나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또한 이때 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등에도 참가하는 등 귀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소가 더욱 발전해갈 것을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24일

# 小熊誠

## 神奈川大学長

この度の貴研究所創立50周年、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心よりご祝辞を申し上げ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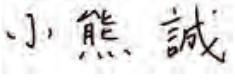
貴研究所におかれては、南北平和統一の分野で韓国トップの研究機関として存立されており、混迷を極める国際情勢への解決に重要な役割を果たされていることと存じます。

貴大学・貴研究所と本学との学術交流協定は1993年から始まり、30年に迫る歴史がございます。これまで、活発な学生交流はもちろんのこと、貴研究所とのシンポジウムの共同開催、多数にわたり貴学総長・本学名誉博士の朴在圭先生にご講演を賜るなど、多角的な学術交流を進めて参りました。

今後とも、学術交流協定校として両校の絆をさらに深めていければ幸甚に存じます。

現下のコロナ禍は未だ予断を許さない状況ではございますが、くれぐれもご自愛の上、教職員・学生皆さまの益々のご活躍を心より祈念申し上げます。

2022年 5月 13日



# 오구마 마코토

## 가나가와대학 총장

이번에 귀 연구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연구소는 남북 평화통일 분야에서 한국 제1의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정세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대학 귀 연구소와 우리 대학과의 학술교류는 1983년부터 시작되어 30년 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발한 학생 교류는 물론, 귀 연구소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우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신 박재규 총장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연해주시는 등 다각적인 학술교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술교류 협정대학으로서 양 대학의 유대를 더욱 긴밀하게 해 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교직원, 학생 모두의 커다란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13일

# 오정만

가나가와대학 명예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박재규 총장님, 이관세 현 소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소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극동문제연구소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발전하여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발전해갈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극동문제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라 연구소가 발전해온 모습을 잘 압니다. 무엇보다 박재규 총장님이 계시고 총장님의 지도력 아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발전을 생각하면 누구나가 박재규 선생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함께 일해온 스태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인삼각(二人三脚)의 산물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연구자들이 두 번째 공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규 총장님과 젊은 연구자들이 잘 조화를 이루며 많은 연구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박재규 총장은 극동문제연구소를 대표하여 일본의 총리가 되신 고 다케시타 노보루, 모리 요시로, 후쿠다 야스오 등의 정치가들과도 외교적 친분을 쌓으면서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리 전 총리는 한국 통일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경남대학교가 번역한 연구성과를 보실 정도였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다케시타 총리는 '일본정치'를, 후쿠다 총리는 '중국정치'를, 모리 총리는 '한국정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동문제연구소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28일

# 정계영

복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교수

五十年风华正茂，五十年成就斐然。值此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成立五十周年之际，谨向贵研究所及全体研究同仁致上诚挚而热烈的祝贺！

五十年来，极东问题研究所致力于本国和地区的和平与发展，不管是学术研究成果还是政策影响力方面都取得了令人瞩目的成就，已经发展成为韩国知名研究机构，也是国际上受到广泛认可的高端智库。贵研究所与我们复旦大学韩国研究中心通过真诚对话与合作，在两国人文交流和战略沟通上发挥了重要作用，我们深表敬意与感谢！

当前，中韩两国关系和地区及全球局势都处于深刻复杂的历史时期，贵所作为重要的智库平台，必将能够发挥更大作用，提供更多的思想贡献和智慧力量。真诚祝愿贵研究所发扬五十年优秀经验和积极影响，不断取得更大发展成绩！

2022年2月17日



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활발한 연구와 함께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소를 비롯한 전체 동료 연구원들께 삼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극동문제연구소는 자국과 지역의 평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 연구를 선도하였으며, 그 정책 영향력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귀 연구소와 우리 복단대학 한반도연구센터는 진실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인문 교류와 전략적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바, 이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최근 한중 양국 관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는 모두 복잡하고 심각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바, 극동문제연구소는 지역 연구의 허브로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정책적 대안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연구소가 지난 50년간 축적해 온 우수한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앞으로 더욱 큰 발전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17일

# 宁赋魁

## 前驻韩中国大使

值此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创立 50周年之际，我作为中国前驻韩大使谨致以诚挚、热烈的祝贺。极东问题研究所是韩国及国际上知名的东北亚国际关系和朝鲜半岛问题研究重要智库，以促进友好、合作、和平、发展为宗旨，积极、广泛地开展各种 国际学术交流，在相关学术研究领域取得了令人钦佩的成果。极东问题研究所与中国多所高校、智库建立了良好、密切的交流合 作关系，就中韩关系、韩半岛及东北亚局势举行学术研讨会，互学互鉴，为增进中韩民间友好以及双方学者在韩半岛问题上的沟 通交流作出了积极贡献。

我本人担任中国驻韩国大使期间，有幸与极东问题研究所的 专家学者相识并进行过坦诚交流，受益颇多。我很高兴，时至今 日仍与研究所的老朋友保持着联系，并参加贵研究所举办的学术 交流活动。

衷心祝愿极东问题研究所在创立 50年基础上，在开展国际 交流和相关领域学术研究上百尺竿头更进一步。

2022年 3月 3日



#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을 맞아 전 주한 중국대사로서 삼가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한국과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문제연구의 중요한 싱크탱크로 우호, 협력, 평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각종 국제학술교류를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학술연구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중국의 여러 대학, 싱크탱크와 좋은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한중관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학문을 배우며 한중 간의 우호 증진과 양측 학자들의 한반도 문제 소통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본인이 한국 주재 중국대사로 재직하는 기간 다행히 극동문제연구소의 석학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교류한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연구소의 오랜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귀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 교류 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창립 50주년 기초하에 국제교류와 관련 분야 학술연구를 전개하는 데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3월 3일

# 陳東曉

## 上海国际问题研究院

值此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成立50周年之际，我谨代表上海国际问题研究院向李所长及极东所全体同仁致以最热烈的祝贺！

极东问题研究所是韩国久负盛名的研究机构，专注东北亚问题尤其是韩半岛和平统一问题研究。半个世纪以来，极东所几代同仁积极开展学术研究、国际交流、资政建言、人才培养，成绩斐然。特别是进入21 世纪以来，极东所致力于学术研究的国际化，已经同十六个国家和地区的四十余家知名学术机构签署合作协议，其主办的“韩国全球和平论坛”影响盛隆。

近年来上海国际问题研究院也同极东所建立了更紧密 的学术交流关系。我本人也有幸在上海多次接待极东所代表团，并受邀赴韩参加极东所主办的重要会议，获益良多。

当前，国际格局正发生重大的历史性变化，东北亚和韩半岛局势也严峻复杂，亟需本地区智库机构加强交流合作，共同为地区和平稳定及繁荣建言献策。期待并坚信极东所能百尺竿头更进一步，也期待贵我两机构能携手共同进步。

2022年 5月 2日

陳東曉

# 천동샤오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원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에 즈음하여, 본인은 상해국제문제연구원을 대표하여 이 소장님과 극동문제연구소 전체의 교직원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명성이 자자한 연구기관으로 동북아 문제,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 연구에 집중해왔습니다. 반세기 동안 극동문제연구소의 역대 연구자들은 학술 연구, 국제 교류, 정책조언, 인재 양성에 적극적이었으며 성과가 우수하였습니다. 특히 21세기 접어들어 극동문제연구소는 학술연구의 국제화에 힘써 16개국 40여 개의 저명한 학술기관과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관기관으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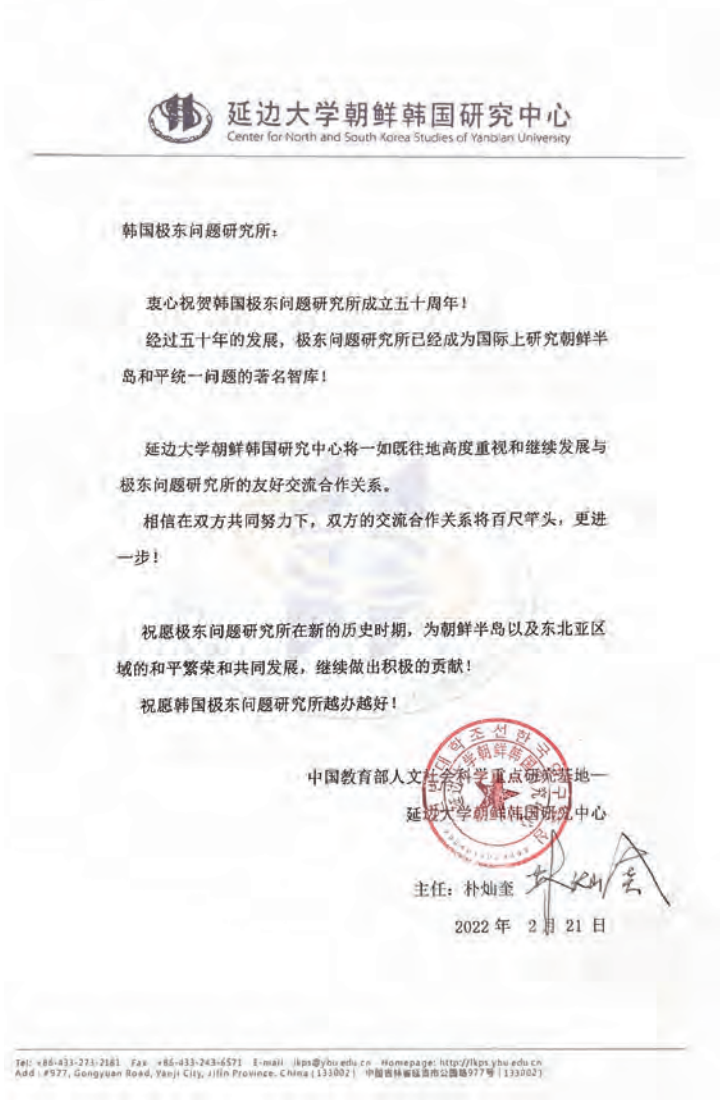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상해국제문제연구원도 극동문제연구소와 긴밀한 학술교류관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나 자신도 상해에서 극동문제연구소 대표단을 여러 차례 맞이하는 행운을 누린 바 있고, 더불어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중요한 회의에 초청받아 많은 적지 않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제정세 구도에 중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도 복잡해서, 지역 싱크탱크 기구의 교류협력 강화와 지역 평화 정착 및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이 절실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백척간두진일보해 발전할 것을 굳게 믿으며, 귀 연구소와 우리 연구원 양 기구가 협력하여 함께 진보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5월 2일

# 朴灿奎

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 主任



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
Center for North and South Korea Studies of Yanbian University

韩国极东问题研究所：

衷心祝贺韩国极东问题研究所成立五十周年！

经过五十年的发展，极东问题研究所已经成为国际上研究朝鲜半岛和平统一问题的著名智库！

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将一如既往地高度重视和继续发展与极东问题研究所的友好交流合作关系。

相信在双方共同努力下，双方的交流合作关系将百尺竿头，更进一步！

祝愿极东问题研究所在新的历史时期，为朝鲜半岛以及东北亚区域的和平繁荣和共同发展，继续做出积极的贡献！

祝愿韩国极东问题研究所越办越好！

中国教育部人文社会科学重点研究基地—
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

主任：朴灿奎

2022 年 2 月 21 日

Tel: +86-433-273-2181 Fax: +86-433-243-6571 E-mail: ikps@ybu.edu.cn Homepage: http://ikps.ybu.edu.cn
Add: #977, Gongyuan Road, Yanji City, Jilin Province, China (133002) 中国吉林省延吉市公园路977号 (133002)

# 박찬규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한국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0년간의 발전을 거쳐, 극히 발전하였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이미 한반도 평화통일문제를 국제적으로 연구하는 유명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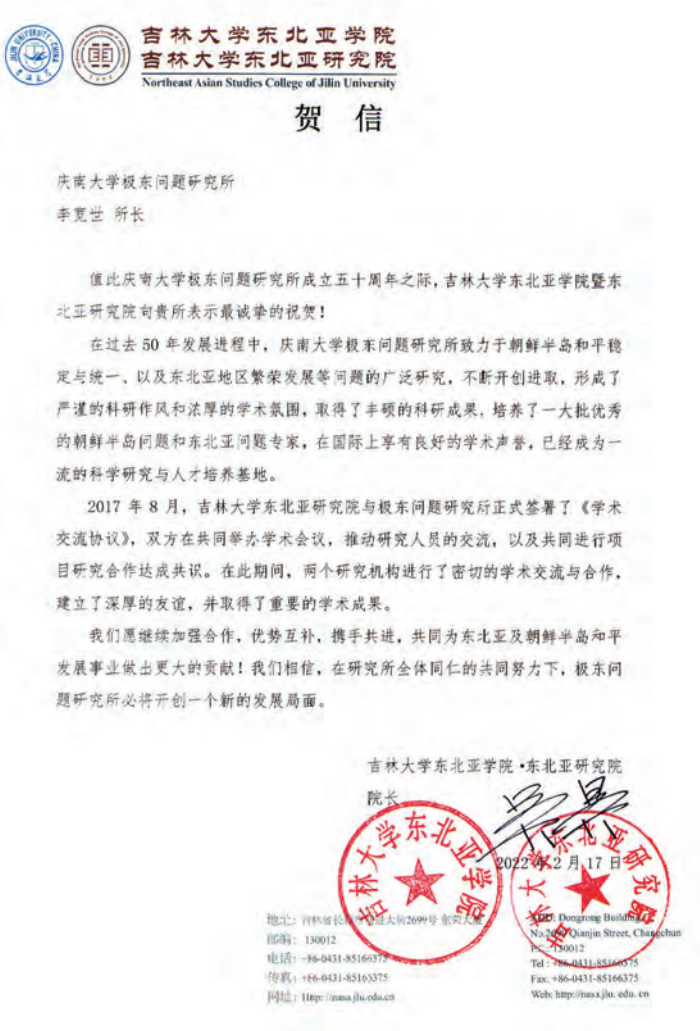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는 예전과 다름없이 극동문제연구소와의 우호협력교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며, 연구소와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쌍방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믿고 있으며, 쌍방의 교류 협력 관계는 백척간두진일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기를 맞이하여 극동문제연구소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계속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을 축원합니다!

2022년 2월 21일

# 吴昊

## 吉林大学东北亚学院院长



吉林大学东北亚学院
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
Northeast Asian Studies College of Jilin University

贺　信

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
李宽世 所长

值此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成立五十周年之际，吉林大学东北亚学院暨东北亚研究院向贵所表示最诚挚的祝贺！

在过去 50 年发展进程中，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致力于朝鲜半岛和平稳定与统一、以及东北亚地区繁荣发展等问题的广泛研究，不断开创进取，形成了严谨的科研作风和浓厚的学术氛围，取得了丰硕的科研成果，培养了一大批优秀的朝鲜半岛问题和东北亚问题专家，在国际上享有良好的学术声誉，已经成为一流的科学研究与人才培养基地。

2017 年 8 月，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与极东问题研究所正式签署了《学术交流协议》，双方在共同举办学术会议，推动研究人员的交流，以及共同进行项目研究合作达成共识。在此期间，两个研究机构进行了密切的学术交流与合作，建立了深厚的友谊，并取得了重要的学术成果。

我们愿继续加强合作，优势互补，携手共进，共同为东北亚及朝鲜半岛和平发展事业做出更大的贡献！我们相信，在研究所全体同仁的共同努力下，极东问题研究所必将开创一个新的发展局面。

吉林大学东北亚学院·东北亚研究院
院长
2022 年 2 月 17 日

地址：吉林省长春市前进大街2699号 东荣大厦
邮编：130012
电话：+86-0431-85166375
传真：+86-0431-85165375
网址：Http://nasa.jlu.edu.cn

Add: Dongrong Building
No.2699 Qianjin Street, Changchun
PC: 130012
Tel: +86-0431-85166375
Fax: +86-0431-85165375
Web: http://nasa.jlu.edu.cn

# 오호

길림대학 동북아학원 원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길림대 동북아학원 및 동북아연구원을 대표하여 본인은 귀 연구소에게 정성스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 50년간 발전과정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번영과 발전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부단히 창조적인 발걸음을 통해 과학적 연구풍토와 깊은 학술연구 분위기를 현성하여 매우 우수한 한반도문제와 동북아 문제 전문가를 배양했음을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주 양호한 학술성과를 얻어 이미 아주 우수한 과학적 연구와 인재배양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2017년 8월에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과 극동문제연구소 간 정식으로 '학술교류협정서'에 서명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연구인원의 상호교류를 추진했으며, 공동 프로젝트연구협력에도 인식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쌍방 연구기관은 밀접한 학술교류협력을 진행하였고, 깊은 우의를 유지했으며, 아주 중요한 학술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양 기구는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도와주고 공동으로 발전하며, 공동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발전사업에 커다란 공헌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구소의 전 교직원들의 공동노력하에 극동문제연구소가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국면을 창조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 韩献栋

中国政法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主任

在极东问题研究所成立 50 周年之际，我代表中国政法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对极东 问题研究 所致以最诚挚的祝贺。 在朝鲜、朝鲜半 岛和东北亚研究领域，极东问题研究所作为全世界范围内最著名的研 究机构和智库，在过去的 50 年间取得了巨大的成就。作为曾在极东 所学习过、研究过的一员，我深感荣幸和自豪。

在这一具有重要意义的时刻，我衷心期待和祝愿我们的极东问题研究所越办越好 学术和政策影响力越来越大， 百尺竿头，更进一步，在未来的日子里，取得更大的学术发展 和建设 成 就。

2022年 2月 14日



# 한헌동

중국정법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 교수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정법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를 대표하여 극동문제연구소에 대해 진심어린 축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조선·한반도·동북아문제 연구 분야에서 전 세계범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로 지난 50년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본인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적이 있는 일원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점에서 나는 우리 극동문제연구소가 점점 더 좋아지고, 학술과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백척간두진일보하여 앞으로 더 큰 학술 발전과 건설적 성과를 크게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축원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 王星星

## 上海外国语大学朝鲜半岛与亚太战略研究中心主任

百年变局与百年疫情叠加共振，作为国内国际具有广泛知名度和影响力的高端韩国智库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走过了五十年逐步强大的风雨历程，虽有过坎坷和遗憾，更多的是辉煌与荣耀。过去的五十年，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创新成果丰硕，服务决策不断创造辉煌；不仅促进了中韩战略沟通不断深化，同时也为各国智库加强思想对话提供了重要平台。

中韩建交三十周年之际，衷心地祝贺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成立五十周年！在两国关系经历波澜身处历史交汇点的时刻，诚挚祝愿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进一步蓬勃发展，不断迈上新台阶为实现中韩两国国家发展和地区整体繁荣继续贡献力量和智慧。

2022年 2月 15日



# 왕성성

상해외국어대학 조선반도 및 아태전략연구센터 주임

백 년의 변국과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마주하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국내외적 명망과 영향력을 가진 한국의 첨단 싱크탱크로서 그 5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역경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발전과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50년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풍성한 혁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과 정책건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의 부단한 심화를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국 전문가들의 사상적 대화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무대를 제공하였습니다.

중한 수교 30돌에 즈음하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설립 50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국 관계가 파란을 겪고 역사의 합류점에 선 이 시각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더욱 힘차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여 중한 양국의 국가 발전과 지역 전체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15일

## Weimin Wang

### Dean, School of Government, Shanghai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Dear Dean of IFES of Kyungnam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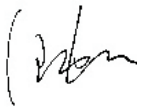
Congratulations on the 50th Anniversary of IFES for its extrodinary achievements of the research on North Korea, reunification issues, Northeast Asian geoplitics, as well as its expanded interactions with variou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a leading institute in South Korea, IFES has made unremitting efforts to achieve a peaceful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centering on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the past five dacades,including the holding of over 150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 hosting of a variety of world famous academic journals and publication of more than 150 books.

At this historical moment of great transition in the world politics, we expect IFES to make more research achievements and make greater contribution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velopment of China ROK relations.

Yours Sincerely,

2022年 2月 15日



# 왕위민

상해정법학원 정부관리대학장,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님께

북한, 통일 문제, 동북아 지역학 연구,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 등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50년간 다양한 세계 유명 학술지와 150권의 간행물 발간, 그리고 150여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남북통일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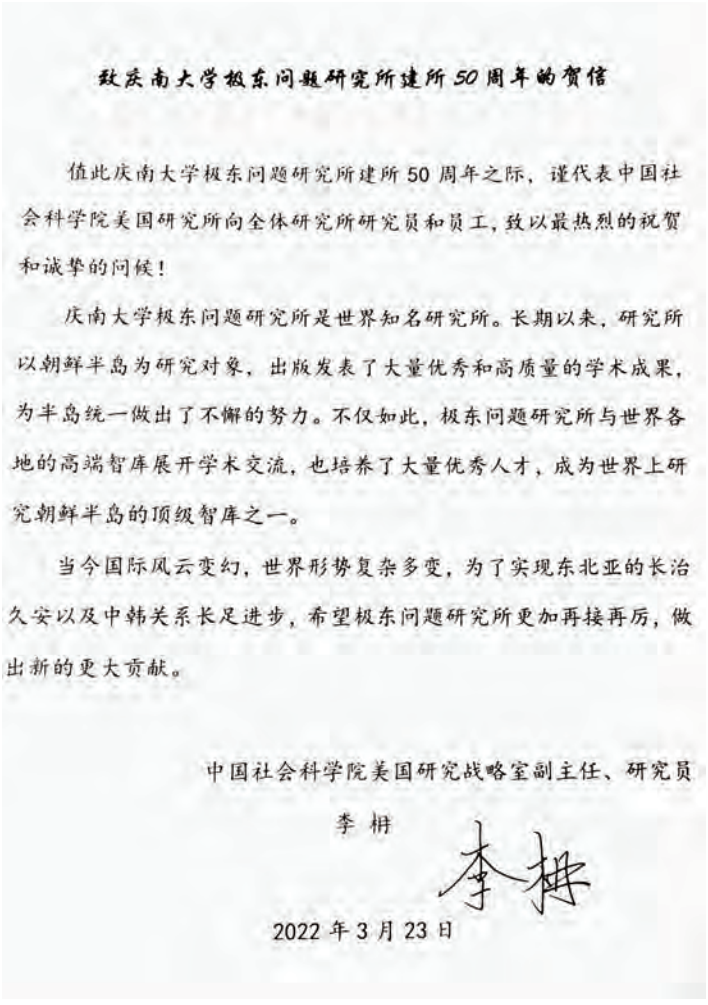
세계정치 대전환의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여 극동문제연구소가 더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한반도 평화와 한·중 관계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5일

# 李栟

## 中国社会科学院美国研究战略室副主任、研究员



**致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建所50周年的贺信**

值此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建所50周年之际，谨代表中国社会科学院美国研究所向全体研究所研究员和员工，致以最热烈的祝贺和诚挚的问候！

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是世界知名研究所。长期以来，研究所以朝鲜半岛为研究对象，出版发表了大量优秀和高质量的学术成果，为半岛统一做出了不懈的努力。不仅如此，极东问题研究所与世界各地的高端智库展开学术交流，也培养了大量优秀人才，成为世界上研究朝鲜半岛的顶级智库之一。

当今国际风云变幻，世界形势复杂多变，为了实现东北亚的长治久安以及中韩关系长足进步，希望极东问题研究所更加再接再厉，做出新的更大贡献。

中国社会科学院美国研究战略室副主任、研究员

李 栟

2022 年 3 月 23 日

#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전략실 부주임, 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에 즈음하여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를 대표하여 귀 연구소의 전체 교직원들에게 가장 열열한 축하와 정성 어린 안부인사를 전합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세계적 명성을 유지하는 연구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소는 한반도를 연구대상으로 많은 우수한 연구성과물들을 출판하였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나태하지 않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극동문제연구소는 세계 각 지역에서 우수한 싱크탱크들과 학술교류를 전개했고,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배양했으며, 세계에서 한반도연구의 최상위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가 바람처럼 변화무쌍하고, 세계 형세가 복잡 다난하여, 동북아지역의 장기안정 및 중한관계의 커다란 진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극동문제연구소 더욱 더 매진해 주시어 새로운 공헌을 크게 해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022년 3월 23일

# 趙建民

中國文化大學社會科學院院長

## 慶南大學極東問題研究所成立五十週年賀詞

當前國際地緣政治空前巨變，大韓民國不僅在經濟發展上直逼美日，軟實力也後來居上成為典範，而韓半島的和平，更為全球矚目。在此關鍵時刻，貴慶南大學極東問題研究所成立五十週年，不但在研究出版上表現令人刮目相看，出版多個高水平的國際期刊，與許多國家密切合作，並舉行了無數的國際會議，成為亞洲地區最有影響力的學術智庫，進而對東亞地區的和平穩定，造成深刻的影響。作為國際關係與東亞問題的研究者，個人對貴所的成長茁壯及成就，深表敬佩！謹代表中國文化大學社會科學院，對貴所的五十週年所慶，致上最誠摯的祝賀，在即將邁入第二個五十年之際，祝福貴所發展更上層樓！

中國文化大學社會科學院院長

趙建民敬賀

2022 年 2 月 16 日

# 조건민

대만 중국문화대학 사회과학원 원장

현재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변화가 매우 크며, 대한민국은 경제발전 측면에서 미일을 따라가고 있고, 소프트 파워도 후대의 모범이 되고 있고, 더욱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성립 50주년은 연구출판물에 있어서 놀랄 만한 성과를 얻었고, 출판물의 수준도 국제적 수준에 다다랐으며, 더불어 많은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수많은 국제회의를 주관하여 아시아 지역의 최고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되었으며,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제관계와 동북아문제의 연구자 입장에서 본인은 귀 연구소의 성장과 성취에 대해 깊은 존경과 부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중국문화대학 사회과학원을 대표하여 귀 연구소 50주년을 경축하며, 최고의 정성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장차 두 번째 50주년 시기에 진입하여 귀 연구소가 무궁한 발전을 하기를 축복 드립니다.

2022년 2월 16일

# 王高成

## 淡江大學國際事務副校長

韓國極富盛名的「極東問題研究所」即將迎來 50 週年慶。該所自 1972 年成立以來即專注於朝鮮半島情勢及南北韓統一問題的研究，並取得了極大的成就，包括與美國、中國、日本及俄羅斯等 16 個國家及 40 多個研究機構建立了研究合作關係，也舉辦了 150 多次的國際會議和出版了 150 多本相關書籍，並發行高水準的研究刊物。本校「中國大陸問題研究所」亦與該所締結學術合作關係，並曾共同舉辦過學術會議，探討東亞安全情勢。

「極東問題研究所」作為專研南北韓統一問題的智庫，也已成為韓國政府甚為倚重的政策諮詢機構，提供對於北韓政經社情勢、北韓對南韓的政策以及朝鮮半島局勢的分析研判，對於南韓的國家統一與安全維護發揮重要的智庫功能，也是國際間瞭解朝鮮半島問題的重要資訊來源。

在此誠摯恭喜該所 50 週年慶，並祝所運昌隆！

淡江大學國際事務副校長

王高成 敬賀

2022 年 2 月 27 日

# 왕고성

대만 담강대학 국제사무부총장

한국에서 매우 명성이 높은 극동문제연구소가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1972년 설립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통일문제 연구에 전념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6개국 40여 개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관계를 맺고, 150여 차례의 국제회의와 150여 권의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본교의 중국대륙문제연구소도 이 연구소와 학술협력관계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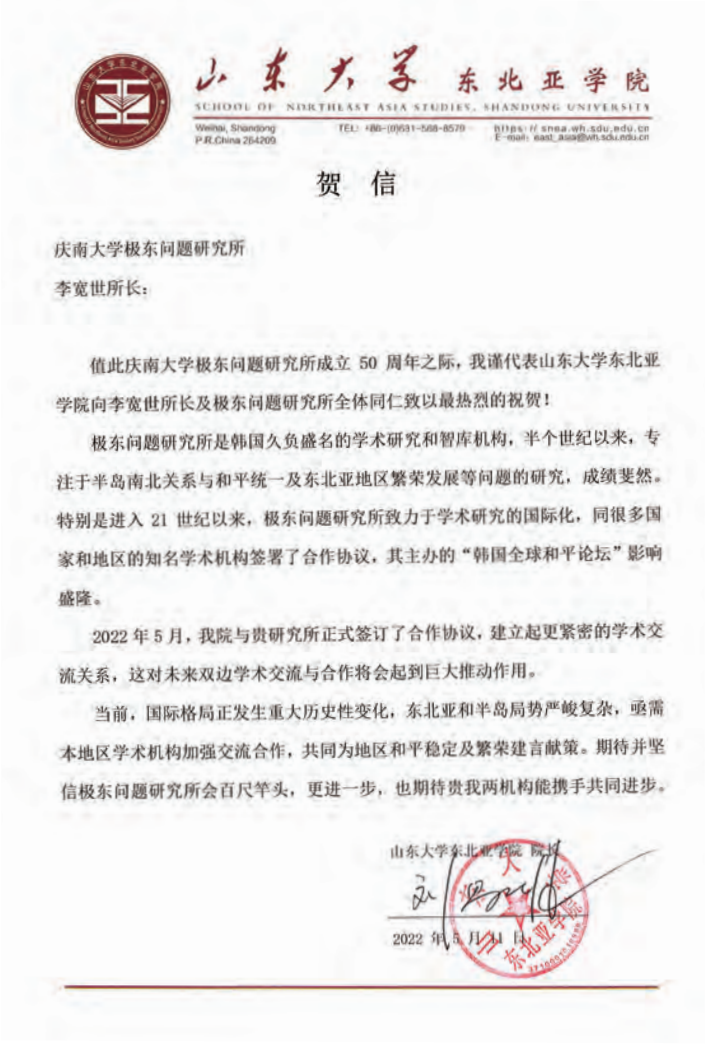
극동문제연구소는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이자 한국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자문기구로서 북한의 정치 경제사회에 대한 정세, 북한의 대남정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남한의 국가통일과 안보유지에 중요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한반도문제를 국제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극동문제연구소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연구소가 번창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2월 27일

# 刘昌明

## 山东大学东北亚学院院长



山东大学 东北亚学院
SCHOOL OF NORTHEAST ASIA STUDIES, SHANDONG UNIVERSITY
Weihai, Shandong P.R.China 264209 TEL: +86-(0)631-568-8579 https://snea.wh.sdu.edu.cn E-mail: east_asia@wh.sdu.edu.cn

贺 信

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

李宽世所长：

值此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成立 50 周年之际，我谨代表山东大学东北亚学院向李宽世所长及极东问题研究所全体同仁致以最热烈的祝贺！

极东问题研究所是韩国久负盛名的学术研究和智库机构，半个世纪以来，专注于半岛南北关系与和平统一及东北亚地区繁荣发展等问题的研究，成绩斐然。特别是进入 21 世纪以来，极东问题研究所致力于学术研究的国际化，同很多国家和地区的知名学术机构签署了合作协议，其主办的“韩国全球和平论坛”影响盛隆。

2022 年 5 月，我院与贵研究所正式签订了合作协议，建立起更紧密的学术交流关系，这对未来双边学术交流与合作将会起到巨大推动作用。

当前，国际格局正发生重大历史性变化，东北亚和半岛局势严峻复杂，亟需本地区学术机构加强交流合作，共同为地区和平稳定及繁荣建言献策。期待并坚信极东问题研究所会百尺竿头，更进一步，也期待贵我两机构能携手共同进步。

山东大学东北亚学院 院长

2022 年 5 月 31 日

# 유창명

산동대학 동북아학원 원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본인은 산동대학 동북아학원을 대표하여 이관세 소장님과 연구소 전체 교직원에게 열렬하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한국에서 명성이 높은 학술연구 기관이자 싱크탱크로 반세기 이래 한반도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및 동북아 지역의 번영과 발전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왔으며 그 업적이 찬란합니다. 특히 21세기 접어들어 극동문제연구소는 학술연구의 국제화에 매진하여 많은 국가와 지역의 유명 학술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포럼'을 주관하여 성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 5월 우리 동북아연구원과 극동문제연구소가 MOU관계에 정식으로 서명하였고, 더욱 긴밀한 학술교류관계를 마련했음은 물론 양대기관이 미래 학술교류와 협력에 대한 거대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 구도에 중대한 역사적 변화가 발생했고,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도 매우 엄중하여, 동 지역의 학술기구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공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대한 건전한 방안들을 생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극동문제연구소는 자강불식의 노력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또한 귀 연구소와 산동대학 동북아학원 양 기구가 서로 손잡고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5월 11일

# Alexander Vorontsov

Head of the Korea and Mongolia Department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

Dear Colleagues,

I am extremely pleased to join my heartfelt greetings to the many friends and partners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nd congratulate your glorious Institute with all my heart on this momentous date: the 5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Over the years, the IFES has become a very authoritative, a world-class Think Tank of the highest global standards specializing in the study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problems of the Far East region, the Korean Peninsula, but above all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ssues.

The recognition of highest professionalism of the IFES figures is reflected in the recruitment of its employees to high government positions. In this context, it is worth mentioning that Mr. Park Jae-kyu was invited to hea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 Korea during the crucial period of the preparation and holding of the first ever inter-Korean summit in June 2000. The author of these lines cannot forget the admiration for Mr. Park Jae-kyu's performance in this high position, which he was privileged to witness in his private meetings both at the Minister's office in Seoul and at his suite at the Goryeo Hotel in Pyongyang during his visits to North Korea in 2000-2001.

Throughout the years that followed, IFES steadily increased its research capabilities and became one of the world leaders in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issues studies.

In this framework it gives me special pleasure to recall that the fruitful cooperation between our two Institutes began more than 30 years ago when we successfully hosted a full-scale, excellent bilateral conference in Moscow in June 1990. At this conference the delegation of your Institute was headed by an outstanding scholar, leader of science and statesman, President of the Kyungnam University Mr. Park Jae-kyu.

I sincerely wish you further success in the development of IFES in studying the diverse issues of the Far East region and North Korea and making critical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resolu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unification problems the urgency of which is now even greater.

With my warmest regards

Sincerely yours.

April 3, 2022

#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몽골학부장, 동양학연구소장

친애하는 동료들에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많은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영광스러운 연구소의 기념비적인 50주년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극동문제연구소는 극동지역과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위적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월드클래스 싱크탱크로 성장하였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인사들의 최고 수준의 전문성은 그들의 고위 공직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규 총장님은 2000년 6월에 예정된 사상 최초 남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필자는 당시 서울에 있는 통일부 장관 집무실과 총장님이 북한 방문 당시 거주했던 평양의 고려호텔 스위트룸에서 진행된 사적 모임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해당 지위에서의 총장님의 활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극동문제연구소는 꾸준히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며 북한 및 통일 문제 연구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두 기관의 협력이 시작됐던 30년 전, 즉 1990년 6월 모스크바에서 공동 개최했던 전면적이고 훌륭했던 양자회담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본 회담에 참석했던 극동문제연구소 대표단을 이끌었던 분은 다름 아닌 뛰어난 학자이자 과학과 정치의 지도자인 경남대학교의 박재규 총장님이셨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극동지역에 대해서 더욱 다양한 연구를 하고, 또한 현재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남북관계 해결 및 통일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어 더 큰 성공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뜻한 안부를 담아서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3일

#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교수, 한국학연구소장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극동문제연구소는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연구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극동문제연구소에 거는 우리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21세기 들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또한 아주 거대한 파도와 같이 크고 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기적 감염병 이후 만들어 나갈 새로운 질서에 관해 고민하는 동시에 다자주의와 일방주의 간의 치열한 대결로 인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심각한 조정을 겪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과 함께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관계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전진시켜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측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할 창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부딪힌 새로운 도전에 잘 대처하려면 과거의 사고 또는 과거의 방식으로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50년 동안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창조적인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극동문제연구소가 한국과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4일



# 이상우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장 겸 부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설립 50주년을 스웨덴의 ISDP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간 극동문제연구소가 북한·통일연구에 있어 이룩한 뛰어난 업적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해온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이제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한국 최고의 통일·외교·안보 연구기관입니다. ISDP는 먼 스웨덴에 위치하고 있지만 극동문제연구소와의 교류와 협력을 저희 연구소의 긍지로 생각해 왔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했고,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현재 ICBM과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많은 긴장과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근 이러한 다발적이고 복잡한 국제 안보상황하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더욱 고차원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집중해 왔던 4강외교 뿐만이 아닌 지역적 범위와 대륙을 넘어선 다양한 전략적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극동문제연구소와 ISDP 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50년은 극동문제연구소가 과거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룩한 업적을 뛰어넘어, 전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는 연구소로 더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1일

## Christian Taaks

Head of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Korea office

Dear Director Lee Kwan-sei, Dear colleagues and friends at IF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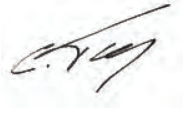
We warmly congratulate you on your 50th anniversary. With your vision and dedication, you have been a pioneer since your inauguration in 1972 and continuously innovative, pro-actively engaging with new global issues. From early on you accessed original North Korean materials, you engaged in research of the Soviet Union, befor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SR were established and you are the leading research institute on North Korea. The geopolitical challenges for Korea, East Asia and liberal democracy worldwide have not decreased. The world has gotten more complex. Russia's global aggression and the Ukraine war, the contest between the USA and China, North Korea's continuous nuclear development - a multitude of issues and many more that we cannot even fathom yet. For 50 years you have enabled policy makers, experts, and the wider public to better understand such complex international issues.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continuous efforts in the next 50 years to furth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 can speak for myself, my predecessors, and the whole Friedrich-Naumann-Foundation for Freedom that we are proud to have been cooperating with you for already 14 years. Our joint events have always attracted a great number of participants.

Once again, our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you on your impressive achievements over the last 50 years and we wish IFES all the best for the next 50 years!

Sincerely,

March 29, 2022



# 크리스찬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이관세 소장님, 친구이자 동료분들께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헌신으로 1972년 개관한 이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왔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일찍부터 연구소는 북한원전 자료이용을 가능케 했고, 소비에트연방이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맺기 이전부터 소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북한연구 분야를 주도하는 북한연구 중점 연구소입니다. 한국, 동아시아와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직면해 있는 지정학적으로 처해 있는 난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더욱 복잡다난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전세계를 향한 공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 간 경쟁, 북한의 끊임없는 핵개발 등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이슈가 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은 정책 결정자, 전문가와 각 기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국제 사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연구소가 앞으로 50년 동안 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 자신, 제 선임자들, 그리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우리 모두가 자유를 위해 14년 동안 협력해 온 데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최한 행사는 항상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시고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연구소가 쌓은 훌륭한 업적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50년 동안에도 극동문제연구소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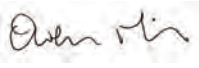
2022년 3월 29일

# Owen Miller

SOAS, University of London

I am very happy to hear th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s celebrating its 50th anniversary this year. This is a unique institution that focuses on the particular problems created b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re than 70 years ago, but at the same time takes a broad 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t has unparalleled facilities for scholars who want to research issues relating to North Korea,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relations among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 was extremely honored to have been invited to the Institute as a fellow in 2021 and found my time there both enjoyable and highly rewarding.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Professor Kwan-Sei Lee on shepherding IFES to this very notable milestone in its history. I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the Institute and its eminent scholars again in the future and I also look forward to seeing what IFES will be able to accomplish in the coming decades of its second half century.

April 1, 2022



# 오웬 밀러

런던 SOAS 대학 교수

올해 극동문제연구소가 50주년을 맞게 된 데에 대해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70년 이상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중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문제을 연구하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북한, 남북통일, 동북아시아 관계관련 리서치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타기관과는 견줄 데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 그런 연구소에서 제가 펠로우로 연구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셔서 제게는 매우 영광이었고 또 기쁨이었고 정말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역사에 큰 획을 그을만한 성과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연구소 이관세 소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소와 저명한 학자분들과 함께 협연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연구소가 다가오는 반세기 동안 성취하실 연구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50년사

1972-2022

# 별첨자료

01. 국제학술회의
02. 국내학술회의·세미나
03. 연구총서(단행본) 시리즈
04. 교육활동
05. 해외학자 연구활동 지원
06. 연구간행물

# 01

## 국제학술회의

1972___2022

## 1970년대 주요 학술회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참석자 | 장소 |
|---|---|---|---|
| 1973.04.20.<br>-04.21. | 제1회 국제학술회의<br>한국과 주변 강대국 | 재미 한국인 학자 등 50여 명 | 미국<br>워싱턴 D.C |
| 1974.01.21.<br>-01.24. | 제2회 국제학술회의<br>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 Abraham Bargman<br>Ishwer C. Ojha<br>Donald S. Zagoria<br>Ilpyong J. Kim<br>Hiromi Teratani<br>Arnold L. Horelick<br>James W. Morley<br>Sungjoo Han<br>John H. Herz<br>Jae Kyu Park<br>등 미국, 일본, 한국인 학자 60여 명 | 조선호텔 |
| 1976.10.21.<br>-10.23. | 제3회 국제학술회의<br>80년대의 동남아와 그 주변국 | Richard W. Mansbach<br>Melvin Gurtov<br>Roger E. Kanet<br>Toru Yano<br>Peter Van Ness<br>J.L.S. Girling<br>J. Soedjati Djiwandono<br>Bhabani Sen Gupta<br>Byung Chul Koh<br>Sungjoo Han<br>등 미국,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br>대만, 한국 등에서 100여 명 | 조선호텔 |
| 1979.01.22.<br>-01.24. | 제4회 국제학술회의<br>개발도상국의핵확산전망 | Charles N. Van Doren<br>Ross Campbell<br>William H. Overholt<br>Erwin Heckel<br>Ryukichi Imai<br>Yair Evron<br>Desmond J. Ball<br>B.K. Wariavwalla<br>등 미국, 일본, 영국, 서독,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br>자유중국, 한국 등 내외 학자 100여 명 | 조선호텔 |
| 1979.10.24.<br>-10.25. | 제1회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br>한국과 인도네시아 - 금후10년 | 양국의 학계, 정계, 실업계 인사 60여 명 | 인도네시아<br>자카르타 |

## 1980년대 주요 학술회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참석자 | 장소 |
|---|---|---|---|
| 1980.10.11.<br>-10.13. | 제2회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br>80년대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 양국의 학계, 정계, 실업계 인사 100여 명 | 신라호텔 |
| 1981.12.14.<br>-12.16. | 제3회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br>한국과 인도네시아 - 장기 개발협력을 위한<br>정책과제 | 양국의 학계, 정계, 실업계 인사 60여 명 | 인도네시아<br>발리 |
| 1982.08.24.<br>-08.25. | 제5회 국제학술회의<br>소련과 동아시아 | Basil Dmytryshyn<br>Joseph M. Ha | 경남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참석자 | 장소 |
|---|---|---|---|
| | | Joon Yong Park<br>Robert S. Lockwood<br>John Stephan<br>Young Rae Kim<br>Michael Sadykiewicz<br>Stuart Kirby<br>Theodore Shabad<br>Young Chi Kim<br>등 미국, 영국, 한국의 학자 50여 명 | |
| 1984.05.22.<br>-05.24. | 제4회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br>한국과 인도네시아 - 양국의 장기적 개발협력 방안에 관한 정책이슈 | 양국의 학계, 관계,<br>경제계 인사 120여 명 | 하이얏트호텔 |
| 1984.07.03.<br>-07.06. | 아시아 해양법회의<br>동아시아와 해양법 | John P. Craven<br>Choon-ho Park<br>Edward L. Miles<br>Pyong-choon Hahm<br>Myron H. Nordquist<br>Horace B. Robertson, Jr.<br>Dalchoong Kim<br>Choung Il Chee<br>Tai-Joon Kwon<br>Edgar Gold<br>Douglas Johnston<br>Byung Don Lee<br>Daniel Cheever<br>Hongkoo Lee<br>Myron Nordquist<br>Jung-Gun Kim<br>Thomas Clingan<br>Tadao Kuribayashi<br>Kuo-Tsai Chao<br>Hungdah Chiu<br>B.A. Hamzah<br>Chao Hick Tin<br>Masaki Saito<br>Noegroho Wisnomoerti<br>Chalermpon Ake-uru<br>Robert W. Smith<br>Mario C. Manansala<br>Robert L. Friedheim<br>Lee Kimball<br>Jon Van Dyke<br>Hyung-tack Huh<br>등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br>자유중국, 미국, 캐나다, 한국 등 10개국 90여 명 | 신라호텔 |
| 1985.10.24.<br>-10.27. | 제1차 한반도 평화정착 및<br>통일전략 국제학술회의<br>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을 위한 전략 | 미국, 일본, 한국 3개국 37명 | 미국<br>블루밍데일시 |
| 1986.07.29.<br>-07.31. | SDI에 관한 국제학술회의<br>SDI와 아시아에 있어서의 영향 | Edward L. Rowny<br>Jae Kyu Park<br>Byung-joon Ahn<br>Paul Marantz<br>Kim R. Holmes<br>Bonnie S. Glaser<br>Banning N. Garrett<br>Makoto Momoi<br>Alex Gliksman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참석자 | 장소 |
|---|---|---|---|
| | | Bih-jaw Lin<br>Yong-Ok Park<br>Douglas G. Bond<br>J. Soedjati Djiwandono<br>Chulacheeb Chinwanno<br>Candido P. Fillo<br>Ross Babbage<br>등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자유중국, 태국, 필리핀, 캐나다, 일본 등 8개국 51명 | |
| 1986.08.17.<br>-08.24. | 제11차 국제군사사학회 서울대회<br>전쟁, 교역, 국가 - 17세기 이후 유럽의 아시아 진출과 동서양 군사사상에 미친 영향 |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21개국 160명 | 쉐라톤워커힐호텔 |
| 1986.11.24.<br>-11.27. | 제2차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전략 국제학술회의<br>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을 위한 전략 | 미국, 일본, 한국, 중공 4개국 38명 | 일본 도쿄<br>미야꼬인호텔 |
| 1987.10.02.<br>-10.04. | 재북미 한국교포에 관한 학술회의<br>북미주의 한국교포<br>- 역사적 조망과 미래의 전망 | Bong-youn Choy<br>Hyung-chan Kim<br>Won Moo Hurh<br>Kwang Chung Kim<br>Seong Hyong Lee<br>Jin Keon Kim<br>Marn J. Cha<br>Pyong Gap Min<br>Moonsong David Oh<br>Chan Sup Chang<br>Yong Choon Kim<br>Eui Hang Shin<br>Hyung Park<br>Tae-Hwan Kwak<br>Young Whan Kihl<br>Jay K. Yoo<br>Jay Jung Heum Kim<br>등 한국, 재북미 한인학자 40여 명 | 미국 애틀랜타 |
| 1987.10.21.<br>-10.23. | 한·미관계의 재조명 학술회의<br>한·미관계의 재조명 - 정치·경제·문화적 측면 | 유재갑, 양성철, 문정인, 박홍규, 장달중, 김수곤, 황동준, 정영일, 정구현, 김우택, 이종각, 이만열, 김광억, 박홍수 등 학자 50여 명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1988.08.25.<br>-08.26. | 통일이론 재조명 학술회의<br>남북한 통일이론의 재조명 | 양성철, 문정인, 노화준, 김도훈,<br>Mario Bognnano, Chong-Rim Kim<br>등 한국, 미국의 학자 60여 명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1988.10.11.<br>-10.12. | 제5회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br>동남아의 정치, 경제, 안보 | 양국의 학계, 경제계 인사 80여 명 | 인도네시아<br>자카르타 |
| 1989.10.25.<br>-10.27. | 마르크시즘 국제학술회의<br>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 Jurgen Kuczynski<br>Frederic R. Jameson<br>Jung Hwa Yol<br>Radomir G. Bogdanov<br>Kim Hong-Myoung<br>Iwata Masayuki<br>Bob Jessop<br>Alain Lipietz<br>Alexander G. Ivakhnik<br>Elmar Altvater<br>James O'Connor<br>Eric Olin Wright<br>Immanuel Wallerstein<br>Nodari A. Symonia<br>Andras Hernadi | 인터컨티넨탈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참석자 | 장소 |
|---|---|---|---|
| | | Su Shaozhi<br>Chen I-hsin<br>Peter Wiles<br>Shim Ji Yeon<br>Jon Halliday<br>등 한국, 영국, 독일,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br>9개국에서 90여 명 참가 | |

## 1990년대 주요 학술회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1991.04.11.<br>-04.13. | 태평양으로<br>향하는 한국<br>국제학술회의<br>태평양으로<br>향하는 한국 | | Keun Park<br>Jae Kyu Park<br>Charlott Kennedy<br>Kyong-Dong Kim<br>Ma-Ji Rhee<br>Yunshik Chang<br>Sung-Chul Yang<br>Robert Landauer<br>T.C. Rhee<br>James Larson<br>Joseph Ha<br>Tae-Dong Chung<br>Jong Keun You<br>Gil Latz<br>Dong-Se Cha<br>Martin Hart-Landsberg<br>Richard Steers<br>Mel Gurtov<br>Maeng-yol Jang<br>Wang Shenzhi<br>등 한국, 미국, 중국학자 30여 명 | | 미국<br>포틀랜드대 |
| 1991.06.03.<br>-06.04. | 한·소 학술회의<br>아시아<br>태평양<br>지역에서의<br>평화와 협력<br>그리고 한반도 | | Hakjoon Kim<br>Jae Kyu Park<br>G. Ghufrin<br>G.K. Shirokov<br>Boo-Ki Kim<br>Yung-hwan Jo<br>Alexander V. Voronstsov<br>V. Yashkin<br>Suck-Kyo Ahn<br>A. Maximov<br>Chang Jae Lee<br>등 한국, 소련의 학자 40여 명 | | 소련<br>모스크바<br>동양학<br>연구소 |
| 1992.03.26 | 1990년대<br>중국의 전망<br>Prospects for<br>China in the<br>1990s | 공동주최:<br>미국 하버드대<br>페어뱅크센터,<br>아시아<br>소사이어티 | Jae Kyu Park<br>Dwight H. Perkins<br>Ezra F. Vogel<br>James L. Watson<br>Roderick MacFarquhar 등 | | 경남대<br>극동문제<br>연구소 |
| 1992.09.04 | 연구소 20주년<br>기념 미국·러시아 | | Jae Kyu Park (경남대 총장)<br>Donald P. Gregg (주한 미국 대사)<br>Aleksandr Panov (주한 러시아 대사) | | 신라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대사초청 만찬<br>탈냉전기 세계와 한반도 | | 이만섭 (국회의장)<br>조완규 (교육부 장관) | | |
| 1992.10.29.<br>-10.30. | 개소 20주년 기념<br>국제학술회의<br>신동북아 질서와 한반도<br>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 | Opening Remarks: Manwoo Lee (IFES)<br>Welcoming Remarks: Jae Kyu Park (Kyungnam Univ.)<br>Keynote Address: "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 Theoretical Overview", Richard W. Mansbach (Iowa State Univ.)<br><br>1세션-사회: Kie-Pyung Oh (Sogang Univ.)<br>"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Charles F. Doran (SAIS, Johns Hopkins Univ.)<br>"Japan as an Economic Superpowe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Yung-Hwan Jo (Arizona State Univ.)<br>"The Emerging Economic Order in East Asia: From a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Young-Kwan Yoon (Seoul National Univ.)<br><br>2세션-사회: Bum-Joon Lee (Sungshin Women's Univ.)<br>"Prospects for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 Melvin Gurtov (Portland State Univ.)<br>"The End of the Cold War: Russian-American Re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Georgi A. Arbatov (Institute of USA & Canada, Academy of Sciences, Russia)<br>"Japan as a Military Superpowe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Hideshi Takesada (Japan Defense Agency, Japan)<br><br>3세션-사회: Hoke L. Smith (Towson State Univ.)<br>"Sino-Korean Diplomatic Ties and Northeast Asia", Guang Wan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br>"Japan-N.Korea Negotiation for Normalization: Background,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Masao Okonogi (Keio Univ.)<br>"Prospects for Korean-Japanese Relations after the Cold War: New Issues and Approaches", Hosup Kim (Chung Ang Univ.)<br><br>4세션-사회: Mouhong Xue (Beijing Univ.)<br>"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Prospects for Unification", Jae Jean Suh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br>"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the Nuclear Issue in the Post-Cold War World", Byung Joon Ahn (Yonsei Univ.) | 1세션<br>Hyunwook Koh (Kyungnam Univ.)<br>Choon Nam Kim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br>Eun-Jin Lee (Kyungnam Univ.)<br>Jin W. Mok (Kookmin Univ.)<br><br>2세션<br>Taeg-Won An (Academy of Korean Studies)<br>Kang-Suk Rhee (National Defense College)<br>Myung Soon Shin (Yonsei Univ.)<br>Hee Suk Shin (Institute of Foreign Affiars and National Security)<br><br>3세션<br>Jung Bock Lee (Seoul National Univ.)<br>Jin-Young Suh (Korea Univ.)<br>Young-Rae Kim (Ajoo Univ.)<br>Kyongsoo Lho (Stanford Univ.)<br><br>4세션<br>James Cotton (Australian National Univ.)<br>Valery N. Ermolov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ussia)<br>Min Shi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PRC)<br>Yoo Shik Gong (Ajoo Univ.) | 스위스 그랜드 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1993.09.22.<br>-09.23. | 1993년도<br>국제학술회의<br>문화 및 발전<br>관련 국제·국내<br>기관 간 포럼<br>International<br>and Inter-<br>Agency Forum<br>on Culture and<br>Development | | Opening Address<br>- Manwoo Lee (IFES)<br>- Francine Fournier (UNESCO)<br>Welcoming Address<br>- Jae Kyu Park (Kyungnam Univ.)<br>- In-suk Cha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br>Keynote Speech<br>"The Culture of Development and the Idea of "Cultured" Development", Kyong-Dong Kim<br><br>1세션<br>"The Geoculture of Development, or the Transformaion of our Geoculture?", Immanuel Wallerstein<br>"Culture and Development in Egypt", Mohamed Fathalah El-khatib<br><br>2세션<br>"Economic Development, Technology, and Culture: The Case of East Asia", Yoshihara Kunio<br>"Culture, 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Kabiru Kinyanjui<br><br>3세션<br>"Political Culture, Joint Action, and Modernity", Fernando Calderon<br>"Cultureal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Claude J. Willard<br><br>4세션<br>"Culture and Development: South Korean Experience", Byong-Je Jon<br>"The Role of Culture in Building a Socialist Society in North Korea", In-Sook Nahm | 1세션-Country Papers:<br>"United States Culture and World Culture in the 1960s", Christopher Chase-Dunn "Culture and Development in Cameroun", Jean-Emmanuel Pondi "Student Culture in Korean Development", Sung-Nam Cho "Culture and Development in Greece", Constantine Tsoukalas<br><br>2세션-Country Papers:<br>"Indigenization and Social Science: The Rolo of Culture in Malaysian Development", Syed Farid Alatas "Culture and Development in Benin", Albert Tevoedjre "Cultural Integration and Re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Delgado Butturini<br><br>3세션-Country Papers:<br>"Cultural Ideas and Development in Thailand", Satit Niyomyaht "Culture and Development in Norway", Ingrid Eide "Culture and Development: The Zambian Experience", Mucheleng Anga "Culture and Development in Canada", R.S. Ratner<br><br>4세션-Country Papers:<br>"Tradition, Modernization, Revolution: Foundation of National Inner Force in Culture and Development", Phan Lac Tuyen "Economic Modernization vs. Social Modernity", Sergio Zermeno "Strategic Cultural Factors in Local Development: Case Study in Spain", Isidoro Alonso "Culture and Development in Russia", Ratchik M. Avakov | 힐튼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1994.09.15. | 1994년도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신질서와 정치, 경제협력 | 공동주최: 연변대 동북아 정치연구소 | 개회사: 김동화 (경남대)<br>환영사: 리주석 (연변대)<br><br>1세션-사회: 리홍우 (연변대)<br>"신국제질서와 남북한의 정치변화", 강문구 (경남대)<br>"남북조선관계가 동북아국제질서 형성에 주는 영향", 김동일 (연변대)<br>"전환기의 남북한관계", 최완규 (경남대)<br>"조선반도평화통일의 전망", 김정호 (연변대)<br>"<7·8> 후 조선정세추이 고찰", 고경수 (연변대)<br><br>2세션-사회: 한석태 (경남대)<br>"북한경제와 대외관계", 함택영 (경남대)<br>"북한의 경제개방", 장맹렬 (경남대)<br>"중국과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 윤진기 (경남대)<br>"동북아신질서의 구상과 전망", 김향해 (연변대)<br>"동북아신질서와 중일관계", 방수옥 (연변대) | 종합토론-사회: 심지연 (경남대)<br><br>김승철 (연변대)<br>이동욱 (연변대)<br>윤대규 (경남대)<br>류길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중국 연변대 |
| 1994.10.07. | 「94 부산포축제」 학술토론회 한반도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관계 | 공동주최: 부산대 한국외교협회 | 사회: 김창수 (부산대)<br>개회사: 장혁표 (부산대)<br>인사말: 전상진 (한국외교협회)<br>축사: 김기재 (부산직할시장)<br><br>사회: 박재규 (경남대)<br>P. Urjjinlhundev (주한 몽골 대사)<br>莊正才 (장정재) (주부산 중국 총영사)<br>Phu Binh Nguyen (주한 베트남 대사)<br>Amangueldy Irguebaev (주한 러시아 정무참사관) | 문창화 (부산직할시 국제관계자문대사)<br>Valery Yermolov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br>이상민 (부산대)<br>김종렬 (부산일보) | 부산대 |
| 1995.05.25.-05.26. | 1995년도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의 신국제질서와 미래안보 Major Powers and Future Security in Northeast Asia | | Welcoming Remarks:<br>"Global Changes and Future Security in Northeast Asia", Jae Kyu Park (Kyungnam Univ.)<br>Congratulatory Remarks:<br>Woong-Bae Rha (Minister of Unification Board, Korea)<br>Keynote Speech: "New World Order and Northeast Asia: With a Focus on Regional Security", Alexander N. Yakovlev (Chairman of the Russian Public Television Board of Directors)<br><br>1세션-사회: Herbert J. Ellison (U.S.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br>"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Implications for Security in Northeast Asia", Chung-in Moon (Yonsei Univ.)<br>"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Formation in Northeast Asia", Kook Chin Kim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br><br>2세션-사회: Kui Xu (Institute of East European, Russian and Central Asian Studies of CASS, China) | 1세션<br>Sergei Rogov (Institute for USA-Canada Studies, Russia)<br>Masatoshi Inouch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Japan)<br>Amanzhol Koshanov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Kazakhstan)<br>Zheng Yu (Institute of East European, Russian and Central Asian Studies of CASS, China)<br><br>2세션<br>Donald Hellman (Univ. of Washington, USA)<br>Ichiro Morit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Japan)<br>Salyk Zimanov (Institute of State and Law, Kazakhstan)<br>Judith Thornton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USA) | 스위스 그랜드 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Kim Jong Il's Leadership and Political Changes", Byung-Lo Kim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br>"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Reappraisal and Prospects", Hyunwook Koh (Kyungnam Univ.)<br>"Pyongyang and Washington: Dynamics of Changing Relations", Manwoo Lee (Millersville Univ. USA)<br><br>Keynote Speech: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and Northeast Asia", Robert A. Scalapino (U.C.Berkeley, USA)<br><br>3세션-사회: Yong-Chool Ha (Seoul National Univ.)<br>"An American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Harry Gelman (Rand Corp., USA)<br>"Russian Perspectives for Future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rei Kortunov (Russian Science Foundation)<br><br>4세션-사회:Yu-Nam Kim (Dankuk Univ.)<br>"Some Views on Future Security of Northeast Asia", Zhen-she Han (Institute of Asian-Pacific Studies)<br>"Japanese Perspectives for Future Security in Northeast Asia", Kui Xu<br>"Central Asia and the Northeast Asia: A New Relationship", Zhabaikhan M. Abdildi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Kazakhstan)<br><br>Round Table-사회: Youngnok Koo (Seoul National Univ.) | Vladimir Yakubovsky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br><br>3세션<br>Joseph M. Ha (Lewis & Clark College, USA)<br>Mun-gu Kang (Kyungnam Univ.)<br>Shigeki Hakamada (Aoyamagakuin Univ. Japan)<br><br>4세션<br>Richard Ellings (Univ. of Washington, USA)<br>Guennardi Zolotov (International Democracy Foundation, Russia)<br>Robert Ross (Boston College, USA)<br>Masayuki Yamauchi (Univ. of Tokyo, Japan)<br>Guang-cheng Xing (Institute of East European, Russian and Central Asian Stuies of CASS, China) | |
| 1995.10.05. -10.07. | 한·미동맹 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US-ROK Alliance | 공동주최:<br>미 육군대 전략문제연구소<br><br>지원:<br>미 핵방위국 및 코리아 소사이어티 | 개회사: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존 R. 오쉬어 (미 육군대 전략문제연구소)<br>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코리아 소사이어티/아시아재단)<br><br>1세션-사회: 구영록 (서을대)<br>"한국의 견해", 노경수 (서울대)<br>"미국의 견해", 존 메릴 (미 국무부)<br>"중립적 견해",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br><br>2세션-사회: 이상우 (서강대)<br>"중국의 인식", 왕 페이링 (조지아 공과대)<br>"일본의 인식", 쓰치야마 지쓰오 (아오야마가쿠인대)<br>"러시아의 인식", 니꼴라이 A. 게로닌 (이타르-타스통신 서울지부)<br><br>3세션-사회: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서울의 견해", 한용섭 (국방대학원)<br>"평양의 견해", 셀리그 S. 해리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 1세션<br>이채진 (맥키나대)<br>류재갑 (경기대)<br>현인택 (고려대)<br>니콜라이 A. 게로닌 (이타르-타스통신 서울지국)<br>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연구소)<br><br>2세션<br>유세희 (한양대)<br>하영선 (서울대)<br>백종천 (세종연구소)<br>래리 닉쉬 (미 의회연구소)<br>토마스 L. 윌본 (미 육군대 전략문제연구소)<br>류 토하이 (대만정치대)<br><br>3세션<br>백광일 (인하대) | 리츠칼튼 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워싱턴의 견해", 래리 닉쉬 (미 의회연구소)<br>"동경의 견해",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연구소)<br><br>4세션-사회: 한배호 (세종연구소)<br>"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김우상 (숙명여대)<br>"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미래전략", 윌리엄 T. 펜들리 (미 공군대)<br>"주한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역할: 과거, 현재, 미래", 윌리엄 E. 베리 (미 공군아카데미)<br><br>5세션-사회: 토마스 L. 윌본 (미 육군대 전략문제연구소)<br>"한국 통일과 미국의 정책", 에드워드 A. 올슨 (미 해군대)<br>"한국의 정치역학", 제임스 E. 굳비 (카네기 멜론대)<br>"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이춘근 (세종연구소)<br><br>종합토론-사회: 토마스 L. 윌본 / 곽태환 | 전경만 (국방연구원)<br>김태우 (국제평화전략연구원)<br>왕 페이링 (조지아공과대)<br>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br><br>4세션<br>박용옥 (국방부)<br>정종문 (동아일보)<br>김창수 (국방연구원)<br>존 메릴 (미 국무부)<br>에드워드 A. 올슨 (미 해군대학원)<br>쓰치야마 지쓰오 (아오야마가쿠인대)<br><br>5세션<br>차영구 (국방부)<br>김재한 (한림대)<br>박동환 (노스웨스턴대)<br>옥태환 (민족통일연구원)<br>셀리그 S. 해리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 |
| 1996.05.22. -05.23. | 경남대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1세기를 위한 한반도 통일전략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 공동주최: 아메리칸대 | 환영사:<br>박재규 (경남대)<br>벤자민 레드너 (아메리칸대)<br>기조연설: 로버트 L. 갈루치 (조지타운대)<br><br>1세션-사회: 도널드 P. 그레그 (미 코리아 소사이어티)<br>"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미국의 견해", 데이비드 E. 브라운 (미 스탠턴그룹)<br>"러시아와 한반도 통일", 발레리 I.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br><br>2세션-사회: 구영록 (서울대)<br>"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대외정책", 시게무라 토시미츠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br>"중국의 한반도 통일정책", 자오 간칭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br><br>3세션-사회: 조영환 (서강대)<br>"남한의 통일정책", 박영호 (민족통일연구원)<br>"북한의 통일정책", 백학순 (세종연구소)<br><br>4세션-사회: 루이스 굿맨 (아메리칸대)<br>"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이삼성 (한림대)<br>"남북한 신뢰구축 방안", 최강 (한국국방연구원)<br><br>종합토론-사회: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형국 (아메리칸대) | 1세션<br>김유남 (단국대)<br>김덕중 (관동대)<br>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br>문명호 (문화일보)<br>세르게이 M. 로고프 (러시아 미국-캐나다 연구소)<br><br>2세션<br>강문구 (경남대)<br>장달중 (서울대)<br>노재원 (전 주중 대사)<br>데이비드 E. 브라운 (미 스탠턴그룹 소장)<br>심재훈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br>미하일 G. 노소프 (러시아 미국-캐나다연구소)<br><br>3세션<br>김영래 (아주대)<br>유종선 (울산대)<br>민병용 (한국일보)<br>발레리 I.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br>구본태 (신한국당)<br><br>4세션<br>고현욱 (경남대)<br>도널드 P. 그레그 (코리아 소사이어티)<br>조재호 (울산대)<br>김용호 (중앙일보)<br>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 힐튼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1996.10.24.<br>-10.25. | 제11차<br>한·미 안보연구회의<br>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모색<br>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 | 공동주최:<br>한·미 안보연구회 | 개회사: 류병현 (전 주미 대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br>로버트 세네웰드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br>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br>1세션-사회: 우재승 (세계자유민주연맹)<br>"남북한의 안보정책과 전략", 전경만 (국방연구원)<br>"남북한의 안보전략: 거울에 비쳐 본 시각",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br><br>2세션-사회: 리차드 워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br>"동북아 주변국들의 갈등/협력 전략: 쌍무적 동맹에서 국제기구로", 김재한 (한림대)<br>"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과 전략", 니콜라이 게로닌 (이타르-타스통신)<br>"미국과 일본의 안보목표 및 군사전략: 상호방위 조약과 지역안보", 랄프 코사 (미국 CSIS)<br>"탈냉전기 중국의 대동북아 안보정책 및 전략: 새로운 지역 정체성에 대한 탐구", 김태호 (국방연구원)<br><br>3세션-사회: 윌리엄 드레넌 (미 국방대)<br>"북한체제의 변화전망", 김판석 (인천대)<br>"신무기의 확산이 지역안보에 갖는 함의",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br><br>4세션-사회: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소)<br>"남북한 경제협력과 동북아 안보",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br>"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 비판적 시각", 마커스 놀란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br>"경제협력과 지역안보", 칼 모스코비츠 (미국 KSA)<br>"지역경제협력과 지역안보", 장맹렬 (경남대)<br><br>5세션-사회: 곽태환<br>"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쟁점들", 전성훈 (민족통일연구원)<br>"한미 안보협력의 새로운 차원과 한반도 평화 구축", 토마스 윌본 (미국 육군대) | 1세션<br>현인택 (고려대)<br>배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br>제임스 클래퍼 (미국 공군)<br>토마스 모간 (미국 해군)<br><br>2세션<br>노경수 (서울대)<br>히데시 다케사다 (일본 방위연구소)<br>황병무 (국방대학원)<br>폴 페이튼 (미국 육군대)<br><br>3세션<br>제임스 M. 맥컬로우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대)<br>박동환 (미국 노스웨스턴대)<br>김덕중 (관동대)<br>최배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5세션<br>제임스 델라니 (미국 국방연구소)<br>엘머 D. 펜들턴 (미국 육군)<br>차영구 (국방부)<br>이혁섭 (육군사관학교) | 힐튼호텔 |
| 1997.03.24. | 1997년도 국제학술회의<br>한국·러시아·중국의 발전 및 상호협력<br>Development and Mutual Cooperation of Korea, Russia and China | | 개회사: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br>1세션-사회 길영환 (미국 아이오와주립대)<br>"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 대한 도전: 러시아의 역할", 세르게이 로고프 (러시아, 미국-캐나다 연구소)<br>"세계화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역할", 순 리앙 (중국 국제무역연구소) | 1세션<br>고현욱 (경남대)<br>강가 타파 (네팔 트리부반대)<br>장덕준 (서울대) | 힐튼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2세션-사회: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한·러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체계: 러시아의 시각", 미하일 노소프 (러시아, 미국-캐나다 연구소)<br>"러시아의 개혁과 대외정책", 이영형 (국제평화전략연구원) | 2세션<br>안택원 (정신문화연구원)<br>이호철 (경희대)<br>김창진 (연세대) | |
| 1997.05.22.<br>-05.23. | 개소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br>중국의 미래와 동북아시아<br>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 | 개회사: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기조연설: 노재원 (전 주중 대사)<br><br>1세션-사회: 조영환 (서강대)<br>"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궤적", 김시중 (영남대)<br>"대중화경제권: 지역경제통합의 관점에서", 김위생 (경남대)<br>"중국 경제의 불균형적 발전", 오승렬 (민족통일연구원)<br><br>2세션-사회: 구영록 (서울대)<br>"중국의 개혁과 민주화", 이태환 (세종연구소)<br>"중국의 정치권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리스 콜릭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br>"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뤄 홍구앙 (중국사회과학원)<br><br>3세션-사회: 신정현 (경희대)<br>"중국의 군사 현대화: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멜빈 거토브 (포틀랜드주립대)<br>"중국 군사헤게모니의 허상", 김태호 (국방연구원)<br><br>4세션-사회: 김경동 (서울대)<br>"중국 통일정책과 대만독립 문제", 금희연 (서울시립대)<br>"양안간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마이클 샤오 (대만중앙연구원)<br>"중국·홍콩의 경제·정치 통합", 알빈 소 (하와이대)<br><br>5세션-사회: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중국의 미래와 한·중관계", 사무엘 김 (컬럼비아대)<br>"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박건영 (가톨릭대)<br>"동북아 체제 형성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 요시후미 나카이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br><br>종합토론-사회: 멜빈 거토브 (포틀랜드주립대) | 1세션<br>이종철 (중앙대)<br>정진영 (세종연구소)<br>알빈 소 (하와이대)<br><br>2세션<br>정재호 (서울대)<br>강문구 (경남대)<br>데이비드 켈리 (호주 국방대학원)<br><br>3세션<br>문정인 (연세대)<br>김판석 (인천대)<br>이츠학 쉬코르 (헤브르대)<br><br>4세션<br>문흥호 (한양대)<br>장맹렬 (경남대)<br>이호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5세션<br>노경수 (서울대)<br>김우상 (숙명여대)<br>보리스 슬라빈스키 (러시아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1997.07.04.<br>-07.05. | 한중 국제학술회의<br>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 방안 | | 1세션-사회: 장영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br>"조선반도 북남관계에서 경협의 역할", 진용산 (중국 길림성 동북아연구소)<br>"중국,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시장", 이수훈 (경남대)<br>"東北亞區域的經濟合作日本", 서세강 (길림성 동북아연구소)<br>"동북아의 경제협력방안", 장맹렬 (경남대) | 1세션<br>장옥산 (길림성 사회과학원)<br>함택영 (경남대)<br>왕승 (길림성 동북아연구소) |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2세션-사회: 최완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분소)<br>"남북한 민족공동체의 수립전망", 함택영 (경남대)<br>"俄羅斯遠東地區參與<br>東北亞經濟合作弊因素列析",<br>우국정 (길림성 동북아연구소)<br>"한국과 중국의 정치문화 비교", 한석태 (경남대)<br>"后冷戰時期的亞洲形勢與<br>東北亞地區經濟合作中中韓兩國的作用",<br>장옥산 (길림성 사회과학원)<br><br>3세션-사회: 남중희 (동북사범대)<br>"북한의 통일정책 논의방안", 심지연 (경남대)<br>"『로동신문』으로 본 조선의 정치정세",<br>홍룡 (길림성 동북아연구소)<br>"남한의 통일정치",<br>최완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분소)<br>"冷戰后日本的對華政策",<br>왕승 (길림성 동북아연구소)<br><br>4세션 간담회-사회: 진용산 (길림성 동북아연구소)<br>강희룡 (길림성 대외경제무역청)<br>장영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br>주위평 (『동북아연구』 저널 편집부 주필)<br>진재 (동북사범대)<br>한금옥 (길림성 동북아연구소)<br>남중희 (동북사범대)<br>최완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분소)<br>심지연 (경남대)<br>함택영 (경남대)<br>한석태 (경남대)<br>이수훈 (경남대)<br>장맹렬 (경남대) | 2세션<br>이수훈 (경남대)<br>홍룡 (길림성 동북아연구소)<br>심지연 (경남대)<br><br>3세션<br>진용산 (길림성 동북아연구소)<br>장맹렬 (경남대)<br>한석태 (경남대) | |
| 1997.09.04.<br>-09.05. |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1주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br>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한국의 선택<br>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oward the 21st Century and Choices for Korea | 공동주최:<br>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 개회사: 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br>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축사: 고건 (국무총리)<br>기조연설: "신세계 질서와 한반도",<br>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br><br>1세션-사회: 김경동 (서울대)<br>"21세기 한국의 정치적 과제와 리더십",<br>서진영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br>"경제개발과 리더십",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br><br>2세션-사회: 김달중 (연세대)<br>"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br>리차드 맨스바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br>"남북한 정치통합: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은 여전히 유효한가?", 세키 히로하루 (일본 도쿄대)<br>"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후의 새 경제체제",<br>이근 (서울대) | 1세션<br>이원종 (서원대)<br>임용순 (한국국제정치학회)<br>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br>정순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br><br>2세션<br>박영규 (민족통일연구원)<br>진구앙건<br>(중국 텐진사회과학원)<br>우승용 (문화일보)<br>슈원지 (중국대사관) | 힐튼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3세션-사회: 최장집 (고려대)<br>"한국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한계: 정체된 민주화의 사회적 근원", 마인섭 (성균관대)<br>"세계화와 민주주의", 믹 무어 (영국 써섹스대)<br>"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이영희 (인하대)<br><br>4세션-사회: 김정기 (한국외대)<br>"뉴미디어와 미래사회",<br>토니 스티븐슨 (호주 퀸즐랜드공과대)<br>"방송의 공공성과 한국의 현실", 원우현 (방송위원회)<br>"남북한 통일을 위한 언론의 새로운 모델: 하나의 도구로서 미디어",<br>이성형 (미국 애팔래치안주립대)<br><br>종합토론-사회: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유남 (단국대) | 3세션<br>신명순 (연세대)<br>성경륭 (한림대)<br>김창호 (중앙일보)<br>오가와치 토시로 (일본대사관)<br><br>4세션<br>이계익 (경제방송제작)<br>김영주 (경남대)<br>손지애 (미국 CNN)<br>캐더린 웹 (프랑스 AFP 서울지부) | |
| 1997.10.1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아메리칸대 아시아연구센터 공동주최 국제학술세미나 홍콩반환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br>Hong Kong/China: Three Months after Return | 공동주최:<br>아메리칸대 아시아연구센터 | 개회사:<br>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루이스 굿맨 (아메리칸대)<br>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br>사회: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홍콩반환과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br>자오 췐성 (아메리칸대)<br>"홍콩의 반환: 그 정치경제적 함의", 이호철 (경남대)<br>"홍콩: 아시아의 네트워크 도시",<br>하마시타 타케시 (도쿄대) | 루이스 굿맨 (아메리칸대)<br>김형국 (아메리칸대)<br>순 머레이 (아메리칸대)<br>신욱희 (서울대)<br>김우상 (숙명여대)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1998.05.28.<br>-05.29. | 경남대 북한대학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전환기 북한의 정책선택: 국내구조와 대외관계<br>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 공동주최:<br>한겨레신문사, 한국프레스센타,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 개회사: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br>박재규 (경남대)<br>벤자민 래드너 (아메리칸대)<br><br>1세션-사회: 전인영 (서울대)<br>"김정일 정권의 정치체제: 비교적 시각",<br>고병철 (일리노이대)<br>"김정일 정권의 구조와 정치문화",<br>와다 하루키 (도쿄대)<br><br>2세션-사회: 황의각 (고려대)<br>"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 김운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br>"북한의 제2경제와 경제개혁",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br><br>3세션-사회: 김경동 (서울대)<br>"북한 정치·사회적 변화의 경제적 기원",<br>서재진 (민족통일연구원)<br>"북한 기아사태와 대량탈북 위기의 조기경보: 천재인가 인재인가?", 이신화 (고려대)<br><br>4세션-사회: 구영록 (서울대)<br>"새로운 리더쉽하의 두 개의 한국: 도전과 전망",<br>길영환 (아이오와주립대) | 1세션<br>김형국 (아메리칸대)<br>백학순 (세종연구소)<br>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br>최완규 (경남대)<br><br>2세션<br>고현욱 (경남대)<br>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br>이근 (서울대)<br>정순원 (현대경제연구원)<br><br>3세션<br>김영수 (서강대)<br>전상인 (한림대)<br>최대석 (동국대)<br>남인숙 (대구효성가톨릭대)<br><br>4세션<br>강문구 (경남대)<br>권만학 (경희대)<br>이원섭 (한겨레신문)<br>오정만 (가나가와대)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탈냉전 정책기조의 문제점과 북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br><br>5세션-사회: 루이스 굿맨 (아메리칸대)<br>"북미 관계: 모호성과 불확실성", 김규륜 (민족통일연구원)<br>"중조관계의 현상과 전망", 한준광 (중국 조선민족사학회)<br>"북일관계", 시게무라 도시미쯔 (마이니치 신문)<br><br>종합토론-사회: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형국 (아메리칸대) | 5세션<br>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br>심재훈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br>데이비드 켈리 (뉴 사우드 웨일즈대)<br>사뮤엘 김 (컬럼비아대)<br>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 |
| 1998.12.16.<br>-12.18. | 1998년도 국제워크샵<br>북한의 자유화 전망<br>The Prospects for Liberalization in North Korea: Practical Problems and Prospects | | Opening Remarks: Tae-Hwan Kwak (IFES)<br>Congratulatory Address: Jae Kyu Park (Kyungnam Univ.)<br>Opening Address: Carl Gershman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br><br>1세션<br>"The Kim Jong Il Regim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Suk Ryul Yu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br>"Economic Crisis and Responses of North Korea", Jong Ryul Bae (Export and Import Bank)<br>"Social Instability and Economic Hardships", Kihl-jae Ryoo (Kyungnam Univ.)<br>"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Byong-Lo Ki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br>"The KPA: The Military Role in North Korea", Ku Sup Kim (Korea Institute of Defense Analysis)<br><br>2세션<br>"Possible Directions of Opening and Market-oriented Reform", Hong-Tack Chun (Korea Development Institute)<br>"The Potential Impact of Liberalization on North Korean Political Structure", Sung Chull Ki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br>"North Korea's System Change and its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In Young Chun (Seoul National Univ.)<br>"Crisis Forecasting on North Korea: An Assessment", Wan Kyu Choi (Kyungnam Univ.)<br>"North Korea's Political and External Responses: Strategies for Survival", Taik-young Hamm (Kyungnam Univ.)<br><br>3세션<br>"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olved in North Korea: Can They Change North Korea?", Yang Ho Hong (Ministry of Unification) |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Potential Roles of Major Powers in Fostering Opening and Market Reform in North Korea", Manhak Kwon (Kyung Hee Univ.)<br>"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spects for Reforms and Liberalization in North Korea", Hyun Wook Koh (Kyungnam Univ.)<br>"An Approach to Fostering Liberalization in North Korea", Sung Il Hyun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Policy)<br>"What is to Be Done to Induce Market Reform and Liberalization?, Tae-Hwan Kwak (IFES) | | |
| 1999.05.27.<br>-05.28. | 1999년도<br>국제학술회의<br>격동 속의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br>The Dynamics of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주최:<br>아메리칸대<br>아세아연구소 | 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축사: 벤자민 레드너 (아메리칸대)<br><br>1세션-사회: 루이스 굿맨 (아메리칸대)<br>"동북아 국제질서의 미래와 한반도", 김기정 (연세대)<br>"자본주의의 공간적 상상물: 동북아 지역질서의 동학", 라비 팔랏 (오클랜드대)<br>"동북아시아의 신동학", 박건영 (가톨릭대), 이왕희 (런던정경대)<br><br>2세션-사회: 김경동 (서울대)<br>"한국 발전국가의 위기", 김은미 (이화여대)<br>"일본경제의 난조와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파장", 모오리 료이치 (일본복지대)<br>"아시아 금융위기하의 중국: 경제 및 정치 자유화로부터의 퇴각?",<br>엘빈 소 (홍콩과학기술대)<br><br>3세션-사회: 한배호 (경남대 북한대학원)<br>"미국: 신패권국인가, 일시적 단일 강대국인가?", 김태현 (중앙대)<br>"상호의존 권력과 국제 영향력: 탈냉전 동북아시아와 중국", 이호철 (인천대)<br>"러시아의 현재와 향후 동북아 지역에 미칠 함의", 노다리 시모니아 (IMEMO)<br><br>4세션-사회: 구영록 (서울대)<br>"유약한 동반자 관계: 미국과 중국",<br>멜빈 거토브 (포틀랜드주립대)<br>"미·일 관계: "준비중에 있는" 범지구적 동반자 관계", 김형국 (아메리칸대)<br>"러시아의 대외 관계 변화", 양승함 (연세대)<br><br>5세션-사회: 고병철 (일리노이대)<br>"한미안보공조", 김덕중 (경기대)<br>"미국의 대북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 백학순 (세종연구소)<br>"한반도의 미래: 21세기를 위한 통일과 안보 선택", 곽태환 (이스턴켄터키대), 주승호 (미네소타-모리스대)<br><br>종합토론-사회: 루이스 굿맨 (아메리칸대) | 1세션<br>김판석 (연세대)<br>윤영관 (서울대)<br>정진영 (경희대)<br><br>2세션<br>강문구 (경남대)<br>유석진 (서강대)<br>전상인 (한림대)<br><br>3세션<br>김태호 (국방연구원)<br>장경섭 (서울대)<br>콴셍 자오 (아메리칸대)<br><br>4세션<br>김용제 (건국대)<br>문정인 (연세대)<br>신욱희 (서울대)<br>오정만 (가나가와대)<br><br>5세션<br>이원섭 (한겨레)<br>함택영 (경남대)<br>엘빈 메지드 (뉴욕주립대)<br>케네스 퀴노네스 (아시아재단) | 경남대<br>극동문제<br>연구소 |

## 2000년대 주요 학술회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00.05.25.<br>-05.26. | 2000년도<br>국제학술회의<br>새천년의<br>한일관계<br>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w Millennium | | Keynote Speech:<br>"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w Millennium", Tomiichi Murayama (Kanagawa Univ.)<br>"Kim Dae Jung Government's "Sunshine Policy"", Jae Kyu Park (Kyungnam Univ.)<br><br>1세션<br>"A New Task for South Korea-Japanese Foreign Relations", Makoto Iokibe<br>"Improvements and Reconstruction of South Korean-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Jaeho Yeom (Korea Univ.)<br>"Old Patterns and Emerging Trends of Japanese Investments in South Korea", Sook-Jong Lee (Sejong Institute)<br>"Corporate Strategic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Norihito Tanaka (Kanagawa Univ.)<br><br>2세션<br>"Appraisal and Prospects of South Korean Government's Engagement Poicy" Wan-kyu Choi (Kyungnam Univ.)<br>"The Role of Japan in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K. Sarkisov<br>"Possibilities and Limits of Constructing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Young Kyong Kwon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 1세션<br>Kun Young Park (Catholic Univ.)<br>Hitoshi Hirakawa<br><br>2세션<br>Chung Ho Choi (Kyungnam Univ.)<br>Chan Bong Park (The Ministry of Unification, ROK)<br>Koh Odagawa<br>Kiichi Fujiwara | 일본<br>도쿄<br>및<br>요코하마 |
| 2000.09.20. | The Mansfield Dialogue in Seoul<br>한국에서의<br>법의 지배 | 공동주최:<br>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 Opening Remarks: L. Gordon Flake (MCPA)<br>Welcoming Remarks: Dae-Sook Suh (IFES)<br>Keynote Speech:<br>"Defining the Rule of Law in a Korean Context", Barry M. Hager (Hager & Associates)<br><br>1세션-사회: Jerome Cohen (New York Univ.)<br>"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ism in Korea since 1987", Jongcheol Kim (Hanyang Univ.)<br>"Institutionalized Administrative State and the Rule of Law in Korea", Jun-hyung Hong (Seoul National Univ.)<br>"The Reform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fter Democratization: Korean "Criminal Procedure Revolution?"", Kuk Cho (Dongguk Univ.)<br>"Freedom of Exkpression and the Rule of Law", Kyu Ho Youm (Arizona State Univ.)<br><br>2세션-사회: Sang-Hyun Song (Seoul National Univ.)<br>"The Role of Law in the Globalizing Economy", Jerome Cohen (NYU)<br>"The Expansion of the Rule of Law in Business Governance", Kon-Sik Kim (Seoul National Univ.)<br>"Corporate Restructuring Policy and Practice", Soo Geun Oh (Ewha Womans Univ.)<br>"Trial and Error of Innovative Taxation Laws", Chang Hee Lee (Seoul National Univ.) | 1세션<br>Chul Woo Lee (Sungkyunkwan Univ.)<br>Jun-Gen Oh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br>Jin Park (Kim & Chang)<br><br>2세션<br>Woong Shik Shin (Shin & Shin)<br>Byung Kook Min (First Law Office)<br>Jeffrey Jones (Kim & Chang)<br>Hwa-Jin Kim (Woo & Yun) | 경남대<br>극동문제<br>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00.10.05. | 한·러수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새천년의 한러관계: 한러수교 10주년의 회고와 전망 Korean-Russian Relations in the New Millennium | 공동주최: 러시아 극동국립대 한국학대학, 대한매일 신보사, 한국언론재단 | 개회사: 차일석 (대한매일신보사)<br>환영사: 블라디미르 쿠릴로프 (러시아 극동국립대)<br>축사: 김용술 (한국언론재단)<br>기조연설: "새천년의 한러관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대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슈지아토프 (러시아 극동국립대)<br>"한·러관계의 형성: 대한제국과 러시아의 관계", 최덕규 (고려학술문화재단)<br>"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의 역사", 트로포프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br><br>2세션-사회: 김경동 (서울대)<br>"극동연해주지역의 독립운동: 신채호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김삼웅 (대한매일신보사)<br>"한·러관계 100년과 러시아 문화의 영향", 정성임 (이화여대)<br><br>3세션-사회: 이수훈 (경남대)<br>"한·러교류 10년의 성과와 전망: 정치경제적 측면", 장덕준 (국민대)<br>"21세기 한·러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과제: 극동연해주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자브로프스카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 1세션<br>소콜로프 (러시아 극동국립대)<br>심헌용 (서강대)<br><br>2세션<br>김정훈 (고려대)<br>쿠즈네초프 (러시아 극동국립대)<br><br>3세션<br>이영형 (아주대)<br>슈지아토프 (러시아 극동국립대)<br>심헌용 (서강대) |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 |
| 2001.03.22. -03.23. | Asian Perspective 창간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새로운 남북관계 전망 Prospects for New Inter-Korean Relations | | 개회사: 서대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기조연설: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 박재규 (통일부)<br><br>1세션-사회: 구영록 (서울대)<br>"김대중 정부의 평화정책", 문정인 (연세대)<br>"북한의 새로운 통일전략", 최완규 (경남대)<br><br>2세션-사회: 윤석범 (연세대)<br>"남북 경제협력의 현실과 전망", 오승렬 (통일연구원)<br>"북한경제의 발전 방향", 이근 (서울대)<br><br>3세션-사회: 김경동 (서울대)<br>"남북한 사회통합의 조건과 전망", 윤인진 (고려대)<br>"한반도에서의 민주주의와 민족화합", 가이어 헬거슨 (스톡홀름대)<br><br>4세션-사회: 안병준 (연세대)<br>"남북한 화해와 한반도의 안보", 함택영 (경남대)<br>"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전망", 한용섭 (국방대)<br><br>5세션<br>"남북화해의 정치·경제적 동학", 마틴 하트-랜즈버그 (루이스 앤 클라크대)<br>"남북화해와 북중관계의 전망", 앨빈 소 (홍콩과학기술대)<br>"남북화해와 북일관계의 전망", 시게무라 토시미츠 (타쿠쇼쿠대)<br>"남북화해와 북러관계의 전망", 바실리 미헤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br><br>종합토론-사회: 서대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세션<br>김명걸 (한겨레)<br>장달중 (서울대)<br>백학순 (세종연구소)<br>남궁영 (한국외대)<br><br>2세션<br>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br>박제훈 (인천대)<br>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br>마틴 하트-랜즈버그 (루이스 앤 클라크대)<br><br>3세션<br>서재진 (통일연구원)<br>김병국 (고려대)<br>성경륭 (한림대)<br>강문구 (경남대)<br><br>4세션<br>김창수 (국방연구원)<br>김태현 (중앙대)<br>김우상 (연세대)<br>마이클 피네건 (미 국방부)<br><br>5세션<br>이호철 (인천대)<br>박건영 (가톨릭대)<br>장덕준 (국민대)<br>가이어 헬거슨 (스톡홀름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01.08.13.<br>-08.14. |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학술회의<br>한반도 화해와 통일의 주요 쟁점<br>Key Dimensions of Korean Reconciliation & Reunification | 공동주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한겨레신문사, Focus on the Global South, Nautilus Institute, Transnational Institute, Asia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br><br>후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국관광공사 | 개회사: 김종수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br>환영사: 김동완 (KNCC), Brid Brennan (Global Peace Committee, TNI)<br><br>1세션-사회: 최장집 (고려대),<br>Tan Kok Wai (말레이시아 국회의원)<br>백낙청 (서울대)<br>Bruce Cumings (Univ. of Chicago)<br><br>2세션 (1)-사회: 최완규 (경남대), Nic Maclellon<br>서동만 (상지대)<br>이철기 (동국대)<br>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br>심영희 (한양대)<br><br>2세션 (2)-사회: 조희연 (성공회대), Imtiaz Ahmed (Univ. of Dhaka)<br>이정식 (한국노총)<br>임형진 (경기대)<br>김창수 (민화협)<br>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br><br>3세션-사회: 정연주 (한겨레신문), Syed Hussein Ali<br>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br>Gordon Flake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br>Walden Bello (Focus on the Global South)<br><br>4세션-사회: 손열 (중앙대),<br>Dilara Choudhury (Jahaninagar Univ.)<br>박건영 (가톨릭대)<br>Tim Savage (Nautilus Institute)<br>Joseph Gerson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br>Randall Forsberg (Institute for Defense & Disarmament Studies)<br><br>5세션-사회: 김용한 (SOFA개정국민행동),<br>Yayori Matsui<br>김태현 (중앙대)<br>Piao Jianyi<br>Takao Takahara (Meijigakuin Univ.)<br>Daniel Pinksto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 | 연세대 |
| |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학술회의<br>한반도 화해와 통일의 주요 쟁점 | 공동주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한겨레신문사, | 6세션-사회: 김대환 (인하대)<br>박순성 (동국대)<br>Elmar Altvater (Free Univ. of Berlin)<br>Tim Shorrock (Freelance Journalist)<br>Dmitri Glinski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br><br>7세션-사회: 이미경 (국회의원)<br>Randall Forsberg (Institute for Defense & Disarmament Studies) | | 연세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Key Dimensions of Korean Reconciliation & Reunification | Focus on the Global South, Nautilus Institute, Transnational Institute, Asia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br><br>후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국관광공사 | 8세션-사회: 하정남 (영산대)<br>학담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br>김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br>정현백 (성균관대)<br><br>9세션-사회: 이영애 (단국대),<br>Somchai Homlaor (Forum Asia)<br>이정옥 (대구가톨릭대)<br>Adm. L. Ramdas (South Asia Peace Coalition)<br>Muto Ichiyo (People's Plan for the 21st Century)<br>B. M. Kutty (Pakistan Institute of Labour Education and Research)<br>Roland Simbulan (Nuclear Free Philippiens Coalition)<br>Surichai Wun'qaeo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CU)<br><br>10세션-사회: Loretta Ann Rosales (Philippine House of Representatives),<br>Kobsak Chutikul (Member of Thai Parliament)<br>구갑우 (경남대 북한대학원)<br>Markku Heiskanen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Finland)<br>Borje Ljunggren (Swedish Foreign Ministry)<br>Paul Rogers (Bradford Univ.)<br><br>11세션-사회: Dilara Choudhury (Jahanirnagar Univ.)<br>유정애 (Cornell Univ.)<br>Stephen Linton (유진벨재단)<br>Joesph Gershon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br>Paul Rogers (Bradford Univ.)<br><br>폐회-사회: Corazon Fabros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br>"행동계획과 대회선언문 발표", 이정옥 (대구가톨릭대),<br>Walden Bello (Focus on the Global South) | | |
| 2001.10.12. -10.13. | 2001년도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질서의 재구축<br>The Re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n Order | 공동주최: 가나가와대 국제교류센터 | 개회사: 서대숙 (경남대)<br>환영사: 야마비 마사노리 (가나가와대)<br>축사: 블라디미르 쿠릴로프 (러시아 극동국립대)<br>기조연설: 박재규 (경남대)<br><br>1세션-사회: 서대숙 (경남대)<br>"동북아 경제체제의 역동성",<br>타나카 노리히토 (가나가와대)<br>"한반도와 일본의 새로운 관계정립", 신정화 (경남대)<br><br>2세션-사회: 염홍철 (한밭대)<br>"지구화의 흐름과 중국의 대응", 금희연 (서울시립대)<br>"조일 관계개선과 동북아 경제협력",<br>아키야마 켄지 (가나가와대)<br>"동북아 경제협력과 극동러시아", 장덕준 (국민대) | 1세션<br>야마다 토오루 (가나가와대)<br>김우상 (연세대)<br>박건영 (가톨릭대)<br>함택영 (경남대)<br><br>2세션<br>오다카와 코 (아사히신문)<br>김진영 (부산대)<br>이근 (서울대)<br>정성임 (이화여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3세션-사회: 김경동 (서울대)<br>"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동북아 지역사회", 김호기 (연세대)<br>"일본의 NGO활동과 동북아 시민사회의 연대", 요코쿠라 세츠오 (가나가와대)<br>"일본의 정부-NGO협력", 이숙종 (세종연구소)<br><br>4세션-사회: 타나카 노리히토 (가나가와대)<br>"동북아질서의 새로운 쟁점과 긴장", 김태현 (중앙대)<br>"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적 접근", 마츠모토 야스오 (가나가와대)<br>"동북아의 자원안보와 환경보호의 정치", 미란다 슈레즈 (매릴랜드대) | 3세션<br>오정만 (가나가와대)<br>강문구 (경남대)<br>마인섭 (성균관대)<br>조대엽 (고려대)<br><br>4세션<br>시바다 나오코 (가나가와대)<br>이숙종 (세종연구소)<br>서재진 (통일연구원)<br>정진영 (경희대)<br>최완규 (경남대) | |
| 2001.10.24. | 2001년도 워싱턴 국제학술회의<br>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관계 전망<br>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Prospe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 공동주최: 한국언론재단, 조지타운대 | 개회사: Robert Gallucci (Georgetown Univ.)<br>서대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이경일 (한국언론재단)<br>기조연설: Jack Pritchard (Department of East Asian & Pacific Affairs, State Department)<br><br>1세션-사회: Kurt Campbell (CSIS)<br>"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Leon Sigal (Social Research Council)<br>"부시와 북한: 타협으로의 길목", 박건영 (가톨릭대)<br><br>2세션-사회: Victor Cha (Georgetown Univ.)<br>"남북관계에 대한 보도에 있어 남한 언론의 변화: 통일담론의 이념적 다양성의 증대", 윤영철 (연세대)<br>"미·북관계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미국언론의 역할", David I. Steinberg (Georgetown Univ.)<br><br>라운드테이블-사회: 서대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Don Oberdorfor (Johns Hopkins Univ.)<br>Balbina Hwang (Heritage Foundation)<br>Joel Wit (Brookings Institution) | 1세션<br>Victor Cha (Georgetown Univ.)<br>함택영 (경남대)<br>James Przystup (National Defense Univ.)<br>노경수 (서울대)<br><br>2세션<br>Selig Harrison (Century Foundation)<br>Steve Mufsan (Washington Post)<br>김택환 (Senior Research Fellow)<br>남찬순 (동아일보) | 미국<br>워싱턴 D.C |
| 2002.05.23.<br>-05.24. | 연구소 개소 30주년-대학원 개원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br>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br>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mmit: Two Years of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 공동주최: 미국 조지타운대, 한국언론재단 | 개회사: 고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박기정 (한국언론재단)<br>기조연설: 박재규 (경남대 북한대학원)<br>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br><br>1세션-사회: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br>"햇볕정책의 평가: 한국의 시각", 백학순 (세종연구소)<br>"부시행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빅터 차 (조지타운대)<br>"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시각", 타오 빙웨이 (중국 국제문제연구소)<br>"남북한의 민족 통일을 위한 접근", 고병철 (경남대)<br><br>기조연설: "햇볕정책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 웬디 셔먼 (올브라이트그룹)<br><br>2세션-사회: 안병준 (연세대)<br>"햇볕정책과 한반도의 안보", 한용섭 (국방대)<br>"한반도의 군비통제와 군축", 커트 캠벨 (전략국제문제연구소)<br>"지역적 맥락에서의 남북한 경제관계", 브래들리 뱁슨 (세계은행)<br>"남북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개방 전망", 고현욱 (경남대) | 1세션<br>나톨리 토르쿠노프 (모스크바외교대)<br>앨빈 매지드 (뉴욕주립대)<br>전인영 (서울대)<br>남궁영 (한국외대)<br><br>2세션<br>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br>이혜정 (연세대)<br>오승렬 (통일연구원)<br><br>3세션<br>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롯데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3세션-사회: 임용순 (성균관대)<br>"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사회", 데니스 맥나마라 (조지타운대)<br>"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장래", 존 아이켄베리 (조지타운대)<br>"미·북협상과 남북관계의 미래",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br><br>4세션-사회: 멜빈 거토프 (포틀랜드주립대)<br>"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에이버리 골드스타인 (펜실베니아대)<br>"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 발레리 데니소프 (모스크바외교대)<br>"중국과 남북한 관계", 장 샤오밍 (북경대)<br>"일본의 대북관계",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br><br>5세션-사회: 한배호 (경남대)<br>"김정일의 선군정치", 서대숙 (하와이대)<br>"한국의 이데올로기적 균열과 민족통일의 정치", 김도종 (명지대)<br>"한국의 선거와 남북한 관계", 강원택 (숭실대)<br><br>6세션-사회: 김영희 (중앙일보)<br>"한국의 언론과 남북한 관계", 박홍원 (한국언론재단)<br>"미국의 대북정책과 언론", 도날드 커크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br><br>종합토론-사회: 고병철 (경남대) | 이수훈 (경남대)<br>현인택 (고려대)<br><br>4세션<br>박건영 (가톨릭대)<br>하용출 (서울대)<br>김태호 (한국국방연구원)<br>김호섭 (중앙대)<br><br>5세션<br>양현수 (통일정책연구소)<br>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br>이현우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br><br>6세션<br>김용호 (연세대)<br>채삼석 (연합뉴스)<br>도날드 매킨타이어 (타임)<br>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 신문) | |
| 2002.10.04. | 2002년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지역의 세계화와 지방화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in Northeast Asia | 공동주최: 가나가와대 | Opening Remarks: Seiman Gohda (Kanagawa Univ.)<br>Welcoming Remarks: Masanori Yamabi (Kanagawa Univ.)<br><br>1세션-사회: Atsuhiko Kubo (Kanagawa Univ.)<br>"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Su-Hoon Lee (Kyungnam Univ.)<br>"Regionalization and Local Autonomy", Naoko Shibada (Kanagawa Univ.)<br>"Regionalization and Regional Unification", Norihito Tanaka (Kanagawa Univ.)<br>"Globalization and China", Zhou Chun Ming (Peking Univ.)<br><br>2세션-사회: Taik-young Hamm (Kyungnam Univ.)<br>"The Development and Role of NGO", Mun Gu Kang (Kyungnam Univ.)<br>"Civil Society and Community in Japan", Kouki Abe (Kanagawa Univ.)<br>"NGO and North Korean Economy", Mun-Su Yang (Kyungnam Univ.)<br>"NGO in China", Zhang Yan Ling (Peking Univ.)<br><br>3세션-사회: Norihito Tanaka (Kanagawa Univ.)<br>"The Developmetn of Local Autonomy in Japan", Yukio Yoshida (Kanagawa Prefectural Library)<br>"Local Autonomy and Party Politics in Korea", Ji-Yeon Sim (Kyungnam Univ.) | | 일본 요코하마 가나가와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The Existing State of Local Autonomy in China", Wang Li Xia (Peking Univ.)<br>"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Korea", Byong-Joo Song (Kyungnam Univ.)<br><br>종합토론-사회: Bong Hwa Jung (Kyungnam Univ.)<br>Yoon-Seok Shin (Hankook Daily News)<br>Toru Yamada (Kanagawa Univ.)<br>Setsuo Yokokura (Kanagawa Univ.)<br>Hitoshi Goto (Kanagawa Univ.) | | |
| 2003.10.10. | 한·일 공동학술회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발전 | 공동주최: 가나가와대 |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축사: 김혁규 (경상남도 지사)<br>기조연설: 야마히 마사노리 (가나가와대)<br><br>1세션-사회: 오정만 (가나가와대)<br>"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요코쿠라 세쓰오 (가나가와대)<br>"지역사법계획의 책정과 변호사회", 요시이 다미오 (가나가와대)<br>"지방자치와 지역사회문제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구몬 다카요시 (가나가와대)<br><br>2세션-사회: 권경석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br>"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br>"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필요성", 전점석 (창원 YMCA)<br><br>3세션-사회: 양재인 (경남대)<br>"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 정상철 (마산시의회)<br>"지역사회 발전과 경남대의 역할", 최덕철 (경남대)<br><br>종합토론-사회: 성태현 (경남발전연구원)<br>참석자 전원 | 1세션<br>최낙범 (경남대)<br>최영규 (경남대)<br>하태영 (경남대)<br><br>2세션<br>노상환 (경남대)<br>다나카 노리히토 (가나가와대)<br>옥원호 (경남대)<br>시바타 나오코 (가나가와대)<br><br>3세션<br>전정효 (마산 MBC)<br>가와다 노보루 (가나가와대)<br>조용호 (경남신문사)<br>야마다 도루 (가나가와대) | 경남대 |
| 2003.11.05. | 2003년 국제학술회의 한반도의 위기와 평화: 갈등 중심에서 평화 중심으로 Peace and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주최: 한국언론재단 | 개회사: 고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박기정 (한국언론재단)<br><br>기조연설: 도날드 그레그 (코리아 소사이어티)<br><br>1세션-사회: 김영진 (조지워싱턴대)<br>"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전망", 고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한반도 평화구축과 미국의 세계전략", 케네스 퀴노네스 (미국 국제센터)<br>"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연대", 서재정 (코넬대) | 1세션<br>이근 (서울대)<br>도날드 커크 (언론인)<br>박순성 (동국대)<br>이인용 (문화방송)<br>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방위연구소)<br><br>2세션<br>도날드 매킨타이어 (타임지)<br>류길재 (경남대) | 프레스센터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기조연설: 리영희 (경남대)<br><br>2세션-사회: 김영희 (중앙일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중국의 역할", 진징이 (북경대)<br>"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과정: 러시아의 시각",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br>"한반도 평화 구축과 일본의 시각",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br><br>3세션-사회: 한배호 (경남대)<br>"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신구상", 이수훈 (경남대)<br>"국내 냉전의 극복과 평화문화 창출: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명림 (연세대)<br>"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의 인권문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 장진팡 (신화통신)<br>남찬순 (동아일보)<br><br>3세션<br>이신화 (고려대)<br>울리히 니만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박건영 (가톨릭대)<br>사와다 카츠미 (마이니치신문)<br>김창기 (조선일보) | |
| 2004.08.25.<br>-08.26. | 남·북·중 국제학술회의 (1)<br>항일건국이상과 동북 아시아국가의 개혁발전<br>The Idea of Anti-Japanese State-building and Reform and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 | 1세션-사회: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br>"개혁발전과 항일건국이상",<br>서용 (중국 북경대)<br>"주체사상과 항일건국이상",<br>최진혁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公'개념과 동북아시아 평화", 박태균 (서울대)<br><br>2세션-사회: 송성유 (중국 북경대)<br>"항일전쟁시기 민족통일전선의 구성과 조선민족",<br>박금순 (북한 김일성종합대)<br>"항일전쟁시기 한국임시정부의 항일건국 주장",<br>최용수 (중국 중공중앙당교)<br>"일제하 만주지역 항일투쟁의 추이와 의미",<br>김봉렬 (경남대)<br><br>3세션-사회: 중국 측<br>"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신구상",<br>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br>"동북아 개혁발전과 조선민족의 역할",<br>정치건 (북한 김일성종합대)<br>"동북아 개혁발전의 조건과 전망",<br>이원엽 (중국 북경대)<br><br>4세션-사회: 이철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동북아 개혁발전에 대한 몇가지 사고",<br>이문 (중국 사회과학원)<br>"동북아 국제관계 정책과 개혁발전",<br>Ronisa (미국 센트럴워싱턴대)<br>"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 변화",<br>요다 요시이에 (일본 와세다대)<br><br>종합토론-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참석자 전원 | 1세션<br>정철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이원엽 (중국 북경대)<br>요다 요시이에 (일본 와세다대)<br><br>2세션<br>손춘일 (중국 연변대)<br>왕신생 (중국 북경대)<br>정치건 (북한 김일성종합대)<br>이철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br>3세션<br>최진혁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송지용 (중국 남개대)<br>전신자 (중국 북경대)<br>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br><br>4세션<br>송성유 (중국 북경대)<br>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br>박금순 (북한 김일성종합대)<br>최용수 (중국 중공중앙당교) | 중국 북경대 |
| 2005.05.17. | 경남대-한국언론재단 공동 주최 학술회의<br>미국의 대한반도 여론형성과 한미관계 | 공동주최: 한국언론재단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정남기 (한국언론재단)<br><br>1세션-사회: 윤영철 (연세대)<br>"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미언론인들의 한미관계 인식: 지속과 변화", 이성형 (애팔래치안주립대) | 1세션<br>도널드 커크 (언론인)<br>이재호 (동아일보)<br>피터 백 (국제위기감시기구)<br>김성수 (연합뉴스) | 프레스센터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U.S.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 ROK-U.S. Relations | | 2세션-사회: 데일 바움 (텍사스 A&M 대학)<br>"미국 언론의 한반도 문제 보도의 특징과 유형", 모린 코맥 (주한 미국 대사관)<br>"한국 언론의 대미 보도의 특징과 유형", 김창룡 (인제대)<br><br>3세션-사회: 이성형 (애팔래치아 주립대)<br>"미국의 대한반도 여론 형성과 미국 언론의 역할", 도널드 매킨타이어 (타임)<br>"미국의 대한반도 여론 형성의 메카니즘과 한국의 역할", 길정우 (중앙데일리) | 2세션<br>고든 페어클라우 (월스트리트 저널)<br>강태호 (한겨레신문)<br>마틴 네스키 (로이터통신)<br><br>3세션<br>앤드류 새먼 (언론인),<br>설원태 (경향신문)<br>김태현 (중앙대) | |
| 2005.06.04. -06.05. | 남·북·중 국제학술회의(2) 근현대 동북아 국가발전의 회고와 전망 The Review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 | 개회식-사회: 서만민 (북경대)<br>환영사:<br>하방천 (북경대)<br>송동원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서경 (중화문화교류협력추진회)<br>송성유 (북경대)<br><br>1세션-사회: 차명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국제반파쑈투쟁에서 항일무장투쟁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력사적 고찰",<br>송동원 (조선사회과학원)<br>"모택동의 항일유격전중의 변증법 사상",<br>채악소 (청화대)<br>"국제련합군의 조직과 활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br>김창호 (조선사회과학원)<br>"조선의용군의 동북에서의 개편과 발전과정",<br>손춘일 (연변대)<br><br>2세션-사회: 신종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개혁개방이후 중국농촌 계층 분화 및 그 영향",<br>왕원주 (북경대)<br>"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평가와 현재적 의미",<br>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br>"조선로동당의 인테리정책과 그 정당성",<br>류병기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북조선, 중국, 베트남의 초기 경제 개혁 비교",<br>박형중 (통일연구원)<br><br>3세션-사회: 나산바트 테무르 (몽골과학원)<br>"반파쑈투쟁의 이후시기 전개된 조중공동항전의 력사에 대하여", 차영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등소평과 중소관계 정상화", 서만민 (북경대)<br>"지면상의 동맹에서 실질적인 동맹까지: 미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황대혜 (인민대)<br><br>4세션-사회: 임화생 (와세다대)<br>"동북아균형자론과 남북관계", 김근식 (경남대)<br>"동북아 경제협력 중의 몽골-중국 경제협력의의",<br>나산바트 테무르 (몽골과학원)<br>"박정희시대 산업화전략의 정치적 논리",<br>신종대 (경남대)<br><br>5세션-사회: 송동원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한국사회의 평화: 개념과 운동 그리고 인식",<br>이우영 (경남대) | 1세션<br>임을출 (한겨레신문)<br>김춘근 (김일성종합대)<br>왕소보 (북경대)<br>김근식 (경남대)<br><br>2세션<br>박재욱 (신라대)<br>왕신생 (북경대)<br>왕원주 (북경대)<br>심인안 (북경대)<br><br>3세션<br>탕중남 (중국사회과학원)<br>이호철 (인천대)<br>전성근 (인민경제대)<br><br>4세션<br>이동혁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김진호 (단국대)<br>유금재 (북경대)<br><br>5세션<br>심정창 (북경대)<br>이우영 (경남대)<br>노명호 (서울대)<br><br>6세션<br>* 평 론: 이원엽 (북경연합대)<br>* 평론: 최용수 (중공중앙당교)<br>* 평 론: 진봉림 (외교학원)<br>* 평론: 유병기 (조선사회과학자협회) | 중국 북경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중한 국제결혼에서의 문화 동질성과 문화충돌", 전신자 (북경중앙민족대)<br>"근현대 한국인의 중국관 변화과정 연구", 최승현 (여수대)<br><br>6세션-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공적개발지원 (ODA)과 북한경제개발", Daniel Morrow & CY Choi (George Washington Univ.)<br>"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만능의 보검", 김춘근 (김일성종합대)<br>"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 협력: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양문수 (경남대)<br>"미국이 남긴 일본천황제의 득과 실", 송성유 (북경대)<br><br>종합토론-사회: 송동원, 윤대규, 송성유 | | |
| 2005.07.06. -07.07.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1)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공동주최: 한국 수출입 은행 | 개회사:<br>신동규 (한국수출입은행)<br>박재규 (북한대학원대)<br>환영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br>기조연설:<br>"계획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 경험과 교훈", 요하네스 린 (전 세계은행 부총재)<br><br>1세션-사회: 조 순 (전 부총리)<br>"탈사회주의적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국제적 지원: 경험과 교훈", 다니엘 머로우 (조지워싱턴대)<br>"북한 개발과 국제원조기구의 역할: 경험과 전망", 에드워드 리드 (아시아재단)<br><br>2세션-사회: 요하네스 린 (브루킹스연구소)<br>"북한 개발을 위한 남북경협", 윤대규 (경남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북한 개발을 위한 경제모델의 모색: 한국의 경험",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br><br>3세션-사회: 김기환 (골드만삭스)<br>"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4의 길: 도전과 전망", 시아오 첸 (북경대)<br>"일본의 개발 원조: 북한 개발에 대한 함의", 미쯔루 미즈노 (일본대)<br>"북한 개발과 동유럽체제전환의 시사점", 막스반 데어슬린 (ECORYS 네덜란드)<br>"북한 개발을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 마리아 까스띨로 페르난데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br><br>4세션-사회: 한배호 (유한재단)<br>"북한과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 이수훈 (경남대)<br>"북한 개발과 주변국가의 역할",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br><br>종합토론-사회: 함택영 (북한대학원대) | 1세션<br>김동연 (세계은행)<br>장형수 (한양대)<br>유복환 (재정경제부)<br><br>2세션<br>김석환 (중앙일보)<br>김천식 (통일부)<br>카타리나 젤위거 (홍콩 카리타스)<br><br>3세션 오승렬 (한국외대)<br>티모시 새비지 (국제위기감시기구)<br>김병연 (서강대)<br>양창석 (통일부)<br><br>4세션<br>알렉산더 미나예프 (러시아 대사관)<br>이희옥 (한신대) | 신라호텔 |
| 2005.11.11. | 개교 60주년 기념 2005 한·일·중 국제학술세미나 세계화시대의 | | 사회: 하태영 (경남대)<br>개회사: 윤진기 (경남대)<br>축사: 박재규 (경남대), 가와다 노보루 (가나가와대) | 1세션<br>요코쿠라 세쓰오 (가나가와대)<br>박창건 (경남대) | 경남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동아시아 법과 정치·경제 | | 1세션-사회: 양재인 (경남대)<br>"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재소고", 설한 (경남대)<br>"한일 FTA와 동아시아 경제환경",<br>다나카 노리히토 (가나가와대)<br><br>2세션-사회: 김선국 (경남대)<br>"일본 민법의 최근 동향", 가다와 노보루 (가나가와대)<br>"일본의 신회사법의 제정과 금후의 전망",<br>와다 히사무네 (가나가와대)<br>"중국 경제법의 최근동향", 김호 (중국인민법원)<br><br>3세션-사회: 최영규 (경남대)<br>"한국 형사소송법의 최근동향", 하태영 (경남대)<br>"일본 환경법제의 과제: 환경보전과 토지소유권에 관한 제문제를 중심으로", 미우라 다이스케 (가나가와대)<br><br>종합토론-사회: 고평석 (경남대) | 2세션<br>김병두 (경상대)<br>고평석 (경남대)<br>윤진기 (경남대)<br><br>3세션<br>구몬 요시다카 (가나가와대)<br>여인호 (경남대) | |
| 2005.12.10.<br>-12.11. | 한·중<br>국제심포지엄<br>북-중 경제<br>협력과 동북아<br>경제 공동체 | | 기조연설: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br>"북-중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장보인 (길림대)<br>"북-중간 경제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br>진용산 (길림성 사회과학원)<br><br>2세션-사회: 김경일 (북경대)<br>"한국-북한-중국 삼각 산업협력 추진 방안", 이영훈 (한국은행)<br>"동북아 공동협력 프로젝트 가능성과 전제 조건",<br>고금준 (경제일보)<br><br>3세션-사회: 최신림 (미래와경제)<br>"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 전망과 추진 방향", 오승렬 (한국외대)<br>"북핵 이후 북한경제 개발 전략과 방향", 우미화 (중국개혁개방논단)<br><br>종합토론-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중국 북경 |
| 2006.05.11. | 우드로<br>윌슨센터 공동<br>국제 워크숍 (1)<br>- 냉전사 (1)<br>냉전시대 북한의<br>대외관계:<br>외교문서를<br>중심으로<br>Foreign<br>Relations of<br>the Two Koreas<br>during<br>the Cold War<br>Era | | 개회사: 캐스린 웨더스비 (우드로윌슨센터)<br>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br>1세션-사회: 선준영 (경남대)<br>"북한의 대 소련, 중국 관계, 1950-1972",<br>캐스린 웨더스비 (우드로윌슨센터)<br>"폴란드-북한 관계, 1949-1975",<br>말고자타 노인스카 (조지워싱턴대)<br><br>2세션-사회: 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1960년대 후반의 남북관계",<br>신종대, 류길재 (북한대학원대)<br>"1970년대의 남북관계", 마상윤 (가톨릭대)<br><br>3세션-사회: 캐스린 웨더스비 (우드로윌슨센터)<br>"1970년대의 남북한관계: 서울과 평양의 외교 경쟁", 발라즈 살롱타이 (몽골국립대)<br>"소련과 한반도의 관계, 1988-1991",<br>세르게이 라첸코 (피츠버그주립대) | 1세션<br>김영호 (성신여대)<br>윤덕희 (명지대)<br><br>2세션<br>이완범<br>(한국학중앙연구소)<br>이지수 (명지대)<br><br>3세션<br>우승지 (경희대)<br>강봉구 (한양대) | 경남대<br>극동문제<br>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06.05.22.<br>-05.23. | 동북아 대학총장협회 국제심포지엄<br>동북아 공동체 구축과 대학의 역할<br>Construct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and the Role of Universities | 공동주최:<br>한국대학 총장협회,<br>동북아 대학총장협회,<br>경제·인문 사회연구회 | 개회사: 김문환 (한국대학총장협회)<br>환영사: 박재규 (동북아대학총장협회)<br>축사 1: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br>축사 2: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br>기조연설: 마이클 아담스 (미국 페어레이 디킨슨대)<br><br>1세션-사회: 추이 시량 (중국 북경어언문화대)<br>"동북아 정부 모델의 모색과 지역 협력",<br>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br>"동북아 평화 가능성과 제주의 역할", 고충석 (제주대)<br>"6자 회담 이후 동북아 안보협력과 평화", 이종원 (일본 릿쿄대)<br>"사람과 문화의 소통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추구",<br>김광억 (서울대)<br><br>오찬연설: 이수훈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br><br>2세션-사회: 허운나 (정보통신대)<br>"IT협력과 동북아 대학교류", 블라디미르 쿠릴로프 (동북아대학총장협회)<br>"동북아 경제협력과 IT의 역할",<br>수 치칭 (대만건국기술대)<br>"남북한 IT협력과 동북아", 박찬모 (포항공과대)<br>"IT를 통한 대학간 연구협력망 사업: 성과와 과제",<br>서보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br><br>3세션-사회: 리 추안 (대만명전대)<br>"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한국", 문정인 (연세대)<br>"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중국", 루안 쭝쩌 (중국 국제문제연구소)<br>"동북아 공동체 내에서의 일본대학의 역할",<br>타케히로 오츠카 (히메지도쿄대)<br>"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러시아", 알렉산드르 스미르노브 (러시아 이르쿠츠크국립대)<br><br>종합토론-사회: 블라디미르 쿠릴로프 (동북아대학총장협회) | 1세션<br>신윤표 (전 한남대 총장)<br>리 티엔레인<br>(대만 중국문화대)<br>서명덕 (상명대)<br>정천구 (전 영산대 총장)<br><br>2세션<br>이상철 (광운대)<br>베그 추룬돌리<br>(몽골 휴머니티대)<br>순 위화 (중국 대련외국어대)<br>신윤식 (하나로드림)<br><br>3세션<br>목연수 (부경대)<br>친허 (길림화교 외국어학원)<br>마사토 후치가미<br>(일본 후치가미 의료복지전문학교)<br>유리 레즈니크<br>(러시아 치타국립대) | 힐튼호텔 |
| 2006.07.06.<br>-07.07.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2)<br>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공동주최:<br>한국수출입 은행,<br>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신동규 (한국수출입은행)<br>축사: 신언상 (통일부)<br>기조연설: "북한 개발원조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 경제협력의 강화방안", 박재규 (북한대학원대)<br><br>1세션-사회: 선준영 (경남대)<br>"북한 경제변화와 국제개발협력",<br>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br>(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br>"대북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 모색",<br>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br><br>특별연설: 김원웅 (국회의원)<br><br>2세션-사회: 현정택 (KDI)<br>"북한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방안",<br>에릭 와인가르트너 (와인가르트너 컨설팅) | 1세션<br>전봉근<br>(외교안보연구원)<br>울리히 니만<b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br>2세션<br>최창용 (조지워싱턴대)<br>임강택 (통일연구원)<br>안광명 (재정경제부)<br><br>3세션<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토니 미쉘 (코리아 어소시에이츠 경영 컨설팅)<br>선 리지안 (중국 복단대) | 조선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북한의 ADB 가입: 도전과 기회", 아카츠카 유조 (일본 도요대)<br>"세계은행의 북한 원조: 쟁점과 도전", 다니엘 머로우 (조지워싱턴대)<br><br>3세션-사회: 김광림 (전 재경부 차관)<br>"중국의 경제특구 및 해위투자: 경험 및 교훈", 라이 홍이 (싱가포르국립대)<br>"북한의 도약형 경제개혁 가능성: 외국인 투자의 역할", 이근 (서울대)<br>"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br><br>4세션-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개성공단을 둘러싼 현안과 국제협력 과제", 고경빈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사업단),<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개성공단과 한미 FTA",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 4세션<br>다니엘 머로우 (조지워싱턴대)<br>라이 홍이 (싱가포르국립대) | |
| 2006.08.21.<br>-08.22. | 남·북·중 국제학술회의 (3)<br>항일전통, 민족문화와 사회발전<br>Traditions in War of Resistance, National Culture, and Social Development | | 개회식-사회: 서만민 (중국 북경대)<br>환영사, 축사:<br>리암송 (중국 북경대)<br>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윤우철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장소홍 (중국 중화문화교류협력추진회)<br>송성유 (중국 북경대)<br><br>1세션-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조선의용대로부터 조선의용군에로의 발전에 대하여", 최룡수 (중국 중공중앙당교)<br>"동북항일련군은 사실상 중조항일련군", 서만민 (중국 북경대)<br>"문자와 혁명-항일전쟁시기 섬감녕변구 새문자 동기학교에 대한 탐구", 왕원주 (중국 북경대)<br><br>2세션-사회: 탕중남 (중국사회과학원)<br>"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김봉렬 (경남대)<br>"원효와 중국사상", 최유진 (경남대)<br>"1860-1898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상업과 외교활동", Kathryn Weathersby (Wilson Center)<br><br>3세션-사회: 선준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민족국가의 려정: 중국근대사의 민족관 및 그 변화", 기진옥 (중국 북경대)<br>"민족문화의 원형과 통일문화", 노귀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중국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국제결혼의 제문제", 전신자 (중국 연변대)<br><br>4세션-사회: 심인안 (중국 북경대)<br>"동북아시아의 현대화와 민족문화", 이문 (중국사회과학원)<br>"조선족사회의 격변기와 그 대책: 현실과 미래속에서", 손춘일 (중국 연변대)<br>"한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류를 중심으로", 송갑준 (경남대) | 1세션<br>탕중남 (중국사회과학원)<br>손춘일 (중국 연변대)<br>서용 (중국 북경대)<br><br>2세션<br>류천순 (중국사회과학원)<br>왕소보 (중국 북경대)<br>송성유 (중국 북경대)<br><br>3세션<br>서만민 (중국 북경대)<br>이문 (중국사회과학원)<br>왕미수 (중국 북경대)<br><br>4세션<br>노귀남 (경남대)<br>김봉렬 (경남대)<br>황대혜 (중국 인민대)<br>최유진 (경남대) | 중국 북경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신세기 동북아국가의 문화교류와 협력에 관한 몇가지 사고", 송성유 (중국 북경대)<br><br>종합토론-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송성유 (중국 북경대) | | |
| 2006.09.06.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 - 냉전사 (2)<br>남북한의 자주적 안보 연구<br>The Quest for Self-Reliant Security in the Two Koreas, Then and Now | 공동주최:<br>우드로 윌슨센터 | 개회사:<br>Michael Van Dusen (Wilson Center)<br>Robert Hathaway (Wilson Center)<br>Christian Ostermann (Wilson Center)<br>Joun-yung Sun (Kyungnam Univ.)<br><br>1세션-사회: Kathryn Weathersby (Wilson Center)<br>"DPRK Logic: The Blue House Raid and the Seizure of the USS Pueblo", Bernd Schaefer (German Historical Institute)<br>"ROK View of its Alliance Dilemma in the Wake of DPRK Provocations",<br>Kihl-Jae Ry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Jong Dae Shi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br>2세션-사회: Joun-yung Sun (Kyungnam Univ.)<br>"Alliance for Self-Reliance: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in the Early 1970s", Sang Yoon Ma (Catholic Univ.)<br>"North Korea's Efforts to Acquire Nuclear Weapons Technology, 1962-86",<br>Kathryn Weathersby (Wilson Center)<br><br>3세션-사회: Mark Mohr (Wilson Center)<br>Joun-yung Sun (Kyungnam Univ.)<br>David Straub (Northeast Asia Associates) | 1세션<br>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br>Miryang Youn (Wilson Center)<br><br>2세션<br>Robert Wampler (National Security Archive)<br>Kongdan Oh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 미국<br>워싱턴 D.C |
| 2006.10.19. | 조지타운대 공동 학술회의<br>동북아 안보와 한반도:<br>중일갈등과 한미관계<br>Northeast Asian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Sino-Japanese Rivalry and U.S.-ROK Relations | 공동주최:<br>조지타운대 | Opening Remarks:<br>David Steinberg (Georgetown Univ.)<br>Welcoming Address:<br>Nam-Kee Chung (Korea Press Foundation)<br>Jae Kyu Park (Kyungnam Univ.)<br>Keynote Speech:<br>Kathleen Stephens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br><br>1세션-사회: David Steinberg (Georgetown Univ.)<br>"Sino-Japanese Rivalry and Northeast Asian Order", Kurt Campbell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br>"Sino-Japanese Discord and ROK-China Relations", Jae Ho Chung (Seoul National Univ.)<br>"U.S., China, and Japan",<br>Michael Green (Georgetwon Univ.)<br>Luncheon Speech: Robert L. Gallucci (Georgetown Univ.)<br><br>2세션-사회: Taik-young Hamm (Kyungnam Univ.)<br>"Northeast Asian Order and South Korea's Options", Heajeong Lee (Joongang Univ.)<br>"U.S.-ROK Relation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 1세션<br>Wonhyuk Lim (KDI)<br>Don Oberdorfer (Johns Hopkins Univ.)<br>Hyeong Jung Park (CNAPS)<br><br>2세션<br>Michael Marshall (UPI)<br>Gordon Flak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br>Seung Ryun Kim (The Dong-A Ilbo)<br><br>3세션<br>Soyoung Ho (Washington Monthly)<br>Paul Chamberlin (US-Korea Consulting, Inc.) | 미국<br>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Issue", Haksoon Paik (Sejong Institute)<br>"Northeast Asian Order and Options for the U.S.", John Feffer (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br><br>3세션-사회: Jack Pritchard (Korea Economic Institute)<br>"U.S.-ROK Economic Cooperation: South Korea's Perspective", Wonhyuk Lim (KDI)<br>"South Korea's Economic Forecast", Bruce Klingner (Eurasia Group)<br>"U.S.-ROK Economic Cooperation: U.S. Perspective", Joseph Winder (Winder International) | | |
| 2006.11.24.<br>-25. | 2006 한일중 국제교류 심포지움<br>동아시아의 협조체제를 위해: 정치, 법, 경제 및 사회학적 시점에서 | | 개회사: 가와타 노보루 (가나가와대)<br><br>1세션-사회: 이노우에 마사코 (가나가와대)<br>"동북아시아의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문제", 요코구라 세쯔오 (가나가와대)<br>"아시아 국가간의 사람이 이동과 법", 쿠보 아쯔히코 (가나가와대)<br>"남북한 교류협력과 한국사회의 가치, 이익 및 권력의 갈등", 신종대 (경남대)<br>"지구화시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여성운동과 국제적 연대", 강인순 (경남대)<br><br>종합토론-사회: 야마다 토오루 (가나가와대)<br><br>2세션-사회: 사카모토 히로시 (가나가와대)<br>"동아시아국가에 있어서의 다국적기업의 동향과 전망", 다나카 노리히토 (가나가와대)<br>"한국에 있어서의 최근의 상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 양만식 (경남대)<br>"가나가와현의 국제교류", 고토 진 (가나가와대)<br>"한국의 실례 (實例)", 최은석 (경남대)<br><br>종합토론-사회: 키쯔카와 토시타다 (가나가와대) | 1세션<br>Ga Rida (북경행정학원)<br>E Zhenhui (북경행정학원)<br><br>2세션<br>민경배 (경남대)<br>와다 무네히사 (가나가와대) | 일본 가나가와대 |
| 2006.11.28. | 제1차 21세기 한-러 공동포럼<br>Perspective on Korean-Russian Cooperation | | 기조연설:<br>박재규 (경남대)<br>글렙 이바쉔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br><br>1세션-사회: 정태익 (북한대학원대)<br>"러시아-2006: 국내외 정책의 정치경제", 안드레이 볼로딘(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br>"탈냉전기 한 러 협력", 박수헌 (경희대)<br>"러시아 투자환경과 향후 한·러 협력", 빅터 이바노프 (상트페테르부르그대)<br>"한·러 경제협력 전망: 러시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br>"남북한·러 삼각경제협력: 분야 및 전망", 나탈리아 쇼토비치 (상트페테르부르그대)<br>"한·러 경제협력 고도화방안", 김종곤 ((주)이엔페이퍼)<br><br>오찬연설: 이수훈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br><br>2세션-사회: 기연수 (한국외대)<br>"동북아 국가의 역사인식과 발해사", 알렉산더 이브리예프 (역사민속고고학연구소) | 1세션<br>차윤호 (러시아연방 변호사)<br>이지수 (명지대)<br><br>2세션<br>이영형(러시아 시베리아 & 극동연구센터)<br>김수환 (서울대) | 롯데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발해사 연구", 한규철 (경성대)<br>"문화와 예술", 유리 쉬왈츠코프 (마린스키 극장)<br>"한·러 문화교류", 정은상 (경남대)<br>"한·러 교육 교류와 협력", 김문환 (국민대)<br>"한·러 철도협력", 성원용 (한국교통연구원)<br><br>종합토론-사회: 이대순 (한국대학총장협회) | | |
| 2006.11.30.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br>Human Rights in North Korea | | 개회식-사회: 김인재 (국가인권위원회)<br>개회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br>기조연설: 박종화 (경동교회)<br><br>1-1세션-사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br>"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L. Gordon Flake (The Maureen & Mike Mansfield Foundation)<br>"북한: 압박과 대화의 필요성 - Rafto Human Rights House와 노르웨이의 입장", Jan Ramstad (Rafto Human Rights House)<br>"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이금순 (통일연구원)<br><br>1-2세션-사회: 신혜수 (국가인권위원회)<br>"중국의 개혁개방과 인권사업", 김경일 (북경대)<br>"러시아의 대북인권 정책과 입장, 그리고 동북아에 대한 안보적 함의", Vasily V.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br>"북한의 인권인식과 인권정책", 김수암 (통일연구원)<br><br>2세션-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개성공단 노동자의 인권문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평가와 생존권 개선방안", Rajiv Narayan (Amnesty International)<br>"탈북자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 법륜 스님 (좋은벗들)<br>"중국 국내외 탈북자 문제: NGO의 역할", Peter M. Beck (국제위기감시기구)<br><br>3세션-자유토론 사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 1-1세션<br>Sandip Kumar Mishra (인도 델리대)<br>박순성 (동국대)<br>조호길 (중국 중공중앙당교)<br><br>1-2세션<br>이진영 (인하대)<br>이지수 (명지대)<br>김근식 (경남대)<br><br>2세션<br>김화순 (한국기술교육대)<br>이용선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br>Stephen W. Linton (유진벨재단)<br>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07.05.18.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3) - 냉전사 (3)<br>냉전과 한반도: 남북한의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br>The Cold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 Opening Remarks:<br>Christian Ostermann (Wilson Center)<br>Joun-yung Su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Cheng-You Song (Beijing Univ.)<br><br>1세션-사회: Christian Ostermann (Wilson Center)<br>"North Korea, the Third World, and the Cold Wars, 1965-1985", Charles K. Armstrong (Columbia Univ.)<br>"Myth of Factionalism in the Korean Workers' Party, 1945-1956", James F. Person (Wilson Center)<br><br>2세션-사회: Cheng-You Song (Beijing Univ.)<br>"Mao Zedong, Stalin and the Korean War Reconsidered, According to New Evidence from | 1세션<br>Zhihua Shen (Beijing Univ.)<br>Kihl-jae Ry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br>2세션<br>Charles K. Armstrong (Columbia Univ.)<br>Kihl-jae Ry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br>3세션<br>Jong Dae Shi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Gregg A.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 | 중국 북경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the Russian Archives",<br>Zhihua Shen (Beijing Univ.)<br>"New Insight in the Origin of the Korean War from the New Russian Documents",<br>Donggil Kim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br><br>3세션-사회: Joun-yung Su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The Korean Military Coup and the U.S., 1961-1963",<br>Wan Bum Lee (Academy of Korean Studies)<br>"The Dynamics of the Korean Cold War: A Consideration of the Impacts of the U.S.-China Rapprochement Early in the 1970s",<br>Tadashi Kimiya (The Univ. of Tokyo) | | |
| 2007.08.09.<br>-08.10. | 조·중·한 국제학술회의 (4)<br>항일의 역사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 공동주최:<br>한국학술진흥재단 | 개회식-사회: 서만민 (북경대)<br>환영사 및 축사: 송동원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신종대 (한국학술대표단)<br>송성유 (중국 북경대)<br>장소홍 (중화문화교류와협력촉진회)<br><br>1세션-사회: 신종대 (경남대)<br>"중일전쟁의 개시와 조선인민혁명군의 적배후교란작전",<br>공성득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노구교사변과 '국민정신총동원'",<br>송성유 (북경대)<br>"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의 부단한 확대원인에 대한 재검토 (1931-1945)", 요다 요시이에 (와세다대)<br><br>2세션-사회: 송동원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위간도성 (僞間島省) 조선인 친일무장단체 "특설부대" (特設部隊)에 관한 연구",<br>손춘일 (연변대)<br>"침화 일본군의 화북치안전 실행 및 좌절과 실패",<br>서용 (북경대)<br>"중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정두음 (경남대)<br>"항일전쟁시기 장개석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재사고",<br>리대광 (국방대)<br>"침화전쟁기간의 일본 여성단체",<br>호팽 (중국사회과학원)<br>"중일전쟁 전후 한국 저항운동의 양상 변화: 소규모화와 다양화", 윤해동 (성균관대)<br><br>3세션-사회: 손춘일 (연변대)<br>"항일무장투쟁은 선군기치밑에 조직전개된 위대한 투쟁", 송동원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和문화와 일본의 외교적 곤경",<br>이문 (중국사회과학원)<br>"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파탄시키는데서 동북아시아 인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력사적교훈",<br>리동혁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일본의 부상과 대국관계의 이용",<br>진봉림 (북경외교학원) | 1세션<br>왕미수 (북경대)<br>이철순 (부산대)<br>김민철 (한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br><br>2세션<br>리대광 (국방대)<br>진봉림 (북경외교학원)<br>왕소보 (북경대)<br>정두음 (경남대)<br>리동혁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손춘일 (연변대)<br><br>3세션<br>서만민 (북경대)<br>당리국 박사<br>호팽 (중국사회과학원)<br>공성득 (조선사회과학자협회)<br><br>4세션<br>진봉림 (북경외교학원)<br>기진옥 (북경대)<br>서용 (북경대)<br>기정허 (북경대) | 중국<br>북경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4세션-사회: 이문 (중국사회과학원)<br>"통상과 평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호철 (인천대)<br>"문화인류시각에서 본 조화로운 사회의 구축", 전신자 (연변대)<br>"동북아지역 충돌의 특징과 협력의 가능성", 조호길 (중공중앙당교)<br>"세계화, 문화정체성과 지연 (地緣)정치의 대치의 장 (場)-21세기 동북아 문화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로", 기진옥 (북경대)<br><br>종합토론-사회: 송동원, 신종대, 송성유 | | |
| 2007.08.31. | 제2차 21세기 한-러 공동포럼<br>Perspectives on Korean-Russian Cooperation | | 개회사: 모조로프 (페테르건축대)<br>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기조연설: 폴리코프스키<br>박재규 (경남대)<br>환영사: 리브노프 (페테르건축대)<br>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br><br>1세션-사회: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br>"한러관계 20년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변화, 1988-2007", 김덕중 (경기대)<br>"한러 경제협력 실태 및 발전 전망", 권원순 (한국외대)<br>"세계 금융제도 전환과 한러관계", 이바노프 (페테르종합대)<br>"한러 정치·경제 관계사", 시비르스카야 (페테르종합대)<br><br>2세션-사회: 모조로프 (페테르건축대)<br>"한러 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김현택 (한국외대)<br>"산업안보 관련 한·러측 경험", 벨리흐 (페테르건축대)<br>"페테스부르그의 혁신 프로젝트", 폴랴코프 (페테르종합대)<br>"페테르건축대와 경남대간 과학학술교류 방안", 페트로프 (페테르건축대) | 1세션<br>박건영 (가톨릭대)<br>서창우 (유라시아 포럼 한국)<br>페트로프 (페테르건축대)<br>포르트노프 (연방환경·원자력감독청)<br><br>2세션<br>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차윤호 (러시아연방 변호사)<br>정상욱 (러즈비즈)<br>벨라제드 (한러 청년지도자 포럼)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축대 |
| 2007.09.21.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4) - 냉전사 (4)<br>The Cold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State Formation and Foreign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 Opening Remarks: Christian Ostermann (Wilson Center)<br>Joun-yung Su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br>1세션-사회: Joun-yung Su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Various Models for Characterizing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1960's and 1970's", Kihl-jae Ry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The Myth of Factionalism as It Relates to North Korean Political History", James Person (NKIDP Coordinator)<br><br>2세션-사회: James Person (NKIDP)<br>"The security Triangle That was Formed in the Late 1960's Between the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ung-ji Woo (Kyunghee Univ.)<br>"How North Korea Served as a Model for Economic Development for Many Third World Countries throughout the 1970's", Charles K. Armstrong (Columbia Univ.) | 1세션<br>Charles K. Armstrong (Columbia Univ.)<br>Narushige Michishita (Johns Hopkins SAIS)<br><br>2세션<br>Bernd Schaefer (CWIHP)<br>Jong-dae Shi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br>3세션<br>Jae-jung Suh (Johns Hopkins Univ., SAIS)<br>Maureen Cormack (Korean Affairs for the US State Department) | 미국 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3세션-사회: Don Oberdorfer (Johns Hopkins Univ.)<br>"Against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s Decision to Hold Bilateral Negotiations with the North", Joun-yung Su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on North Korean Nuclear Proliferation, and How It Has Been Affected by Domestic Politics in the US", Jack Pritchard (KEI) | | |
| 2007.11.19. | 2007 남북정상회담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 공동주최: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축사: 이재정 (통일부 장관)<br>기조연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br><br>1세션-사회: 임용순 (전 성균관대 교수)<br>"한반도에서의 냉전의 종식과 동북아 평화질서", 김기정 (연세대)<br>"2007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의 평화협력: 세계전략적 중요성",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br><br>2세션-사회: 박영규 (국제디지털대)<br>"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 전망과 동북아경제협력", 이경태 (대외경제연구원)<br>"2007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의 미래",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 1세션<br>김영수 (서강대)<br>데이빗 강 (미국 다트머스대)<br>미치시다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br><br>2세션<br>조동호 (이화여대)<br>장윈링 (중국 사회과학원)<br>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 롯데호텔 |
| 2007.11.29.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3) |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완길 (한국수출입은행)<br><br>1세션-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 종합개발 로드맵 구상", 김영봉 (국토연구원)<br>"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남북협력 과제", 고경빈 (통일부)<br>"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임을출 (경남대)<br><br>2세션-사회: 선준영 (전 주UN 대표부 대사)<br>"북한개발 재정조달 모형과 성공전제조건", 임성훈 (건국대)<br>"북한 개발과 산업협력: 지하자원-경공업협력, 산업재배치 전략",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정 (연세대)<br>"북한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br><br>종합토론-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세션<br>김용학 (LIPPO GROUP)<br>이강연 (현대아산)<br>김창수 (민주평통)<br>정성장 (세종연구소)<br>장형수 (한양대)<br>안광명 (재경부)<br><br>2세션<br>양운철 (세종연구소)<br>홍순직 (현대 경제연구원)<br>원기선 (통일부)<br>박흥렬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br>양종서 (수출입은행)<br>권영경 (통일교육원)<br>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08.02.01. | 주한 캐나다 대사관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글로벌 파트너쉽을 통한 | 공동주최: 주한 캐나다대사관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축사: 테드 립만 (주한 캐나다 대사)<br>기조연설: 천영우 (외교통상부)<br><br>1세션-사회: 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글로벌파트너쉽의 역사와 캐나다의 활동", 트로이 룰라쉬니크 (캐나다외무성)<br>"글로벌파트너쉽에서의 한국의 역할", 송영완 (외교통상부) | 1세션<br>우승지 (경희대)<br>박건영 (가톨릭대)<br><br>2세션<br>한용섭 (국방대학원)<br>이대우 (세종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대량살상무기 위협감소 Reducing the Threat of WMD through the Global Partnership | | 2세션-사회: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br>"핵잠수함 해체와 핵안보 분야에서의 한국-캐나다 글로벌파트너쉽 협력", 마이클 워셔 (캐나다외무성)<br>"구소련 무기과학자의 전환",<br>니콜라 김 (주한 캐나다대사관)<br><br>3세션-사회: 정태익 (북한대학원대)<br>"6자회담과 북한 핵프로그램의 폐기",<br>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br>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의 WMD 확산 문제",<br>다니엘 핑스턴 (국제위기감시기구)<br>"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글로벌파트너쉽",<br>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 3세션<br>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br>전성훈 (통일연구원)<br>김숙 (제주국제 관계자문대사) | |
| 2008.04.15. -04.16. | 호주국립대 워크숍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공동주최: 동아시아재단 | APRIL 15<br>1세션: Historical Reconciliation<br>a) ROK/DPRK<br>b) China/Japan<br>c) Korea/Japan<br>d) Taiwan/PRC<br><br>2세션: How to Resolve Territorial Disputes<br>a) Kurile Islands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br>b) Tokdo/Takeshima<br>c) East China Sea<br><br>3세션: Regional Nuclear Proliferation<br>a)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br>b) Nautilus Japan-Korea Civil Society Nuclear Monitoring and Verification Initiative<br>c) Strategic Implications of Regional Nuclear Proliferation<br><br>4세션: Human Security in Northeast Asia<br><br>APRIL 16<br>5세션: The Six Party Talks<br>a) Analysis of the Negotiations to Date<br>b) Ideas for Achieving the Best Possible Settlement<br>c) Is a Verifiable Denuclearization Possible After the DPRK has Tested a Nuclear Device?<br>d) Would the Six Countries Suffice With a Freeze<br><br>6세션: Building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br>a) Building a Security Community (Amitav Acharya to lead)<br>b) Is Northeast Asia Ready for a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 Costs and Benefits?<br>c) Useful Precedents<br>d)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br>e) Combin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Security Commitments |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08.05.01. | 북한대 개교 10주년-<br>경남대 개교 6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br>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환경<br>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 공동주최:<br>북한대학원대,<br>우드로 윌슨센터 |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사무엘 웰스 (우드로윌슨센터)<br>기조연설: 알렉산더 버쉬바우 (주한 미국 대사)<br><br>1세션-사회: 사무엘 웰스 (우드로윌슨센터)<br>"한미관계의 미래: 한국의 시각", 전재성 (서울대)<br>"한미관계의 미래: 미국의 시각",<br>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br>"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최종건 (북한대학원대)<br><br>오찬연설: 유명환 (외교통상부)<br><br>2세션-사회: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남북관계의 전망", 이정식 (경희대)<br>"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전망", 조동호 (이화여대)<br>"북미관계 전망", 조엘 위트 (컬럼비아대)<br>"한국을 위한 협력: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br>리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br><br>3세션-사회: 선준영 (북한대학원대)<br>"한반도평화체제건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미국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br>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br>"라운드테이블: 중국의 시각",<br>딩 위안홍 (중국 개혁개방포럼)<br>"라운드테이블: 러시아의 시각",<br>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br>"라운드테이블: 일본의 시각",<br>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국제문제연구소)<br>"라운드테이블: 호주의 시각",<br>맥 윌리암스 (호주 사회과학연구소)<br>"라운드테이블: 유럽다자안보협력의 교훈",<br>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유럽대표부) | 1세션<br>조엘 위트 (컬럼비아대)<br>이옥연 (서울대)<br>다니엘 핑스턴 (국제위기감시기구)<br><br>2세션<br>기미야 다다시 (도쿄대)<br>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br>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br>윤미량(통일부)<br><br>3세션<br>사무엘 웰스 (우드로윌슨센터)<br>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 프라자호텔 |
| 2008.05.02.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5) - 냉전사 (5)<br>국제 냉전과 남북한<br>The Cold War and the Two Koreas<br>냉전기 남북한의 대외관계와 국제 냉전사적 의의<br>ROK & DPRK Cold War Era Foreign Relations and its Significance to International Cold War History | 공동주최:<br>우드로 윌슨센터 | 환영사: Dae-Kyu Yoon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br>개회사: Samuel F. Wells, Jr. (Wilson Center)<br><br>1세션-사회: Samuel F. Wells (Wilson Center)<br>"The Rise and Fall of the Soviet Faction: Based on Soviet Era Archived Material", Andrei Lankov (Kookmin Univ.)<br>"From Anti-Foreignism to Self-Reliance: The Evolution of North Korea's Juche Ideology, 1953-1964", James Person (Wilson Center)<br>"U.S.-ROK Relations in the 1960s-1970s: ROK's Development over Democracy",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br><br>2세션-사회: Joun-yung Su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The U.S.-DPRK Relationship in the Early 1970s: Inter-Korean Talks and Sino-U.S. Rapprochement", Seuk-Ryule Hong (Sungshin Women's Univ.)<br>"Korea-Japan Conflicting Relationship under the | 1세션<br>Gwang Oon Ki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br>Young-chul Chung (Hyundai Research Institute)<br>Bernd Schaefer (Wilson Center)<br><br>2세션<br>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br>Tadashi Kimiya (Univ. of Tokyo)<br>Jong-Dae Shi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U.S. Alliance in the 1970s: Kim Dae Jung Kidnapping Incident and the Assassination Attempt on Park Chung Hee", Wan Bom Lee (Academy of Korean Studies)<br>"Inter-Korean Dialogue in the Early 1970s: An Oral History Perspective", Seongji Woo (Kyung Hee Univ.)<br><br>3세션-사회: Dae-Sook Suh (Univ. of Hawaii at Manoa)<br>"The Status and Results of Research Related to North Korean System Building during the Cold War", Bernd Schaefer (Wilson Center)<br>"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Research and Korean Materials", Myung Lim Park (Yonsei Univ.) | 3세션<br>Ji Sue Lee (Myongji Univ.)<br>Dooyong Kang (Mandelbaum Salsburg, P.C.)<br>Kihl-jae Ry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 |
| 2008.06.10. | FNF-IFES 국제 워크숍<br>베트남의 경험과 북한의 경제현대화: 교훈과 과제<br>North Korea's Path to Economic Modernization | 공동주최:<b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한국사무소 | 개회사: 발터 클리츠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환영사: 윤대규 (경남대)<br>축사: 홍양호 (통일부)<br><br>1세션-사회: 선준영 (북한대학원대)<br>"베트남의 경제현대화와 교훈",<br>키스 그리핀 (전 옥스포드대 총장),<br>부 투안 안 (베트남 사회과학원)<br><br>2세션-사회: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북한의 경제현대화: 논점과 제안",<br>발라즈 짤론테이 (몽골국제대),<br>왕 쓰 (요녕성 중국사회과학원) | 1세션<br>박후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br>마이클 스팽글러 (주한 미국대사관)<br>김석진 (산업연구원)<br><br>2세션<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서재진 (통일연구원)<br>홍정표 (미야자키 국제대)<br>조명철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08.07.08. | 아시아재단 공동 비공개간담회<br>Responding to Complex Emergencies Amidst Sudden Political Transitions: Comparative Perspectives from Asia | | 개회사: Dae-kyu Yoon (IFES), Edward Reed (The Asia Foundation)<br><br>1세션<br>"Major Lessons Learned in Responding to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br>Nat Colletta (Post-Conflict and Reconstruction Unit, World Bank (retired)), Thomas Parks (Conflict and Governance, TAF)<br><br>2세션<br>"Afghanistan and Timor-Leste: Immediate Issues and Responses Following the Change of Governments Amidst Conflict", (Expert on Post-Conflict Development Assistance, AusAID, Australia), George Varughese (TAF)<br><br>3세션<br>"ICNK Efforts and Expectations: Background on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How to Apply International Lessons to DPRK Issues" |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08.09.08. -09.09.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6) | 공동주최:<br>우드로 윌슨센터 | 1세션<br>"Prelude to a Second Korean War? The Blue House Raid and USS Pueblo Incident" | | 미국 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냉전사 (6)<br>국제 냉전과 남북한<br>(The Cold War and the Two Koreas)<br>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968-1969, A Critical Oral History | | 2세션<br>"Solidarity or Demise? North Korea's Aggressive Behavior and the US-ROK Alliance"<br><br>3세션<br>"We are Against Taking the Matter Towards Unleashing a War: Fractures in DPRK Relations with the Communist Bloc."<br><br>4세션<br>"Confrontation Continues: Nixon's First Year and the Korean Peninsula"<br><br>5세션<br>"Encouraging Dialogue: Peace and Reunification Initiatives in the Midst of Crisis and Confrontation" | | |
| 2008.11.11. | 아시아재단 공동 국제워크숍<br>북한 경제의 현 상황 및 향후 전망 | | 환영사: 에드워드 P. 리드 (아시아재단)<br>축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선준영 (북한대학원대)<br>"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미국, 중국 및 한국의 시각"<br>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br>챠오 위 즈 (북경대 조선학연구소)<br>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br>임강택 (통일연구원)<br>최종건 (북한대학원대)<br>박후건 (경남대)<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08.11.27.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4)<br>북한체제의 미래전망과 남북/국제협력 추진전략 | | 인사말: 박동수 (한국수출입은행),<br>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북한 (경제)체제의 복합적 딜레마와 향후 진로전망", 권영경 (통일교육원)<br>"미국 대선과 신대북정책: 전망과 대응",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중국의 대북 경제교류확대 의미와 영향",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br>2세션-사회: 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국가 (기업) 신용평가와 북한 변수", 심재엽 (메리츠증권)<br>"오바마정부 출범과 개성공단: 함의와 영향", 임을출 (경남대)<br>"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방안", 이주태 (통일부)<br><br>라운드테이블-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 체제의 미래 진단과 남북협력 추진전략: 개성공단사업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과제 포함",<br>김영철 (가명, 탈북 고위인사) | 1세션<br>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br>정낙근 (여의도연구소)<br>양창석 (통일부)<br>이상현 (세종연구소)<br>강희정 (한밭대)<br>조명철 (KIEP)<br><br>2세션<br>임성훈 (건국대)<br>조양현 (한국수출입은행)<br>김석진 (KIET)<br>이경철 (기획재정부)<br><br>김고중 (전 현대아산)<br>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br><br>선준영 (북한대학원대)<br>이관세 (경남대)<br>이봉조 (통일연구원)<br><br>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br>홍익표 (KIEP)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09.05.29. | FNF-IFES 국제 워크숍 (2)<br>동북아 협력의 | 공동주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개회사: 발터 클리츠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br>환영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세션<br>김기정 (연세대)<br>이호철 (인천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제도화와 북한 Institutionalizing Regionalization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 | 한국사무소 | 1세션-사회: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br>"동북아협력과 지역주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 신기욱 (스탠포드대)<br>"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 평가와 미래전망", 마르티나 티머만 (TIMA International GmbH)<br><br>2세션-사회: 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제도적 설계: 6자 회담과 아세안지역포럼 (ARF)의 사례", 박건영 (가톨릭대)<br>"북한 경제현대화에 있어서의 동북아 지원과 협력의 역할",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br>"동북아의 지역 통합: 일본의 시각", 이다 케이스케 (도쿄대)<br><br>특별 라운드테이블-사회: 장달중 (서울대) | 2세션<br>다니엘 핑스턴 (국제위기그룹)<br>에드워드 리드 (아시아재단)<br>김병로 (서울대)<br>김석환 (산업연구원)<br><br>특별 라운드테이블<br>글레브 이반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관)<br>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 EU대사관)<br>미츠코시 히데아키 (주한 일본대사관)<br>브라이언 맥피터즈 (주한 미국대사관)<br>이서항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 |
| 2009.06.04.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7) Sixty Years of Sino-DPRK Relations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 환영사: Weimin Yu (ECNU), Christian Ostermann (NKIDP), Su-hoon Lee (Kyungnam Univ.)<br><br>1세션-사회: Weimin Yu (ECNU)<br>"Alliance of "Tooth and Lips" or Marriage of Convenienc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1946-1958", Zhihua Shen (ECNU)<br>"The Sino-DPRK Alliance at 60", James Person (NKIDP)<br>해설자: Kihljae Ry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br>2세션-사회: Su-hoon Lee (IFES)<br>"Sino-US Rapproche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 Seukryule Hong (Sungshin Women's Univ.)<br>"The Great Divergence: North and South Korea between 1972 and 1987",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br>"Sino-US Rapprochement and Sou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Jongdae Shi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해설자: Bernd Schaefer (CWIHP), Bo Chen (ECNU)<br><br>3세션-사회: Christian F. Ostermann (NKIDP)<br>"Juche and North Korea's Global Aspirations", Charles Armstrong (Columbia Univ.)<br>"The Evolution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Yuanhua Shi (Fudan)<br>해설자: Weimin Wang (Fudan Univ.) | | 중국 상해 |
| 2009.06.05. | 상하이윌슨센터 공동 학술회의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Current Security Issue | | Chairperson: Ying Ma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br>Opening Remarks: Dongxiao Chen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br>Su-hoon Lee (IFES)<br>Christian Ostermann (Wilson Center) | 1세션<br>Dongxiao Chen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br>Jae Ho Chung (Seoul National Univ.) | 중국 상해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China-US Relations and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in the Obama Era" | | 1세션-사회: Christian Ostermann (Wilson Center)<br>"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n Security", Robert Sutter (Georgetown Univ.)<br>"East Asian Security and China-US Cooperation", Chunsi Wu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br>"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Aftermath in East Asian Region: From the Korean Point of View", Jin-young Suh (Korea Univ.)<br><br>2세션-사회: Ming Liu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br>"US-China Relations and the Japan's Security Interest in the Obama Era", Yoshihide Soeya (Keio Univ.)<br>"A Sino-US Relation Free From Historical Cycle and Its Implication for Northeast Asia Security Cooperation", Wei Da (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br>"Korea-China Relations in the Obama Era", Jae Ho Chung (Seoul National Univ.)<br><br>3세션-사회: Su-hoon Lee (IFES)<br>"China's National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Keyu Gong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br>"China's Role in the North Korean Issues in the Obama Era", Hochul Lee (Univ. of Incheon) | Yoshihide Soeya (Keio Univ.)<br><br>2세션<br>Robert Sutter (Georgetown Univ.)<br>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br>Ying Ma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br><br>3세션<br>Charles Armstrong (Columbia Univ.)<br>Kihl-jae Ry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Phillip Park (Kyungnam Univ.)<br>Ming Liu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 |
| 2009.09.21.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포럼 (8)<br>한·미 협력관계: 도전과 과제<br>The Korea-US Cooperation: Challenges and Tasks | 공동주최:<br>우드로 윌슨센터,<br>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환영사: 안상수 (인천시장)<br>기조연설: 까를로스 미구엘 구티에레스 (전 미 상무부 장관)<br><br>1세션-사회: 크리스챤 오스터만 (우드로윌슨센터) | 1세션<br>박태호 (서울대)<br>김영희 (중앙일보)<br>류석진 (서강대)<br>패트릭 리내한 (미 대사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09.11.09. | FNF-IFES 국제 학술회의 (3)<br>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0년과 한반도에의 교훈<br>Twenty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Less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주최:<b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발터 클리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축사: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br>기조연설:<br>"베를린 장벽의 붕괴: 회고와 재조명", 베른트 플로라트 (구동독 국가안보문서 연방위원회)<br><br>1세션-사회: 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독일과 한국의 분단에 대한 비교", 한스 귄터 힐페르트 (베를린 사회과학정치연구소)<br>"독일의 동방정책에 대한 평가", 발터 클리츠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한국의 '햇볕정책' 평가: 대북 포용정책의 관점에서", 김근식 (경남대)<br><br>2세션-사회: 박명규 (서울대)<br>"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 조홍식 (숭실대)<br>"'중위통합'을 통한 '메토피아':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와 지역통합 - 궤적, 특성, 미래비전", 박명림 (연세대) | 1세션<br>에이든 포스터-카터 (리즈대)<br>고상두 (연세대)<br>김학성 (충남대)<br><br>2세션<br>마르티나 티머만 (TIMA International GmbH)<br>김석환 (산업연구원)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09.11.12. | 아시아경제 공동체포럼 북한의 핵문제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상 | *주관: 아시아경제 공동체포럼 조직위원회, 한국동북아 지식인연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한국 금융연구원, 인천대 동북아 발전연구원, UN APCICT,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아시아 소사이어티 한국센터, 국회 아시아 문화·경제 포럼, 인천발전 연구원, 경인 일보, 아시아 기자협회<br>*후원: 외교 통상부, UN ESCAP, ADBI, 지식경제부, 동아일보, 내한 상공회의소, 헤럴드미디어, Korea IT Times | [분과회의] 정치-사회:<br>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패널리스트:<br>[미국] "Managing Engagement: Prospects for Obama's North Korea Policy",<br>신기욱 (스탠포드대)<br>[중국]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br>우춘스 (상해국제문제연구원)<br>[러시아] "Coping with Nuclear North Korea in Search for Peace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Russia",<br>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br>[한국] "For Making a Peace and Prosperity of the East Asian Region",<br>김석환 (산업연구원)<br>[EU] "Securing Peace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Europe",<br>우베 비센바흐 (주한 유럽연합 부대사)<br>[ASEAN] "The Peace Process in ASEAN and It's Relevance to Northeast Asia",<br>추아 타이 경 (주한 싱가포르 대사) | | 인천 |

## 2010년대 주요 학술회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10.01.29.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9) - 워싱턴포럼 (1) 1st IFES/UNKS Washington Forum at the Wilson Center for Scholars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주최: 북한대학원대, 우드로 윌슨센터 | 환영사: Lee H. Hamilton (Wilson Center)<br>개회사: Jae Kyu Park (Kyungnam Univ.)<br>기조연설: James Steinberg (Deputy Secretary of State)<br><br>1세션-사회: Christian Ostermann (Wilson Center)<br>"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Beyond: The Role of Stakeholder Nations",<br>Charles K. Armstrong (Columbia Univ.),<br>Tae Hyun Kim (Chungang Univ.),<br>Alexandre Mansourov (Johns Hopkins Univ., SAIS),<br>Kihl-Jae Ry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br>2세션-사회: Jounyung Su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The China Factor: PRC-DPRK Relations",<br>James Person (Wilson Center),<br>Zhu Feng (Beijing Univ.), | | 미국 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Robert Sutter (Georgetown Univ.),<br>Samuel Kim (Columbia Univ.)<br><br>3세션-사회: Byung-Kook Kim (Korea Univ.)<br>"U.S.-ROK Coordination on North Korea", William Stueck (Univ. of Georgia), Young-sun Ha (Seoul National Univ.), Victor Cha (Georgetown Univ.), Kang Choi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 | |
| 2010.02.04.<br>-02.05. | NED 공동 주최 학술회의 (1)<br>제1회 북한국제 도너컨퍼런스<br>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 on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br>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 공동주최:<br>미국 민주주의 재단 (NED) |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축사: 김형오 (국회의장),<br>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관),<br>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 특사)<br>기조연설: 칼 거쉬만 (미국 민주주의 재단)<br><br>1세션-사회: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br>"1990년대 이래 북한변화 그리고 정권과 주민의 대응", 박형중 (통일연구원)<br>"북한 현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증진",<br>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현대화연구팀<br>"열악한 환경에서의 정치 자유화 도입: 아시아 속의 NED",<br>존 나우스 (미국 민주주의재단)<br><br>2세션-사회: 테드 립만 (주한 캐나다 대사)<br>"북한 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비판적 평가: 사례 보고", 케이 석 (휴먼라이즈워치),<br>북한인권시민연합 백두한라회<br>"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언론의 역할: 사례 보고",<br>레이몬드 김 (국경 없는 기자회), 존 팍스 (I-Media),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br><br>3세션-사회: 마씨모 안드레아 레제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br>"민주주의와 경제 개발", 존 칼보 (미국 국제민간기업센터)<br>"북한에 대한 바람직한 경제적 개입",<br>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br>"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티모시 섀비지 (노틸러스연구소) | 1세션<br>김영진 (조지워싱턴대)<br>법륜 스님 (평화재단)<br>양창석 (통일부)<br>웬청 린 (대만 민주주의재단)<br>존 세이거 (주한 유럽연합대표부)<br><br>2세션<br>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br>제성호 (대한민국 인권대사)<br>줄리아 벨레이 (국제공화주의연구소)<br>리차드 코윈 (주한 영국대사관)<br>제니스 린 마셜 (유엔난민기구)<br><br>3세션<br>정태익 (북한대학원대)<br>김지홍 (KDI 국제정책대학원)<br>필립보 니코시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br>브라이언 시프리 (주한 캐나다대사관)<br>캐로린 불 (호주 국제개발처 중국지부) | 프라자호텔 |
| 2010.07.01.<br>-07.02.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포럼 (10) - 구술사 (1)<br>"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A Critical Oral History" | 공동주최:<br>북한대학원대,<br>우드로 윌슨센터 | 1세션-사회: Christian F. Ostermann (Wilson Center)<br>"Inter-Korean Dialogue in the Era of Detente", Bernd Schaefer (Wilson Center), Seukryule Hong (Sungshin Women's Univ)<br><br>2세션-사회: William Stueck (Univ. of Georgia)<br>"Inter-Korean Dialogue and U.S.-ROK Relations",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 Seongji Woo (Kyunghee Univ)<br><br>3세션-사회: James Person (Wilson Center)<br>"Inter-Korean Dialogue and the DPRK's Relations with Allied Countries", Bernd Schaefer (Wilson Center), Kihljae Ry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 | 미국<br>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10.07.14. | FNF-CKR-IFES 국제 워크숍 (4)<br>북한의 비전통적 안보<br>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North Korea | 공동주최:<b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브리티시 컬럼비아대 한국학센터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발터 클리츠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br><br>1세션-사회: 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북한의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문제 재고",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브랜든 하우 (이화여대)<br>"북한의 에너지 안보", 데이비드 폰 히펠 (노틸러스연구소),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br>"북한의 여성과 안보",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대)<br>"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안보문제화와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 데이비드 강 (서던캘리포니아대)<br><br>2세션-사회: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br>"인간안보의 시각에서 본 탈북자 문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br>"해외 언론과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 피터 벡 (스탠포드대)<br>"북한의 식량안보와 기아", 이석 (한국개발연구원)<br><br>3세션-사회: 장달중 (서울대)<br>"북한의 비전통적 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츠네오 아카하 (몬트레이국제대학원)<br>"북한 난민과 국제협력", 이신화 (고려대)<br>"북한의 비전통적 안보를 위한 NGO의 역할",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br>"북한에서의 인간 안보", 이혜정 (중앙대) | 1세션<br>이수정 (북한대학원대)<br>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김학성 (충남대)<br>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br><br>2세션<br>박후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남궁영 (한국외대)<br>여인곤 (통일연구원)<br><br>3세션<br>황지환 (명지대)<br>김영수 (서강대)<br>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br>이금순 (통일연구원)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10.08.19. | 연변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br>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 공동주최:<br>중국 연변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1세션<br>"북한의 핵포기와 개방: 한중합작 정책과 전략", 박병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리설위 (연변대)<br>"한반도의 지정학적 의의와 북중관계의 미래 전망", 강용범 (중국 연변대), 나희승 (철도기술연구원)<br><br>2세션<br>"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의도와 향후 정치 일정",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동훈 (연변대)<br>"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와 과제",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계란 (연변대) | | 중국 연변대 |
| 2010.10.15. | FNF-IFES 국제 워크숍 (5)<br>독일 통일의 정치: 한반도에 주는 교훈<br>Politics of German Unification: Less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주최:<b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발터 클리츠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축사: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관)<br>기조연설: "통독 20년", 만프레드 리히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br>1세션-사회: 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통일이후 독일외교정책: 지속과 변화", 이규영 (서강대)<br>"유럽통합과 독일 통일", 우베 비센바흐 (주한 EU대표부)<br>"지구화, 동아시아 지역질서, 한국통일: 역사적-비교적 시각으로부터의 조망", 박명림 (연세대) | 1세션<br>김학노 (영남대)<br>고상두 (연세대)<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br>2세션<br>강원택 (서울대)<br>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br>손기웅 (통일연구원)<br><br>3세션<br>조대엽 (고려대)<br>김호기 (연세대)<br>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조선호텔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2세션-사회: 임현진 (서울대)<br>"독일 통일과정에서 정당들의 역할", 클라우스 골러트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전임장관)<br>"독일 경제통합의 과정과 효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br>"독일 통일의 정치경제와 한반도 통일", 구춘권 (영남대)<br><br>3세션-사회: 팔크 봄스도르프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러시아사무소)<br>"독일 통일의 사회적 효과", 라인하르트 쉴링커트 (독일 '인프라테스트 디맙' 정치선거조사연구소)<br>"1989-90년 독일 통일에 대한 좌파적 비판과 대안들", 이동기 (서울대)<br>"한반도 통일과 한국의 시민사회", 박순성 (동국대) | | |
| 2010.10.22. | 가나가와대 공동 한일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구상 | 공동주최: 가나가와대 아시아 문제 연구소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이케가미 카즈오 (가나가와대)<br>축사: 나카지마 미치오 (가나가와대)<br>기조연설: 박재규 (경남대)<br><br>1세션-사회: 이즈모 마사시 (가나가와대)<br>"글로벌 경제위기와 지역협력의 필요성", 아키야마 켄지 (가나가와대 아시아문제연구소)<br>"동아시아경제협력과 북한경제공동체의 형성",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 요코쿠라 세쯔오 (가나가와대)<br>"동아시아 시민사회와 시민의식 형성", 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br>2세션-사회: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일·중 관계의 현황 및 이후의 전망", 우징핑 (복단대)<br>"동아시아 경영환경과 한·일·중의 역할", 타나카 노리히토 (가나가와대)<br>"동아시아질서 재편과 한·일 관계", 김용복 (경남대)<br><br>3세션-사회: 이종원 (릿쿄대)<br>"동북아 인권레짐과 북한", 김근식 (경남대)<br>"북·일 관계의 진전 및 북한의 미래", 코마키 테루오 (코쿠시칸대)<br>"탈북자 문제와 동북아 안보",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 종합토론:<br>타나카 노리히토 (가나가와대)<br>이즈모 마사시 (가나가와대)<br>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종원 (릿쿄대)<br>장 슈래 (복단대) | 일본 가나가와대 |
| 2010.11.25.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5)<br>북중경제관계와 주변국의 시각 | 공동주최: 한국수출입은행 | 개회식: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노성관 (한국수출입은행)<br><br>1세션-사회: 이관세 (경남대)<br>"중국 정부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과 전략", 장동명 (요녕대)<br>"북중 교역투자협력의 실상과 전망", 윤승현 (연변대)<br>"북중경협 심화와 북한 후계체제의 경제정책 향방",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세션<br>임강택 (통일연구원)<br>박승준 (인천대)<br>조영서 (북한연구소)<br>이희옥 (성균관대)<br>정한기 (메이플그룹)<br><br>2세션<br>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br>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br>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2세션-사회: 김석환 (주성대)<br>"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일본의 시각",<br>미무라 미쯔히로 (ERINA)<br>"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br>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br>"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한국의 시각",<br>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br><br>3세션-사회: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대표발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 이종운 (대외경제<br>정책연구원)<br><br>3세션<br>정낙근 (여의도연구소)<br>양창석 (통일부)<br>권영경 (통일교육원)<br>이영훈 (한국은행)<br>김고중 (남북교역<br>투자협의회) | |
| 2011.06.03. | 경남대 개교<br>65주년 기념<br>국제학술회의<br>FNF-IFES 국제<br>워크숍 (6)<br>중국의 전략적<br>주변국<br>China and<br>Its Strategic<br>Neighbors | 공동주최:<br>프리드리히<br>나우만 재단<br>후원:<br>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발터 클리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br>1세션-사회: 마틴 퀼링 (동아시아 통신 NZZ)<br>"미·중의 세계 패권 경쟁? (국제적 시각)",<br>유잉리 (상해국제문제연구원)<br>"중국의 부상과 전략적 주변지역 정책 (지역적<br>시각)", 이희옥 (성균관대)<br><br>2세션-사회: 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중국-북한 관계: 중국의 북한 딜레마와 한국의<br>대중정책에 대한 제언", 황재호 (한국외대)<br>"중국-베트남 관계: 베트남과 중국의 포괄적 전략<br>파트너십 체결 : 극복해야 할 난관들",<br>팜녹탁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소)<br>"중국-버마 관계", 자우 (치앙마이대)<br>"중국-캄보디아 관계: 중국, 캄보디아의 보호막?",<br>손 소우벳 (왕실고문) | 1세션<br>김흥규 (성신여대)<br>김홍수 (영산대)<br><br>2세션<br>강용범 (연변대)<br>이한우 (한국동남아<br>연구소)<br>이재현<br>(외교안보연구원)<br>조영희<br>(한국동남아연구소) | 경남대<br>극동문제<br>연구소 |
| 2011.08.17. | 극동연-연변<br>전략대화<br>변화하는<br>동북아 정세와<br>한중관계의 변화<br>전망 | 공동주최:<br>중국 연변대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강용범 (연변대)<br>"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br>2세션-사회: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북아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한중관계를<br>중심으로", 박동훈 (연변대) | 1세션<br>나희승<br>(철도기술연구원)<br>이계란 (연변대)<br><br>2세션<br>김근식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br>송정호 (우석대) | 중국<br>연변대 |
| 2011.10.31.<br>-11.01. | 우드로<br>윌슨센터 공동<br>국제 워크숍<br>(11) - 구술사<br>(2)<br>The Korean<br>Peninsula after<br>Detente, 1973-<br>1976: A Critical<br>Oral History | 공동주최:<br>우드로<br>윌슨센터 | 1세션-사회: Christian F. Ostermann (Wilson<br>Center)<br>"The Demise of Dialogue and Detente on the<br>Korean Peninsula"<br><br>2세션-사회: Jounyung Sun<br>"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Nations"<br><br>3세션-사회: Gregg Brazinsky (George<br>Washington Univ.)<br>"The Changing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of<br>the Two Koreas"<br><br>4세션: James Person (Wilson Center)<br>"Echoes of Saigon on the Korean Peninsula"<br><br>5세션: William Stueck<br>"Triangular Foreign Relations on the Korean<br>Peninsula and the Murder in the DMZ" | | 미국<br>워싱턴 D.C |
| 2011.11.02. | 우드로<br>윌슨센터 | 공동주최:<br>북한대학원대 | 환영사: Jae Kyu Park, Jane Harman<br>기조연설: Wendy Sherman | | 미국<br>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공동 국제 워크숍 (12) - 워싱턴포럼 (2) 2nd Washington Forum: Security and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 우드로 윌슨센터 | 1세션-사회: Jounyung Sun<br>"Pyongyang's Military Provocations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Michishita Narushige, Yongsup Han, Victor Cha<br><br>2세션<br>"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Robert Carlin, Jinwook Choi, Soohong Kim, Nicholas Eberstadt | | |
| 2012.03.21. | 연구소 개소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FNF-IFES 국제 워크숍 (7) 동북아시아 핵 문제의 재고 Rethinking Nuclear Issues in Northeast Asia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br><br>후원: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만프레드 리히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기조연설: "북한 핵 문제의 회고와 전망", 박재규 (경남대)<br><br>1세션-사회: 장달중 (서울대)<br>"오바마 독트린 평가", 리언 시갈 (사회과학연구소 산하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br>"NPT 체제의 미래", 알렉산더 사벨예프 (국제안보센터전략연구소)<br>"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국제 파트너십 재평가", 이상현 (외교통상부)<br><br>특별세션-사회: 송민순 (국회의원)<br>"북한의 핵 위기는 해결될 수 있는가?", 지그프리드 해커 (스턴퍼드대)<br><br>2세션-사회: 문정인 (연세대)<br>"남북관계와 핵 위기", 박건영 (가톨릭대)<br>"동북아시아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 중국, 일본, 한국", 지안 차이 (복단대)<br>"동북아시아의 원자력과 안전에 관한 협력: 조건과 실현가능성", 다카오 다카하라 (메이지가쿠인대) | 1세션<br>최대석 (이화여대)<br>김기정 (연세대)<br>피터 벡 (아시아재단)<br><br>2세션<br>마사루 타마모토 (캠브리지대)<br>함택영 (북한대학원대)<br><br>3세션<br>서주석 (국방연구원)<br>이희옥 (성균관대)<br>박순성 (동국대) | 프라자호텔 다이아 몬드홀 |
| 2012.10.17. | FNF-IFES 국제 워크숍 (8) 한반도 에너지 협력과 평화구축 Energy Cooperation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br><br>후원: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라스-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기조연설: "일본의 핵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노정", 모히로 이나가기 (일본 히로시마대)<br><br>1세션-사회: 이호철 (인천대)<br>"에너지 위기와 북한에 미치는 영향: 경제, 안보, 그리고 군사", 딘 올렛 (경남대)<br>"EU의 에너지 정책 및 대외관계", 에크하르트 뷔셔 (독일 지열사무소)<br><br>2세션-사회: 부경진 (서울대)<br>"동북아시아의 핵 경쟁에 대한 현실적 평가", 전성훈 (통일연구원)<br>"동북아시아의 지역 에너지 협력",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br>"후쿠시마 사태 이후, 독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변화: 현황, 함의 및 전망", 폴크하르트 리히만 | 1세션<br>고봉준 (충남대)<br>이재승 (고려대)<br><br>2세션<br>황지환 (서울시립대)<br>박진희 (동국대)<br>정연미 (서울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12.11.26.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3) - 냉전사 (7)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Christian Ostermann, Jounyung Sun | | 미국 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Workshop on the Cold War & the Korean Peninsula | | 1세션<br>"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967-1969", 류길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James Person (Wilson Center)<br>홍석률 (성신여대)<br><br>2세션<br>"The Rise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br>Onon Perenlei, 우승지 (경희대), Gregg Brazinsky<br><br>3세션<br>"The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4-1976", 신종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Yafeng Xia, 마상윤 (가톨릭대) | | |
| 2012.11.27.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4) - 워싱턴포럼 (3)<br>3rd Washington Forum: Regional Dynamics and Inter-Korean Relations, Past and Present | 공동주최:<br>우드로 윌슨센터,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Jane Harman (Wilson Center)<br><br>1세션-사회: Christian Ostermann (Wilson Center)<br>"Lessons from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신종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Bernd Schaefer (Wilson Center), 홍석률 (성신여대)<br><br>2세션-사회: 선준영 (북한대학원대)<br>"Changing Regional Dynamics and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류길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Bruce Cumings (Univ. of Chicago), Robert Sutter (The George Washington Univ.) | | 미국 워싱턴 D.C |
| 2013.02.15. | 제8차 가나가와대 공동세미나 (비공개)<br>동아시아 공동체: 갈등을 넘어 상생과 번영으로<br>Northeast Asian Community: Overcoming Conflict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 공동주최:<br>일본 가나가와대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축사: 후나코시 타케히로 (주한 일본대사관)<br><br>1세션-사회: 오정만 (가나가와대)<br>"남북경협과 동북아경제협력",<br>양문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조건",<br>박후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환경 및 제조 전략",<br>타나카 노리히토 (가나가와대)<br><br>2세션-사회: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최근 한일관계의 쟁점과 동아시아: 역사문제, 영토문제, 그리고 TPP", 김용복 (경남대)<br>"동북아 안보협력 가능성 및 구축방안",<br>양무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아베 정권 2기의 탄생과 일본 외교의 변화와 연속성", 사하시 료 (가나가와대)<br>"한일의 정치문화에 관한 비교 고찰:<br>정권 선택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히사다 카즈타카 (가나가와대) | 1세션<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강문구 (경남대)<br>김석환 (한국외대)<br>아사바 유키 (야마구치현립대)<br><br>2세션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신종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박정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조재욱 (경남대)<br>나희승 (한국철도 기술연구원)<br>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13.06.12. | FNF-IFES 국제 워크숍 (9)<br>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성과 및 향후전망 | 공동주최:<b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br>후원:<br>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축사: 류길재 (통일부 장관) | 이수형 (국가안보 전략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Sharing with North Korea: Past Successes and Future Prospects | | 1세션-사회: 김영희 (중앙일보)<br>"북한의 개발역량 강화: 유럽의 경험",<br>피릭스 앱트 (평양 비즈니스 스쿨)<br>"북한의 개발역량 강화: 미국의 경험",<br>로버트 스프링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br>"북한의 개발역량 강화: 중국의 경험",<br>한헌동 (중국정법대)<br><br>2세션-사회: 장달중 (서울대)<br>"북한의 개발역량 강화: 평양과학기술대학 사례",<br>고동훈 (평양과학기술대)<br>"북한 내 개발역량 강화사례: 기회, 도전 그리고 성과", 카타리나 젤웨거 (스탠포드대)<br>"러시아와 북한의 교육교류 경험",<br>블라디미르 쿠릴로프 (극동연방대)<br><br>3세션-사회: 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국가의 역할과 잠재력: 싱가포르의 지향점",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조선 엑스체인지)<br>"개성공단의 역량 강화: 북한 경제특구의 함의",<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공동프로젝트의 가능성과 전망",<br>김태균 (서울대) | 1세션<br>양문수<br>(북한대학원대)<br>염송심 (북화대)<br><br>2세션<br>장형수 (한양대)<br>츠찌야마 지쯔오<br>(아오야마가쿠인대)<br>김석환 (한국외대)<br><br>3세션<br>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병로 (서울대)<br>조봉현<br>(IBK 경제연구소) | |
| 2013.06.14.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5) - 워싱턴포럼 (4)<br>4th Washington Forum: Leadership Changes in East Asia: How Do they Affect the Koreas? | 공동주최:<br>우드로 윌슨센터 | 개회사: Jane Harman (Wilson Center), Jae Kyu Park (Kyungnam Univ.)<br>기조연설: Glyn Davies (U.S. special envoy to North Korea)<br><br>1세션-사회: Sam Donaldson (ABC News)<br><br>오찬연설: Jae Kyu Park (Kyungnam Univ.)<br><br>2세션-사회: Christian Ostermann (Wilson Center) | 1세션<br>Rudiger Frank (Univ. of Vienna)<br>Jonathan D. Pollack (Brookings Institution)<br>In-hwi Park (Ewha Women's Univ.)<br>Robert Hathaway (Wilson Center)<br>Junya Nishino (Keio Univ.)<br><br>2세션<br>Robert Carlin (Stanford Univ.)<br>Yong Sup Han (Korea National Defense Univ.)<br>Seuk Ryule Hong (Sungshin Women's Univ.)<br>James Person (Wilson Center) | 미국<br>워싱턴 D.C |
| 2013.09.13. | 중국 북화대 동아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정세와 한·중 협력관계 | 공동주최:<br>북화대 동아연구센터 | 개회사: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정의 (북화대학 동아연구센터)<br><br>1세션-사회: 심지연 (경남대)<br>"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정세 (1)",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br>2세션-사회: 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정세 (2)",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 | 1세션<br>김석환<br>(한국유라시아연구소)<br>정의 (북화대학 동아연구센터)<br>조흥원 (북화대학 동아연구센터)<br><br>2세션<br>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중국<br>북화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 염송심 (동아연구센터 한국연구소)<br>박동훈 (연변대)<br><br>종합토론:<br>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정의 (북화대) | |
| 2013.11.19.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을 위한 워크숍 (6) / 한국수출입은행 공동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평화 증진과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hancing Peace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s Development | 공동주최: 한국 수출입은행 후원: 통일부, 기획재정부,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br>환영사: 박재규 (경남대)<br>축사: 강창희 (국회의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br><br>1세션-사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br>"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전략", 자오후지 (중공중앙당교)<br>"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전략", 이소자키 아츠히토 (게이오대)<br>"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과 전략",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원)<br>"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전략", 멜빈 거토브 (포틀랜드주립대)<br><br>오찬연설: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관)<br><br>2세션-사회: 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계획: 글로벌 관점과 대응",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br>"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북한의 경제특구: 주변국들의 역할",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br>"북한의 경제 기반 개발: 한-중-러 삼각협력", 타기르 쿠지야토브 (러시아극동대학)<br>"북한의 경제개발과 국제 개입 전략", 사이먼 쉔 (홍콩중문대)<br><br>3세션-사회: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미얀마의 경제체제 전환에서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북한의 중요성과 함의",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자문관)<br>"베트남 체제 전환 사례를 통해 본 국제협력의 필요성", 디팍 미쉬라 (세계은행)<br>"동유럽 체제전환 사례와 경제개발협력 경험", 피로스카 나기 (유럽부흥개발은행)<br>"광역두만강계획 (GTI)을 통한 지역협력의 증진", 장도환 (UNDP GTI 사무국)<br>"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중국의 참여: 북한에 대한 함의", 저우 타이동 (아시아재단) | 1세션<br>이호철 (인천대)<br>박영준 (국방대)<br>김석환 (한국외대)<br>사하시 료 (가나가와대)<br><br>2세션<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나희승 (철도기술 연구원) 임강택 (통일연구원)<br><br>3세션<br>장형수 (한양대)<br>윤덕룡 (대외경제 정책연구원)<br>김병로 (서울대)<br>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 콘래드 서울 |
| 2013.12.03. -12.04.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6) - 구술사 (3)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Christian Ostermann Amb. Jounyung Sun<br><br>1세션-사회: Christian Ostermann | | 미국 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The Carter Chill: US-ROK-DPRK Trilateral Relations, 1976-1979 | | "Troop Withdrawals and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South Korea", William Stueck, Sangyoon Ma<br><br>2세션-사회: Jounyung Sun<br>"Koreagate and Human Rights", Gregg Brazinsky Christine Kim<br><br>발표 (프레젠테이션): the Digital Archive and Modern Korean History Portal<br><br>3세션-사회: James Person<br>"North Korea and the World", Sergey Radchenko, Jongdae Shin<br><br>4세션-사회: Christian Ostermann<br>"Carter to Korea and the Trilateral Dialogue Initiative", Seukryule Hong, Charles Kraus<br><br>5세션-사회: James Person<br>"The Final Days of Yushin and the Assassination of Park Chung Hee", Jisoo Kim, Gregg Brazinsky | | |
| 2013.12.06. | 가나가와대 아시아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 아시아 패러다임 전환: 협력과 공생의 길을 묻는다. (Paradigm Shift in Asia: Path toward Cooperation and Co-existence) | 공동주최: 일본 가나가와대 | 1세션<br>"동북아의 정치대립과 안전보장", 김근식 (경남대)<br><br>기념강연: Chen Jianan (Fudan Univ.)<br><br>2세션<br>"경제외교의 방향", Kitti Prasirtsuk (Thammasat Univ.)<br><br>3세션<br>"'아시아의 세기' 동남아와 일본", Pham Quang Minh (Hanoi Univ.) | 1세션<br>Sahashi Ryo (Kanagawa Univ.)<br><br>2세션<br>김용복 (경남대)<br><br>3세션<br>Tang Siew Mun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 일본 가나가와대 |
| 2014.04.24. | IFES, KDI,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공동 워크숍 | 공동주최: KDI 국제정책 대학원,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br><br>김성남 (연변대)<br>최문 (연변대)<br>현동일 (연변대)<br>이종림 (연변대) |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14.06.11. | FNF-IFES 국제 워크숍 (10)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지식 공유 North Korea's Development Capac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nowledge Sharing: Gender, Agriculture, and Tourism Perspective | 공동주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개회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환영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기조연설: 윤미량 (통일부 통일교육원)<br><br>1세션-사회: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br>"국가와 젠더관계: 북한 여성의 장마당 활동을 중심으로", 김해순 (중앙대)<br>"북한의 여성: 비즈니스 여성을 위한 지식공유의 사례", 닐스 와이젠시 (조선교류 기업프로그램)<br><br>2세션-사회: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br>"북한의 농업 교육: 미국 프랜드 교회 사회 복지 사업회의 사례", 린다 루이스 (미국 프렌드 교회 사업복지 사업회) | 1세션<br>김귀옥 (한성대)<br>조영주 (동국대)<br><br>2세션<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임상철 (상지대)<br><br>3세션<br>이봉희 (강원발전 연구원)<br>신용석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북한의 농업 교육: 월드비전의 사례", 이주성 (월드비전)<br><br>3세션-사회: 심상진 (경기대)<br>"북한의 특별경제지구와 관광사업: 평가와 전망",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사업: 사례와 전망", 가레스 존슨 (영 파이오니어투어), 트로이 콜링스 (영 파이오니어투어) | | |
| 2014.12.05.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7) - 워싱턴포럼 (5) 5th Washington Forum: Marketization, Social Change, and the Impact of the Korean Wave in North Korea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 기조연설: Robert R. King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br><br>1세션-사회: Jounyung Su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Marketization, Social Change, and the Impact of the Korean Wave in North Korea", Jinwook Choi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Hyeong-Jung Park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Gwi-Nam Noh (Northeast Asian Micro-Social Institute)<br><br>2세션-사회: James Person (Wilson Center)<br>"Reporting on North Korea: Challenges, Problems, and Pitfalls", Jean Lee (Alicia Patterson Foundation Fellow), Chad O'Carroll (NK News), Sukho Shin (Dong-a Ilbo) | | 미국 워싱턴 D.C |
| 2015.01.28. | 경남은행 후원 국제학술회의 (1) 북한과의 비즈니스: 기회와 도전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br>후원: 경남은행,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축사: 류길재 (통일부)<br><br>1세션-사회: 이상만 (중앙대)<br>"북한과의 비즈니스: 장애와 기회, 현재와 미래", 토니 미셸 (코리아 어소시에이츠 비즈니스 컨설턴시)<br>"북한 경제개발구의 비즈니스 전망",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조선교류)<br>"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선택: ICT, 경공업 분야", 폴 치아 (GPI 컨설턴시)<br><br>2세션-사회: 홍양호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br>"북한의 유통업: 도이치 포스트-DHL 사례연구", 제임스 민 (도이치 포스트-DHL)<br>"북한 관광산업과 외국기업 협력사례: 고려투어", 사이먼 코커렐 (고려투어)<br>"나선 경제특구 내 북·중 신발제조 합작사업", 마크 김 (선양신업) | 1세션<br>육재희 (아천글로벌 코퍼레이션)<br>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br>딘 울렛 (경남대)<br><br>2세션<br>권은민 (김&장 법률사무소)<br>이영훈 (SK 경영 경제연구소)<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15.06.10. | FNF-IFES 국제 워크숍 (11)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Business and Finance in the DPRK | 공동주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축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br><br>1세션-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br>"북한 사금융의 실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br>"소규모 사기업 육성과 금융의 역할", 미무라 미츠히로 (ERINA)<br>"북한 비즈니스와 사금융",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세션<br>제임스 피어슨 (로이터통신)<br>윤인주 (한국해양 수산개발원)<br>정은이 (경상대)<br><br>2세션<br>하현철 (한국산업 은행)<br>랜디 마틴 (머시코)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2세션-사회: 남상우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br>"최근 북한의 경제·금융 개혁: 함의와 과제", 최문 (연변대)<br>"북한 내 금융서비스와 가계대출: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의 사례", 가네쉬 타파 (전 국제농업개발기금 아시아태평양분과 이코노미스트)<br>"이행기 경제의 사금융과 국제제재: 북한에 주는 교훈", 윌리엄 뉴컴 (존스홉킨스대 SAIS) | 윤덕룡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
| 2015.06.23. | NED 공동 국제학술회의 북한 장마당 새 세대: 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br>North Korea's 'Jangmadang' New Generation: Who Are They and What Is Their Impetus for Change? |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br>후원: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축사: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br><br>1세션-사회: 정옥임 (남북하나재단)<br>"북한 장마당 새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br>"북한 시장의 발전과 장마당 새 세대", 박인호 (Daily NK)<br>"장마당 새 세대와 북한 정권의 미래", 박석길 (LiNK 정책연구국)<br><br>2세션-사회: 김미령 (브뤼셀자유대 한-EU연구소)<br>"중국 이행기 경제 속 청년들의 역할", 에릭 피시 (아시아 소사이어티)<br>"관광을 통한 장마당 새 세대와의 교류", 만하이펑 (요동대)<br><br>3세션-사회: 김미령 (브뤼셀자유대 한-EU연구소)<br>"북한의 고등교육과 학생교류", 고동훈 (평양과학기술대)<br>"2000년대 북한 교육의 진화: 국제협력, 엘리트 교육, IT의 역할", 쟌루카 스페자 (NK 뉴스) | 1세션<br>노귀남 (동북아미시 사회연구소)<br>이수정 (덕성여대)<br>강동완 (동아대)<br><br>2세션<br>유은하 (한신대)<br>이종운 (극동대)<br><br>3세션<br>차승주 (전주교육대)<br>딘 울렛 (경남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15.06.30. | Korea Glabal Forum 2015<br>분단 70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br>70 Years of Division: Past, Present, and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 | 개회식: 박재규 (경남대)<br>축사: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br><br>공개강연: 크리스토퍼 힐 (덴버대)<br><br>기조연설: 홍용표 (통일부 장관)<br><br>오찬사: 나경원 (외교통상위원회)<br><br>1세션-사회: 선준영 (경남대)<br>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br>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br><br>2세션-사회: 이수훈 (경남대)<br>천해성 (통일부)<br>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br>프랑수아 니콜라스 (국제관계연구소)<br>크리스찬 바그너 (국제안보문제연구소) | 1세션<br>존 에버라드 (UN 컨설턴트)<br>니시노 준야 (게이오대)<br>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br><br>2세션<br>레세크 브진스키 (호주국립대)<br>쑤하오 (중국외교학원)<br>빌라하리 카우시칸 무임소 (싱가포르 대사)<br>바실리 미헤예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 신라호텔 |
| 2015.08.11. | 중국 사회과학원-연변대 한반도 문제연구소 3자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정세 및 한중협력 | 공동주최: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연변대 | 개회사: 한봉<br>축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br>"북한의 대내외 정세 및 평가",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계승 및 이행: 김정은 체제합법성 토대 분석", 박동훈<br>"북한식 선군정치 방향 고찰", 이영춘<br>"중국외교의 산 방향 및 한반도 지위 변화", 동향송 | | 중국 북경 사회과학원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2세션<br>"위기관리 시각하의 한반도문제", 김강일<br>"북한경제평가 및 남북중 3국경제협력 전망",<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남북러 3국경제협력 고찰", 박건일<br>"두만강 개발과 남북중 3국경제협력 고찰", 임금숙<br><br>3세션<br>"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전망",<br>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한중안보협력의 의의, 공통인식 및 차이", 왕준생<br>"사드 (THAAD):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및 한반도<br>안보딜레마", 정재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중양국의 지정학적 정치경제관계 및 중국의<br>대북전략", 이금휘<br>"전환기의 한중관계: 도전 및 행위", 우림위<br>"한반도의 안보 도전", 왕의성 | | |
| 2015.08.28.-<br>08.29. | IFES-WWC<br>부트캠프 워크숍<br>(1)<br>우드로<br>윌슨센터 공동<br>국제 워크숍<br>(18)<br>Workshop on<br>Nuclear History<br>in the Asia-<br>Pacific | | August 28th<br>Welcome and Introduction: Christian Ostermann<br>(Wilson Center), Leopoldo Nuti (Univ. of Roma<br>Tre), Joun-Yung Sun (Kyungnam Univ.)<br><br>1세션-사회: James Person (Wilson Center)<br>Lyong Choi (London School of Economics)<br>Jong-dae Shin (Kyungnam Univ.)<br>Jooeun Kim (Georgetown Univ.)<br><br>2세션-사회: Leopoldo Nuti (Univ. of Roma Tre)<br>Sergey Radchenko (Aberystwyth Univ.)<br>Vinod Kumar (IDSA New Delhi)<br>Rabia Akhtar (Kansas State Univ.)<br><br>3세션-사회: Matthew Jones (London School of<br>Economics)<br>Akira Kurosaki (Fukushima Univ.)<br>Pang Yang Huei (Singapore Univ. of Technology)<br>Masakatsu Ota (Kyodo News)<br>Nicola Horsburg (Univ. of Oxford)<br><br>August 29th<br>4세션-Roundtable: Archives in the Asia-Pacific<br><br>5세션-Roundtable: Training Nuclear Historians<br><br>6세션-Roundtable: Building a Syllabus for the<br>Nuclear Boot Camp | | 서머셋<br>팰리스<br>서울 |
| 2015.10.01. | Korea Global<br>Forum 2015:<br>EU회의<br>분단 70년:<br>한반도 미래를<br>위한 EU의 역할 | 공동주최:<br>통일부 | 개회사: Dae-Kyu Yoon (IFES)<br>축사: Yong Ho Kim (Minister & Deputy Head,<br>ROK Embassy to the Kingdom of Belgium and<br>European Union) | | 브뤼셀<br>유럽의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High-Level Panal]<br>70 Years of Division: The Role of the EU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br>- Learning After 25 Years of German Reunification | | "Solving th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A Korean Perspective", Yong-Pyo Hong (Minister, Ministry of Unification, ROK)<br>"Solving th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An EU Perspective", Nirj Deva (The EP 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br>"Characteristics and the Prospects for the Kim Jong Un Regime", Kwan-Sei Lee (Kyungnam Univ.)<br><br>1세션-사회: Fraser Cameron (EU-Asia Centre)<br>"Applicability of the Helsinki Process to the Korean Peninsula", John Everard (Former British Ambassador to North Korea)<br>"German Unification and EU Integration: Implications for Korean Integration", Hanns Gunther Hilpert (Head of Research Division Asia,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br>"German Unification and EU Integration: Implications for Korean Integration", Wilfried von Bredow, Philipps-Universität Marburg)<br>"German Unification and EU Integration: Implications for Korean Integration", Tereza Novotna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br>"Policy Options for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Eul-Chul Lim (Kyungnam Univ.)<br><br>2세션-사회: Hosuk Lee-Makiyama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br>"North Korean Perspective on Economic Engagement", Michael P. Spavor (Paektu Cultural Exchange)<br>"EU Perspective on Capacity Building", Rudiger Frank (Univ. of Vienna)<br>"The Kim Jong Un Regime and Tourism", Dean Ouellette (Kyungnam Univ.)<br>"North Korea's New Generation and Perspective for Social Change", Sung Kyung Kim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 | |
| 2015.11.10. | Korea Global Forum 2015: 미국회의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19)<br>미국과 동북아 관계에 대한 한반도 통일의 정치, 안보 경제적 영향<br>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Impacts of Korean Unification on Relations with the U.S. and on Northeast Asia | 공동주최: 통일부, 우드로 윌슨센터 | 환영사: Welcoming Remarks<br>Jane Harman (Wilson Center)<br>Opening Remarks<br>축사: 박재규 (경남대)<br><br>기조연설: Bill Richardson (former Governor of New Mexico)<br><br>질의응답: 천해성 (통일부)<br><br>1세션-사회: Stapleton Roy (Wilson Center)<br>Peter Beck (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s)<br><br>오찬연설: Sung Kim (US Department of State)<br><br>2세션-사회: Robert Daly (Kissinger Institute for US and China)<br>Stapleton Roy (Wilson Center) | 1세션<br>마상윤 (가톨릭대)<br>딘 울렛 (경남대)<br>Balbina Hwang (American Univ.)<br><br>2세션<br>미치시타 나루시게 (GRIPS)<br>김준형 (한동대)<br>차창훈 (부산대) | 미국 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15.12.11.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0) -냉전사 (8) 역사적 맥락에서 본 남북한 관계 Inter-Korean Relations in Historical Context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 발표: 신종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홍석률 (성신여대)<br>미치시타 나루시게 (GRIPS)<br>James Person (Wilson Center) | | 미국 워싱턴 D.C |
| 2016.03.25. | 연구소-일본게이오대 현대한국 연구센터 공동 심포지엄 새로운 전화기를 맞고 있는 김정은 체제 (전략대화) | | 개회사: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br>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핵·미사일 실험 이후 북한-내정을 중심으로", 이관세 (경남대)<br>"핵·미사일 실험 이후 북한-대외관계를 중심으로", 히라이와 슌지 (간사이가쿠인대)<br><br>2세션-사회: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br>"국제사회의 대응 (일본의 대응 포함)", 구라타 히데야 (방위대)<br>"국제사회의 대응 (남북관계 포함)", 임을출 (경남대) | 1세션<br>히라이 히사시 (리츠메이칸대)<br>김동엽 (경남대)<br><br>2세션<br>김정 (북한대학원대)<br>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 일본 게이오대 |
| 2016.04.05. | 대만 담강대 국제연구학부 공동주최 국제회의 동아시아 안보질서 속의 한국과 대만 South Korea, Taiwan, and East Asian Security | 공동주최: 대만 담강대 국제연구학부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축사: 왕 가오청 (담강대)<br><br>1세션-사회: 왕 가오청 (담강대)<br>"차이잉원 정부의 과제와 동아시아 안보딜레마", 후 칭산 (담강대)<br>"국가 대외행동에 미치는 국내정치의 영향", 랴오 샤오쥬안 (담강대)<br>"신정부하 대만과 남미관계", 프랜시스코 루이스 페레즈 익스포지토 (담강대)<br>"대북정책의 국내정치", 김근식 (경남대)<br>"개성공단 폐쇄의 안보적 함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2세션-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중국과 대만의 윈-윈 정치협상: 전통국제법의 독일식 발전의 시각", 궈 치오칭 (담강대)<br>"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대만", 리 다중 (담강대)<br>"동아시아 지역 안보통합에서 아세안의 중심성: 현실인가 환상인가?", 린 뤄이우 (담강대)<br>"대북봉쇄인가 대북개입인가: 한국의 시각", 이관세 (경남대)<br>"미국과 중국의 틈새에서: 사드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폐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왕 가오청 (담강대) |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16.04.19.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1)-냉전사 (9) 냉전과 두 개의 한국<br>The Cold War and the Two Koreas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 개회사: Christian F. Ostermann (Wilson Center), Joun-yung Sun (Kyungnam Univ.)<br><br>1세션<br>"Sympathy, Pride and Fraternity in Sino-North Korean Relations",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br>"The Lowest Ebb, Sino-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1966-1969", Yafeng Xia (Long Island Univ.)<br><br>2세션<br>"U.S.-China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during Detente period in 1970s", Seuk-ryul Hong (Sungshin Women's Univ.)<br>"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Historical Trends since the 1970s", Sang-yoon Ma (Catholic Univ.)<br><br>3세션<br>"The U.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1947 to 1966: From 'Little Strategic Interest' to Alliance Partner in Vietnam", William Stueck (Univ. of Georgia)<br>"The Danger is Two-Fold': Syngman Rhee's Views on De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in Asia, 1955-1957", Charles Kraus (Wilson Center)<br><br>4세션<br>"North Korean Orphans in East Germany in the 1950s", Liana Kang-Schmitz<br>"New Evidence on the 1956 August Plenum of the Korean Worker's Party", James Person (Wilson Center)<br><br>5세션<br>"The Second Korean War and its Impact on Communist Bloc Relations", Mitchell Lerner (Ohio State Univ.)<br>"The Sino-Soviet Split: North Korea's Gain", Bernd Schaefer (Wilson Center)<br><br>6세션<br>"North Koreans on the Caribbean Spice Island: Operation Urgent Fury, Inter-Korean Competition, and Kim Il Sung's Internationalism", Benjamin Young (George Washington Univ.)<br>"The Seoul Olympic Games and Inter-Korean Relations", Jong-dae Shi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 | 미국 워싱턴 D.C |
| 2016.06.15. | FNF-IFES 국제 워크숍 (1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br>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Sanctions | 공동주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후원: BNK 경남은행,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환영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축사: 김형석 (통일부)<br><br>1세션-사회: 선준영 (경남대)<br>"제재의 실제 (Sanctions in Practice)", |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윌리엄 뉴컴 (존스홉킨스대)<br>"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br>드미트리 키쿠 (UN 전문가)<br>"북한과 국제제재", 닐 와츠 (UN 전문가)<br>"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략", 신범철 (외교부)<br><br>2세션-사회: 이수훈 (경남대)<br>"대북 제재와 중국", 공 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br>"대북제재 북한에 득인가 독인가?", 강미진 (데일리NK)<br>"대북 제재로 본 국제고립과 지역간 불평등", 이용석 (스탠포드대)<br>"North Korea Sanctions Conference: Talking Points",<br>크리스토퍼 그린 (SinoNK)<br>"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
| 2016.09.28. | 연변대 공동 세미나<br>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현황,<br>과제 및 전망 | 공동주최:<br>중국 연변대 | 개회식: 이종림 (연변대), 박찬규 (연변대),<br>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br>"연변주 관광발전 실태와 전망", 서철준 (연변대)<br>"환동해 관광프로젝트 (크루즈관광개발) 추진 실태와 과제", 유환경 (연변대)<br>"연변축제의 발전과 한중교류 증진", 장동석 (경남대)<br><br>2세션<br>"북중 간 관광교류협력의 실태와 전망", 최철호 (연변대)<br>"두만강지역 중북 물류와 관광협력 실태", 정철희 (연변 천우그룹)<br>"한중 간 협력가능 관광분야 및 추진 전략", 고계성 (경남대)<br><br>3세션<br>"한국의 장류 산업 현황과 전망", 이승철 (경남대)<br>"한국의 김치 산업 현황과 전망", 최선욱 (경남대)<br>"중국 연변조선족 전통식품 현황과 전망", 이범수 (연변대) | | 중국 연변 |
| 2016.11.05.<br>-11.12. | IFES-WWC 부트캠프<br>워크숍 (2)<br>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2)<br>The Asia-Pacific Nuclear History Institute (APHNI) | 공동주최:<br>우드로 윌슨센터 | * Saturday, November 5<br>Welcoming Dinner<br>- Remarks from Sun Jounyung, Jongdae Shin, Leopoldo Nuti, and Christian Ostermann<br><br>* Sunday, November 6<br>Introduction to NPIHP and APNHI / Led by Christian Ostermann and Leopoldo Nuti<br>The Dawn of the Atomic Age: Manhattan Project, Hiroshima, and the Soviet | | 경기도 파주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Nuclear Program / Led by David Holloway and Marty Sherwin<br>State Specific Factors and Development from Decision to Delivery / Led by Joseph Pilat<br>Lunch<br>Student Brief / Sayuri Romei<br>Near Uses: The Bomb in Cold War Crises / Led by Marty Sherwin, David Holloway, and James Person<br><br>* Monday, November 7<br>Country Case Study: South Korea / Led by Lyong Choi and Hyung-sub Choi<br>Student Brief / James Lee<br>Student Brief / Hyunji Rim<br>Country Case Study: North Korea / Led by James Person<br>Student Brief / Alex Lee<br>Student Brief / Dani Nedal<br>Writing International History / Led by Christian Ostermann, David Holloway and Leopoldo Nuti | | |
| 2016.11.05.<br>-11.12. | IFES-WWC 부트캠프 워크숍 (2)<br>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2)<br>The Asia-Pacific Nuclear History Institute (APHNI) | 공동주최:<br>우드로 윌슨센터 | * Tuesday, November 8<br>Archives and Archival Research / Led by Christian Ostermann, Elisabeth Roehrlich, Yogesh Joshi, and Hsiao-thing Lin<br>Oral Histories and Interviews / Led by Elisabeth Roehrlich and Marty Sherwin<br>Country Case Study: Taiwan / Led by Hsiao-ting Lin<br>Country Case Studies: Pakistan and India / Led by Rabia Akhtar and Yogesh Joshi<br>Student Brief / Vaishnavi Tannir<br>Student Brief / Debak Das<br><br>* Wednesday, November 9<br>The Evolution of Indonesia's Nuclear Program / Led by Pratama Yudha Pradheksa<br>Student Brief / Clarissa Ai Ling Lee<br>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 Led by Jiwhan Hwang<br>Field Trip<br><br>* Thursday, November 10<br>Extended Nuclear Deterrence and Alliances / Led by Leopoldo Nuti, Akira | | 경기도<br>파주 |
| | | | Kurosaki, and Masakatsu Ota<br>Student Brief / Daekwon Son<br>Student Brief / Beenish Altaf<br>Nuclear Latency / Led by Joseph Pilat, Akira Kurosaki, and Masakatsu Ota<br>Student Brief / Tianjiao Jiang<br>Governing the Atom: The IAEA and the NPT / Led by Elisabeth Roehrlich, Leopoldo Nuti, and David Holloway | |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16.11.05.<br>-11.12. | IFES-WWC 부트캠프 워크숍 (2)<br>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2)<br>The Asia-Pacific Nuclear History Institute (APHNI) | 공동주최:<br>우드로 윌슨센터 | * Friday, November 11<br>Nuclear Abandonment: South Africa / Led by Anna-Mart van Wyk<br>Country Case Study: China / Led by Nicola Leveringhaus<br>Student Brief / Rustam Khan<br>Student Brief / Yeon-jung Ji<br>Nuclear Energy, Weapons, and the Environment / Led by Toshihiro Higuchi<br>Student Brief / Selim Sazak<br>Roundtable on the Asia-Pacific Nuclear History Institute / Led by Christian Ostermann, Jongdae Shin and Leopoldo Nuti | | 경기도<br>파주 |
| 2016.12.08. | 경남은행 후원 국제학술회의 (2)<br>북한의 이동, 북한 사람의 이주<br>Mobile North Koreans in a Global Age |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후원: BNK 경남은행,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멜 거토브 (포틀랜드주립대)<br>"재영 북한난민의 (탈)분단 실천", 이수정 (덕성여대)<br>"재일조선인에 있어서의 <조국>의 의미: 조선학교 학생들과 같이 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오리 야마모토 (아이치현립대)<br>"합법과 불법의 변계: 재중 탈북 여성들의 곤경 (困境)", 전신자 (연변대)<br><br>특별세션-사회: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윤수연 (사진가)<br><br>2세션-사회: 칼라 파크 프리먼 (존스홉킨스대)<br>"아태평양 지역의 강제 이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북한 난민 이동", 스리프라파 페차라메스리 (마히돌대)<br>"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사회적 기업 모델의 가능성", 에릭 비데 (르망대)<br>"북한 난민? 쟁점과 실제", 송영훈 (강원대) | 김현미 (연세대)<br>정은이 (경상대)<br>크리스토퍼 그린 (SinoNK)<br><br>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br>김화순 (한신대)<br>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7.06.14. | FNF-IFES 국제 워크숍 (13)<br>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문화<br>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Mordernization and New Consumerism | 공동주최:<b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축사: 천해성 (통일부)<br>1세션-사회: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온라인 시장의 현대화: 현황과 전망", 채드 오캐럴 (NK News)<br>"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서비스 산업",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조선익스체인지)<br>"최근 비즈니스의 현황과 투자 기회", 폴 치아 (GPI 컨설턴시)<br><br>2세션-사회: 토니 미셸 (한국기업경영자문 (KABC))<br>"신소비문화: 상품, 포장 및 소비시장", 마이클 스페이버 (백두문화교류)<br>"국내 금융과 현대화 추진", 최문 (연변대)<br>"변화의 물결: 국산화, 현대화, 시장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17.09.08. | 오키나와 평화포럼 (Peace Forum in Okinawa 2017) 아시아 평화커뮤니티 구축 Building a Peace Community in Asia | 공동주최: 일본 소카대, 대만 중국문화대 | 개회사: Yoshihisa Baba (Soka Univ.)<br><br>1세션<br>"[Keynote Report] Creating Future Peace: Inheritance of War Experience", Hideki Tamai (Soka Univ.)<br>"Thinking Peace for the Future: A Case of Peace Campaign into the Future", Okinawa Soka Gakkai Peace Committee<br>"Imagining the Recovery of the Lost Lands: Dark Tourism in Sino-North Korea Borderland", Sung-Kyung Kim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Aiming for Real "Peace: The Republic of China's Efforts in Building a Constitutional Democracy since WWII", Wei-jen Hu (Chinese Culture Univ.)<br><br>2세션<br>"[Keynote Report] Making a Sea of Peace: the Collaborations for Human Security", Hironobu Asaga (Soka Univ.)<br>"An Unlikely (but Still Peaceful) Community: South Korea and its Neighbors", Jung Kim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The Maritime environmental security and the Collaborative Confidence Building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Dong-Yub Kim (IFES)<br>"Casting Swords into Plowshares: Experiences of Cross-Strait Rapprochement under President Ma Ying-Jeou", Chien-min Chao (Chinese Culture Univ.)<br>"Confucianism and Making a Sea of Peace in Northeast Asia", Chien-kuo Pang (Chinese Culture Univ.)<b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and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From the Viewpoint of "Sub-Regionalism"—", Kenji Nakayama (Soka Univ.) | | 일본 오키나와 |
| 2017.11.08. | 연구소-일본게이오대 현대한국 연구센터 공동 심포지엄 북한의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략대화) | | 1세션-사회: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 핵·미사일 능력 평가와 정세 전망",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토자키 히로시 (일본 국제문제연구소)<br><br>2세션-사회: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br>"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 히라이 히사시 (리츠메이칸대)<br>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세션<br>이토 코타로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br>이관세 (경남대)<br><br>2세션<br>김정 (북한대학원대)<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 일본 게이오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17.11.29. | FNF-IFES 국제 워크숍 (14)<br>북중관계: 진화, 상호의존, 접경지대<br>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Evolution, Interdependence, and the Frontier | 공동주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축사: 조현 (외교부)<br><br>1세션-사회: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br>"북중관계의 신호 읽기", 아담 캐스카트 (영국 리즈대)<br>"정치적 차원의 북중관계", 황재호 (한국외대)<br><br>2세션-사회: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경제적 차원의 북중관계", 옌 위에 (중국 상해리신회계금융대)<br>"북중 접경지역의 상호의존과 변화동학", 정은이 (한국수출입은행) |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17.12.13. | 경남은행 후원 국제학술회의 (3)<br>변화하는 북한: 분단, '대중' 문화, 그리고 일상<br>North Korea in Transition: Perspectives on Division,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 | 공동주최: 경남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br>후원: BNK 경남은행,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축사: 조명균 (통일부)<br><br>"북한 일상의 변화 가능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을 중심으로", 추아 뱅 홧 (싱가포르국립대)<br><br>1세션-사회: 서정민 (연세대)<br>"냉전 문화와 정동 -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북핵위기의 공포와 무감", 천정환 (성균관대)<br>"'위험한 국민' 만들기: 분단체제와 재일조선인", 조경희 (성공회대)<br>"미국을 직면하고 중국을 상상하다: 냉전 초기 대만 지식인 사례", 이흥 리우 (하와이대)<br><br>2세션-사회: 구갑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대중문화와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이문영 (서울대)<br>"독일통일과 지배문화: 배경, 과정, 그리고 전망", 잉그리트 미테 (독일 기센대)<br>"대중문화 속 아마추어의 위치: <상하이 레인보우 챔버 싱어즈>를 중심으로", 로 샤오밍 (상하이대)<br><br>3세션-사회: 장경섭 (서울대)<br>"외부문화 접속과 상상의 공간", 조정아 (통일연구원)<br>"북한 문화연구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김수철 (한양대)<br>"대중 뉴스문화로서의 "림진강"", 산드라 파히 (일본 소피아대) | 1세션<br>연광석 (북한대학원대)<br>정은이 (한국수출입은행)<br>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br><br>2세션<br>이지연 (한국외대)<br>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br>장윤미 (서강대)<br><br>3세션<br>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br>이수정 (덕성여대)<br>허은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18.02.12.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3)-냉전사 (10)<br>2018년 한반도냉전사 워크샵: 냉전과 한반도<br>International Workshop on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선준영 (경남대)<br>축하메시지: 크리스챤 오스터만 (우드로윌슨센터)<br><br>1세션-사회: 선준영 (경남대)<br>"개발을 위한 기술: 냉전기 '한국형 발전모델의 형성"", 최형섭 (서울과학기술대)<br>"미중데탕트 이후 한중관계: 1972-1992", 이동규 (한국외대)<br>"한국-캐나다 NRX 원자로 협상과 한국-프랑스 재처리 기술 제공 계약의 함의", 최용 (육군사관학교) | 1세션<br>우승지 (경희대)<br>홍석률 (성신여대)<br>마상윤 (가톨릭대)<br>이주영 (UNIST)<br><br>2세션<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정영철 (서강대)<br>정병준 (이화여대)<br>황지환 (서울시립대)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the Cold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 | "1970년대 초 데탕트의 출현과 한국의 대응: 주월한국군 철군을 중심으로", 이신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br><br>2세션-사회: 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br>"북한은 어떻게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는가?: 1957년 내각설립과정을 중심으로", 째르치즈스키 표도르 (NK뉴스)<br>"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br>"전후 이승만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반공주의, 1953-1959", 도지인 (건국대)<br>"북한 핵프로그램의 시작과 성장", 김보미 (통일연구원)<br><br>3세션-사회: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br>"젼바오섬사건은 중국의 의도적 선제공격이었는가?: 1969년 중소국경분쟁 발생원인에 대한 조직 이론적 재해석", 박상연 (육군사관학교)<br>"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신문』과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김도민 (서울대)<br>"포용과 철수: 카터행정부기 미국의 한반도정책", 도퀘이 (서울대)<br><br>4세션-사회: 신종대 (북한대학원대)<br>"흐루시초프의 베를린 장벽 결정요인: 1960년대 초반 중소분쟁의 영향", 김응서 (북한대학원대)<br>"1970년대 중반 서해 사태와 한국 정치", 로버트 라울러 (SinoNK)<br>"자극과 반응: 국교 수립 이전의 한중관", 조청봉 (고려대) | 3세션<br>노경덕 (이화여대)<br>김지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br>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br><br>4세션<br>이동률 (동덕여대)<br>박원곤 (한동대)<br>이상숙 (국립외교원) | |
| 2018.03.04.-03.10. | IFES-WWC 부트캠프 워크숍 (3)<br>우드로 윌슨센터<br>공동 국제 워크숍 (24) | | March 5<br>Opening: "Introduction to NPIHP and APNHI", Leopoldo Nuti (Roma Tre Univ.)<br>Charles Kraus (Wilson Center)<br><br>1세션<br>"Dawn of the Atomic Age", Marty Sherwin (George Mason Univ.)<br><br>2세션<br>"Country Case Study: Soviet Union/Russia", Joseph Torigian (American Univ.)<br><br>3세션<br>Student Presentations - Group #1<br><br>4세션<br>"State Specific Factors and Development: Decision to Delivery", Joseph Pilat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br><br>5세션<br>Student Presentations - Group #2 | | 신라스테이 광화문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6세션<br>“Methodology: Writing International History”,<br>Leopoldo Nuti (Roma Tre Univ.)<br>Joseph Torigian (American Univ.)<br><br>March 6<br>1세션<br>“Nuclear Concept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nd Alliances”,<br>Leopoldo Nuti (Roma Tre Univ.)<br>Akira Kurosaki (Fukushima Univ.)<br>Joseph Pilat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br><br>2세션<br>Student Presentations - Group #3<br><br>3세션<br>“Country Case Study: China”,<br>Nicola Leveringhaus (King’s College London)<br><br>4세션<br>Student Presentations - Group #4<br><br>5세션<br>“Country Case Study: North Korea”,<br>Balazs Szalontai (Korea Univ.)<br><br>6세션<br>“The Cuban Missile Crisis: History and Lessons”,<br>Marty Sherwin (George Mason Univ.) | | |
| 2018.03.04.-<br>03.10. | IFES-WWC<br>부트캠프 워크숍<br>(3)<br>우드로<br>윌슨센터<br>공동 국제<br>워크숍 (24) | | March 7<br>1세션<br>“Methodology: Archives and Oral History Interviews”,<br>Anna-Mart van Wyk (Monash Univ.),<br>Nicola Leveringhaus (King’s College London),<br>Elisabeth Roehrlich (Univ. of Vienna),<br>Charles Kraus (Wilson Center)<br><br>2세션<br>Student Presentations - Group #5<br><br>3세션<br>“Country Case Study: India”,<br>Yogesh Joshi (Stanford Univ.)<br><br>4세션<br>“Country Case Study: Pakistan”,<br>Rabia Akhtar (Univ. of Lahore)<br><br>5세션<br>“Country Case Study: South Korea”,<br>Lyong Choi (Korea Military Academy)<br><br>6세션<br>Student Presentations - Group #6 | | 신라스테이<br>광화문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March 8<br>1세션<br>"Case Study: South Africa and Proliferation",<br>Anna-Mart van Wyk (Monash Univ.)<br><br>2세션<br>Student Presentations - Group #7<br><br>3세션<br>"Governing the Atom: The IAEA and the NPT",<br>Elisabeth Roehrlich (Univ. of Vienna),<br>Joseph Pilat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br><br>March 9<br>1세션<br>Student Presentations - Group #8<br><br>2세션<br>"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br>Jean Lee (Wilson Center),<br>Marty Sherwin (George Mason Univ.)<br><br>3세션<br>"Nuclear Energy and the Environment",<br>Hyung-Sub Choi (Seoul National Univ. of S&T)<br><br>4세션<br>"Nuclear Concepts: Latency and Hedging",<br>Joseph Pilat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br>Akira Kurosaki (Fukushima Univ.)<br><br>5세션<br>Student Presentations - Group #9 | | |
| 2018.05.02. | 북한대학원대 공동 서울외교 대사부인협회 (ASAS) 초청 설명회<br>Changing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주최:<br>북한대학원대 | Welcoming Remarks: Kwan-sei Lee (IFES)<br><br>"Ministry of Unification Briefing: Results of the Recent Inter-Korean Summit"<br><br>"Current Agricultural Situation of North Korea",<br>Pilju Kim (Pyongyang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18.05.18. | 2018 KGF:<br>Kazakhstan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 디아스포라 역할 | 주최: 통일부,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br>공동주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 민주평통 중앙아시아 협의회 |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김로만 (카자흐스탄 국회의원)<br>전승민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br>축사: 레오니드 프라코펜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br>갈림까이르 무타노프 (카자흐국립대),<br>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형일 통일부 정책협력관 대독)<br><br>기조연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br><br>1세션-사회: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br>"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박형일 (통일부)<br>"남북한 통일과 러시아",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아카데미 동방연구소),<br>정기풍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 1세션<br>이재완 (민주평통 중앙아협의회)<br>Aldabek N.A (전 카자흐국립대 교수)<br>김은옥 (민주연구원)<br>염나탈리 (카자흐 국립대)<br><br>2세션<br>오충석 (통일부)<br>아딜카우케노프 (알마티 중국연구소)<br>천발렌틴 (러시아 언론인) | 알마티 카자흐스탄 국립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변국의 역할", 이정철 (숭실대)<br><br>2세션-사회: 김게르만 (카자흐국립대 한국학센터)<br>"한민족 통합을 위한 고려인 동포의 역할", 이진영 (인하대)<br>"동포들을 단결시키는 민족의 과거와 미래", 레오니드 페트로브 (호주 국립대)<br>"CIS 고려인과 한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블라지미르 (우즈벡 작가)<br>"고려인 공동체가 지니는 유라시아 지역 한민족 네트워크 중심 가능성 진단", 황영삼 (한국외대 중앙아연구소)<br><br>3세션 (원탁회의)-사회: 한넬리 카자흐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 대학교 한국학센터),<br>패널: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신나데즈 티모페브나 (카자흐외대)<br>칼리악바르 아이마라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br>투라르벡 알리야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br>박야나 안드레브나 (카자흐외대)<br>아브디마나포바 쉬나르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br>카심자노바 만슈크 (알마티 주재 미국 대사관)<br>이올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 | |
| 2018.05.31. | 2018 KGF: Japan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 | 주최: 통일부<br>공동주관: 북한대학원대, 게이오대 동아시아 연구소 현대한국 연구센터 |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환영사: 하세야마 아키라 (게이오대)<br>축사: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br>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br><br>기조연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형일 통일부 정책협력관 대독)<br><br>1세션-사회: 강인덕 (경남대)<br>"남북관계 변화와 한일관계: 일본의 입장",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br>"남북관계 변화와 한일관계: 한국의 입장",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2세션-사회: 오구라 카즈오 (아오야마가쿠인대)<br>"북미관계 변화와 한일관계: 일본의 입장", 도구치 히데시 (정책연구대학원대)<br>"북미관계 변화와 한일관계: 한국의 입장", 김정 (북한대학원대)<br><br>3세션-사회: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br>"한반도 평화와 한일관계의 미래"<br>토론: 전체 참석자 | 1세션<br>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br>박정진 (쓰다주쿠대)<br><br>2세션<br>고미 요지 (도쿄신문)<br>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br>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일본 게이오대 |
| 2018.06.21. | 제3차 NED 공동 국제학술회의 북한의 변화: 새로운 경제전략과 북한주민의 삶 Changes in North Korea: New Economic Strategy |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br>후원: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북한대학원대 |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기조연설: 칼 거시만 (미국민주주의기금 (NED))<br><br>1세션-사회: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최근 북한의 변화: 시장활동과 제재의 영향", 채드 오캐럴 (코리아리스크그룹)<br>"새로운 경제발전과 미래의 변화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최문 (연변대)<br>"시장화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평가",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 | 1세션<br>안드레이아브라하미안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br>조진희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 지원센터)<br><br>2세션<br>이금순 (통일연구원)<br>김병욱 ((사)북한 개발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and People's Livelihoods | |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과 북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2세션-사회: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 지성호 (나우 (NAUH))<br>이상용 (Daily NK)<br>박석길 (LiNK 한국지부) | |
| 2018.06.27. | 2018 KGF: Seoul 정전 65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br>The 6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주최: 통일부<br>주관: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북한대학원대 | 사회: 김성경 (북한대학원대)<br>개회식: 박재규 (경남대)<br>축사: 김덕룡 (민주평통), 정세균 (국회의원)<br>기조연설: 조명균 (통일부)<br><br>1세션-사회: 이수혁 (국회의원)<br>좌담: 조셉 디트라니 (미주리주립대), 천동샤오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다나카 히토시 (일본종합연구소),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원 (IMEMO))<br><br>2세션-사회: 이상만 (중앙대)<br>"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주태 (통일부)<br>"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br>트로야코바 타마라 (극동연방대)<br>"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 장혜지 (길림대) | 2세션<br>조봉현 (IBK 경제연구소)<br>이석기 (산업연구원)<br>진리 (우드로윌슨센터)<br>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 신라호텔 |
| 2018.07.05. | 2018 KGF: Seoul 북한·통일학 신진학자포럼 | 주최: 통일부<br>주관: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북한대학원대,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 사회: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남북합의서의 역사적 변화", 정대진 (아주대)<br>"The Decline of Socialist Fashion in North Korea Since the 1980s", Jean Do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br>"북한 개혁·개방의 성공 요건", 문용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Yon Ho Kim (Korean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br>Martina Sophie Abergsomogyi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weden)<br>Lyubov Nikolaevna Yakovleva (Moscow State Linguistic Univ.)<br><br>토론에 대한 발표자 답변<br>자유토론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18.09.15. | 2018 KGF: China 한반도 신경제구상,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한·중협력 | 주최: 통일부<br>주관: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북한대학원대,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 개막식<br>사회: 양광빈 (중국인민대)<br>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유원춘 (중국인민대)<br>축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형일 통일부 국장 대독)<br>닝푸쿠이 (중국외교부)<br>최영삼 (주중 한국대사관)<br><br>기조연설<br>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기조발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한중협력", 스인홍 (중국인민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br>1세션-사회: 황대혜 (중국인민대) | 1세션<br>안국산 (연변대)<br>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영훈 (SK경제연구소)<br>보건운 (중국인민대)<br>마덕용 (중국인민대) | 중국 인민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한중협력 방안",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중국의 일대일로와 한중 에너지 협력 발전 구상", 허근화 (중국인민대)<br>"한국의 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상호연계방안 모색", 리우루이 (중국인민대)<br><br>2세션-사회: 곽태환 (경남대)<br>"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역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br>"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방장평 (중국인민대)<br>"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여건조성 방안 및 전망", 황대혜 (중국인민대)<br>"한국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여건조성 방안 및 전망",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
| 2018.10.02. | 2018 KGF: Germany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 주최: 통일부<br>주관: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북한대학원대,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 | 사회: 이은정 (베를린자유대)<br>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축사: 정범구 (주독일 한국 대사)<br>기조연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대독)<br><br>1세션- 사회: 이은정 (베를린자유대)<br>"동서독의 대화협력 정책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 그리고 통일",<br>Thomas Meyer (전 도르트문트공과대 교수),<br>Erich Hahn (전 동독사회과학원 마르크스-레닌주의철학연구소장)<br>"한국의 교류협력 정책과 통일문제", 박명규 (서울대)<br><br>2세션- 사회: 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전망",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독일에서 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전망과 EU 역할",<br>Eric Ballbach (독일 국제정치·안보연구소 (SWP))<br>"유럽에서 평화체제 구축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Bernt Berger (독일 외교협회) | 1세션<br>박명림 (연세대)<br>이봉기 (평화문제연구소)<br>Detlef Kuehn (전 전독문제연구소장)<br><br>2세션<br>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Norbert Baas (전 주한 독일 대사)<br>Hannes Mosler (베를린자유대) | 독일 베를린 자유대 |
| 2018.10.07. | Taiwan/Japan/Korea Peace Forum 2018 양안관계 및 동아시아 발전 전망<br>Prospects of Cross-strait Relations and East Asian Development | 공동주최: 일본 소카대학, 대만중국 문화대 | 기조연설: "Taiwan in the New Balance of Power in East Asia", Chi Su (Taipei Forum)<br><br>1세션<br>"Impacts of US-China Rivalry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Korean Peninsula", Yong-Il Moon (IFES)<br>"Averting War across the Taiwan Straits: Lessons from the "Thucydidies Trap"", Hsuan-Hsiang Lim (Chinese Culture Univ.)<br>"A Study of Cross-strait Relations with the Perspectives of Network Analysis", Chein-kuo Pang (Chinese Culture Univ.)<br><br>2세션<br>"The Political Logic of Globalizing and De-industrializing East Asian Democracies", Jung Kim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 1세션<br>Edward I-Hsin Chen (Chinese Culture Univ.)<br>Hsiao-Yun Yu (Chinese Culture Univ.)<br>Kenji Nakayama (Soka Univ.)<br><br>2세션<br>Philip Hsu (National Taiwan Univ.)<br>Yunchang Jeffrey Bor (Chinese Culture Univ.) | 대만 중국문화대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East Asia's Developments and Localized Economic Zones: A "Sub-Regionalism" Perspective", Kenji Nakayama (Soka Univ.)<br>"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Through 'Border Tourism'", Hideki Tamai (Soka Univ.)<br><br>3세션<br>"Elites' Cooperation as a Means of Regional Cooperation", Youngsoo Yu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Abe's Security Policy towards Asia", Minoru Koide (Soka Univ.)<br>"New Trends in East Asian Security", Kaocheng Wang (Tamkang Univ.) | Yong-Il Moon (IFES)<br><br>Kwei-Bo Huang (National Chengchi Univ.)<br>Jung Kim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Gregory Coutaz (Chinese Culture Univ.) | |
| 2018.11.15. | 2018 KGF: United States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br>A New Path Forward: Charting a Roadmap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주최: 통일부<br>주관: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북한대학원대, 우드로 윌슨센터 |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환영사: Jane Harman (우드로윌슨센터)<br>축사: Robert Litwak (우드로윌슨센터)<br>기조연설: 조명균 (통일부장관)<br><br>1세션-사회: 안호영 (북한대학원대)<br>좌담: 고유환 (동국대), 이정철 (숭실대), Jean H. Lee (Wilson Center), Laura Rosenberger (독일 마셜펀드), Joseph Yun (미 국무부)<br><br>2세션-사회: Robert Litwak (우드로윌슨센터)<br>한국측<br>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안호영 (북한대학원대), 고유환 (동국대),<br>이정철 (숭실대),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문용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미국측<br>Jean H. Lee (Wilson Center), Soojin Park (Wilson Center), Laura Rosenberger (전 미 국가안보회의 한·중 담당), Jung Pak (브루킹스연구소), Shihoko Goto (Wilson Center), Stapleton Roy (Wilson Center), Robert Daly (Wilson Center) | Yunchang Jeffrey Bor (Chinese Culture Univ.)<br>Yong-Il Moon (IFES)<br><br>Kwei-Bo Huang (National Chengchi Univ.)<br>Jung Kim (Univ. of North Korean Studies)<br>Gregory Coutaz (Chinese Culture Univ.) | 미국 워싱턴 D.C |
| 2018.11.16. | 우드로 윌슨센터 공동 국제 워크숍 (25)<br>한국현대사 워크샵<br>Workshop on Contemporary Korean History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 1세션<br>"Kim Il Sung's Visit to Beijing, 1975", Joseph Torigian, Jongdae Shin<br><br>2세션<br>"Atomic Independence: South Korea's Entry into a Non-Proliferation Regime in 1975", Mina Lee<br>"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from the Administrations of Park Jung Hee to Kim Dae Jung", Shin Yon Kim<br><br>3세션<br>"New Perspectives on the Korean War and North Korean-Middle Eastern Relations: A Combination of Archival Research and Media Analysis", Balazs Szalontai<br>"Korea's "Two King" Problem: Legacy of Conflict and Political Order in East Asia", Sheila Miyoshi Jager | | 미국 워싱턴 D.C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4세션<br>"Researching Survillance in Post-War North Korea, 1954-1990s: Mixing Methods, Going Beyond the Archives",<br>Benjamin Katzeff Silberstein<br>"North Korean Ideology and the Archives: Reconceptualizing Periodization and Heterodoxy", Thomas Stock<br><br>5세션<br>"A Bridg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North Korea's Perceptions and Policies towards Korean-Americans during the Cold War", Kelly Hur, Patrick Chung | | |
| 2018.11.28. | FNF-IFES 국제 워크숍 (15)<br>한반도 전환기의 교류와 협력: 경험과 새로운 방향<br>Engaging North Korea: Past Experience and New Directions | 공동주최:<b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서울사무소<br>후원: BNK 경남은행, 북한대학원대, 경남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크리스찬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br>1세션-사회: 존 델루리 (연세대)<br>"화해의 일년을 평가하며: 남북 관계와 햇볕정책의 교훈", 에이든 포스터-카터 (리즈대)<br>"남북관계와 평화로의 여정: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 안호영 (북한대학원대)<br>"북한과의 경제협력: 계획, 제약조건,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김병연 (서울대)<br><br>2세션-사회: 김성경 (북한대학원대)<br>"북한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이해: 양상, 활용, 그리고 전망", 버지니 그레젤직 (애스턴대)<br>"스포츠외교 2018: 남북 스포츠교류의 가치와 향후 과제", 김동선 (경기대)<br>"북한과의 교류: 관광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기회",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남북한 경제교류 바로보기: 원대한 꿈일까 혹은 그 부작용에 관하여",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FPRI) |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19.05.15. | Peace Forum 2019<br>동아시아의 갈등, 협력 그리고 평화<br>Conflict, Cooperation, and Peace in East Asia | 공동주최:<br>일본 소카대, 대만 중국문화대 |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환영사: Yoshihisa Baba (소카대), Chien-min Chao (중국문화대)<br>축사: 김봉현 (제주평화연구원)<br><br>기조연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br><br>1세션-사회: 안호영 (북한대학원대)<br>"협력과 갈등: 동아시아 갈등 근절을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협력의 역할", Hartmut Lenz (소카대)<br>"세계경제거버넌스에서 한중일 3개국 협력에 대한 전후관계상 영향", Jonathan Malcolm Kuckhurst (소카대)<br>"민주적 확전에서 민주적 자제로: 한일 국제분쟁의 청중비용", 김정 (북한대학원대)<br><br>2세션-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거대한 위험: 차이잉원 대만 총통하의 양안관계", Chien-min Chao (중국문화대)<br>"일대일로와 대만의 기회 및 도전", Chien-kuo Pang (중국문화대)<br>"미중 갈등시기 양안관계: 수렴인가 확산인가",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세션<br>Hideki Tamai (소카대)<br>Chien-kuo Pang (중국문화대)<br>김용복 (경남대)<br><br>2세션<br>문용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Jonathan Malcolm Kuckhurst (소카대)<br>Hsuan-Hsiang Lin (중국문화대)<br><br>3세션<br>Hartmut Lenz (소카대)<br>Chien-min Chao (중국문화대)<br>양길현 (제주대) | 제주 한국SGI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3세션-사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새로운 남북관계의 도전과 과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협력적인 갈등 해결의 가능성: 남한과 북한간의 갈등에 대한 사례연구", Hideki Tamai (소카대)<br>"중국과 동아시아 안보: 중국의 문화 이상을 활용한 신질서 구상", Hsuan-Hsiang Lin (중국문화대) | | |
| 2019.06.19. | FNF-IFES 국제 워크숍 (16)<br>북한의 도시: 변화와 교류<br>Urban North Korea: Changes and Exchanges | 공동주최:<b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서울사무소<br>후원: 경남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크리스찬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br>1세션-사회: 김현수 (단국대)<br>"김정은 체제하의 사회주의 도시 계획: 평양", 임동우 (홍익대)<br>"도시개발과 북한의 부동산 시장", 정은이 (통일연구원)<br>"수도를 넘어서: 신의주 사례", 테오 클레멘트 (킹스칼리지런던)<br><br>2세션-사회: 이상준 (국토연구원)<br>"북한내 기업적도시의 형성과 지식교류의 역할", 캘빈 추아 (조선익스체인지)<br>"개성공업지구, 혹은 신개성",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br>"북한 도시, 도시 계획, 건축 및 고고학: 국제 교류", 엘리자베뜨 샤바널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EFEO]한국분원)<br>"북한의 도시관광: 교류의 장과 새로운 기회", 사이먼 코커렐 (고려관광) |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19.09.23. | 연구소 47주년-북한대 30주년 국제학술회의 | 공동주최:<br>북한대학원대 | 사회: 유영수 (북한대학원대)<br>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기조연설: 김연철 (통일부)<br><br>1세션-사회: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좌담: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미래"<br>칼라 프리먼 (존스홉킨스대)<br>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br>진징이 (북경대)<br>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br><br>2세션-사회: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북한 연구의 과제와 전망"<br>김영수 (서강대),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 2세션<br>안호영 (북한대학원대)<br>최완규 (신한대)<br>박순성 (동국대)<br>최대석 (이화여대)<br>유호열 (고려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20년대 주요 학술회의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20.02.06. | 한국냉전학회 주관,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워크숍 냉전의 과학, 기억 그리고 체제 | 공동주최: 우드로 윌슨센터 주관: 한국냉전학회 |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축사: 크리스챤 오스터만 (우드로윌스센터)<br><br>1세션-사회: 신종대 (북한대학원대)<br>"핵 기술의 사회기술시스템: 1950-70년대 한국의 사례", 김성준 (대한민국역사박물관)<br>"석유, 달러, 그리고 소련의 붕괴", 이정하 (서울대)<br>"냉전기 미국의 아태정책과 에너지 안보", 조원선 (육군사관학교)<br><br>2세션-사회: 백원담 (성공회대)<br>"1960-1970년대 접경지역 전략촌의 형성과 냉전 경관-철원", 전원근 (숙명여대)<br>"분경에서 탄생한 현대 파주-도시 인프라와 지역 사회의 형성을 중심으로", 정영신 (가톨릭대)<br>"고성 DMZ 박물관의 냉전과 분단 전시 비평", 송영훈 (강원대)<br><br>3세션-사회: 김명섭 (연세대)<br>"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 구성", 신욱희 (서울대)<br>"한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정병준 (이화여대)<br>"샌프란시스코체제와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 남기정 (서울대) | 1세션<br>이주영 (UNIST),<br>노경덕 (이화여대),<br>최용 (육군군사학교)<br><br>2세션<br>강성현 (성공회대)<br>김민환 (한신대)<br>전영선 (건국대)<br><br>3세션<br>최희식 (국민대)<br>이석우 (인하대)<br>문용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20.08.25. | 인도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 (ORF) 공동 웨비나 (웹세미나) 한반도의 안정성: 중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How has China's Interests Evolved?) | 공동주최: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 (ORF) | 기조연설: 박재규 (경남대)<br><br>발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br>김성경 (북한대학원대)<br>만프릿 세티 (CAPS연구소)<br>스리칸트 콘다팔리 (네루대) |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20.09.08. | 2020 KGFP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br>"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 성과 평가와 전망" | 주최: 통일부<br>세션주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발표: "정면돌파전의 경제분야 평가 전망", 임을출 (경남대)<br>"정면돌파전의 외교군사적 평가와 전망", 김동엽 (경남대) | 이영훈 (SK경제 경영연구소)<br>이정철 (숭실대) | 신라호텔 |
| 2020.10.07. | FNF-IFES 국제 워크숍(17) 북한과 세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평가, '다시'보기, '재'연결 | 공동주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서울사무소 |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크리스찬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br>1세션-사회: 황지환 (서울시립대)<br>"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및 외교의 재평가", 김태경 (북한대학원대), |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North Korea International: (Re)Evaluating, (Re)Viewing, and (Re)Connecting in a COVID World |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제재에 적응하기: 부정 행동 차단과 협력 촉진", 박준의 (한국연구재단)<br>"코로나19 사태 이후 남북관계: 정책 및 전망 재평가", 리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br>"북한과 세계: 유럽의 역할 재정의", 테레자 노보트나 (EUROPEUM)<br><br>2세션-사회: 딘 올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과의 인도주의적 관계 재설정?: 역사로부터의 교훈", 나자닌 자데-커밍스 (호주 디킨대)<br>"온라인 북한: ICT를 활용한 북한과의 '재'연결",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br>"북한의 국립공원,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 담화: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회", 크리스토퍼 맥카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에서의 근무 경험: 상황적 경험 공유", 제임스 반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
| 2020.12.12. | Peace Forum 2020<br>회복력 있는 세계를 위한 창조적 협력<br>Creative Collaboration for a Resilient World | 공동주최:<br>일본 소카대,<br>대만 중국문화대 | 개회사: Yoshhisa Baba (소카대)<br>개회사: 박재규 (경남대)<br>Shing-Ching Shyu (중국문화대)<br><br>기조연설: "아프라시아 (Afrasia)를 꿈꾸며: 2100년 세계지도 구상", Yoichi Mine (도시샤대)<br><br>1세션-사회: KOIDE, Minoru (소카대)<br>"회복력 있는 세계를 위한 창조적 협력", Hideki Tamai (소카대)<br><br>2세션-사회: 김정 (북한대학원대)<br>"국가들의 팬데믹 억제에 있어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3세션-사회: Chien-min Chao (중국문화대)<br>"2020년 미대선 이후 국가간 관계와 전망", Hsiao-Yun Yu (중국문화대)<br>Johnny Shaw (중국문화대) | 1세션<br>김성경 (북한대학원대)<br>Chien-kuo Pang (중국문화대)<br><br>2세션<br>Shun-Wen Wang (중국문화대)<br>Satoshi Sasaki (소카대)<br><br>3세션<br>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Vesselin Popovski (소카대) | 온라인 회의 |
| 2021.03.31. | 한중관계 국제학술세미나<br>"한중 국교정상화 30년: 상생, 협력 그리고 과제" | 공동주최:<br>산동대 동북아 국제관계학원 |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미중관계와 한반도: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이영학 (국방연구원)<br>""쌍순환"신발전 구도하에 중국 CPTPP 가입의 정치 경제적 사고", 장혜지 (길림대)<br><br>2세션-사회: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종합토론 | 1세션<br>박동훈 (연변대)<br>서창배 (부경대)<br>정재흥 (세종연구소)<br>한헌동 (중국정법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21.05.14.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 공동주최:<br>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br>&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 국가자원 센터 | 인사말: 김지수 (조지워싱턴대),<br>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김연호(조지워싱턴대)<br>안호영 (북한대학원대)<br>캐슬린 스티븐스 (KEI) | 참석자 전원<br>라운드테이블 토론 | 온라인회의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 | 2세션-사회: 김연호(조지워싱턴대)<br>이정철 (서울대)<br>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br><br>3세션-사회: 김연호(조지워싱턴대)<br>김연철 (인제대)<br>셀레스테 앨링턴 (조지워싱턴대) | | |
| 2021.05.26. | 국제학술회의<br>북한의 도시<br>만화경<br>Urban Kaleidoscope of North Korea |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주관: 북한·통일학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 (펠로우십)<br>후원: 통일부 |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1세션-사회: 민경태 (통일교육원)<br>"평양의 역사와 건축", 안창모 (경기대)<br>"평양의 도시계획과 변화전망", 김현수 (단국대)<br><br>2세션-사회: 정영철 (서강대)<br>"강이 흐르고 있다: 평양의 유동정치와 수역", 로버트 윈스탠리-체스터 (호주국립대)<br>"북한에서 국경도시 집적의 형성은 신화인가? 현실인가?",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3세션-사회: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도시 유형 보고: 북한의 이상적인 사회의 꿈", 필리프 메우세르 (독일BDA)<br>"김정은 시대의 건축물", 제레나 프로코피레비치 (스페인 카탈루냐국제대)<br>"화해 후의 평양을 상상하며", 애니 패드렛 (서울대) | 1세션<br>권영덕 (서울연구원)<br>최대식 (토지주택 연구원)<br><br>2세션<br>이찬우 (테이쿄대)<br>마크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3세션<br>정인하 (한양대)<br>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임동우 (홍익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21.06.08. | 국제 학술회의 (한일)<br>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주관: 북한·통일학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 (펠로우십)<br>후원: 통일부 | 1세션-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br>오코노기 마사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박원곤 (이화여대)<br>"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br>미치시타 나루시게 (GRIPS),<br>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br><br>2세션-사회: 김연철 (인제대)<br>"미중 갈등과 남북관계",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박종철 (통일연구원)<br>"미중의 대립과 북한경제",<br>나카가와 마사히코 (일본무역진흥기구),<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 | 1세션<br>김한권 (국립외교원)<br>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br>량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동엽 (북한대학원대)<br>무로오카 데쓰오 (방위성 방위연구소)<br><br>2세션<br>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니시노 준야 (게이오대)<br>이석기 (산업연구원)<br>미무라 미츠히로 (ERINA)<br><br>총평/종합토론: 강인덕 (경남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21.06.30. | 국제학술회의 (한러)<br>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주관: 북한·통일학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 (펠로우십)<br>후원: 통일부 | 1세션-사회: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br>"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성과와 한계",<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 이후의 북한 발전의 방향과 전망", 니콜라이 페레슬라브체프 (해양과학&교육 아태저널)<br><br>2세션-사회: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br>"러시아의 동방정책과 북·러간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김영식 (강릉원주대)<br>"러시아-북한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br>아나스타샤 바란니코바 (ADM 네벨스코이 해양주립대) | 1세션<br>마크 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세르게이 스미르노프 (ADM 네벨스코이 해양주립대)<br><br>2세션<br>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br>마리나 쿠클라 (극동연방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2021.07.15. | 국제 학술회의 (한중)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주관: 북한·통일학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 (펠로우십)<br>후원: 통일부 | 1세션-사회: 신정승 (동서대)<br>"미중전략경쟁의 변화와 전망", 김흥규 (아주대)<br>"미국의 대중전략 평가/전망", 김현욱 (국립외교원)<br>"중국의 대미전략 평가/전망", 주펑 (남경대)<br><br>2세션-사회: 닝푸쿠이 (전 주한대사)<br>"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과 전망", 이정철 (서울대)<br>"북중관계 변화가 남북/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계영 (복단대)<br>"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과 전망", 리난 (중국사회과학원)<br><br>3세션-사회: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회의참가자 전원 및 펠로우십 중국학자 (우약영/서천/양미화/우소) | 1세션<br>신창 (복단대)<br>청샤오허 (중국인민대)<br>이남주 (성공회대)<br><br>2세션<br>공커위 (상해국제문제 연구원)<br>박병광 (국가안보 전략연구원)<br>양무진 (북한대학원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21.08.31. | 2021 KGFP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 주최: 통일부<br>세션주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사회<br>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발표<br>에바 모틸리스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량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전경련 회관 |
| 2021.11.02. | FNF-IFES 국제 워크숍 (18)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 공동주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서울사무소 |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환영사: Christian Taaks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br>1세션-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국가전략", 안경모 (국방대)<br>"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전략 평가와 전망", 김일한 (동국대)<br>"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전략 평가와 전망", 전영선 (건국대)<br><br>2세션-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의 군사력 및 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장철운 (통일연구원)<br>"김정은 집권 시기 북중관계의 평가와 전망", 신봉섭 (광운대)<br>"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10년: 연속과 단절의 2중주", 박원곤 (이화여대)<br>"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10년 평가와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 1세션<br>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정영철 (서강대)<br><br>2세션<br>황일도 (국립외교원)<br>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정계영 (복단대)<br>김형석 (대진대)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 2021.12.10. | Peace Forum 2021 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 수립 Building a Better East Asian World | 공동주최: 일본 소카대, 대만 중국문화대 | 개회사: Shu-Yin Wang (중국문화대), Yoshihsa Baba (소카대), 박정진 (경남대)<br><br>기조연설<br>"아시아를 위한 시험의 시간: 강대국경쟁과 경제통합", Philip Yang (국가안보회의)<br><br>1세션-사회: Chien-min Chao (중국문화대) | 1세션<br>Hartmut Lenz (소카대)<br>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br>2세션<br>김정 (북한대학원대)<br>Shun-Wen Wang (중국문화대) | 온라인 회의 |

| 개최일자 | 회의주제 | 주최 및 후원 | 발표 | 토론 | 장소 |
|---|---|---|---|---|---|
| | Order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 | "패권 경쟁과 동아시아 질서: Robert Gilpin의 패권전쟁이론 재검토", Hsuan-Hsian Lin (중국문화대)<br><br>2세션-사회: Hideki Tamai (소카대)<br>"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세계 보건 개선 공헌에 대한 교훈", Satoshi Sasaki (소카대)<br><br>3세션-사회: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미중 경쟁의 위험과 기회: 한국의 관점에서",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3세션<br>Ulv Hanssen (소카대)<br>Wan-Jiun Chen (중국문화대) | |
| 2021.12.10. |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공동 국제학술회의 한·미 평화통일포럼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 | 공동주최: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 기조연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br><br>1세션-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응전략", 이정철 (서울대)<br>"북한 경제 상황 변화 가능성", 권영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br><br>2세션-사회: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br>"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방안", 제니 타운 (38 North)<br>"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관계",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 1세션<br>조지프 디트라니 (미 국무부)<br>김연호 (조지워싱턴대)<br><br>2세션<br>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최용환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 스위스 그랜드 호텔 |

# 02

## 국내학술회의·세미나

1972___2022

## 통일전략포럼 개최현황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1995.10.19. | 통일·안보 정책의 회고와 전망 |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 |
| 1995.11.17. | 통일·안보 정책의 회고와 전망 | 노신영 (롯데복지재단) | |
| 1996.03.06. |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 포용정책 vs. 反포용정책 | 전정환 (국방대학원)<br>김용호 (중앙일보 전문기자) | |
| 1996.04.12. |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 백진현 (외교안보연구원)<br>이철기 (동국대) | 우재승 (세계자유민주연맹)<br>이장희 (한국외대) |
| 1996.06.14. | 4자회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 정태익 (외무부)<br>김도태 (민족통일연구원) | 임동원 (아태평화재단)<br>리영희 (한양대) |
| 1996.10.02. | 남북한 경제협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 서진영 (정책기획위원회)<br>이호 (남북대화사무국) |
| 1996.12.12. |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 박종철 (민족통일연구원) | 양영식 (통일원)<br>함택영 (경남대) |
| 1997.03.18. | 잠수함 사건 '사과' 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 이상우 (서강대)<br>신정현 (경희대 ) | |
| 1997.06.18. |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 김정서 (동아일보)<br>한중광 (KBS 통일방송연구소)<br>김용호 (민족통일연구원) | |
| 1997.09.30. |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 전현준 (민족통일연구원)<br>이종석 (세종연구소) | |
| 1997.11.20. |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 홍규덕 (숙명여대)<br>서주석 (국방연구원) | |
| 1998.01.15. | 새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 정세현 (민족통일연구원) | |
| 1998.04.30. |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 권오기 (전 부총리) | |
| 1999.01.07. |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 "대외정책", 안병준 (연세대)<br>"군사·안보", 차영구 (국방부)<br>"정치", 이종석 (세종연구소)<br>"경제", 조동호 (KDI) | |
| 1999.04.22. |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 "한국의 대북정책", 김재홍 (동아일보)<br>"미국의 대북정책", 박건영 (가톨릭대)<br>"일본의 대북정책",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 |
| 1999.06.08. |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 이헌경 (통일연구원)<br>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br>백학순 (세종연구소) | |
| 1999.10.05. |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 장달중 (서울대 )<br>홍관희 (통일연구원) | 이원섭 (한겨레신문)<br>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br>구갑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00.03.20. | 2000년대의 남북한 | 서대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상우 (서강대) | |
| 2000.05.09. |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 "정상회담과 북한의 전략", 전인영 (서울대)<br>"정상회담과 햇볕정책", 박건영 (가톨릭대)<br>"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임강택 (통일연구원)<br>"정상회담과 북-미, 북-일관계",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 |
| 2000.09.26. |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개최 전망을 중심으로 | "정치", 서대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경제", 박제훈 (인천대)<br>"대외관계", 강성윤 (동국대) | |
| 2000.11.14. |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북-미 관계", 박동환 (미국 노스웨스턴대)<br>"북-미 관계의 변화: 북한의 시각",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br>"북-미 관계의 변화와 일본의 시각",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 |
| 2001.02.13. | 북한의 개방 | "북한의 중국식 개혁 · 개방 전망", 서진영 (고려대)<br>"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협", 오승렬 (통일연구원)<br>"북-미 관계와 북한의 개방", 백학순 (세종연구소) | |
| 2001.05.22. |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 "북·미 관계: 북한측 시각", 장달중 (서울대)<br>"북·미 관계: 미국측 시각", 백학순 (세종연구소) | 최완규 (경남대)<br>양승함 (연세대) |
| 2002.02.22. |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 인사말 - 박재규 (경남대 북한대학원)<br>장달중 (서울대)<br>박건영 (가톨릭대) | 김영희 (중앙일보)<br>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br>류길재 (경남대) |
| 2002.08.01. |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 "최근 북한경제 변화, 배경과 전망", 김연철 (고려대)<br>"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과 남북관계 전망", 류길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구갑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창수 (민화협)<br>서진영 (고려대)<br>오승렬 (통일연구원)<br>이종석 (세종연구소)<br>전인영 (서울대)<br>조동호 (KDI) |
| 2002.11.01. |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 "북·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 평가와 전망", 고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 핵문제에 관한 평화적 해결의 조건과 전망", 전재성 (숙명여대) | 이채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br>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br>박건영 (가톨릭대)<br>이혜정 (중앙대) |
| 2003.05.02. |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 "이라크 전쟁 이후 북·미 관계의 전망", 권만학 (경희대)<br>"이라크 전쟁 이후 한·미 관계의 전망", 박건영 (가톨릭대) | 고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영희 (중앙일보)<br>박순성 (동국대)<br>이혜정 (중앙대) |
| 2003.09.02. |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 고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백종천 (세종연구소)<br>전인영 (서울대)<br>김석환 (중앙일보)<br>고유환 (동국대) |
| 2003.10.14. |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 김재홍 (경기대)<br>조민 (통일연구원) | 김열수 (국방대)<br>이내영 (고려대수)<br>김경수 (명지대수)<br>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04.03.23. |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 |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평가와 전망", 조동호 (KDI)<br>"개성공단의 전망과 과제", 오승렬 (한국외대) | 박흥렬 (통일부)<br>이종근 (LG상사)<br>동명한 (중소기업진흥공단)<br>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
| 2004.05.25. |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 "21세기 동북아 전략", 이수훈 (경남대)<br>"21세기 한미관계의 방향", 전재성 (서울대) | 김재홍 (경기대)<br>박형준 (동아대)<br>김석환 (중앙일보)<br>강태호 (한겨레신문) |
| 2004.10.28. |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 "美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김기정 (연세대)<br>"美 대선과 북미관계 전망", 전봉근 (평화협력원) | 송문홍 (동아일보)<br>길정우 (중앙일보)<br>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br>김태현 (중앙대) |
| 2005.04.29. |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 김근식 (경남대)<br>김용호 (연세대) | 김석환 (중앙일보)<br>유호열 (고려대)<br>서동만 (상지대)<br>김학성 (충남대) |
| 2005.07.18. |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 "6자회담 재개의 배경과 전망", 홍현익 (세종연구소)<br>"6자회담 재개와 한국정부의 대응", 김원수 (외교부) | 박찬봉 (통일부)<br>문흥호 (한양대)<br>류길재 (북한대학원대)<br>김준섭 (국방대)<br>우승지 (경희대 ) |
| 2005.10.05. | 북핵 타결 이후:<br>쟁점과 과제 | 서동만 (상지대) | 조태용 (외교부)<br>길정우 (중앙데일리)<br>김우상 (연세대)<br>전재성 (서울대)<br>김근식 (경남대) |
| 2006.07.03. | 2006년 6월 한반도:<br>정세와 해법은? | 백낙청 (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 남시욱 (세종대)<br>김영희 (중앙일보)<br>전인영 (서울대)<br>박건영 (가톨릭대)<br>황하수 (통일부)<br>박순성 (동국대) |
| 2006.09.14. |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br>김영호 (국방대)<br>최강 (외교안보연구원)<br>홍현익 (세종연구소)<br>박승부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회) |
| 2007.03.28. |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 이종석 (세종연구소) | 유호열 (고려대)<br>이삼성 (한림대)<br>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br>최진욱 (통일연구원)<br>김근식 (경남대) |
| 2007.09.14. | 제2차 남북정상회담,<br>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 박명규 (서울대)<br>권만학 (경희대)<br>김기정 (연세대)<br>고유환 (동국대)<br>김근식 (경남대)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08.11.06. |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미관계: 전망과 과제", 홍현익 (세종연구소)<br>"11.4 미국 대선 결과와 북미관계: 전망과 과제", 고유환 (동국대)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br>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br>김석환 (한국외대)<br>김근식 (경남대)<br>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이대근 (경향신문) |
| 2009.01.16. |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 인사말 -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기정 (연세대)<br>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 | 박명규 (서울대)<br>최대석 (이화여대)<br>박순성 (동국대)<br>김학성 (충남대) |
| 2009.03.24. |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 | "인사말",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맹조정과 한미관계",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br>"한미 전략동맹: 전망과 과제", 최종철 (국방대) |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r>장용훈 (연합뉴스)<br>이상민 (통일부)<br>김근식 (경남대)<br>정성장 (세종연구소) |
| 2009.06.11. |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 "인사말", 이수훈 (경남대)<br>"동맹조정과 한미관계",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br>"한미 전략동맹: 전망과 과제", 최종철 (국방대) | 이상현 (세종연구소)<br>이근 (서울대)<br>조윤영 (중앙대)<br>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 2009.11.19.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br>김준형 (한동대) | 이계성 (한국일보)<br>강영진 (중앙일보)<br>이대근 (경향신문)<br>박두식 (조선일보)<br>손관수 (KBS)<br>안정식 (SBS) |
| 2010.03.19. | 6자회담의 현 주소와 전망 | 개회사 -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br>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 길정우 (전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br>김기정 (연세대)<br>김성한 (고려대)<br>이봉조 (경남대) |
| 2010.12.10. |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 |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br>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br>강태호 (한겨레신문)<br>유용원 (조선일보)<br>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br>김근식 (경남대) |
| 2011.03.17. |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 개회사 -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br>"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 백학순 (세종연구소)<br>"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br>김용현 (동국대)<br>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br>김종대 (디앤디포커스) |
| 2011.07.28. |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 | 김근식 (경남대)<br>김석환 (주성대)<br>이희옥 (성균관대)<br>박선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br>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 2011.11.18. |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가능성", 김연철 (인제대)<br>"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방향", 정영철 (서강대) |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br>남궁영 (한국외대)<br>백학순 (세종연구소)<br>류길재 (북한대학원대)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12.05.30. |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 개회사 -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br>축사 - 박재규 (경남대 총장)<br>고유환 (동국대)<br>박형중 (통일연구원)<br>이승환 (시민평화포럼)<br>류길재 (북한대학원대) | 김근식 (경남대)<br>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br>신석호 (채널A)<br>강태호 (한겨레)<br>최대석 (이화여대)<br>박순성 (동국대)<br>김기정 (연세대)<br>김용호 (인하대) |
| 2012.08.16. |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 "리영호 해임 이후 김정은 권력구조",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김정은 체제 개혁·개방 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 이봉조 (도산통일연구소장)<br>한기범 (고려대)<br>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조봉현 (IBK경제연구소) |
| 2013.05.10. |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위기", 김준형 (한동대)<br>"개성공단 사태 이후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장)<br>임강택 (통일연구원)<br>이석 (KDI) |
| 2013.08.30. |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 고유환 (동국대)<br>박인휘 (이화여대) | 박영호 (통일연구원)<br>김근식 (경남대)<br>김연수 (국방대)<br>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br>이동선 (고려대)<br>최종건 (연세대) |
| 2014.02.19. |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 이상현 (세종연구소)<br>최종건 (연세대) | 이희옥 (성균관대)<br>박철희 (서울대)<br>김석환 (한국외대)<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배명복 (중앙일보)<br>박병수 (한겨레) |
| 2014.04.17. |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와 의미",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김정은 체제의 향후 정책운용 방향", 박형중 (통일연구원) |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관)<br>장용훈 (연합뉴스)<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장용석 (서울대) |
| 2014.11.06. | 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 "북한 미사일 위협과 THAAD", 권명국 (전 방공포사령관)<br>"종말단계 중 고도요격체계(THAAD)의 한반도 도입과 중국의 입장", 김흥규 (아주대) | 고봉준 (충남대)<br>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박영호 (통일연구원)<br>최현수 (국민일보)<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 |
| 2015.05.21. |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 유호열 (고려대)<br>김근식 (경남대) |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br>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br>송영선 (전 국회의원)<br>홍익표 (국회의원)<br>김태우 (동국대)<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 |
| 2016.04.26. |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 이동선 (고려대)<br>이동률 (동덕여대)<br>박인휘 (이화여대) | 최종건 (연세대)<br>황재호 (한국외대)<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 |
| 2016.11.22. |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 이동선 (고려대)<br>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마상윤 (외교부)<br>왕선택 (YTN)<br>정성장 (세종연구소)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17.12.05. |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 | 김연철 (인제대)<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근 (서울대)<br>이희옥 (성균관대)<br>김창수 (통일부) |
| 2018.04.05.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 박종철 (통일연구원)<br>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 | 김연철 (인제대)<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조봉현 (IBK경제연구소) |
| 2018.12.06. | 전문기자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 신석호 (동아일보)<br>김현경 (MBC)<br>장용훈 (연합뉴스)<br>이제훈 (한겨레신문)<br>왕선택 (YTN) | 조정진 (세계일보)<br>고수석 (JTBC)<br>안정식 (SBS)<br>공용철 (KBS)<br>김미경 (서울신문) |
| 2019.07.24. |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 황지환 (서울시립대)<br>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이정철 (숭실대)<br>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상기 (통일부) |
| 2019.08.08. |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br>길윤형 (한겨레신문)<br>이원덕 (국민대)<br>정혜경 (역사학 박사)<br>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
| 2019.11.28. |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 왕선택 (YTN)<br>이제훈 (한겨레신문)<br>장용훈 (연합뉴스) | 장세정 (중앙일보)<br>구자룡 (동아일보)<br>안정식 (SBS)<br>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20.06.18. | 긴급진단,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br>이정철 (숭실대) |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br>이종주 (통일부)<br>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2020.11.30. |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 이왕휘 (아주대)<br>황지환 (서울시립대)<br>진희관 (인제대)<br>최순미 (아주대)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웅현 (한국지정학연구원)<br>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최천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21.01.14. |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 | 정영철 (서강대)<br>사카이 다카시 (전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br>황지환 (서울시립대)<br>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br>김갑식 (통일연구원)<br>박원곤 (한동대)<br>안경모 (국방대)<br>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정철 (숭실대)<br>김영희 (산업은행)<br>이상준 (국토연구원)<br>이석기 (산업연구원)<br>이찬우 (일본 테이쿄대) |
| 2022.01.07 |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김갑식 (통일연구원)<br>"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 김동엽 (북한대학원대)<br>"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평가 및 전망",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의 대외전략 평가 및 전망", 전봉근 (국립외교원)<br>"북한의 대남정책 평가 및 전망",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br>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안경모 (국방대)<br>황일도 (국립외교원)<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장혜지 (길림대)<br>이정철 (서울대)<br>박원곤 (이화여대)<br>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br>정계영 (복단대) |
| 2022.06.08 | 우크라이나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제질서 재편과 군사 그리고 경제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 한국의 선택은?", 김흥규 (아주대)<br>"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이웅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군비경쟁 심화와 신기술 안보 위협",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br>"신정부의 경제안보 인식과 외교정책 방향", 이승주 (중앙대) | 박원곤 (이화여대)<br>이양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br>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박영준 (국방대)<br>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br>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통일문제세미나 개최현황

| 일자 | 주제 |
|---|---|
| 1975.09.18 |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남북한 가치관의 형성에 관한 비교 |
| 1977.01.04 | 북한의 통일정책 평가 |
| 1978.05.22 | 통일의 전망 - 무엇이 문제인가? |
| 1979.05.18 | 대학생과 통일운동 |
| 1980.10.30 | 분단직후 남북협상론의 재평가 |
| 1981.09.24 | 남북한의 통일정책 |
| 1982.05.21 | 통일 - 그 소망과 현실 |
| 1983.06.10 | 현대사상의 재조명 |
| 1984.09.28 | 한반도의 국제환경과 통일의 전망 |
| 1985.09.26 | 통일과 민족주의 |
| 1986.11.25 | 통일문제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
| 1987.11.13 | 소련정치체제와 맑스주의의 수용 |
| 1988.11.18 | 남북한 평화관계 수립의 전망 |
| 1989.10.11 | 사회주의권의 변화가능성 |
| 1990.11.23 | 동구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 1991.09.19. | 동북아 질서변화와 남북한 관계 |
| 1991.11.13. | 동북아 질서변화와 한반도 통일전망 |
| 1992.09.17. | 전환기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이해 |
| 1993.09.16. | 문민정부하에서의 남북한 관계 |
| 1994.10.05. | 전환기 남북한 관계 |
| 1995.09.27. |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실상 |
| 1996.10.31. | 조·중·러 접경지대 현지조사 및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경제의 실상 |
| 1997.11.12. | 김정일 시대의 남북한 관계 전망 |
| 1998.09.23. |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한 민간교류협력 방안 |
| 1999.09.15. |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관계전망 |
| 2000.11.20. | 4강의 국내체제 변화와 대북관계 |
| 2002.11.29. |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
| 2003.10.10. |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
| 2004.09.17. | 동북아 시대의 구현과 지역협력 |
| 2009.09.23 | 21세기정치학회 공동 2009 추계 학술회의 |

## 해외학자초청세미나 개최현황

| 일자 | 주제 | 발표자 |
|---|---|---|
| 1979.06.02. | 대리전쟁 | Saul Bello (미국 Arkansas Univ.) |
| 1979.10.19. | 스웨덴의 안보문제 | Bengt Ahslnd (국제군사사학회장) |
| 1979.12.20. | 중공의 외교정책 | Melvin Gurtov (미국 Univ. of California 교수) |
| 1980.03.31. | 한국·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증진 | Mohammad A.S. Othman (사우디아라비아) |
| 1980.09.30. | 아시아의 전략적 전망 | Hadi Soesastro (인도네시아 CSIS 연구실장) |
| 1981.05.27. | 중·소관계와 한반도 | Donald Zagoria (미국 Columbia Univ. 교수) |
| 1981.06.22. | 80년대 한국과 중동 | Michael Curtis (미국 Rutgers Univ. 교수) |
| 1983.06.10. | 아세안의 현황과 한국의 대아세안 접근 | E.D. Solidum (필리핀 Philippines Univ. 교수) |
| 1981.09.26. |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제문제 | 장도영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미국 Michigan Univ. 교수) |
| 1981.11.06. | 중공과 아시아 | Robert A. Longmire (영국 외무성연구실 아시아담당과장) |
| 1981.11.17. | 80년대 동남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전망 | Franklin B. Weinstein (Asia Consulting Associates, Inc. 회장) |
| 1981.12.28. | 미국 정치와 로비활동 | Jason Boe (Jason Boe & Associates, Inc. 회장) |
| 1982.03.09. | 최근 북한정세분석 | Henry Scott Stokes (New York Times 도쿄지국장) |
| 1982.03.16. | 중동상황과 미-리비아관계 | Richard Shadyac (카다피대통령 법률고문) |
| 1982.05.18. |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에너지문제 분석 | Neil Goldschmidt (전 미국 교통성 장관) |
| 1982.08.16. | 미국의 대중공 및 대만정책 | John Copper (미국 South Western Univ. 교수) |
| 1982.10.12.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일본을 중심으로 | John Curtis Perry (미국 Fletcher Univ. 교수) |
| 1982.11.18. | 국가정책 도구로서의 군사점령:<br>중동문제를 중심으로 | Peter Klaus Breit (미국 Hartford Univ. 교수) |
| 1982.11.26. | 태평양지역 경제질서 | Robert Gavin Boyd (미국 Saint Mary's Univ. 교수) |
| 1983.02.10. | 사회갈등문제 | Edward Azar (미국 Maryland Univ. 교수) |
| 1983.03.15. | 미국의 대 제3세계정책 | Melvin Gurtov (미국 Univ. of California 교수) |
| 1984.09.11. | 미국의 외교정책 전망 | Harold Guetzkow (미국 Northwestern Univ. 교수) |
| 1983.01.04. | 중공경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소견 | Weijian Shan (중국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 |
| 1986.10.10. | 미·중·소 3각 관계와 한반도 | Daryl M. Plunk (미국 Heritage Foundation 연구위원) |
| 1986.11.04. | 북한의 마르크시즘과 권력승계 | James Stephen (미국 Newcastle Univ. 교수) |
| 1987.03.16. | 김일성과 북한 공산주의운동 | 허동찬 (일본 도쿄도립대 강사) |
| 1987.03.23. | 북한의 군사정책과 남북한관계 |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연구위원) |
| 1987.04.06. | 오늘날 중국의 개혁과 변화: 정치문화적 접근 | Richard Wilson (미국 Rutgers Univ. 교수) |
| 1987.04.24. | 중공의 소수민족정책과 한반도 | 박한식 (미국 Georgia Univ. 교수) |
| 1987.05.27.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중 후원정책 | 이만우 (미국 Millersville Univ. 교수) |
| 1987.07.03. | 한국 중산층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 구해근 (미국 Hawaii Univ. 교수) |
| 1987.07.24. | China and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ystem | Peter Moody (미국 Univ. of Notre Dame 교수) |

| 일자 | 주제 | 발표자 |
|---|---|---|
| 1987.08.19. | Post-Mao China,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 Samuel S. Kim (미국 Princeton Univ. 교수) |
| 1987.08.28. | Urban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Dependency Reversal in the Republic of Korea | John Hall (미국 Portland State Univ.) |
| 1987.09.22. | Development Patterns in NICs | Gary Gereffi (미국 Duke Univ. 교수) |
| 1987.12.09. | 동양계 사회과학 전공자의 미국박사학위 논문 내용분석 | 신의항 (미국 South Carolina Univ.) |
| 1988.03.14. | 중국경제개혁: 현황과 전망 | 이상문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
| 1988.05.06. | 페르샤만의 긴장과 미국의 전략적 구상 | Ronald McLaurin (미국 Abbott & Associates, Inc.) |
| 1988.05.13. | Promoting High Technolog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 of the State | Peter Evans (미국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교수) |
| 1988.07.12. | 북한의 현황: 최근 기행을 중심으로 | 조명훈 (서독 Hamburg Univ. 아세아연구소) |
| 1988.07.28. | (1) China and Northeast Asia: Political Reforms and the Shifting Balance of Power | Robert Bedeski (캐나다 Carleton Univ. 교수) |
| | (2) China's Military Reforms | Melvin Gurtov (미국 Portland State Univ. 교수) |
| 1988.08.05. | Korean Democratization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System | David A. Smith (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 교수) |
| 1988.09.02. | 중국과 제3세계 | Samuel S. Kim (미국 Princeton Univ. 교수) |
| 1988.09.24. | 서구 마르크시즘의 최근 동향과 그 전망 | Claus Offe (서독 Bielefeld Univ. 교수) |
| 1988.11.23. | 태평양시대의 한·중·일 관계 | Gondo Mitzio (일본 츠쿠바대 교수) |
| 1989.02.03. | 서구 노사관계의 신동향 | 박성조 (서독 베를린자유대 교수) |
| 1989.06.09. |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전략적 집단 | Hans-Dieter Evers (서독 Bielefeld Univ. 사회학 및 발전학과 교수) |
| 1989.07.25. | 현대 미국 정치경제의 긴장에 관한 일 고찰 | Martin Hart-Landsberg (미국 Lewis & Clark Univ. 경제학과 교수) |
| 1989.08.04. | 관료주의 체제개혁과 중국의 장래 | 이홍영 (미국 Yale Univ. 정치학과 교수) |
| 1989.11.24. | (1) 동구권의 개혁이 북한에 미친 영향 | 김일평 (미국 Connecticut Univ. 정치학과 교수) |
| | (2) 최근의 일본·북한관계: 문제와 전망 | 김홍낙 (미국 West Virginia Univ. 정치학과 교수) |
| 1990.03.24. | 최근의 북한현황 | 김형찬 (미국 Western Washington Univ. 교육학과 교수) |
| 1990.07.10. | 동아시아의 발전과 노동문제 | Frederic C. Deyo (미국 New York State Univ. 사회학과 교수) |
| 1990.07.20. | 한국의 정치개혁: 중국과 소련 사례와의 비교 | Robert Bedeski (캐나다 Victoria Univ. 정치학과 교수) |
| 1990.09.20. | 중동 및 동북아시아와 미소관계 | Robert Hoover (미국 Utah Univ. 정치학과 교수) |
| 1990.11.24. | 소련의 정치경제와 인종문제 | Em Victor (소련 타쉬켄트 농과대 총장) |
| 1990.12.04. | 중국의 정치경제와 서울, 평양, 북경관계에 대하여 | 이상문 (중국 사회과학원 아주·태평양연구소 교수) |
| 1991.05.20. | 북한의 대중·소정책과 한반도: 그 역사와 의미 | 박길용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연구위원) |
| 1991.06.24. | (1) 남북한관계의 새로운 전개 | 길영환 (미국 Iowa State Univ. 정치학과 교수) |
| | (2) 남북한 UN가입과 동북아 국제정세 | 고병철 (미국 Illinois Univ. 정치학과 교수) |
| 1991.10.23. | Pathways from the Periphery: Different Trajectories of National Development | Stephan Haggard (미국 Harvard Univ. 정치학과 교수/ World Bank, OECD 자문) |

| 일자 | 주제 | 발표자 |
|---|---|---|
| 1991.12.15. | 미국의 동북아 정책 | Robert Scalapino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
| 1992.03.26. | Prospects for China in 1990's | |
| | (1) China's Approach to Economic Reform | Dwight H. Perkins (미국 Harvard Univ. Harold Hitchings Burbank 교수) |
| | (2) The Guangdong-Hong Kong Region | Ezra F. Vogel (미국 Harvard Univ. Henry Ford II 교수) |
| | (3) Peasant Culture | James L. Watson (미국 Johns King and Wilma Cannon Fairbank 교수) |
| | (4) The Politics of Succession | Roderick MacFarquhar (미국 Leroy B. Williams 교수) |
| 1992.03.27. | 일본의 선거제도와 자민당 장기집권 | 김종림 (미국 Iowa Univ. 정치학과 교수)<br>John C. Hickman (미국IowaUniv.정치학박사과정) |
| 1992.07.21. | Destabilization of Presidential Politics in the US | Larry L. Wade (미국 Univ. of California, Davis 정치학과 교수) |
| 1992.08.29. | 북한 현체제의 기원과 구조 | 스즈키 마사유키 (일본 세이난가쿠인대) |
| 1992.09.28. |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인사이더의 전망<br>All About the November Presidential Election in America: Insiders' Perspective | Jerry Hagstrom (National Journal 편집인)<br>Hagstrom Rothstein (홍보회사대표) |
| 1993.11.12. | 미국 신문 논설위원들의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한인식 | 이성형 (미국 North Carolina State Appalachian Univ. 신문학 주임교수) |
| 1994.05.31. | A Nuclear North Korea:<br>The Choices are Narrowing | Andrew Mack (호주 Australian National State Univ.) |
| 1994.06.13. | Chinese Foreign Policy in<br>a Changing Asia-Pacific Order | Samuel S. Kim (미국 Columbia Univ. 정치학과) |
| 1994.10.06. |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교류 | Issac Revah (프랑스 CNES 국제관계국장)<br>Chen Rongying (중국우주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고문) |
| 1994.10.18. |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강의 국제정치 | Richard Halloran (미국 East-West Center 신문방송프로그램 소장) |
| 1995.07.18. | 북한·미국관계의 전망 | Samuel S. Kim (미국 Columbia Univ.<br>동아시아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 부소장) |
| 1995.12.13. | 중국의 대전환: 동북아와 세계에 미치는 함축을 중심으로 | Robert Sutter (미국 의회조사국 CRS Senior Specialist) |
| 1996.09.07. | 중국과 APEC | 오덕렬 (중국 사회과학원 APEC 연구센터 이사) |
| 1997.04.14. | 최근의 북한 상황을 보는 중국의 시각 | 조호길 (趙虎吉, 자오후지)<br>(중국 공산당학교 교수) |
| 1997.04.21. | 오늘의 중국: 경제개혁과 등소평 사후의 전망 | 방수옥 (方秀玉, 중국 연변대 교수) |
| 1997.05.30. | 美·中 관계와 한반도 | Robert Sutter (미국 국회도서관 연구처 수석전문위원) |
| 1997.06.25. | 한반도 안보와 아·태지역의 전략적 환경<br>(Korean Security and the Asia-Pacific Strategic Environment) | William T. Tow (호주 Univ. of Queensland 교수)<br>Russell Trood (호주 Australia-Asia Relations Griffith Univ.) |
| 1997.09.25. | 미·일 신방위지침과 한반도 |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교수) |
| 1997.11.25. | 동아시아에서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National Security and Political Economy in the East Asia) | Richard J. Ellings<br>(미국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상임이사) |

| 일자 | 주제 | 발표자 |
|---|---|---|
| 1998.03.16. | 남·북한, 미국 삼자관계 전망 (South Korea-North Korea-U.S. Triangular Relations: Future Prospects) | Don Oberdorfer (미국 Asia Society 및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위원) |
| 1998.11.23. | 중국 조선족 학자가 보는 남북한 통일의 과제와전망 | 김승철 (중국 연변대 동북아정치연구소 소장) |
| 1999.05.17. | Korean Reunification, What Lies Ahead? | Martin Hart-Landsberg (미국 Lewis & Clark College 경제학 교수) |
| 1999.06.23. | 한반도 국제관계의 쟁점과 전망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Alvin Magid (미국 New York State Univ. 교수) |
| 1999.07.06. | 한국의 경제위기: 정치적 병인론 (Economic Crisis in Korea: A Political Etiology) | 김선혁 (미국 Univ. of Southern California) |
| 1999.10.12. | 지구화의 모순들 The Negative Aspects of Regionalism | Gerard Destanne de Bernis (프랑스 그르노블대 경제학 석좌교수) |
| 1999.10.22. | 兩 李氏 (이등휘, 이홍지)와 中國 | 장석창 (庄錫昌, 전 중국 상해 복단대 부총장) |
| 1999.11.22. | Understanding of Democratization of Indonesia | Mohtar Mas'oed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 정치사회학부 교수) |
| 2000.02.28. | 21세기 한미 안보협력 Twenty-First Century Korean-U.S. Security Cooperation | Ralph A. Cossa (미국 Pacific Forum, CSIS) |
| 2001.01.29. | 정상회담 이후의 동북아지역 안보 | Eric A. McVadon (미국 IFPA 선임연구위원/퇴역 미 해군 소장) |
| 2002.10.14. | 중국: 남·북한 관계 현황 | 석원화 (중국 복단대 한국·조선연구중심 소장) |
| 2005.04.28. |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Ralph A. Cossa (미국 CSIS, 퍼시픽 포럼 소장) |
| 2014.08.08. | 북·일 협상의 현황과 전망 | 히라이 히사시 (일본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
| 2014.09.23. | 동독 국가보안부 (Stasi): 기관의 해체와 오늘날 해결문제 | Lutz Rathenow (독일 The Records of the 'Stasi' in Saxony, Regional Commissioner) |
| 2014.10.10. | 최근 북일관계의 변화와 전망 | 와카바야시 히로유키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이사장) |
| 2014.10.27. | 김정은 리더십과 향후 전망 | 유병호 (중국대련대 조중교류센터 소장) |
| 2014.11.26. | EU의 대북정책 | 김미령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교수) |
| 2015.03.13. | 최근 나진-하산 등 두만강 유역 개발 및 북한경제 동향 | 미무라 미쓰히로 (일본 ERINA 조사연구부장) |
| 2015.04.09. | 시진핑 시대의 중국외교 | 방수옥 (중국 복단대 교수) |
| 2015.04.21. | Euro Crisis | 울리히 니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 2015.05.06. | 미중관계와 한반도 통일 |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
| 2015.06.26. | 동시대미술을 통해 본 평양 | 문범강 (화가/미 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 |
| 2015.09.10. | 통독 25년과 독일 내부의 시각 | 슈테판 볼레 (역사학자/Academic Director, DDR Museum) |
| 2015.10.30. | 지정학적 회귀 배경하의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선택 | 왕성 (중국 길림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 2016.02.16. | 북한 4차 핵실험과 중국의 시각 | 궁커위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 |
| 2016.04.22. | 두 개의 냉전, 두 개의 평화: 유럽과 동북아의 화해, 협력, 평화의 제도화 과정 비교 | 김학재 (베를린자유대) |

| 일자 | 주제 | 발표자 |
|---|---|---|
| 2016.05.13. | 소비에트 연방과 북한사회 비교:<br>북한의 내부개혁 가능성 |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
| 2016.05.24. | 나와 우리에게 조선, 조선인이란 무엇인가? | 서승 (일본 리츠메이칸대 석좌교수) |
| 2016.06.23. |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 개혁의 정치:<br>북한, 쿠바, 그리고 베트남 사례 비교 분석 | 구양모 (Norwich Univ.) |
| 2016.07.04. | 북한 60대 인민반의 역할 | Benjamin Katzeff Silverstein (Pennsylvania Univ.) |
| 2016.08.02. | 한반도 평화: 중국과 EU의 견해 | Mimi Miryung Kim (김미령, Free Univ. of Brussels)<br>Dong Xiangrong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CASS) |
| 2016.08.31. | The China Factor in Transatlantic Relations: Do Germany and the U.S. Pursue Very Different Policies toward Beijing? | Klaus Larres (Univ. of North Carolina) |
| 2016.09.08. | North Korea: What Next? | John Everard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
| 2016.11.01. | 미중 전략경합구도 속의 중한관계 | 김강일 (연변대) |
| 2016.11.18.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 | 스인홍 (중국 인민대) |
| 2017.05.19. | 북한의 핵 도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로버트 리트웍 (우드로윌슨센터 부소장) |
| 2017.05.22. | 한국과 중국간의 역사적·근대적 관계 | 오드 아니 웨스타드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 |
| 2017.06.15. | 북한 지도층의 위기 시 의사결정방법 | Ken Gause (미국 해군분석센터) |
| 2017.06.28. | 한국 외교정책의 어제와 오늘 | 구양모 (미국 노리치대 교수) |
| 2017.08.17. | 미술작품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의식 |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
| 2017.11.02. | Economic Integration:<br>Challenges for Unified Germany | Karl-Heinz Paqué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 2017.12.18. | 북한의 농업현황과 협력방안 | 김필주 (평양과기대 농생명대 학장) |
| 2017.12.20. |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미래와 한일협력 | 가미야 마타케 (일본 방위대 교수) |
| 2018.02.22. | 북한과 미얀마: 상이한 경로 |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연구원) |
| 2018.04.23. |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조치가 북한에 미친 영향 | 존 박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Korea Working Group 소장) |
| 2018.10.31. | 아베내각의 대내외 정책과 북한 |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 |
| 2018.11.30. | The Role of the EU in North Korea | Tereza Novotna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연구원) |
| 2018.12.21 | 북한의 기업집단 | 나카가와 마사히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
| 2019.02.12 | 남북한 방송교류 현황 및 전망 | 서옥란 (Yulan Xu) (연변대 교수, 조선-한국연구센터 연구원) |
| 2019.02.22 | 제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 Joel Wit (스팀슨 센터 수석연구원 겸 38노스 대표) |
| 2019.11.11 | 북한 내 장애인 인권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카타리나 젤위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위원) |
| 2019.11.29 |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통일독일의 현황:<br>역사적 배경 및 당면과제 | 헨릭 비스핀크 (베를린 훔볼트대 역사학부 교수) |
| 2020.02.14 | 유럽의 시각에서 보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스웨덴의 역할 |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한국센터장) |

## 국내세미나 개최 현황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1995.11.23 | 북한 연구 방법론 및 쟁점에 관한 워크샵<br>북한 연구 방법론 및 주요 쟁점 고찰 | "북한 연구 방법론 및 주요 쟁점 고찰: 정치학", 최완규 (경남대)<br>"북한 연구 방법론 및 주요 쟁점 고찰: 경제학", 고현욱 (경남대)<br>"북한 연구 방법론 및 주요 쟁점 고찰: 언론학", 김영주 (경남대) | 권선주 (창원대)<br>백운선 (호남대)<br>이범수 (동아대)<br>이정호 (동아대)<br>전홍찬 (부산대)<br>최청호 (경남대) |
| 1996.06.20 | 남북한관계 학술회의:<br>전환기 남북한 관계의 구조와 전망 | "남북한의 갈등구조", 장경룡 (캐나다 맥길대)<br>"북한경제의 이해와 남북한 경제총량 비교", 함택영 (경남대)<br>"남북한 통일정치게임의 구조", 최완규 (경남대) | 이호영 (창원대)<br>고현욱 (경남대)<br>심지연 (경남대) |
| 1996.08.13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체제 전환:<br>루마니아, 체코를 중심으로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루마니아, 체코를 중심으로", 김학준 (세계지역연구협의회)<br>"유럽통합과 동유럽국가", 이상균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이의선 (평화문제연구소)<br>이기영 (21세기 지역경영연구원) |
| 1999.11.11 | 금강산 관광사업<br>1년 평가 심포지움<br>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 |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강원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금강산 관광사업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김병로 (통일연구원)<br>"금강산 관광사업은 대북경협의 바람직한 모델인가?", 최신림 (산업연구원)<br>"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정부간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인가?",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br>"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할 것인가?", 이장희 (한국외대)<br>"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가?", 김운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br>"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것인가?", 박건영 (가톨릭대)<br>"동서독의 경험에 비추어 본 금강산 관광사업 평가", 로날드 마이나르두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금강산 관광사업과 대북경협의 전망", 김고중 (현대아산)<br>"현대의 대북경협: 성과와 과제", 유완영 (IMRI)<br>"남북경협과 정부의 대북정책", 조명균 (통일부)<br>"외국 기업의 대북인식과 대북경협 방향: 미국의 시각", 맹일영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 이장호 (서울대)<br>유영구 (중앙일보)<br>정상돈 (경남대)<br>임원혁 (KDI)<br>김재홍 (동아일보)<br>윤상직 (변호사)<br>최주활 (탈북자 동지회)<br>김광일 (중국 연변대)<br>황병덕 (통일연구원) |
| 2000.04.27 | 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세미나<br>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br>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남북경협, 그간 무엇이 문제였나?", 정주권 (엘칸토)<br>"북한의 투자환경 및 남북경협 현장의 동향", 김고중 (현대아산)<br>"정부-대기업-중소기업의 역할과 새로운 협력체계 모색", 김영일 (효원물산)<br>"정부의 경협 추진 방향: 재원 조달방안 및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황하수 (통일부)<br>"'북한특수'는 현실화될 것인가: 예상분야와 투자전략", 권오홍 (SYSGEN)<br>"외국기업의 대북 투자전략 및 한국기업과의 공동진출 전망", 맹일영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조동호 (KDI)<br>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br>김영윤 (통일연구원)<br>남궁영 (한국외대) |
| 2000.06.23 |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념 심포지엄 '인터넷과 북한' |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정책", 노승준 (일본 국제대),<br>박종봉 (애틀라스 리서치그룹)<br>"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과 평가: 북한연구자의 입장에서", 김연각 (서원대)<br>"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바세나르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으로",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br>"인터넷, 혹은 새로운 정보공간을 통한", 김동신 (한림대) | 우영수 (하나로통신)<br>엄종식 (통일부)<br>김웅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br>유석진 (서강대)<br>김규륜 (통일연구원)<br>한만길 (교육개발원)<br>이동욱 (나래 시큐리티)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 |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 통신통합",<br>김상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영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br>"인터넷과 통일교육", 이종훈 (국회도서관)<br>"인터넷과 남북경협: 오프라인 대비 장단점과 경영전략",<br>권오홍 (SYSGEN)<br>"인터넷 벤쳐사업을 통한 남북경협의 모델", 유세형 (조선인터넷닷컴)<br>"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의 법적조건", 윤대규 (경남대) | 신재인 (원자력연구소)<br>최신림 (산업연구원) |
| 2002.10.02 | 최근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br>7.1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9.12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을 중심으로 | 백학순 (세종연구소)<br>김영수 (서강대)<br>양문수 (경남대) | |
| 2003.05.13 | 제1회 북한도시연구 세미나<br>북한 도시 역사적 형성과정: 청진, 신의주, 혜산을 중심으로 | "도시공간: 지방 대도시의 형성과 발전", 장세훈 (동아대)<br>"지방정치: 당적 통제기제의 형성과 발전",<br>함택영 (경남대), 김근식 (경남대)<br>"지방경제: 지역별 자급자족체계의 형성과 발전",<br>양문수 (경남대), 김갑식 (경남대)<br>"사적경제: 농민시장의 형성과 발전",<br>최봉대 (경남대), 구갑우 (경남대)<br>"도시여성: 도시여성의 구성, 역할과 의식의 역사적 변화",<br>구수미 (경남대), 오유석 (성공회대)<br>"사회복지: 의료보장제도의 형성과 발전",<br>정우곤 (경남대), 이미경 (이화여대)<br>"사회의식: 주민의 역사인식 및 여론의 변화",<br>최완규 (경남대), 이주철 (한국방송공사) | 김경석 (국토연구원)<br>최진욱 (통일연구원)<br>최신림 (다산알투비)<br>서재진 (통일연구원)<br>윤미량 (통일부)<br>이철수 (고려대)<br>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 |
| 2004.04.09 | 제2회 북한도시연구 세미나<br>북한 도시의 재구조화 과정 : 청진, 신의주, 혜산을 중심으로 | "당사업체계의 재구조화: 지속과 변화의 이중주", 최완규<br>(경남대), 함택영 (경남대), 김근식 (경남대)<br>"1990년대 북한의 자립적 지방경제", 양문수 (경남대)<br>"1990년대 북한 도시 농민시장 활성화의 체제변동론적 의미",<br>최봉대 (경남대), 구갑우 (경남대)<br>"1990년대 사회보장제의 퇴색과 새로운 계층분화",<br>정우곤 (경남대), 이주철 (한국방송공사)<br>"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구수미 (경남대),<br>이미경 (이화여대)<br>"1990년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오유석 (성공회대),<br>김갑식 (경남대)<br>"경제난과 북한 대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social network)<br>변화", 장세훈 (동아대) | 고유환 (동국대)<br>이정철 (삼성경제연구소)<br>이석 (통일연구원)<br>박형중 (통일연구원)<br>김혜영 (숙명여대)<br>이우영 (경남대)<br>이승현 (국회도서관) |
| 2004.09.01 | 통일관 개관기념 학술회의<br>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 "남남갈등의 기원 및 전개과정", 손호철 (서강대)<br>"남남 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강원택 (숭실대)<br>"북한관과 남남갈등: 여론조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br>이우영 (경남대)<br>"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김태현 (중앙대)<br>"해외동포와 남남갈등", 이종원 (릿쿄대), 한원구 (경남대),<br>임명걸 (중국 해양대)<br>"한미동맹 재편과 남남갈등의 극복", 백학순 (세종연구소)<br>"평화통일정책과 남남갈등의 극복", 임혁백 (고려대)<br>"[라운드테이블] 남남갈등을 넘어서 평화통일의 길로"<br>보고: 김근식 (경남대) | 박형준 (한나라당)<br>김재홍 (열린우리당)<br>강태호 (한겨레신문)<br>김기정 (연세대)<br>윤덕희 (명지대)<br>임현진 (서울대)<br>김창호 (중앙일보)<br>김기식 (참여연대)<br>장수근 (한국자유총연맹)<br>이부영 (열린우리당)<br>원희룡 (한나라당)<br>권영길 (민주노동당)<br>한화갑 (민주당)<br>서진영 (고려대)<br>이종원 (릿쿄대)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05.05.03 | 한반도 평화체제 공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와 전략 | "정전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홍용표 (한양대)<br>"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과 과제: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강 (외교안보연구원)<br>"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br>"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각국의 전략과 역할", 박영호 (통일연구원)<br>"평화체제 구축의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시사점", 이대우 (세종연구소)<br>"동북아 다자 안보의 미래: 가능성과 한계", 최영종 (가톨릭대) | 김학성 (충남대)<br>박영준 (국방대)<br>김태현 (중앙대)<br>전봉근 (평화협력원)<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박종철 (통일연구원)<br>박찬봉 (통일부)<br>김원수 (외교부)<br>신성택 (국방부)<br>김근식 (경남대)<br>정옥임 (선문대)<br>이대근 (경향신문)<br>송문홍 (동아일보) |
| 2005.06.09 |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북한의 농업개발과 남북 및 국제협력 방안 | "북한의 농업개혁과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 과제",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br>"삼일포 협동농장 영농협력사업의 성과와 과제", 이병호 (통일농수산사업단)<br>"북한 농업증산을 위한 기술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김종환 (농촌진흥청)<br>"새로운 북한 농업협력모델의 창출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br>"구빈리 협동농장 지원으로 본 대북농업협력의 성과와 과제", 김선 (굿네이버스)<br>"남북농업협력의 평가와 추진방향", 김경량 (강원대) | 이일영 (한신대)<br>김영수 (현대아산)<br>김천식 (통일부)<br>김성민 (농림부)<br>박형중 (통일연구원)<br>남성욱 (고려대)<br>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br>정해창 (농업기반공사) |
| 2005.06.09 | 제3회 북한도시연구 세미나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 청진, 신의주, 혜산을 중심으로 | "체제전환기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전망", 장세훈 (동아대)<br>"북한 도시에서의 소비재 시장의 형성과 발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김갑식 (경남대)<br>"도시주민의 행위양식과 사회적 의식변화", 이주철 (한국방송공사), 오유석 (성공회대)<br>"지방당사업체계의 변화 전망", 최완규 (경남대), 함택영 (북한대학원대), 조영국 (경남대)<br>"북한의 도시 농민시장, 종합시장과 '사적 영역'의 형성",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최봉대 (경남대)<br>"북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경제적 변화", 정우곤 (경남대)<br>"전환시기 북한도시여성의 지위변화", 구수미 (경남대), 이미경 (이화여대) | 김용창 (세종사이버대)<br>김병연 (서강대)<br>이무철 (세종연구소)<br>차문석 (성균관대)<br>김용현 (동국대)<br>김영수 (서강대)<br>김귀옥 (한성대) |
| 2005.10.19 | 2005 제주대-경남대 통일세미나 동북아 정세변화와 통일교육의 방향 |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br>"미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강근형 (제주대)<br>"북한의 개방정책", 김일두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br>"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방향과 과제", 변종헌 (제주교대)<br>"통일문학의 현황과 과제", 양영길 (한림고고)<br>"통일교육과 미디어 활용", 김현기 (제주여중) | 김근식 (경남대)<br>김여선 (제주대)<br>신종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문영희 (민주평통)<br>김남수 (한라대)<br>김용찬 (제주여고)<br>김종식 (제주도교육청)<br>문경미 (삼양초) |
| 2006.06.02 | 2006 제주대-경남대 통일세미나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제주도 | "남북한 평화체제: 정치-군사적 접근", 박종철 (통일연구원)<br>"남북한 평화체제: 경제적 접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제주도: 한국의 입장", 강근형 (제주대)<br>"2차 남북정상회담과 제주도: 북한의 입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제주시 평화도시", 김영란 (제주여민회)<br>"제주시 평화통일운동", 고성빈 (제주대) | 김용복 (경남대)<br>김진호 (제주대)<br>김근식 (경남대)<br>허경자 (민주평통)<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김부찬 (제주대)<br>현순화 (제주산업정보대)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06.09.15 | 학술진흥재단<br>중점연구소지원사업<br>1차년도 학술회의<br>북한의 체제전환과<br>국제협력: 사회주의<br>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 "경제정책 변화와 성과: 구조개혁 정책·안정화 정책",<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br>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경제특구 및 외자유치 활성화 제도에 관한 연구",<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정부의 역할과 조정 기제의 변화: 사회주의체제 분권화의<br>정치경제", 이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br>민경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체제전환 국가의 기본법 원칙의 구현 및 집행에 관한 연구",<br>김근식 (경남대), 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의 기본원칙 변화에 관한 연구",<br>류길재 (북한대학원대), 민경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신종대 (북한대학원대),<br>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당 독재와 정치적 다원주의",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정 및 퇴조: 사회주의 체제전환과<br>이데올로기 변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이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체제 내적 모순과 체제 외적 모순", 조영국 (국가인권위원회)<br>"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비교연구",<br>최봉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 김병연 (서울대)<br>권은민 (김·장 법률사무소)<br>유욱 (법무법인 태평양)<br>홍민 (동국대)<br>정흥모 (연세대)<br>정영화 (서경대)<br>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br>제성호 (중앙대)<br>김용현 (동국대)<br>진희관 (인제대)<br>김일기 (건국대)<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 |
| 2007.08.24 | 학술진흥재단<br>중점연구소지원사업<br>2차년도 학술회의<br>북한의 체제전환과<br>국제협력: 북한의<br>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br>발전조건 | "권위구조의 변화: 정치체제 변화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전망",<br>김갑식 (경남대)<br>"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br>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탈냉전 이후 '피포위' 의식의 심화와 세계체제에의 편입:<br>북한의 대외정책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br>최완규 (북한대학원대), 이무철 (경남대)<br>"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 류길재<br>(북한대학원대), 민경배 (경남대)<br>"북한의 경제특구의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 임을출 (경남대)<br>"시장경제 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br>김근식 (경남대), 윤대규 (경남대), 민경배 (경남대)<br>"관료적 조정기제와 시장적 조정기제의 접합: 북한의 경제조정<br>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이무철 (경남대)<br>"소유제 변화 없는 시장화 정책: 계획과 시장의 관계",<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의 비공식경제 시장화의 체제이행론적<br>의의", 최봉대 (경남대)<br>"북한의 법제도 변화의 내용과 변화", 최은석 (경남대)<br>"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의 변화",<br>민경배 (경남대)<br>"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제도", 신종대<br>(북한대학원대), 최은석 (경남대)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조영국 (국가인권위원회)<br>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br>유욱 (법무법인 태평양)<br>권은민 (김·장 법률사무소)<br>김일기 (건국대)<br>김석진 (산업연구원)<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김성욱 (고려대)<br>김승교 (법무법인 정평)<br>제성호 (중앙대) |
| 2008.06.27 | 학술진흥재단<br>중점연구소지원사업<br>3차년도 학술회의<br>북한 체제전환을 위한<br>국제협력 |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동북아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기구의 기술 원조 문제", 최봉대 (경남대)<br>"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체제전환", 김갑식 (경남대) |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이석기 (산업연구원)<br>최창용 (시라큐스대)<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 |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체제전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이무철 (경남대)<br>"동북아 통합을 위한 법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최은석 (경남대)<br>"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가의 국제협력과 북한", 민경배 (경남대)<br>"북한의 법제도적 분야의 국제협력 과제와 남북협력방안",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임을출 (경남대)<br>"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와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윤대규, 김근식, 최은석 (경남대)<br>"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민경배 (경남대)<br>"북미관계 개선의 법적 장애요인 및 해결 전망", 임을출 (경남대) | 김용현 (동국대)<br>조영국 (국가인권위원회)<br>제성호 (중앙대)<br>장복희 (선문대)<br>박정원 (국민대)<br>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br>장준호 (경희대)<br>최창용 (시라큐스대) |
| 2008.10.31 |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br>공동 전문가 워크샵<br>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br>중간평가 및 전망과<br>대안모색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중간평가와 전망: 정치적 측면", 류길재 (북한대학원대)<br>"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중간평가와 전망: 경제·사회적 측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미국 대선이후 6자회담의 향배와 한반도 문제 전망", 유병선 (충남대)<br>"한반도 문제의 국내정치화 추세와 대북정책의 대안모색", 한종기 (연세대) | 김학성 (충남대)<br>김연철 (한남대)<br>박재정 (충남대)<br>유호열 (고려대)<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최종건 (북한대학원대)<br>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이우영 (북한대학원대) |
| 2008.12.02 |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br>공동주최 제4회 동북아<br>미래포럼<br>오바마 행정부 출범과<br>동북아의 미래비전 | "미국 새 정부의 동북아 전략 구상",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포럼: 의제와 전망", 허문영 (통일연구원)<br>"남북경제공동체 활성화 방안",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br>이상현 (세종연구소) |
| 2009.09.10 | 학술진흥재단<br>중점연구소지원사업<br>2단계 1차년도 학술회의<br>북한의 체제전환과<br>국제협력: 동북아 질서와<br>북한 |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북한체제전환의 지역악보적 여건", 최봉대 (경남대)<br>"'북한 인권문제'와 동북아지역 협력", 이무철 (경남대)<br>"동북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에 대한 관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 윤대규 (경남대), 최은석 (경남대)<br>"6자 회담의 다자적 제도로의 진화와 북한의 변화", 임을출 (경남대)<br>"동북아 경제 협력의 제도화와 북한: 북한에 대한 동북아의 인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동북아 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김갑식 (경남대)<br>"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질서 형성과 남북관계", 이수훈 (경남대)<br>"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최종건 (연세대)<br>"동북아 질서와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 최은석 (경남대)<br>"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 박후건 (경남대)<br>"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민경배 (경남대) |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원)<br>조영국 (국가인권위)<br>이수정 (북한대학원대)<br>이규창 (통일연구원)<br>박정원 (국민대)<br>제성호 (중앙대)<br>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전병곤 (통일연구원)<br>홍우택 (통일연구원)<br>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br>김동균 (법무법인 다산)<br>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
| 2009.09.23 | 21세기정치학회 공동<br>2009 추계 학술회의<br>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와<br>북한의 변화 | "2009년 하반기 북한 대남·대외전략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진인관 (인제대)<br>"경상남도 대북농업협력사업의 경과와 전망", 전강석 (경남통일농업협력회)<br>"동북아철도협력과 북한변화", 나희승 (철도연구원)<br>"북·중관계와 북한변화", 전병곤 (통일연구원) | 박후건 (경남대)<br>차재권 (동의대)<br>허승도 (경남신문)<br>이상근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br>박병인 (한국외대)<br>김근식 (경남대)<br>김홍수 (영산대)<br>이단 (부경대)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10.01.20.<br>-01.21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br>공동 워크숍<br>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전망", 정은미 (서울대)<br>"후계자 유일지도체제의 확립과 권력구조 변화 전망",<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2010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김근식 (경남대)<br>"2010년 북미관계 전망", 김학성 (충남대) | - |
| 2010.08.10 | 『한국과 국제정치』<br>창간 25주년·통권 70호<br>기념행사 및 세미나<br>한국 정치학 연구의<br>발전과정과 향후 과제 | "한국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를 중심으로",<br>이호철 (인천대) | 강원택 (숭실대)<br>김기정 (연세대)<br>김의영 (경희대)<br>류석진 (서강대)<br>박종철 (통일연구원) |
| 2010.09.07 |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br>지원사업 2단계 제2차년도<br>학술회의<br>동북아 질서와 북한의<br>체제전환: 동북아 질서에<br>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 | "북한의 국제관계이론과 동북아 질서", 최종건 (연세대)<br>"21C 동북아 안보질서와 북한의 대응",<br>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북아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접근방식과 그 특징",<br>최봉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 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북한 인권문제' 대 북한의 인권관", 이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인식",<br>민경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북아 안보레짐에 대한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br>윤대규 (경남대),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 (변화)과 법제적 대응",<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북아 인권레짐과 북한의 법제적 대응",<br>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br>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황지환 (연세대)<br>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br>정영철 (서강대)<br>조영국 (국가인권위원회)<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제성호 (중앙대)<br>이규창 (통일연구원)<br>이영훈 (한국은행)<br>유욱 (법무법인 태평양)<br>김동균 (법무법인 다산)<br>이요원 (서울대) |
| 2010.09.09.<br>-09.10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br>공동 학술회의<br>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 "통일의 가치와 통일철학의 성찰", 김형찬 (고려대)<br>"다문화주의와 통일담론", 이수정 (북한대학원대)<br>"통일담론과 평화담론", 정영철 (서강대)<br>"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김근식 (경남대)<br>"남북한 경제통합론의 쟁점과 과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정체성과 통일의 사회심리", 이우영 (북한대학원대)<br>"시민사회 통일론의 전망", 조대엽 (고려대)<br>"정부·언론 관계와 언론의 통일담론", 송현주 (한림대)<br>"동원된 영화의 미몽: 남북한 동원 체제와 신상옥의 영화",<br>이상우 (고려대)<br>"문학 속의 북한과 통일", 김재용 (원광대)<br>"냉전 분단시대의 문화사", 허은 (고려대)<br>"17세기 북벌론과 21세기 북벌론 세계관", 정태헌 (고려대)<br>"동북아 경제협력과 한반도 경제", 이남주 (성공회대)<br>"미중관계의 미래와 한반도의 통일", 박건영 (가톨릭대)<br>"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 홍석률 (성신여대)<br>김현미 (연세대)<br>곽준혁 (고려대)<br>김용현 (동국대)<br>조동호 (이화여대)<br>윤인진 (고려대)<br>조한범 (통일연구원)<br>김종혁 (중앙일보)<br>김남석 (부경대)<br>권명아 (동아대)<br>김호기 (연세대)<br>정해구 (성공회대)<br>김연철 (인제대)<br>이희옥 (성균관대)<br>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 2011.05.03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br>세미나<br>평화통일과 남북경협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김영윤 (통일연구원)<br>"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 김계동 (연세대)<br>"남북 경협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진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북중경협 확대와 한반도의 미래", 이상근 (연세대) |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석 (한국개발연구원)<br>배종렬 (수출입은행)<br>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11.06.24 | 한국시민윤리학회-<br>창원 분소 공동 2011년<br>하계학술회의<br>남북 관계의 현재와 미래 | "북한의 후계구도와 김정은 체제 전망", 진희관 (인제대)<br>"탈냉전기 미국의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서보혁 (이화여대)<br>"중동시민혁명이 북한 민주화에 주는 시사점:<br>민주화 지원과정과 정보기술 효과를 중심으로",<br>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경민 (제주대)<br>"북한의 선군정치 딜레마와 권력승계 향후 전망", 이지경 (고려대)<br>"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북한 붕괴론", 김근식 (경남대)<br>"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대북사업 평가와 과제", 전강석<br>(경남통일농업협력회) | 이영동 (경남신문)<br>김태완 (동의대)<br>전기원 (해군사관학교)<br>조영국 (국가인권위원회)<br>조정규 (경남대)<br>이성봉 (부경대) |
| 2011.07.20 |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br>지원사업 2단계 제3차년도<br>학술회의<br>동북아 질서와 북한의<br>체제전환: 북한의<br>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br>협력 | "동북아 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동북아 지역안보 구상: 북한의 변화와 다자안보의 적극적 모색",<br>박병인 (경남대)<br>"역내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 최봉대 (경남대)<br>"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전망",<br>구갑우 (북한대학원대), 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br>이무철 (경남대)<br>"한반도 평화구축의 경로와 전략: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br>이수훈 (경남대), 박병인 (경남대)<br>"북한의 체제전환 법제와 동북아 협력", 민경배 (경남대)<br>"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모색", 임을출 (경남대)<br>"북한의 대외경제제도 전환을 위한 동북아 협력 방안 모색",<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법제로의 이행과 동북아 협력",<br>윤대규 (경남대), 민경배 (경남대)<br>"동북아 인권레짐의 형성과 북한의 인권법제 개선", 김근식 (경남대)<br>"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 구축", 최은석 (경남대)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이정우 (평화문제연구소)<br>윤철기 (성균관대)<br>정영철 (서강대)<br>서보혁 (이화여대)<br>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이규창 (통일연구원)<br>이효원 (서울대)<br>유욱 (법무법인 태평양)<br>제성호 (중앙대)<br>김동균 (법무법인 다산)<br>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2011.09.19 | 한겨레-경남 포럼<br>분권화 시대의<br>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br>전환과 지자체의 대북<br>사업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br>새로운 접근", 진희관 (인제대)<br>"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br>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br>"경상남도의 대북농업 지원사업 평가와 정책방향",<br>김영표 (경남발전연구원) |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br>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br>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br>이찬호 (법무법인)<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br>김지영 (경남통일농업협회)<br>김두관 (경남도지사)<br>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br>전강석 (경남통일농업협력회)<br>정구창 (경남대) |
| 2011.11.23 | 남북관계 전문가 세미나<br>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 "북핵문제 전개과정의 교훈과 전망",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동북아 안보 공동체 구상",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방경제의 미래-가스관 연결사업을 중심으로-",<br>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이희옥 (성균관)<br>문병철 (서울대)<br>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박병인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2011.12.28 | 경향신문 공동 주최 긴급<br>토론회<br>김정은의 북한, 어디로<br>가는가 | "김정은 체제 북한의 미래와 정치체제",<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김정은 시대 남북관계",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김정은 시대 북미관계", 고유환 (동국대)<br>"김정은 시대 북중관계", 이희옥 (성균관대) |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br>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12.08.28 |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단계 제1차년도 학술회의<br>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중국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천안문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미얀마의 월경 경제협력과 체제전환의 글로벌 거버넌스", 최봉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사회주의 체제전환기 핵비확신 레짐 거버넌스의 작용: 구소련 비핵화사례를 중심으로",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박병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글로벌 거버넌스와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구축",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간 경제 제재 레짐: 글로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양문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안보법제 거버넌스: OSCE 규범체계를 중심으로",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중국의 개혁·개방과 글로벌 개발지원 거버넌스: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심으로", 박병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미디어와 동유럽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혁명적 체제전환의 사례", 구갑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br>"분단국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양안간의 분단 상황 관리법제를 중심으로", 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체제전환국 인권법제 구축과 글로벌 거버넌스: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민경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사회주의 체제전환국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윤대규 (경남대), 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이무철 (통일연구원)<br>장용석 (평화통일연구원)<br>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br>박정원 (국민대)<br>한명섭 (한명섭법률사무소)<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이기현 (통일연구원)<br>유현정 (세종연구소)<br>제성호 (중앙대)<br>이규창 (통일연구원) |
| 2012.10.05 | 2012 남북교류협력포럼 |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남북관계의 역할", 김근식 (경남대)<br>"북한 개혁개방 가능성과 남북경협의 역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br>"지자체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관계 (경남을 중심으로)", 김영표 (경남발전연구원)<br>"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향후 과제", 진희관 (인제대) |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br>김흥수 (영산대)<br>권문수 (경남통일농업협력회) |
| 2012.10.31 | 2012 남북관계 전문가 세미나<br>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 전망 |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분석",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전망",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송정호 (우석대)<br>진희관 (인제대) |
| 2012.11.13 | 뉴스1 공동주최 세미나<br>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향과 전략 | 최대석 (이화여대),<br>고유환 (동국대),<br>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 박건영 (가톨릭대)<br>이호철 (인천대)<br>박순성 (동국대)<br>이정철 (숭실대)<br>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br>임강택 (통일연구원)<br>조봉현 (IBK경제연구소)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12.11.21 | 제2차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민주화·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 "김일성 사망과 조문정국: 그해 여름, 한반도의 시계는 거꾸로 갔다", 김진환 (건국대)<br>"서울의 함성, 평양의 좌절과 반격: 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 신종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두 차례의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양무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강제된 속전속결의 김정은 권력승계",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임수경의 방북과 남북관계", 이우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의 기근, 역사적 기원과 남북관계", 정병욱 (고려대)<br>"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북한의 시장화", 양문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고립된 전사, 경계의 타자: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영화에 나타난 '北'의 표상", 박유희 (고려대)<br>"'탈냉전 민족 스펙타클'로서의 2000년 여름 남북이산가족 상봉", 이수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牛步千里로 만든 오작교: 소떼 방북과 남북 사회의 변화", 정태헌 (고려대)<br>"쌀과 비료로 여는 대화의 문: 대북지원의 정치경제와 남북관계의 포물선", 조대엽 (고려대), 홍성태 (고려대)<br>"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성사, 합의 이행의 역사적 재조명",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홍종선 (고려대) | 홍석률 (성신여대)<br>정영철 (서강대)<br>박현선 (고려대)<br>이석 (한국개발연구원)<br>김수암 (통일연구원)<br>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br>정현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위원회) |
| 2011.11.23 | 남북관계 전문가 세미나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 | "북핵문제 전개과정의 교훈과 전망",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동북아 안보 공동체 구상",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김근식 (경남대)<br>"북방경제의 미래 - 가스관 연결사업을 중심으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이희옥 (성균관대)<br>문병철 (서울대)<br>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박병인 (경남대) |
| 2012.12.07 | 연구소 공동 북한연구학회 2012 동계학술회의 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학: 구상·정책·실천 | "차기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의 방향", 박인휘 (이화여대)<br>"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실행체계", 김종욱 (동국대)<br>"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전략", 서보혁 (서울대)<br>"남북경협의 정치경제: 환경, 변수, 구조",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중경협의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br>"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정성장 (세종연구소)<br>"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북핵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황지환 (서울시립대)<br>"북한의 국가성과 국가 행위성의 구성", 홍민 (동국대)<br>"북한의 수령제와 김정은체제", 이승열 (이화여대)<br>"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윤철기 (북한대학원대)<br>"선군과 민생 사이: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 동향", 김성수 (성균관대)<br>"김정은의 시적 형상화", 이지순 (북한대학원대)<br>"기억과 재현 사이: 2012년 북한 소설 동향", 오창은 (중앙대)<br>"북한 식량문제에 대한 재고찰: 함경북도 무산군 소토지를 중심으로", 정은이 (경상대)<br>"국제 인도주의 레짐의 대북지원에의 함의", 문경연 (연세대)<br>"재중탈북민의 쟁점과 한국의 정책 방향: 현장난민과 일시적 보호 개념을 중심으로", 양길현 (제주대)<br>"북한의 도시발전 잠재력: 남포를 중심으로", 이상준 (국토연구원)<br>"남북한 방송통신 표준화 교류협력 전략화 방안", 최성 (남서울대)<br>"새 시대 통일교육의 지향과 교육통합의 기초 연구", 박찬석 (공주교대) | 박종철 (통일연구원)<br>김병로 (서울대)<br>홍현익 (세종연구소)<br>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br>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br>주성환 (건국대)<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박희진 (동국대)<br>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전영선 (건국대)<br>강민정 (단국대)<br>오태호 (경희대)<br>차문석 (통일교육원)<br>장용석 (서울대)<br>조정현 (통일연구원)<br>김현수 (단국대)<br>유갑상 (동국대)<br>이미경 (통일교육원)<br>조영주 (이화여대)<br>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강호제 (이화여대)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 | "북한 영화 속의 여성상: 2000년대 북한 영화 분석을 중심으로", 안지영 (인제대)<br>"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분화 고찰", 홍은정 (중국 인민대학)<br>"정주영의 '소떼'와 김정은의 '목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 박춘대 (숭실대)<br>"북한의 선전선동과 현지지도의 역할", 조민 (동국대) | |
| 2013.02.28 |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기획학술회의<br>주요국의 한반도 정책과 새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평가와 전망", 김용호 (인하대)<br>"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차창훈 (부산대)<br>"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 전망", 박영준 (국방대)<br>"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여인곤 (통일연구원)<br>"유럽연합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신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 김현욱 (국립외교원)<br>"신정부의 통상협력 정책 전망", 이상환 (한국외대)<br>"신정부의 북한통일 정책 전망", 성기영 (연세대) |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br>김흥규 (성신여대)<br>조양현 (국립외교원)<br>홍현익 (세종연구소)<br>김종법 (서울대)<br>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박재적 (통일연구원)<br>윤성욱 (동아대)<br>서보혁 (서울대) |
| 2013.05.02 | 국회입법조사처<br>-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br>-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공동주최 세미나<br>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모색 | "동북아 질서의 재구조화와 한반도 평화"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전망", 박명규 (서울대)<br>"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길정우 (새누리당)<br>원혜영 (민주통합당)<br>김병로 (서울대)<br>박종철 (통일연구원) |
| 2013.10.14 |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단계 제2차년도 학술회의<br>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 |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박병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월경 경제협력: 체제전환 유관효과 분석", 최봉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글로벌 거버넌스의 북한 인권문제 관여에 대한 북한의 대응",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글로벌 다자안보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 김근식 (경남대)<br>"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 (MDGs) 체제와의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다자·양자간 경제 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 6자회담을 중심으로", 이수훈 (경남대), 박병인 (경남대)<br>"동북아 평화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 한반도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최완규 (북한대학원대)<br>"사회주의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북한의 시각과 대응", 윤대규 (경남대), 민경배 (경남대)<br>"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북한의 법제적 인식과 대응", 김동엽 (경남대), 최은석 (통일교육원)<br>"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민경배 (경남대) | 전병곤 (통일연구원)<br>장용석 (서울대)<br>이무철 (북한대학원대)<br>한명섭 (한명섭법률사무소)<br>이규창 (통일연구원)<br>박정원 (국민대)<br>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br>유현정 (세종연구소)<br>제성호 (중앙대)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13.11.12 | 한국건설기술연구원<br>공동주최 세미나<br>북한 SOC 구축 전략<br>수립을 위한 경험의 재구성 | "북한 SOC 구축 전략 연구 방향", 윤수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br>"(한국건설)한국건설산업 50년 역할과 시사점",<br>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br>"(대북협력)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 심상진 (경기대)<br>"(독일사례)통일독일의 국토건설 경험과 시사점",<br>이상준 (국토연구원)<br>"(정치경제)북한의 정치 변동과 통일과정",<br>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br>"(개발협력)북한 인프라 분야 개발협력과 빈곤감소",<br>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최적방법)복잡성 관점에서 본 북한문제와 복원력",<br>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br>안현실 (한국경제신문)<br>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br>김태황 (명지대)<br>김석진 (통일연구원) |
| 2014.07.14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br>아태지역연구센터<br>공동주최 정책토론회<br>동북아 외교지형 변화와<br>한국 외교의 대응: 최근<br>중-러, 북-러, 북-일 관계<br>변화를 중심으로 | "중-러 전략적 협력의 배경과 전망: 중국 시각", 이동률 (동덕여대)<br>"중-러 전략적 협력의 배경과 전망: 러시아 시각", 김연규 (한양대)<br>"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장덕준 (국민대)<br>"북-일 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박영준 (국방대) | 김재철 (가톨릭대)<br>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br>윤성학 (고려대)<br>엄구호 (한양대)<br>여인곤 (통일연구원)<br>이원덕 (국민대)<br>양기호 (성공회대) |
| 2014.10.23 |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br>지원사업 3단계 제3차년도<br>학술회의<br>북한의 체제전환과<br>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br>거버넌스와 북한의<br>체제전환 전망 | "북핵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br>가능성과 한계", 이수훈 (경남대), 이무철 (경남대)<br>"북한적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울란바토르<br>프로세스의 조건과 가능성", 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최완규 (북한대학원대 )<br>"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체제와<br>북한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김갑식 (통일연구원)<br>"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 사이의 안보법제협력: 동북아<br>지역안보제도 성공조건의 탐색", 김근식 (경남대), 김상기 (경남대)<br>"북한 인권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br>민경배 (경남대)<br>"북한의 체제전환과 다자/양자간 경제 제재 레짐: 전망과 과제",<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br>"탈냉전기 북한의 시장화법제 개혁과 삶의 질의 변화: 글로벌<br>거버넌스의 역할을 위한 함의", 김상기 (경남대)<br>"북한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윤대규 (경남대),<br>민경배 (경남대)<br>"남북한 법제통합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용", 김동엽 (경남대)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br>황지환 (서울시립대)<br>유현정 (세종연구소)<br>제성호 (중앙대)<br>박정원 (국민대)<br>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br>이규창 (통일연구원)<br>최은석 (통일교육원) |
| 2014.10.30 | '시장 신세대'를 통해 본<br>북한의 변화 | "북한 시장 신세대의 경제활동 양태", 한정식 (북한 경제교육<br>전문가)<br>"북한 시장 신세대의 의식 변화", 정은이 (경상대)<br>"북한 시장 신세대의 경제활동 분석", 노귀남 (북한 연구자)<br>"북한 시장 신세대와 향후 북한의 변화 방향", 윤인주 (고려대) | 설한 (경남대)<br>윤태영 (경남대)<br>진희관 (인제대)<br>북한이탈주민A<br>박후건 (경남대)<br>장철운 (북한대학원대)<br>김연철 (인제대)<br>북한이탈주민 B |
| 2014.12.15 | 북한 새 세대: 체제전환<br>혹은 체제수호의 축? | "경과보고 및 북한 새 세대 연구의 의미",<br>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 새 세대 인식조사: 정치영역",<br>최봉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 새 세대 인식조사: 젠더영역", 오유석 (성공회대)<br>"북한 새 세대 인식조사: 제영역",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br>"북한 새 세대 인식조사: 사회문화영역",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 윤철기 (서울교대)<br>조정아 (통일연구원)<br>북한이탈주민 A<br>이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이수정 (덕성여대)<br>북한이탈주민 B |

| 일자 | 주제 | 발표 | 토론 |
|---|---|---|---|
| 2015.02.13 | 북한사회문화학회 공동 학술회의<br>북한과 남한 사이: 민족, 사상, 문화<br>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Ethnicity, Idea, and Culture | "북한에서의 남한", 조대엽 (고려대)<br>"북한 한류 읽기", 이우영 (북한대학원대)<br>"북한의 주체 사회주의와 계몽의 기획: 민족주의의 야누스, 진보와 퇴행의 역설", 강진웅 (고려대)<br>"'1990년' 이후 남한 개신교의 북한선교: 탈북자 선교를 중심으로", 정나진 (한신대)<br>"남북한 통일과 통합: 문화의 기능과 역할", 정영철 (서강대) | 강동완 (동아대)<br>오유석 (성공회대)<br>정은미 (서울대)<br>김병로 (서울대)<br>이광근 (동국대)<br>장세훈 (동아대) |
| 2016.10.11 | 경남대 개교70주년, 경남신문 창간70주년 공동 토크콘서트<br>국제관계의 현실과 한반도의 미래 | 선준영 (전 UN 대사), 진념 (전 경제부총리),<br>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원태호 (경남대),<br>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br>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 - |
| 2018.03.3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 한국냉전학회 공동워크숍<br>냉전, 두 세계 사이에서 : 정보, 스파이, 삶 | "조작 간첩의 생애를 통해 본 냉전의 사회사", 김상숙 (단국대)<br>"대중문화 속 스파이와 냉전 산업", 이하나 (서울대)<br>"냉전의 첨병에서 평화의 사도로?: 동독 슈타지의 자기인식", 이동기 (강릉원주대) | - |
| 2019.11.12 |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 | "금강산관광 전개과정 및 의미: 회고와 평가", 홍순직 (국민대)<br>"북한의 관광산업 전략과 금강산 관광: 평가와 전망", 서철준 (중국 연변대)<br>"우리의 대응전략 제언: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br>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br>올레그 키리야노프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br>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br>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 2020.01.10 |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 "북한정세 평가 및 전망",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 구갑우 (북한대학원대)<br>"북미관계 평가 및 전망",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
| 2021.12.03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공동 학술대회<br>북한 빅데이터 분석 및 해석을 위한 학제간 연구 | "노동신문의 딥러닝 기반 분석", 송상헌 (고려대), 이규민 (고려대)<br>"북한 연구 동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성태 (고려대 언어학과)<br>"북한 농축산물 유통", 조충희 (굿파머스)<br>"북한에 관한 외신보도분석,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br>"북한의 통일 개념 변화", 박소혜 (북한대학원대)<br>"초청특강: 디지털 북한", 박정진 (경남대) | - |

## IFES 컬로퀴엄 개최현황

| 회차 | 일자 | 주제 | 발표자 |
|---|---|---|---|
| 제1회 | 2001.12.18. | 북한의 가족국가 체제의 형성- 국가와 가족, 유교문화의 정치적 변용을 중심으로 | 강진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제2회 | 2002.03.15. | 남북장관급 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전술 | 양무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제3회 | 2002.05.03. | 북한 지하경제의 현황, 규모, 그리고 성격 | 한상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제4회 | 2002.06.21. | 근대화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對韓정책:<br>케네디 행정부와 5·16쿠데타 | 마상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제5회 | 2002.12.02. | 국제 기후변화레짐을 통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연구 | 김병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제6회 | 2003.02.18. | 북한문제의 에너지적 차원 |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제7회 | 2003.04.23. | The National Patterns of Unemployment Policies in Two Asian Countries: Malaysia and South Korea | 이일청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
| 제8회 | 2003.05.21. | 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방향 |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
| 제9회 | 2003.06.19.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문제 |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제10회 | 2008.06.20. | (1) 쇠고기 협상과 한미관계 그리고 한국의 국가이익<br>(2) 북한경제 개발과 국제협력 | 선준영 (북한대학원대)<br>최창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제11회 | 2009.03.26. |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최근 남북관계 동향 | 이관세 (북한대학원대) |
| 제12차 | 2009.05.22. | 6자회담과 북핵문제 | 송민순 (국회의원) |
| 제13차 | 2009.06.25. |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DPRK:<br>Implications for the Nuclear Question? | Stephan M. Hanggard<br>(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
| 제14차 | 2009.10.15. | 한국의 미래비전과 한러관계 | 정태익 (북한대학원대) |
| 제15차 | 2009.12.17. | 북미 과학기술 현황과 과제:<br>2009년 12월 방북 비공개설명회 | Stuart Thorson (미국 시라큐스대) |
| 제16차 | 2010.01.19. | 북한 벼랑 끝 외교의 역사와 분석: 1966-2009년 |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
| 제17차 | 2010.07.12. | 방북 비공개 설명회 (현 북한상황 및 후계체제 관련) |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
| 제18차 | 2011.04.08. |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
| 제19차 | 2011.10.21. | 미국 비정부기구 대표가 본 북한 기아실태 | David Austin (Mercy Corps Operations in North Korea) |
| 제20차 | 2012.06.13. |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아시아전략과 한반도 |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
| 제21차 | 2014.07.28. | National Interests or Multi-agent Dynamics?<br>Driving Forces behind Postwar Japanese and German Policies on Apology/Compensation | 구양모 (미국 노리치대) |
| 제22차 | 2014.11.13. | Trip Report: North Korea |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제23차 | 2014.12.17. | 최근 북-러 경제협력 동향: 평가와 전망 | 이태림 (법무법인 세종) |
| 제24차 | 2015.04.24. |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s in East Asia) | 빌라하리 카우시칸 (싱가포르 외교부) |
| 제25차 | 2015.06.04 | 한반도 및 북한 정세 분석, 평가, 전망 | 미8군 북한정보분석팀 |
| 제26차 | 2016.06.07 | 제7차 조선로동당 당대회의 함의와 전망 | 김근식 (경남대)<br>양무진 (북한대학원대)<br>양문수 (북한대학원대) |

# 03

## 연구총서(단행본) 시리즈

1972 2022

## 북한연구 시리즈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1 | 북한연구 | 북한평론 | 박재규 | 1975.10.15. |
| 2 | 북한연구 | 북한외교론 | 박재규·고병철 외 | 1977.10.15. |
| 3 | 북한연구 | 북한무역론 | 공산권경제연구실 | 1979.06.15. |
| 4 | 북한연구 | The Politics of North Korea | 박재규·김정근 편 | 1979.12.31. |
| 5 | 북한연구 | 북한군사정책론 | 박재규·박웅서 외 | 1983.04.25. |
| 6 | 북한연구 | 북한정치론 | 박재규 | 1984.01.10. |
| 7 | 북한연구 | 북한의 대외정책 | 박재규 편 | 1986.08.30. |
| 8 | 북한연구 |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 박재규·고병철·곽태환 편 | 1987.01.01. |
| 9 | 북한연구 |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 고현욱·김영주 외 | 1987.06.20. |
| 10 | 북한연구 | 북한의 법과 법이론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988.06.30. |
| 11 | 북한연구 |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 정상훈·김윤환 외 | 1990.02.28. |
| 12 | 북한연구 |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 양재인·함택영 외 | 1990.06.30. |
| 13 | 북한연구 |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 김일평·김부기 외 | 1991.12.20. |
| 14 | 북한연구 |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건설 | 고병철·신병식 외 | 1992.12.18. |
| 15 | 북한연구 |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 최청호·고현욱 외 | 1993.12.15. |
| 16 | 북한연구 |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 황의각·조영건 외 | 1995.02.22. |
| 17 | 북한연구 |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 박재규 편 | 1999.06.01. |
| 18 | 북한연구 | 인터넷과 북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주)하나로통신 편 | 2000.12.16. |
| 19 | 북한연구 |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 함택영 외 | 2000.12.30. |
| 20 | 북한연구 |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 서대숙·정성장 외 | 2002.02.28. |
| 21 | 북한연구 |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 최완규 편 | 2004.04.30. |
| 22 | 북한연구 | North Korea and the World: Explaining Pyongyang's Foreign Policy | 고병철 편 | 2005.02.01. |
| 23 | 북한연구 |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 최완규 편 | 2006.03.18. |
| 24 | 북한연구 | 북한의 노동 | 양문수·박정호 외 | 2007.01.10. |
| 25 | 북한연구 |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 최완규 편 | 2007.06.15. |
| 26 | 북한연구 |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 윤대규 편 | 2008.07.18. |
| 27 | 북한연구 |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 윤대규 편 | 2008.08.14. |
| 28 | 북한연구 |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 윤대규 편 | 2008.08.30. |
| 29 | 북한연구 |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 윤대규 편 | 2008.08.31. |
| 30 | 북한연구 | The Dynamics of Change in North Korea: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 박후건 편 | 2009.07.15. |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31 | 북한연구 |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 윤대규 편 | 2009.12.31. |
| 32 | 북한연구 |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 윤대규 편 | 2010.02.10. |
| 33 | 북한연구 |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 이수훈 편 | 2010.12.03. |
| 34 | 북한연구 |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 이수훈 편 | 2010.12.04. |
| 35 | 북한연구 |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 이수훈 편 | 2011.08.31. |
| 36 | 북한연구 |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 이수훈 편 | 2011.10.31. |
| 37 | 북한연구 |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 | 이수훈 편 | 2012.08.31. |
| 38 | 북한연구 |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 | 이수훈 편 | 2012.11.16. |
| 39 | 북한연구 | Nuclear North Korea: Regional Dynamics, Failed Policies, and Ideas for Ending a Global Stalemate | 이수훈 편 | 2012.11.30. |
| 40 | 북한연구 |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 2012.12.01. |
| 41 | 북한연구 |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이수훈 편 | 2014.01.10. |
| 42 | 북한연구 |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윤대규 편 | 2015.06.10. |
| 43 | 북한연구 |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5.06.20. |
| 44 | 북한연구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 윤대규 편 | 2016.06.30. |
| 45 | 북한연구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 윤대규 편 | 2016.06.30. |
| 46 | 북한연구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 윤대규 편 | 2016.11.29. |
| 47 | 북한연구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 윤대규 편 | 2016.11.30. |
| 48 | 북한연구 | Rebuilding North Korea's Economy: Politics and Policy | Phillip H. Park | 2016.12.01. |
| 49 | 북한연구 |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 | 임을출 | 2016.12.15. |
| 50 | 북한연구 | 북핵, 오늘과 내일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6.12.31. |
| 51 | 북한연구 | North Korean Tourism: Plans, Propaganda, People, Peace | Dean J. Ouellette | 2017.12.31. |
| 52 | 북한연구 |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 신석호 외 | 2018.03.09. |
| 53 | 북한연구 |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 이관세 | 2019.04.20. |
| 54 | 북한연구 |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 북대북한연구회 | 2019.08.22. |
| 55 | 북한연구 |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 이관세 | 2020.06.26. |
| 56 | 북한연구 |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20.12.01. |
| 57 | 북한연구 |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 박서화 | 2021.01.26. |
| 58 | 북한연구 |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101가지 질문·답변-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21.02.16. |
| 59 | 북한연구 |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 박서화 | 2021.11.11. |
| 60 | 북한연구 |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임을출 | 2021.12.31. |

## 통일연구 시리즈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1 | 통일연구 |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 곽태환·웨인 페터슨 외 | 1983.12.31. |
| 2 | 통일연구 |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 곽태환·김종한·김홍낙 편 | 1984.12.31. |
| 3 | 통일연구 |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 김한교·고병철 외 | 1986.03.20. |
| 4 | 통일연구 |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 구영록·김학준 외 | 1986.05.30. |
| 5 | 통일연구 |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 양성철 편 | 1989.01.31. |
| 6 | 통일연구 |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 박성조·양성철 | 1991.08.20. |
| 7 | 통일연구 |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 함택영·리영희 외 | 1992.08.30. |
| 8 | 통일연구 |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996.01.31. |
| 9 | 통일연구 |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996.04.06. |
| 10 | 통일연구 | The Four Powers and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 곽태환 편 | 1997.02.28. |
| 11 | 통일연구 |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 곽태환 외 | 1997.10.31. |
| 12 | 통일연구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 곽태환 외 | 1997.11.15. |
| 13 | 통일연구 |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 고병철 편 | 2002.12.20. |
| 14 | 통일연구 |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04.12.30. |
| 15 | 통일연구 |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 한용섭 | 2005.03.01. |
| 16 | 통일연구 |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 북한현대화연구팀 | 2010.12.15. |
| 17 | 통일연구 |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 이수훈·조대엽 편 | 2012.05.31. |
| 18 | 통일연구 | 민주화·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 정태헌·이수훈 편 | 2014.01.10. |
| 19 | 통일연구 |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6.06.30. |
| 20 | 통일연구 |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6.06.30. |
| 21 | 통일연구 | 분단 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6.06.30. |
| 22 | 통일연구 |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21.12.14. |

##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1 | 국제관계연구 | 동아세아의 평화와 안보 | 박재규 편 | 1974.04.20. |
| 2 | 국제관계연구 | 「테크네트로닉」시대의 국제정치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재규 역 | 1974.12.15. |
| 3 | 국제관계연구 | East Asia and the Major Powers:<br>From Confrontation to Accommodation | 박재규·한승주 편 | 1975.01.01. |
| 4 | 국제관계연구 |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 박재규 편 | 1979.10.20. |
| 5 | 국제관계연구 |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박재규 편 | 1979.12.31. |
| 6 | 국제관계연구 | 80年代의 美蘇關係 (80년대의 미소관계) | 로렌스 칼드웰·윌리암 디볼드·<br>존 캄벨, 소련연구실 역 | 1981.10.01. |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7 | 국제관계연구 | 판례중심 국제법 | 김정건 편 | 1982.10.15. |
| 8 | 국제관계연구 | U.S-Korean Relations 1882-1982 | 곽태환·존 체이·조순성·<br>섀넌 맥퀸 편 | 1982.12.31. |
| 9 | 국제관계연구 |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 박재규·조셉 하 편 | 1983.12.31. |
| 10 | 국제관계연구 | Korea and Indonesia in the Year 2000 | 박재규·유스프 와난디 편 | 1984.05.23. |
| 11 | 국제관계연구 | SDI와 아시아의 안보 | 박재규·박용옥·안병준 외 | 1987.01.30. |
| 12 | 국제관계연구 |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ts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 박재규·안병준 편 | 1987.12.31. |
| 13 | 국제관계연구 | 한국과 미국 1: 정치·안보관계 | 안병준 편 | 1988.05.15. |
| 14 | 국제관계연구 | 한국과 미국 2: 경제관계 | 김덕중 편 | 1988.06.10. |
| 15 | 국제관계연구 | 한국과 미국 3: 사회·문화관계 | 임희섭 편 | 1988.06.20. |
| 16 | 국제관계연구 | 한·미관계의 재조명 | 김덕중·안병준·임희섭 편 | 1988.08.30. |
| 17 | 국제관계연구 | Alliance Under Tension:<br>The Evolution of South Korean-U.S. Relations | 이만우·로날드 맥라린·문정인 | 1988.12.31. |
| 18 | 국제관계연구 |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 로날드 맥라린, 문정인 | 1989.08.30. |
| 19 | 국제관계연구 |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 쿠친스키·월러스타인·조영환 | 1990.11.28. |
| 20 | 국제관계연구 | Current Issues in Korean-U.S. Relations: Korean-American Dialogue | 이만우 편 | 1993.12.30. |
| 21 | 국제관계연구 | The Changing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 이만우·리차드 맨스바흐 편 | 1993.12.31. |
| 22 | 국제관계연구 | Culture & Development in a New Era and in a Transforming World | 이만우·프란치네 포니어·<br>이수훈·유태호 편 | 1994.01.01. |
| 23 | 국제관계연구 | 위기의 세계와 한국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994.09.30. |
| 24 | 국제관계연구 | The U.S.-ROK Alliance in Transition | 곽태환·토마스 윌본 | 1996.12.31. |
| 25 | 국제관계연구 |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br>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 | 곽태환 편 | 1997.10.01. |
| 26 | 국제관계연구 |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 곽태환·멜빈 거토프 편 | 1997.12.31. |
| 27 | 국제관계연구 |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 | 서대숙 | 2001.03.09. |
| 28 | 국제관계연구 |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 이수훈 편 | 2009.09.01. |
| 29 | 국제관계연구 | 핵의 국제정치 | 이수훈 편 | 2012.03.30. |
| 30 | 국제관계연구 | Northeast Asia's Nuclear Challenges | 이수훈 편 | 2013.03.31. |
| 31 | 국제관계연구 | 동북아 新권력체제와 한반도 정책 | 이수훈 편 | 2013.08.31. |
| 32 | 국제관계연구 | South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 라크빈더 싱 편 | 2014.12.31. |
| 33 | 국제관계연구 |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5.09.10. |
| 34 | 국제관계연구 |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6.10.28. |
| 35 | 국제관계연구 | 한일 관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이관세 외 | 2020.02.28. |
| 36 | 국제관계연구 | 미중 전략적 경쟁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이관세 외 | 2020.02.28. |
| 37 | 국제관계연구 | 북중관계: 1945-2020 | 이상만·이상숙·문대근 | 2021.01.28. |
| 38 | 국제관계연구 |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하여 | 길윤형·김용민·조진구 | 2022.02.11. |

## 한국연구 시리즈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1 | 한국연구 |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 김호진·문석남 외 | 1989.01.20. |
| 2 | 한국연구 |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 윤대규 | 1990.12.31. |
| 3 | 한국연구 |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 손호철·이삼성 외 | 1991.05.10. |
| 4 | 한국연구 | 인민당연구 | 심지연 | 1991.06.30. |
| 5 | 한국연구 |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993.11.30. |
| 6 | 한국연구 |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 | 윤대규 | 2010.02.20. |

## 지역연구 시리즈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1 | 지역연구 | 연방주의론 | 발레리 얼, 박재규 역 | 1974.04.20. |
| 2 | 지역연구 | 미국외교행정의 진로 | 미국외교정책기구심사 위원회, 박재규·한승주 역 | 1976.06.30. |
| 3 | 지역연구 | 비교공산주의정치론 | 염홍철 편역 | 1977.06.20. |
| 4 | 지역연구 | 전환기의 동남아시아 | 박재규 편 | 1977.06.25. |
| 5 | 지역연구 | Southeast Asia in Transition | 박재규·멜빈 거토브 편 | 1977.12.01. |
| 6 | 지역연구 | 인도네시아 | 동남아지역연구실 | 1983.09.05. |
| 7 | 지역연구 | 동남아정치론 | 박재규 외 | 1983.11.30. |
| 8 | 지역연구 | 중공의 개혁정치 | 중·소 연구실 | 1985.11.10. |
| 9 | 지역연구 | 현대 일본의 정치 | 한배호 외 | 1986.06.30. |
| 10 | 지역연구 | 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 안택원 편 | 1986.09.30. |
| 11 | 지역연구 |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 김국진 외 | 1987.04.20. |
| 12 | 지역연구 | Koreans in North America: New Perspective | 이성형·곽태환 편 | 1988.01.31. |
| 13 | 지역연구 |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 정광하 | 1989.09.20. |
| 14 | 지역연구 |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 곽태환·이성형 편 | 1991.01.31. |
| 15 | 지역연구 | 소련 | 이은순·미하일 노쏘프 편 | 1991.04.25. |
| 16 | 지역연구 |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 한석태 외 | 1991.06.25. |
| 17 | 지역연구 |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996.01.11. |
| 18 | 지역연구 | 독립국가연합 (CIS)의 이해 | 이영형 | 1999.11.10. |

## 제3세계연구 시리즈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1 | 제3세계연구 |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 | 염홍철·이수훈 외 | 1987.10.30. |
| 2 | 제3세계연구 | State-Building in the Contemporary Third World | 이수훈 | 1988.12.31. |
| 3 | 제3세계연구 |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 이수훈·염홍철 외 | 1989.03.31. |
| 4 | 제3세계연구 |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 이수훈·김동한 외 | 1989.12.31. |
| 5 | 제3세계연구 |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 이수훈 외 | 1991.01.25. |
| 6 | 제3세계연구 |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 김세균·이수훈 외 | 1992.08.25. |

## 자료집 시리즈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1 | 자료집 | 남북한 통합연구 현황 자료집 (Ⅰ)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 | 2000.03.01. |
| 2 | 자료집 | 남북한 통합연구 현황 자료집 (Ⅱ)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 | 2000.03.01. |
| 3 | 자료집 | 남북한 통합연구 현황 자료집 (Ⅲ)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 | 2000.03.01. |
| 4 | 자료집 | 북한 문헌 연구: 문헌과 해제 | 서대숙 편 | 2004.03.06. |
| 5 | 자료집 |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 조진구 | 2020.02.05. |
| 6 | 자료집 |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문서 번역과 해제 | 조진구 | 2021.02.10. |

## 번역 시리즈

| 번호 | 구분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1 | 번역 | 절대주의국가의 계보 (개정판) | 페리 앤더슨, 함택영 외 역 | 1994.02.05. |
| 2 | 번역 | 농민혁명 | 제프리 페이지, 강문구 외 역 | 1995.07.10. |
| 3 | 번역 | 동원에서 혁명으로 | 찰스 틸리, 양길현 외 역 | 1995.08.30. |
| 4 | 번역 | 제국의 신화 | 잭 스나이더, 함택영·박수헌 외 역 | 1996.05.30. |

# 04

## 교육활동

1972___2022

##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 결과

| 기수 | 개최기간 | 인원 (명) |
|---|---|---|
| 1 | 1999.05.07. - 1999.06.25. | 48 |
| 2 | 1999.09.08. - 1999.11.04. | 48 |
| 3 | 2000.03.23. - 2000.06.01. | 59 |
| 4 | 2000.06.08. - 2000.08.10. | 60 |
| 5 | 2000.09.28. - 2000.11.30. | 57 |
| 6 | 2001.04.12. - 2001.06.14. | 47 |
| 7 | 2001.10.11. - 2001.12.13. | 24 |
| 8 | 2002.03.21. - 2002.05.30. | 54 |
| 9 | 2002.10.02. - 2002.12.05. | 34 |
| 10 | 2003.04.03. - 2003.06.12. | 37 |
| 11 | 2003.10.02. - 2003.12.04. | 34 |
| 12 | 2004.04.01. - 2004.06.03. | 45 |
| 13 | 2004.09.23. - 2004.11.25. | 40 |
| 14 | 2005.03.24. - 2005.06.02. | 31 |
| 15 | 2005.09.29. - 2005.12.01. | 32 |
| 16 | 2006.03.30. - 2006.06.01. | 40 |
| 17 | 2006.09.28. - 2006.12.07. | 40 |
| 18 | 2007.03.29. - 2007.06.07. | 43 |
| 19 | 2007.09.27. - 2007.11.29. | 44 |
| 20 | 2008.04.03. - 2008.06.12. | 52 |
| 21 | 2008.10.02. - 2008.12.04. | 42 |
| 22 | 2009.04.02. - 2009.06.04. | 40 |
| 23 | 2009.10.08. - 2009.12.10. | 38 |
| 24 | 2010.07.07. - 2010.09.03. | 38 |
| 25 | 2010.10.07. - 2010.12.09. | 31 |
| 26 | 2011.10.06. - 2011.12.08. | 54 |
| 27 | 2012.04.03. - 2012.06.05. | 43 |
| 28 | 2012.10.09. - 2012.12.11. | 33 |
| 29 | 2013.04.16. - 2013.06.18. | 40 |
| 30 | 2013.10.08. - 2013.12.10. | 33 |

## 통일경제아카데미 운영 결과

| 기수 | 개최기간 | 인원 |
|---|---|---|
| 1 | 2014.04.24. - 2014.07.10. | 44 |
| 2 | 2014.09.18. - 2014.11.27. | 29 |
| 3 | 2015.03.19. - 2015.06.04. | 30 |
| 4 | 2015.09.24. - 2015.11.26. | 31 |
| 5 | 2018.03.29. - 2018.05.31. | 34 |
| 6 | 2018.09.13. - 2018.09.29. | 52 |
| 7 | 2019.03.07. - 2019.05.23. | 67 |
| 8 | 2019.09.26. - 2019.12.12. | 24 |
| 9 | 2020.02.20. - 2020.05.07. | 25 |
| 10 | 2020.09.10. - 2020.11.26. | 18 |
| 11 | 2021.03.04. - 2021.05.13. | 22 |
| 12 | 2021.09.30. - 2021.12.09. | 20 |
| 13 | 2022.04.07. - 2022.06.23. | 16 |

## 한마통일리더십 운영 결과

| 차수 | 개최기간 | 주제 |
|---|---|---|
| 1 | 1987.07.06. - 1987.07.11. |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이해와 응용 |
| 2 | 1988.07.04. - 1988.07.09. | 사회과학 연구방법론과 한국사회현상의 이해(1) |
| 3 | 1989.07.03. - 1989.07.08. | 사회과학 연구방법론과 한국사회현상의 이해(2) |
| 4 | 1990.07.02. - 1990.07.07. | 사회과학 연구방법론과 한국 사회의 이해(1) |
| 5 | 1991.07.01. - 1991.07.06. | 사회과학 연구방법론과 한국 사회의 이해(2) |
| 6 | 1992.07.06. - 1992.07.11. | 전환기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해 |
| 7 | 1993.07.05. - 1993.07.10. | 문민시대 한국사회의 개혁과 전망 |
| 8 | 1994.06.27. - 1994.07.02. | 지구촌 시대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 9 | 1995.06.19. - 1995.06.24. | 분단 50년, 미래 50년 |
| 10 | 1996.06.24. - 1996.06.29. | 정보통신혁명: 21세기의 정보통신사회 |
| 11 | 1997.06.23. - 1997.06.28. | 새로운 시작-미래의 도전 |
| 12 | 1998.06.22. - 1998.06.27. | IMF를 넘어서 |
| 13 | 1999.06.21. - 1999.06.26. | 20세기와 21세기가 만나는 날: 새천년의 경계위에 선 청년들 |
| 14 | 2000.06.26. - 2000.07.01. | 새천년 통일의 희망, 이제 시작입니다! |
| 15 | 2001.06.25. - 2001.06.30. | 21세기 창조적 사고 |
| 16 | 2010.06.14. - 2010.06.18. | 한마인의 통일대한민국 |
| 17 | 2011.06.14. - 2011.06.18. |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역 |
| 18 | 2012.06.18. - 2012.06.22.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 19 | 2013.06.18. - 2013.06.22. |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의 역할 |
| 20 | 2014.06.23. - 2014.06.27. |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의 상상력과 역할 |
| 21 | 2016.06.27. - 2016.07.22.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1) |
| 22 | 2017.06.26. - 2017.07.13.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2) |
| 23 | 2018.06.25. - 2018.07.12.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3) |
| 24 | 2019.06.24. - 2019.07.11. | 변화하는 통일 환경속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대학생의 인식과 실천 |

# 05

## 해외학자 연구활동 지원

1972___2022

## SSPK 참가자

| 연도 | 성명 | 소속/직위 |
|---|---|---|
| 1987 | Peter Moody, Jr. | Professor, Political Science, Notre Dame, USA |
| | 김연 | Professor, Sociology, Utah State Univ., USA |
| | 최종석 | Professor, Dept. of History, Pembroke State Univ., USA |
| | 강문구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Univ. of New Maxico, USA |
| | John Hall | Professor, Economics, Portland State Univ., USA |
| 1988 | Robert E. Bedeski | Professor, Political Science, Carleton Univ., Canada |
| | 김중순 | Professor, Anthropology, Tennessee Martin Univ., USA |
| | 곽태환 | Professor, International Politics, Eastern Kentucky Univ., USA |
| | 신의항 | Professor, Sociology, South Carolina Univ., USA |
| | David A. Smith | Professor of Sociology, Univ. of California, Irvine, USA |
| | 이장영 | Ph.D. Candidate, Economics, New York Univ., USA |
| | 안재흥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Univ. of Michigan, USA |
| 1989 | Ming Lee | 대만 정치대 국제관계연구소, 정치학 연구위원 |
| | 남성희 | Professor, Sociology, South Carolina Univ., USA |
| | Peter Park | Professor, Sociology, Massachusetts Univ., USA |
| | Hsing-Chou Sung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Arizona State Univ., USA |
| 1990 | Fred Deyo | Professor, SUNY (Brockport), USA |
| | Dojong Kim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Arizona State Univ., USA |
| | Louis D. Hayes | Professor, Political Science, Montana Univ., USA |
| | Marn-Jai Cha | Professor, Political Science, California State Univ., USA |
| | 이호철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Rutgers Univ., USA |
| | 이성형 | Professor, Communication, Appalachian State Univ., USA |
| | Ji Young Kim | Ph.D. Candidate, Business Administration, UC-Berkeley Univ., USA |
| | Wei-cheng Wang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Chicago Univ., USA |
| 1991 | 장윤식 | Professor, Sociology, British Columbia Univ., Canada |
| | Grace Goodell | Professor, Anthropology, Johns Hopkins Univ., USA |
| | 문정인 | Professor, Political Science, Kentucky Univ., USA |
| | 주승호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Pennsylvania State Univ., USA |
| | Larry Burmeister | Professor, Sociology, Kentucky Univ., USA |
| 1992 | Dennis M. Hart | Assistant Professor, Political Science, Western Illinois Univ., USA |
| | Larry L. Wade | Professor, Political Science, Univ. of California, Davis, USA |
| | Yin-wah Chu | Ph.D. Candidate of Sociology, Univ. of California, Davis, USA |
| | 김우상 | Professor, Political Science, Texas A&M Univ., USA |
| | 스즈키 마사유키 | 일본 聖學院大, 정치학 교수 |
| | John K. Marchioro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Harvard Univ., USA |

| 연도 | 성명 | 소속/직위 |
|---|---|---|
| | Kuang-min Li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Univ. of Kentucky, USA |
| | 이성형 | Professor, Communication, Appalachian State Univ., USA |
| | 王愼之 | 중국 하얼빈대, 경제학 교수 |
| 1993 | 정철희 | Ph.D. Candidate of Sociology, SUNY of Buffalo, USA |
| | 윤혜란 | Ph.D. Candidate of Sociology, Harvard Univ., USA |
| | 김은미 | Professor of Sociology,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SA |
| 1994 | Chang-Ling Huang | Ph.D. Candidate of Political Science, Univ. of Chicago, USA |
| | 김판석 | Professor, Public Administration, Old Dominion Univ., USA |
| | 염규호 | Professor of Sociology,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SA |
| | Chen-shen J. Yen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laska Pacific Univ., USA |
| 1995 | Laure Paquette | Professor of Assistant Professor, Lakehead Univ., USA |
| | 김기석 | Ph.D. Candidate of Political Science, Univ. of California, LA, USA |
| | 조정관 | Ph.D. Candidate of Political Science, Yale Univ., USA |
| | To-Hai Liou | Associate Professor of Dept. of International Politics, National Open Univ. |
| | 민평갑 | Professor of Dept. of Sociology, Queens College of CUNY, USA |
| | 박헌주 | Ph.D. Candidate of Political Science, Univ. of California, Berkeley, USA |
| 1996 | Song M. Kim | Instructor of Political Science, Univ. of Kentucky, USA |
| | Delie Wu | Deputy Director, China Institute of Asia-Pacific Economics |
| | Hyung Taek Hong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Columbia Univ., USA |
| | Mikyung Park | Ph.D. Candidate, Sociology, Univ. of Georgia, USA |
| 1997 | 정연정 | Ph.D. Candidate of Political Science, Univ. of Illinois at Chicago, USA |
| | Chouldhury M. Shamim | Associate Professor of Dept. of Political Science, California State Univ., USA |
| | George M. Romoser | Professor of Dept. of Political Science, Univ. of New Hamphire, USA |
| 1998 | Larry L. Burmeister | Professor of Sociology, Univ. of Kentucky, USA |
| | Tianbiao Zhu | Ph.D. Candidate of Political Science, Cornell Univ., USA |
| | Hee Min Kim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Florida State Univ., USA |
| 1999 | Sunhyuk Kim |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SA |
| | Alvin Magid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Univ. of New York at Albany, USA |
| | HeeMin Kim |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Florida State Univ., USA |
| 2000 | Hyo Joung Kim |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Univ. of Washington, USA |
| | Sung-Jun Jo | Ph.D.Candida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SA |
| | Lion Gui Zhang | 中國中共中央當校, 國際政治 敎授 |
| 2001 | Svetla Banderska | Ph.D. Candidate of Japanese Studies, Korean Studies, Univ. of Vienna, Austria |
| | Brigitte Schantl | Ph.D. Candidate of Humanities and Economics, Univ. of Vienna, Austria |
| | Li Shun-nu | Researcher,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 China |
| 2005 | Jung Kim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ale Univ., USA |
| | Seung Young Kim | Lecturer (Assit Professor), Univ. of Aberdeen, UK |

| 연도 | 성명 | 소속/직위 |
|---|---|---|
| 2006 | Jung Kim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ale Univ., USA |
| | Jung Min Seo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 of Hawaii, USA |
| 2007 | Jeffrey Robertson | Senior Researcher of Foreign Affairs, Defence and Security DPS Research Branch, Parliament of Australia |
| | Neil Chisholm | Ph.D. Candidate of Philosophy in Socio-Legal Studies Univ. of Oxford, UK |
| 2008 | Sandip Kumar Mishra | Ph.D. in Korean Studies, Jawharlal Nehru Univ., India |
| 2009 | 은용수 | Ph.D. in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Univ. of Warwick, UK |
| 2010 | 이동민 | Nanyang Technological Univ., Singapore |
| | Sabine Burghart | Ph.D. candidate and researcher, Univ. of Vienna, Austria |
| 2011 | 은용수 | Ph.D. in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Univ. of Warwick, UK |
| | 김승영 | Ph.D. Univ. of Aberdeen, Scotland, UK |
| | Abdul Knowles | Lecturer, Bejing Univ of Chemical technology, China |
| 2012 | Turtogtoh Janar | Professor, Political Science, National Univ. of Mongolia Sciences, Mongolia |
| | Steve Lok-wai Chung | Ph.D. Student, Korean Studies, Univ. of Sydney, Australia |
| | Min Lee | Professor, National Chengchi Univ., Taiwan |
| 2013 | Sandip Kumar Mishra | Assistant Professor, Univ. of Delhi, India |
| | 유영욱 |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 Korea |
| | Shine (Shinhyung) Choi | Postdoctoral Fellow, Queen's Univ. Belfast (QUB), Northern Ireland |
| 2014 | Quan Xinzi | Professor, Yanbian Univ., China |
| | 구양모 | Assistant Professor, Norwich Univ., USA |
| | Li Meihua | Professor, Yanbian Univ., China |
| 2015 | Kevin Gray | Senior Lecturer, International Relations, Univ. of Sussex, UK |
| | 문범강 | Professor, Department of Art and Art History, Georgetown Univ., USA |
| 2016 | 구양모 | Assistant Professor, Norwich Univ., USA |
| |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 Ph.D. Candidate, Univ. of Pennsylvania, USA |
| 2017 | 구양모 | Assistant Professor, Norwich Univ., USA |
| | Edward Goldring | Ph.D. Student, Univ. of Missouri, USA |
| | 문범강 | Professor, Department of Art and Art History, Georgetown Univ., USA |
| 2018 | 조은성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History, Columbia Univ., USA |
| 2019 | 김수림 | Doctor of Arts in History, Univ. of Hawai'i, Honolulu, USA |
| | Shreya Singh | Doctoral Candid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Univ. of Queensland, Australia |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펠로우 프로그램 참가자

| 구분 | 성명 | 국적 | 연구 주제 |
|---|---|---|---|
| 2020 | Christopher McCarthy | 미국 | Inventory and monitoring of North Korea's national parks and wildlife habitats using multispectral satellite imager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conservation and ecotourism framework. |
| | Anastasiia Barannikova | 러시아 | New approaches to nuclear DPRK |
| | James Banfill | 미국 |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at the Local Level in the DPRK |
| | Peter Moody | 미국 | 1. Reformed Folk Music and the Search for the Third Sound: Is Indigenous Cosmopolitanism a Useful Way to View North Korea?<br>2. Can the US Learn from South Korea's Reconciliation Policies?: A Diplomatic Outcome Analysis of Inter-Korean Separated Family Reunions and Music Exchanges |
| | Sijia Xu | 중국 | 김정은 시대 북한 대형가전의 '공급·유통·소비' 매커니즘을 통해 본 북한 주민의 소비양상 |
| | Ruoying Yu | 중국 | 소유관계에 대한 논의와 사회주의 농업관리체계의 수립 - 북한과 중국의 비교 |
| 2021 | Mark Kim | 미국 |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국인기업 경영사례 연구 |
| | Pavel Em | 러시아 | Songbun: A Comrade's Destiny Has the Emergence of the Market Influenced Social Mobility in North Korea? |
| | Ewa Motylinska | 폴란드 |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Transformation Feasibility Study – Theoretical Approach |
| | Hisashi Hirai | 일본 | 김정은 정권의 지도이념 변천 |
| | Meihua Liang | 중국 | 북한의 대 중국 상대적 자율성 형성에 관한 연구 – 1953~1961년을 중심으로 |
| | Xiao Niu | 중국 | 김정일과 김정은의 집권 스타일 비교 |
| | Motin Dylan | 프랑스 | When Does the Peaceful Unification of Divided States Become Possible? Balance of Power and its Implication for Unification |
| | Chanhyun Cho | 캐나다 | 북한 핵문제는 왜 해결하지 못했나?: 이익과 불이익 사이의 미국의 딜레마 |
| | Yuko Nagasawa | 일본 |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기 북한의 정기간행물의 대외인식<br>-역사학·고고학의 「1965년 체제」 및 「한·미·일 제국주의」 비판 |
| | Jonathan Yainishet | 독일 | Land and aspirations in the Korean DMZ: Observations from division's frontier |
| | Owen Miller | 영국 | The Hŭngnam Fertiliser Factory between the Pacific War and the Korean War |
| | Qian Xu | 중국 | 중국과 한반도의 '일대일로' 협력가능성에 대한 연구 |
| 2022 | Osamu Koike | 일본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일본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 |
| | Peter Ward | 영국 | 북한 군사경제 및 인민군의 관계 |
| | Taichiro Yoshino | 일본 | 한국의 북한 이탈주민 대안학교의 현황과 과제: 남북통일시대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
| | Christopher Green | 영국 | 현대 북한의 제도적 변화의 맥락에서 소비패턴을 탐색 |
| | Hemant Dubey | 인도 | 한국정치문화에서 '북한'과 '통일'의 포지셔닝 |
| | Manon Prud'homme | 프랑스 |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이해 |
| | Junya Nishino | 일본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방위·억지를 넘어 공통의 평화 구상으로 |

## 해외 북한·통일 정책·학술 연구지원 현황

| 국가 | 연구지원유형 | 지원기간 | 연구책임자 | 연구 주제 |
|---|---|---|---|---|
| 미국 | 연구기관<br>(우드로윌슨센터) | 2022.04.-11. | Kayla Orta (우드로윌슨센터) | Meltdowns and Blackouts: Confidence-Building in Inter-Korean Engagement on Nuclear Safety and Energy Development Cooperation |
| 미국 | 연구자 단독 | 2022.06.-11. | Sharon Squassoni<br>(조지워싱턴대) |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 Arms Control Framework |
| 중국 | 연구기관<br>(복단대) | 2022.04.-09. | 정계영 (복단대) |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과 해결방안: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
| 일본 | 연구그룹 | 2022.04.-09.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전략—새로운 '병진노선'의 전개(2019-2022)을 중심으로 |
| 독일 | 연구그룹 | 2022.04.-09. | 김상국 (베를린자유대) | Engaging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s |
| 스웨덴 | 연구기관<br>(안보개발정책연구소) | 2022.09. | 이상수 (안보개발정책연구소) | Swedish-ROK Cooperation for Peace and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
| 이탈리아 | 연구자 단독 | 2022.04.-10. | Nicola Casarini<br>(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 Comparing US-EU perspectives on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장학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 구분 | | 성명 | 국적 | 연구 주제 |
|---|---|---|---|---|
| 2020 | 박사 | Dan Gudgeon | 영국 | 남북 평화구축, 스포츠 교류 |
| | | Gabriela Bernal | 네덜란드 | 통일한국과 동북아 평화 |
| | | Liyuan Fu | 중국 | 한반도와 동서독, 중국·대만 비교 |
| | 석사 | Spencer Steinbach | 미국 | 북한 정치체제와 외교정책 |
| 2021 | 박사 | Samantha Marie Marcoux | 미국 | 북한의 주체사상이 개인·사회·국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교육체제를 중심으로 |
| | 석사 | Elizaveta Rekler | 러시아 | 정치체제, 이념, 민족주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 06

## 연구간행물

1972___2022

## 한국과 국제정치 특집호 발간 현황

| 권호 | 발행일 | 주제 |
|---|---|---|
| 제2권 제2호, 1986년 가을 (통권 4호) | 1986.09.20. |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
| 제3권 제1호, 1987년 봄 (통권 5호) | 1987.01.20. |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 제4권 제1호, 1988년 봄 (통권 7호) | 1988.01.20. | 한국의 정치와 국가 |
| 제4권 제2호, 1988년 가을 (통권 8호) | 1988.09.20. |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
| 제5권 제1호, 1989년 봄 (통권 9호) | 1989.06.30. | 베트남 연구 |
| 제5권 제2호, 1989년 가을 (통권 10호) | 1989.12.15. | 동북아의 정치경제 |
| 제6권 제2호, 1990년 가을 (통권 12호) | 1990.12.05. | 한국전쟁의 영향 |
| 제7권 제2호, 1991년 가을·겨울 (통권 14호) | 1991.12.10. | 탈냉전 세계와 한국 |
| 제8권 제2호, 1992년 가을·겨울 (통권 16호) | 1992.12.01. | 미국 헤게모니 |
| 제13권 특집호 (통권 26호) | 1997.10.22. | 인도차이나 저발전국의 개혁·개방 |
| 제14권 제1호, 1998년 봄·여름 (통권 28호) | 1998.06.22. | 한·러 협력과 신동북아 체제 |
| 제20권 제1호, 2004년 봄 (통권 44호) | 2004.03.31. | 한미관계와 동북아 질서 |
| 제21권 제1호, 2005년 봄 (통권 48호) | 2005.03.31. | 동북아시대와 중국 |
| 제22권 제1호, 2006년 봄 (통권 52호) | 2006.03.31. | 한반도 평화체제의 건설: 쟁점, 과제, 전망 |
| 제23권 제1호, 2007년 봄 (통권 56호) | 2007.03.31. | 미국정치의 양극화: 전략적 선택인가? 사회적 발현인가? |
| 제24권 제1호, 2008년 봄 (통권 60호) | 2008.03.31. |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
| 제25권 제1호, 2009년 봄 (통권 64호) | 2009.03.31. | 한국의 사회변동과 정당정치: 전망과 과제 |
| 제26권 제1호, 2010년 봄 (통권 68호) | 2010.03.31. | 러시아-유라시아 거대변동과 한국 |
| 제27권 제1호, 2011년 봄 (통권 72호) | 2011.03.31. | 핵의 국제정치 |
| 제28권 제1호, 2012년 봄 (통권 76호) | 2012.03.31. | 국제정치의 대전환과 한반도 |
| 제29권 제1호, 2013년 봄 (통권 80호) | 2013.03.31. | 2013년 동북아 정세와 주요국의 한반도정책 |
| 제30권 제1호, 2014년 봄 (통권 84호) | 2014.03.31. | 김정은 체제의 북한: 평가와 전망 |
| 제31권 제1호, 2015년 봄 (통권 88호) | 2015.03.31.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돌아보는 한일관계 |
| 제32권 제1호, 2016년 봄 (통권 92호) | 2016.03.31. | 혼돈기 중동지역 질서의 재편 |
| 제33권 제1호, 2017년 봄 (통권 96호) | 2017.03.31. | 지정학의 귀환,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미래 |
| 제34권 제1호, 2018년 봄 (통권 100호) | 2018.03.31. |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
| 제35권 제1호, 2019년 봄 (통권 104호) | 2019.03.31. |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의 분석과 제언 |
| 제36권 제1호, 2020년 봄 (통권 108호) | 2020.03.31. | 탈냉전 30년의 조명 |
| 제37권 제1호, 2021년 봄 (통권 112호) | 2021.03.31. | 코로나 시대의 시민인식과 정치 |
| 제38권 제1호, 2022년 봄(통권116호) | 2022.03.31. | 한국과 국제정치 50년: 1972-2022 |

## Asian Perspective: Special Issue 발간 현황

| no. | | 발간년도 | Special Issue |
|---|---|---|---|
| Vol. 1 | No. 2 | 1977 | Communist States & Southeast Asia |
| Vol. 17 | No. 1 | 1993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
| Vol. 19 | No. 1 | 1995 | Contemporary China |

| no. | | 발간년도 | Special Issue |
|---|---|---|---|
| Vol. 19 | No. 2 | 1995 |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 Vol. 20 | No. 2 | 1996 |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 Vol. 21 | No. 1 | 1997 |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
| Vol. 21 | No. 2 | 1997 | APEC |
| Vol. 23 | No. 2 | 1999 | The Dynamic of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
| Vol. 23 | No. 4 | 1999 | Globalization on East Asia |
| Vol.24 | No. 3 | 2000 | Rethinking Capitalist Development in East Asia |
| Vol. 24 | No. 4 | 2000 | Dysfunctional Japan: at Home and in the World |
| Vol. 25 | No. 1 | 2001 | Commemo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Asian Perspective |
| Vol. 25 | No. 2 | 2001 | Prospects for New Inter-Korean Relations |
| Vol. 25 | No. 4 | 2001 | Economic Reforms and Social Change in Contemporary China |
| Vol. 26 | No. 1 | 2002 | The Energy Crisis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North Korea |
| Vol. 26 | No. 4 | 2002 | China-ASEAN Relations |
| Vol. 28 | No. 1 | 2004 | Globalization and SARS in Chinese |
| Vol. 29 | No. 1 | 2005 | Controversial Issues in Japanese Politics and Society |
| Vol. 29 | No. 4 | 2005 | China: Interests, Institutions, and Contentions in China |
| Vol. 31 | No. 1 | 2007 | Reconcili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
| Vol. 31 | No. 4 | 2007 | The BRICs Countrie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in the Global System |
| Vol. 32 | No. 4 | 2008 | North Korea and Regional Security |
| Vol. 33 | No. 3 | 2009 | China: The Road Ahead |
| Vol. 33 | No. 4 | 2009 | Arms Race in Northeast Asia |
| Vol. 34 | No. 1 | 2010 | North Korea's Nuclear Politics |
| Vol. 34 | No. 4 | 2010 | Seeking Political Reconciliation: Case Studies in Asia |
| Vol. 35 | No. 4 | 2011 | Avoiding an Arms Race in Space |
| Vol. 36 | No. 2 | 2012 | South Korea-China Relations: Growing Interdependence, Rising Uncertainties |
| Vol. 37 | No. 4 | 2013 | After Fukushima: The Right to Know |
| Vol. 38 | No. 2 | 2014 |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Dangers and Opportunities |
| Vol. 38 | No. 3 | 2014 | The East Asia Power Shift: A Critical Appraisal |
| Vol. 38 | No. 4 | 2014 | The Impact of Post-2014 Afghanistan on Asian Regional Security |
| Vol. 39 | No. 3 | 2015 | The Abe Effect in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Japan and Asia |
| Vol. 39 | No. 4 | 2015 | Nuclear Power in East Asia |
| Vol. 40 | No. 3 | 2016 | The Tumen River Triangle as the Borderland of Northeast Asia |
| Vol. 40 | No. 4 | 2016 |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Latin America Investment Relations |
| Vol. 42 | No. 2 | 2018 | New Developments in Chinese Foreign Policy |
| Vol. 42 | No. 3 | 2018 | Russia in the Asia Pacific |
| Vol. 42 | No. 4 | 2018 | Chin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Histor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Issues |
| Vol. 43 | No. 2 | 2019 | Power, Narratives, and the Role of Third Parties: Understanding Power (Shift) in East Asia |
| Vol. 44 | No. 2 | 2020 | The Cold War and Decolonization in East Asia |
| Vol. 45 | No. 1 | 2021 | US-China Relations in Crisis |
| Vol. 45 | No. 2 | 2021 |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
| Vol. 45 | No. 4 | 2021 |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the BRI (Part II) |

## 동북아 연구 발간 현황

| 권호 | 발행일 | 권호 | 발행일 |
|---|---|---|---|
| 제1권 (창간호) | 1995.08.31. | 제10권 | 2005.12.31. |
| 제2권 | 1996.12.30. | 제11권 | 2006.12.30. |
| 제3권 | 1997.12.02. | 제12권 | 2007.12.31. |
| 제4권 | 1997.12.31. | 제13권 | 2008.12.31. |
| 제5권 | 2000.12.31. | 제14권 | 2009.12.31. |
| 제6권 | 2001.12.31. | 제15권 | 2010.12.31. |
| 제7권 | 2002.12.31. | 제16권 | 2011.12.31. |
| 제8권 | 2003.12.15. | 제17권 | 2012.12.31. |
| 제9권 | 2004.12.31. | 제18권 | 2013.12.31. |

## IFES 브리프 발간 현황

| SERIAL NO.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No. 4-1 [2019] | 2019.04.17. | 4.11 한미정상회담 | 문용일 |
| No. 4-2 [2019] | 2019.04.17. | 김정은 체제 제2기의 권력구조와 주요 엘리트 변화 | 장철운 |
| No. 4-3 [2019] | 2019.04.22. | 재강조되고 있는 자력갱생, 과거와 무엇이 다르고, 같은가 | 임을출 |
| No. 4-4 [2019] | 2019.04.29. | 2019년 4월 북-러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 | 이웅현 |
| No. 6-1 [2019] | 2019.06.10. | 미·중 전략적 패권경쟁과 한국 | 이상만 |
| No. 7-1 [2019] | 2019.07.11. | 시계 (視界) 제로의 한일관계: 현황과 전망 | 조진구 |
| No. 7-2 [2019] | 2019.07.15. | 북한의 2019 개정헌법 중 경제조항의 변화: 의미와 평가 | 임을출 |
| No. 7-3 [2019] | 2019.07.23. | 북한의 2019 개정헌법 특징과 통치이념·통치구조 및 문화 조항 변화 | 박서화·이형종 |
| No. 8-1 [2019] | 2019.08.30. | “김정은은 북한의 President이다.” | 김동엽 |
| No. 9-1 [2019] | 2019.09.06. | 북한 제14차 전국교원대회의 특징과 평가 | 이형종 |
| No. 9-2 [2019] | 2019.09.09. | 9월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 김동엽 |
| No. 9-3 [2019] | 2019.09.11. | 미·중 패권경쟁과 양안관계 이해 | 이상만 |
| No. 10-1 [2019] | 2019.10.04. | 2019년 6.30 판문점 3자 정상 회동 이후 북한과 미국의 입장 변화 | 장철운 |
| No. 10-2 [2019] | 2019.10.25. | 한미동맹 관련 미국의 입장 | 김동엽 |
| No. 10-3 [2019] | 2019.10.28. |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지도 발언 : 함의, 쟁점과 과제 | 임을출 |
| [IFES Brief_2019-16] | 2019.11.05. | 중국공산당 제19차 4중전회의 주요내용 평가와 전망 | 이상만 |
| [IFES Brief_2020-01] | 2020.02.1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을출 |
| [IFES Brief_2020-02] | 2020.03.30. | 북한의 무력 현대화와 정면돌파전 | 김동엽 |
| [IFES Brief_2020-03] | 2020.04.14. | 코로나19 팬데믹, 김정은 위원장의 대응과 과제 | 임을출 |
| [IFES Brief_2020-04] | 2020.04.14. | 한국에서 본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국제질서 조망 | 이병철 |
| [IFES Brief_2020-05] | 2020.04.20. |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60% 다수파 집권당과 유권자의 좁은 위임 | 김정 |

| SERIAL NO.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IFES Brief_2020-06] | 2020.04.21. | 4.15 총선의 결과와 한미관계 | 문용일 |
| [IFES Brief_2020-07] | 2020.04.22. | 코로나19, 4.15한국총선, 한중관계전망 | 이상만 |
| [IFES Brief_2020-08] | 2020.04.23. | 한일관계 현황과 전망: 코로나19와 한국 국회의원 선거 | 조진구 |
| [IFES Brief_2020-09] | 2020.04.23. |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이 갖는 함의 | 이병철 |
| [IFES Brief_2020-10] | 2020.04.27. | 코로나19, 남북협력에 불어오는 봄바람 | 이관세 |
| [IFES Brief_2020-11] | 2020.05.2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북한 핵전력 지휘·통제 | 이병철 |
| [IFES Brief_2020-12] | 2020.05.25. | 중국공산당 13기 3차 양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이상만 |
| [IFES Brief_2020-13] | 2020.05.29. |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와 우리의 선택 | 최천운 |
| [IFES Brief_2020-14] | 2020.06.09. | 국교정상화 55년의 한일관계 : 정상회담을 현안 해결의 돌파구로 활용하라 | 조진구 |
| [IFES Brief_2020-15] | 2020.06.09. | 미국 패권의 퇴조 징후와 한국의 국가전략 | 이병철 |
| [IFES Brief_2020-16] | 2020.07.02. |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1년의 한일관계 평가와 전망 | 조진구 |
| [IFES Brief_2020-17] | 2020.07.13. | 코로나19와 북한경제 동향 | 임을출 |
| [IFES Brief_2020-18] | 2020.07.15. |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실태와 향후 전망 | 최천운 |
| [IFES Brief_2020-19] | 2020.07.17. | 미·중 갈등의 전선 확대와 한반도 | 이상만 |
| [IFES Brief_2020-20] | 2020.07.27. | 2020년 상반기 러시아 개헌 정국 | 이웅현 |
| [IFES Brief_2020-21] | 2020.09.17. | 스가 요시히데 신정권 출범과 한일관계 | 조진구 |
| [IFES Brief_2020-22] | 2020.09.21. |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소고 (小考) | 이병철 |
| [IFES Brief_2020-23] | 2020.09.29. | 미중 전략적 경쟁 하에 재소환 되는 이념논쟁의 시말 | 이상만 |
| [IFESBrief_2020-24] | 2020.10.12. | '80일 전투': 과거 유사 사례와 시사점 | 임을출 |
| [IFES Brief_2020-25] | 2020.10.29. | 북 10.10절과 미 대선 사이 "October Surprise는 없었다." | 김동엽 |
| [IFES Brief_2020-26] | 2020.11.03. | 중국공산당 제19기 5중전회 평가와 전망 | 이상만 |
| [IFES Brief_2020-27] | 2020.11.09. |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 | - |
| | 2020.11.26. |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남북관계 | 조진구 |
| | 2021.01.20. | 미 대선 후 한미관계 | 정재욱 |
| | 2021.01.22. |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 김동엽 |
| | 2021.02.08. | 미국 대선 후 미·중관계 | 이상만 |
| | 2021.02.09. | 바이든 대통령의 탄생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 | 김정 |
| [IFES Brief_2020-28] | 2021.02.15. | 북한 군사분야 화보집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하여" 발간 평가 | 김동엽 |
| [IFES Brief_2021-01] | 2021.02.18. | 8차 당 대회와 사회문화 변동 전망 | 이형종 |
| [IFES Brief_2021-02] | 2021.02.26. |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비교 | 이병철 |
| [IFES Brief_2021-03] | 2021.03.09. | 최근 북한 입법의 경향 (上):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2020. 3.)까지 | 박서화 |
| [IFES Brief_2021-04] | 2021.03.25. | 최근 북한 입법의 경향 (下):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2020. 3.)까지 | 박서화 |
| [IFES Brief_2021-05] | 2021.03.31.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 주요 내용 평가와 전망 | 임을출 |
| [IFES Brief_2021-06] | 2021.04.12. |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의 정치적 의미 | 김상범 |
| [IFES Brief_2021-07] | 2021.05.03. | 「중국해경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 | 이상만 |
| [IFES Brief_2021-08] | 2021.05.12. |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 평가 및 전망 | 임을출 |

| SERIAL NO.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IFES Brief_2021-09] | 2021.05.24. | 한미 간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타결에 관한 소고 | 정재욱 |
| [IFES Brief_2021-10] | 2021.05.24. |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 평가와 전망 | 김동엽 |
| [IFES Brief_2021-11] | 2021.05.24. |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 논의내용 평가와 전망 | 임을출 |
| [IFES Brief_2021-12] | 2021.05.24. |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과 전망 | 최천운 |
| [IFES Brief_2021-13] | 2021.06.10. | 북한 핵 능력과 영변 핵 시설의 가치에 대한 소고 (小考) | 이병철 |
| [IFES Brief_2021-14] | 2021.06.21.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평가와 과제 | 조진구 |
| [IFES Brief_2021-15] | 2021.06.22. | 남북대화, 관여 및 협력 분야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임을출 |
| [IFES Brief_2021-16] | 2021.07.02. |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주요 현안 | 정재욱 |
| [IFES Brief_2021-17] | 2021.08.27. | 원자력협력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 이병철 |
| [IFES Brief_2021-18] | 2021.09.01. |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 | 김상범 |
| [IFES Brief_2021-19] | 2021.10.02. |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 경제부문 평가와 전망 | 임을출 |
| [IFES Brief_2021-20] | 2021.10.05.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 김상범 |
| [IFES Brief_2021-21] | 2021.11.12. | 비사회주의 투쟁의 최근 경향과 함의 | 박서화 |
| [IFES Brief_2021-22] | 2021.11.15. | 미국이 돌아왔다?! 탈레반도 돌아왔다!? | 이웅현 |
| [IFES Brief_2021-23] | 2021.11.23. | 북한 핵 능력과 영변 핵 시설의 가치에 대한 소고 (小考) | 이병철 |
| [IFES Brief_2021-24] | 2021.12.01. | 자민당 총재 선거와 한일관계 | 조진구 |
| [IFES Brief_2021-25] | 2022.01.05. | 김정은 당 총비서의 9.29 시정연설 : 경제부문 특징과 시사점 | 임을출 |
| [IFES Brief_2021-26] | 2022.02.10. | 제2차 기시다 정권 출범의 의미와 한일관계 전망 | 조진구 |
| [IFES Brief_2021-27] | 2022.02.18. | 중국공산당 19기 6중전회 평가와 전망 | 이상만 |
| [IFES Brief_2021-28] | 2022.03.02. | 미중 첫 정상회담과 대만 문제 | 정재욱 |
| [IFES Brief_2021-29] | 2022.03.14. | 북한 <시, 군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특징 | 박서화 |
| [IFES Brief_2022-01] | 2022.05.04.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 김상범 |
| [IFES Brief_2022-02] | 2022.05.04. |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주요 내용, 특징과 전망 | 임을출 |
| [IFES Brief_2022-03] | 2022.05.20.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 정재욱 |
| [IFES Brief_2022-04] | 2022.05.23.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과 정세변화 | 이병철 |
| [IFES Brief_2022-05] | 2022.05.23. | 2022년 중국 13기 5차 양회의 주요내용과 평가 | 이상만 |
| [IFES Brief_2022-06] | 2022.05.24. |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사(示唆) 의도와 전망 | 이병철 |
| [IFES Brief_2022-07] | 2022.05.26. |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평가 | 김동엽 |
| [IFES Brief_2022-08] | 2022.05.27. | 북한 야간 열병식의 사회심리적 의미 | 이형종 |
| [IFES Brief_2022-09] | 2022.06.14. | 한·미 정상회담 성과 및 전망 | 이병철 |
| [IFES Brief_2022-10] | 2022.06.16. |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 -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 | 조진구 |
| [IFES Brief_2022-11] | 2022.05.24. | 5.21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틈새 전략의 모색 | 임을출 |
| [IFES Brief_2022-12] | 2022.05.26. | 바이든의 한국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평가 | 이상만 |
| [IFES Brief_2022-13] | 2022.05.27. | 美·日 정상회담 결과 평가와 시사점 | 조진구 |
| [IFES Brief_2022-14] | 2022.06.14.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평가 | 김상범 |
| [IFES Brief_2022-15] | 2022.06.16. | 「비상방역법」 수정·보충과 「의료감정법」 채택의 의미 | 박서화 |
| [IFES Brief 2022-16] | 2022.06.24. | 이란 핵 협상 동향 평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병철 |

## 현안진단 발간 현황

| SERIAL NO.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NO1 [2014-01] | 2014.03.29. |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 평가와 과제 | 임을출 |
| NO2 [2014-02] | 2014.04.06. |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동엽 |
| NO3 [2014-03] | 2014.04.13. | 김정은 체제가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이유 | 이관세 |
| NO4 [2014-04] | 2014.04.20. | 6자회담 열릴 것인가 | 양무진 |
| NO5 [2014-05] | 2014.04.27. |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 | 김근식 |
| NO6 [2014-06] | 2014.05.03. | 북한군 총정치국장 교체의 배경과 의미 | 정성장 |
| NO7 [2014-07] | 2014.05.10. | 남북관계와 안보 딜레마 | 이정우 |
| NO8 [2014-08] | 2014.05.17. | 북·러관계 강화의 동기와 배경 | 박병인 |
| NO9 [2014-09] | 2014.05.21. | 중국 성장이 북한에 주는 낙수효과 | 윤대규 |
| NO10 [2014-10] | 2014.05.29.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국의 선택 | 김상기 |
| NO11 [2014-11] | 2014.06.03. |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전망 | 강인덕 |
| NO12 [2014-12] | 2014.06.12. | 6·15 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이한 남북관계의 현주소 | 이무철 |
| NO13 [2014-13] | 2014.06.26. | 시진핑 방한과 6자회담 | 정재흥 |
| NO14 [2014-14] | 2014.07.04. | 균형외교 보다는 촉진외교를 | 송민순 |
| NO15 [2014-15] | 2014.07.16. | 격랑의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선택: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 김근식 |
| NO16 [2014-16] | 2014.08.09. | 8.15 경축사에 담아야 할 대북 메시지는 '대화'이다 | 양무진 |
| NO17 [2014-17] | 2014.08.26.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THAAD): '사드' | 장철운 |
| NO18 [2014-18] | 2014.09.04. | "무력과 외교의 앙상블?" | 이수훈 |
| NO19 [2014-19] | 2014.09.19. | 김정은 정권, 시장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 양문수 |
| NO20 [2014-20] | 2014.10.01. | 최근 북한인권 관련 논란의 의미 | 이우영 |
| NO21 [2014-21] | 2014.10.17. |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위한 제언 | 박정진 |
| NO22 [2014-22] | 2014.11.26. | 유엔 북한인권 결의의 의미와 전망 | 서보혁 |
| NO23 [2014-23] | 2014.12.29. |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논의: 아바나의 속셈과 고민 | 신석호 |
| NO24 [2015-01] | 2015.01.02. | 분단 70년,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해야 | 이관세 |
| NO25 [2015-02] | 2015.02.02. | 자기 정당화에 급급한 MB 회고록 | 김근식 |
| NO26 [2015-03] | 2015.02.26.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주도론의 허실 | 이정철 |
| NO27 [2015-04] | 2015.03.20. | "사드 (THAAD) 배치 문제, 서두를 일이 아니다" | 김동엽 |
| NO28 [2015-05] | 2015.04.29. | 남북관계, 5월이 중요하다 | 장용훈 |
| NO29 [2015-06] | 2015.06.16. | 북한 '정부성명'을 주목한다 | 양무진 |
| NO30 [2015-07] | 2015.07.20. |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 | 서주석 |
| NO31 [2015-08] | 2015.08.31. | 한반도와 美·中 협조체제 | 박홍서 |
| NO32 [2015-09] | 2015.10.16. | 북한 당 창건 70돌 열병식이 보여준 것은? | 김동엽 |
| NO33 [2015-10] | 2015.10.28. | TPP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셈법 | 정형곤 |
| NO34 [2015-11] | 2015.11.04. |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갖는 의미 | 이관세 |

| SERIAL NO.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NO35 [2015-12] | 2015.12.04. | 2015년 평가와 2016년 전망: 북한 내부 정세 | 장용석 |
| NO36 [2015-13] | 2015.12.11. | 2015년 평가와 2016년 전망: 북한경제 | 양문수 |
| NO37 [2015-14] | 2015.12.17. | 2015년 평가와 2016년 전망: 국제정세 | 전재성 |
| NO38 [2015-15] | 2015.12.21. | 2015년 평가와 2016년 전망: 남북관계 | 양무진 |
| NO39 [2016-01] | 2016.01.29. | 최근 동북아 정세와 한국 외교의 방향 | 이창주 |
| NO40 [2016-02] | 2016.02.22. | 사드 배치의 국제정치와 한국 외교의 방향 | 김흥규 |
| NO41 [2016-03] | 2016.03.14.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경과와 전망 | 이제훈 |
| NO42 [2016-04] | 2016.03.17. | 대북제재의 정치적 목적은 무엇인가? | 구갑우 |
| NO43 [2016-05] | 2016.04.19.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대통령제 헌정체제:<br>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권력분점 | 김정 |
| NO44 [2016-06] | 2016.05.11. | 자축의 승리, 덜 휘황한 설계 | 김근식 |
| NO45 [2016-07] | 2016.06.15. |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함의와 G2간 패권갈등 | 이상만 |
| NO46 [2016-08] | 2016.06.30. | 김정은 체제, 앞으로 대외·대남공세 강화하나? | 이관세 |
| NO47 [2016-09] | 2016.07.13. | “사드, 이제 시작이다.” | 김동엽 |
| NO48 [2016-10] | 2016.07.18. | 북한과 브렉시트 | 구갑우 |
| NO49 [2016-11] | 2016.09.20. | 북한의 5차 핵 실험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송민순 |
| NO50 [2016-12] | 2016.11.14. |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기반과 외교정책:<br>녹지대 경합주 백인 유권자와 잭슨주의 고립주의 | 김정 |
| NO51 [2017-01] | 2017.01.02. |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자 | 이관세 |
| NO52 [2017-02] | 2017.01.03. | 2017년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대외관계 | 양무진 |
| NO53 [2017-03] | 2017.01.04. | 2017년 북한 신년사 경제 분야 분석 | 양문수 |
| NO54 [2017-04] | 2017.01.19. | 사드배치 및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한 한국의 선택 | 윤대규 |
| NO55 [2017-05] | 2017.01.25. | 트럼프 시대의 개막과 한국의 선택 | 송민순 |
| NO56 [2017-06] | 2017.03.22. | 틸러슨의 순방과 동북아외교의 과제 | 이수훈 |
| NO57 [2017-07] | 2017.04.17. | 4월에 내리는 폭설 (爆說)이 싫지 않은 까닭 | 김동엽 |
| NO58 [2017-08] | 2017.05.11. | 대선 이후: 소수파 대통령과 연합정치의 통치전략 | 김정 |
| NO59 [2017-09] | 2017.05.15.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 윤대규 |
| NO60 [2017-10] | 2017.05.19. | 문재인 정부와 남북관계 정상화: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현실 | 김근식 |
| NO61 [2017-11] | 2017.05.26. | 미중 관계 변화와 사드, 그리고 한국의 외교의 방향 | 김흥규 |
| NO62 [2017-12] | 2017.05.29.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문제-유예와 제재사이” | 김동엽 |
| NO63 [2017-13] | 2017.05.31. |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담대한 구상과 특단의 조치들 | 임을출 |
| NO64 [2017-14] | 2017.07.05. |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숙제 | 구갑우 |
| NO65 [2017-15] | 2017.07.24. |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구상의 필요성 | 장철운 |
| NO66 [2017-16] | 2017.09.06. | 북한 6차 핵실험의 기술적 의미와 정치적 의도 | 김동엽 |
| NO67 [2017-17] | 2017.10.24. | 아베 수상의 정치적 승부수와 전쟁불가능한 국가 일본: 열린<br>헌법 개정과 닫힌 9조 개정 | 김정 |
| NO68 [2017-18] | 2017.10.26. | 중국 19차 당대회 평가와 시진핑 집권 2기 전망 | 이상만 |

| SERIAL NO.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NO69 [2017-19] | 2017.11.09. | 북핵문제 해결 국면 전환 적극 모색해야 | 박정진 |
| NO70 [2017-20] | 2017.12.12.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의 방정식 | 곽태환 |
| NO71 [2017-21] | 2017.12.15. | 2018년 북한의 국면 전환 위한<br>대화·평화공세 가능성에 대비해야 | 경남대<br>극동문제연구소 |
| NO72 [2018-01] | 2018.02.06. | '코피 작전 (Bloody Nose Strike)'은 무의미하다 | 김동엽 |
| NO73 [2018-02] | 2018.03.13. | 한반도의 11년과 18년, 그리고 65년 | 이관세 |
| NO74 [2018-03] | 2018.04.29. |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 김동엽 |
| NO75 [2018-04] | 2018.05.03. | 김정은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새 전략노선과 비핵화 | 임을출 |
| NO76 [2018-05] | 2018.05.04. | 남북의 평화시대를 준비하며:<br><판문점 선언> 제1조가 의미하는 바는? | 정영철 |
| NO77 [2018-06] | 2018.05.08. |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 실질적 평화 정착으로 이어져야 | 장철운 |
| NO78 [2018-07] | 2018.05.10. | '판문점 선언' 3항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 구갑우 |
| NO79 [2018-08] | 2018.09.20. | [평양정상회담 특집-1]<br>남북 군사문제를 통한 남북관계의 역사적 이정표 제시 | 김동엽 |
| NO80 [2018-09] | 2018.09.20. | [평양정상회담 특집-2]<br>남북관계, 평화에 발 딛고 '새 시대'를 열다 | 정영철 |
| NO81 [2018-10] | 2018.09.21. | [평양정상회담 특집-3]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리셋 | 이정철 |
| NO82 [2018-11] | 2018.09.21. | [평양정상회담 특집-4] 2000년·2007년·2018년<br>남북정상회담 비교 | 조진구 |
| NO83 [2019-01] | 2019.01.01. | 김정은 2019년 신년사: 주요 내용과 평가 및 전망 | 이관세 |
| NO84 [2019-02] | 2019.03.04. | 너무 다른 북미의 셈법을 극복해야 | 문용일 |
| NO85 [2019-03] | 2019.04.25. | 4.27 판문점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br>"먼 길, 진짜 오르막은 이제부터" | 김동엽 |
| NO86 [2019-04] | 2019.07.08. | "남북미 판문점 회동, 그 이후" | 김동엽 |
| NO87 [2019-05] | 2019.09.19. |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br>"남북 군사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 김동엽 |
| NO88 [2019-06] | 2019.10.29. | 금강산 관광,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삼아야 | 임을출 |
| NO89 [2020-01] | 2020.01.01. | 북한의 '새로운 길', "장기전을 대비한 정면돌파" | 이관세 |
| NO90 [2020-02] | 2020.01.02. | 당중앙위 전원회의 경제분야 평가:<br>'자력갱생' 기조 하 국가경제운영의 새로운 판짜기 착수 | 양문수 |
| NO91 [2020-03] | 2020.04.27. | "4.27 판문점선언 2주년, 한반도에도 봄은 오는가?" | 김동엽 |
| NO92 [2020-04] | 2020.06.11. | 6.15 남북공동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 이관세 |
| NO93 [2020-05] | 2020.06.24. |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의도 평가 | 김동엽 |
| NO94 [2020-06] | 2020.07.13. | 7.10 김여정 담화에 대한 小考 | 양무진 |
| NO95 [2020-07] | 2020.09.18. |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한반도 가을걷이" | 김동엽 |
| NO96 [2020-08] | 2020.10.12. |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평가 | 김동엽 |

## 북핵·미사일리포트 발간 현황

| 발행번호 | 제목 | 작성일 |
|---|---|---|
| NMR_2016-01 | '무수단' 혹은 '화성-10' 미사일 발사 관전 포인트 | 2016.06.24. |
| NMR_2016-02 | 북한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과정과 전력 | 2016.07.01. |
| NMR_2016-03 | 핵무기란? | 2016.07.08. |
| NMR_2016-04 |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은 얼마나 될까? | 2016.07.15. |
| NMR_2016-05 | 핵실험이란? | 2016.07.22. |
| NMR_2016-06 | 북한의 핵 투발수단 | 2016.07.29. |
| NMR_2016-07 |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전략 | 2016.08.04. |
| NMR_2016-08 | 핵·미사일 등 WMD '확산 (Proliferation)'의 개념 | 2016.08.12. |
| NMR_2016-09 | 핵무기 기폭장치와 폭발원리 | 2016.08.19. |
| NMR_2016-10 | 탄도 미사일의 추진제: 액체 및 고체 | 2016.08.26. |
| NMR_2016-11 | 핵우산과 확장억제 | 2016.09.02. |
| NMR_2016-12 | 핵실험의 분류 | 2016.09.09. |
| NMR_2016-13 | 인공위성의 분류 | 2016.09.23. |
| NMR_2016-14 | 핵무기 개발 단계로 본 북한의 핵개발 수준 | 2016.09.30. |
| NMR_2016-15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장 | 2016.10.07. |
| NMR_2016-16 | KN-02 지대지 탄도미사일 | 2016.10.14. |
| NMR_2016-17 |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직 | 2016.10.21. |
| NMR_2016-18 | 핵개발과 폐기 사례 | 2016.10.28. |
| NMR_2016-19 |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 (ELWR) 현황 | 2016.11.04. |
| NMR_2016-20 | 국제 핵 비확산 체제 | 2016.11.11. |
| NMR_2016-21 |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방사화학실험실 | 2016.11.18. |
| NMR_2016-22 |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 2016.11.25. |
| NMR_2016-23 | 핵보유국 지위 개념 | 2016.12.02. |
| NMR_2016-24 | 핵전략의 기본 개념 | 2016.12.09. |
| NMR_2016-25 | 핵억제전략의 유형 | 2016.12.16. |
| NMR_2016-26 | 전자기파 (EMP)탄 | 2016.12.23. |
| NMR_2016-27 |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조치 | 2016.12.30. |
| NMR_2017-01 | 북한의 핵시설 현황 | 2017.01.06. |
| NMR_2017-02 | 미사일 개발 과정 | 2017.01.13. |
| NMR_2017-03 |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가능성 진단 | 2017.01.20. |
| NMR_2017-04 | 핵 관련 남북한 용어 비교 | 2017.01.26. |
| NMR_2017-05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기술 평가 | 2017.02.10. |
| NMR_2017-06 | 북한의 ICBM 개발 가능성 | 2017.02.15. |
| NMR_2017-07 | 미국-인도 핵협력 구상 | 2017.02.24. |
| NMR_2017-08 | 공식 / 비공식·사실상 / 잠재적 '핵보유국' 개념 | 2017.03.03. |

| 발행번호 | 제목 | 작성일 |
|---|---|---|
| NMR_2017-09 |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평가 및 전망 | 2017.03.10. |
| NMR_2017-10 | 미사일 발사 방식: Hot and Cold Launch | 2017.03.17. |
| NMR_2017-11 | 핵폭발의 현상과 탐지 | 2017.03.27. |
| NMR_2017-12 | 핵실험 시 위력 추정 방법 | 2017.03.30. |
| NMR_2017-13 | 신포 인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 2017.04.06. |
| NMR_2017-14 | 북한 미사일의 생존력 (방공능력) 평가 | 2017.04.14. |
| NMR_2017-15 | 태양절 열병식 공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평가 | 2017.04.21. |
| NMR_2017-16 | 북한의 대함 미사일 (AShM: Anti-Ship Missile) 보유 및 개발 동향 | 2017.05.02. |
| NMR_2017-17 | 1·2차 북핵 위기와 6자회담 경과 | 2017.05.12. |
| NMR_2017-18 | '화성-12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평가 | 2017.05.16. |
| NMR_2017-19 | 김정은 체제가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유 | 2017.05.26. |

## IFES FORUM 발간 현황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2001.09.26. | Opportunities and Pitfalls Abound in the Campaign Against Terrorism | Taik-young Hamm & Toby Dalton |
| 2001.10.19. | Future of the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Self-Defense Forces' Overseas Missions and Ballistic Missile Defense | Narushige Michishita |
| 2001.12.18. | Troubles Looming for Agreed Framework Implementation | Toby F. Dalton |
| 2002.02.27. | Bush's Real North Policy: I Want A Missile Defense | Toby F. Dalton |
| 2002.05.30. | Sunshine Through Cloudy Skies –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Wendy R. Sherman |
| 2002.05.31. | Foreign Policy of Russia in the Asia-Pacific Region | Evgeny V. Afanasiev |
| 2002.05.31. |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 | Robert Gallucci |
| 2002.06.04. | Inter-Korean Relations and Importa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 Jae Kyu Park |
| 2002.06.14. |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Revisited | Seongwhun Cheon |
| 2002.09.26. | Koizumi-Kim Jong Il Summit | Byung Chul Koh |
| 2002.10.21. | NGO Activities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 Moon-Soo Yang |
| 2002.11.08. | North Korea and the Bomb – Round Two | Byung Chul Koh |
| 2002.11.20. | Foreign-Security Policy Proposals of the 2002 Presidential Candidates in Korea | Taik-young Hamm |
| 2002.12.17. | New Model for Coexistence and Unification: Convergence of Confederation and Lower Stage of Federation | Wan-Kyu Choi |
| 2003.02.21. | Is North Korea Changing? | Byung Chul Koh |
| 2003.03.03. |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2003 | Keun Sik Kim |
| 2003.03.10. |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 Robert J. Einhorn |
| 2003.04.01. | Military-First Politics: Crisis, Opportunity, and Internal Solidarity in North Korea | Kihl-jae Ryoo |
| 2003.04.07. |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and Russia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 Evgeniy V. Afanasiev |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2003.04.23. | North Korea and Energy Assistance:<br>Promoting a Northeast Asian Cooperative Regime | Su-Hoon Lee & Dean Ouellette |
| 2003.05.17. | Prospects for North Korea-U.S. Relations after the Iraq War | Manhak Kwon |
| 2003.05.24. | The Ontology and Epistemology of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 Kun Young Park |
| 2003.06.04. | China and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 Chinese View | Xiaoming Zhang |
| 2003.06.12. | Smile Diplomacy - The First Roh-Bush Summit | C. Kenneth Quinones |
| 2003.07.03. | The Peace and Prosperity Policy and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 Keun Sik Kim |
| 2003.07.18. | The UN Command: Past, Present, and Future | John Barry Kotch |
| 2003.08.02. | An Equ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inding a Solution (A Critical Review of Korean Endgame by Selig Harrison) | Kab Woo Koo |
| 2003.08.19. | Chin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 Bradley O. Babson |
| 2003.09.02. | Self-Reliance or an Arms Build-up? The 2004 Defense Budget Request of the ROK | Taik-young Hamm |
| 2003.09.16. | Six-Party Talks: A Turning Point? | Byung Chul Koh |
| 2003.10.04. | Strategic Considerations on Sending Additional Troops to Iraq | Keun Sik Kim |
| 2003.10.23. | Looking Back: Research on North Korean Urban Areas | Kap Sik Kim |
| 2003.11.07. | The U.S.-Korea Alliance Under Stress | Donald P. Gregg |
| 2003.11.21. | A Report to the President Concerning the Security Situation in Iraq (October 4, 2003) | Kun Young Park |
| 2003.11.28. | Bush Changes Course on North Korea | C. Kenneth Quinones |
| 2003.12.13. | A Proposal for Natural Resource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Su-Hoon Lee |
| 2003.12.24. | Confiden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Beyond the Nuclear Crisis | Ki-Joon Hong |
| 2004.01.05. | North Korea in 2003 and 2004: Pyongyang's View | Byung Chul Koh |
| 2004.01.16. | Prospec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Jae Kyu Park |
| 2004.02.05. |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Current Situation and Tasks | Moon-Soo Yang |
| 2004.02.17. | Prospects for the Six Party Talks and North Korea's Negotiating Tactics | C. Kenneth Quinones |
| 2004.02.23. | Prospects for the Second Round of Six-Party Talks: The Role of South Korea | Wooksik Cheong |
| 2004.02.24. | Issues and Expectations for the 2nd Round of Six-Party Talks | Dae-Kyu Yoon |
| 2004.03.04. | Six-Party Talks: A Half-Step Forward? | B. C. Koh |
| 2004.03.16. | Hoping for a More Positive Role of China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Jae Kyu Park |
| 2004.04.04. | The First Year of the Ro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 Keun Sik Kim |
| 2004.04.14. | The Importance of Trust in Inter-Korean Relations | Jae Kyu Park |
| 2004.04.19. | Power Shift in South Korea: April 15 General Election | B. C. Koh |
| 2004.04.26. | Kim Jong Il's April 2004 Visit to China | B. C. Koh |
| 2004.05.04. | Who is Really Opposed to the Libyan Model of Disarmament? | Wooksik Cheong |
| 2004.05.12. | Distant Ties -- Iraq and the Six-party Talks | C. Kenneth Quinones |
| 2004.05.19. | The U.S.-ROK Alliance: Something's Got to Give? | Joel S. Wit |
| 2004.05.27. | The Second Koizumi-Kim Jong IL Summit | B. C. Koh |
| 2004.06.14. |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North Korea: Persuasion or Pressure? | James Cotton |
| 2004.07.01. | Six-Party Talks: Round 3 | B. C. Koh |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2004.07.15. | U.S. Troop Withdrawals and Self-Reliant Defense | Taik-young Hamm |
| 2004.08.23. |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ts Changes and Implications | Dae-Kyu Yoon |
| 2004.09.21. | The South-South Conflict and Korean Residents in Japan | Lee Jong Won |
| 2004.10.01. | North Korea Today--Seeing Beyond the Obvious | C. Kenneth Quinones |
| 2004.10.21. |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and Korea | B. C. Koh |
| 2004.11.01. |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U.S.-ROK Relations | Kim Ki Jung |
| 2004.11.01. |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Prospects for U.S.-DPRK Relations | Bong Keun Cheon |
| 2004.11.15. |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Bush's Second Term | B. C. Koh |
| 2004.12.02. | Soft Landing: Opportunity or Illusion? | Andrei Lankov |
| 2004.12.20. | The Korean Nuclear Problem - Idealism Versus Realism | C. Kenneth Quinones |
| 2005.01.01. | Keeping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Jae Kyu Park |
| 2005.01.18. | North Korea in 2005: An Assessment of Its Joint New Year's Editorial | B. C. Koh |
| 2005.01.31. | Changes in the New DPRK Criminal Cod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 C. Kenneth Quinones |
| 2005.02.07. | The Six-Party Talks - Resumption Inevitable? | C. Kenneth Quinones |
| 2005.02.22. |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nter-Korean Relations: Prospects and South Korea's Corresponding Strategy | Moo-Jin Yang |
| 2005.03.02. | North Korea's "Bombshell" Declaration | B. C. Koh |
| 2005.03.25. | "Military-First Politics" and Building a "Powerful and Prosperous Nation" in North Korea | B. C. Koh |
| 2005.04.01. | Coalition of Divide: Any Future for 6-Way Talks? | Kevin Shepard |
| 2005.05.04. |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Ralph A. Cossa |
| 2005.05.23. | How to Untangle Inter-Korean Relations | Keun-Shik Kim |
| 2005.05.31. |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ns and Asymmetric Capabilities | Taik-young Hamm |
| 2005.06.07. | DPRK Nuclear Testing and Options for the ROK | Keun-Shik Kim |
| 2005.06.23. | Survey of U.S. and ROK Media Perspectives on ROK-U.S. Relations | Seong Hyong Lee |
| 2005.06.24. | Prospects for Six-Party Talks | B. C. Koh |
| 2005.07.08. | The Current Condition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Moon Soo Yang |
| 2005.07.15. | North Korea's Return to Six-Party Talks, and South Korea's Corresponding Strategy | Moo-Jin Yang |
| 2005.07.18. | Russia's "New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 Andrei Lankov |
| 2005.07.27. | Making the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Experience and Lessons | Johannes F. Linn |
| 2005.08.03. | The U.S. Media and the Korean Peninsula: What Time Is It There Anyway? | Donald Macintyre |
| 2005.08.16. | Experiences in Cooperative Security in the OSCE: Are They Applicable to Northeast Asia? | Ki-joon Hong |
| 2005.08.26. | Political Choices for Development in North Korea: Four Scenarios | Max van der Sleen |
| 2005.09.16. |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 Mitsuru Mizuno |
| 2005.09.21. | Six-Party Talks: A Breakthrough? | B. C. Koh |
| 2005.10.04. | North Korean Tourist Activity and Cre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Wan Kyu Choi |
| 2005.10.21. | Stabilized Democracy in Mongolia in 2005 | Jeong-jin Lee |
| 2005.11.02. | Six-Party Talks: Views from Washington and Pyongyang | C. Kenneth Quinones |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2005.11.22. | APEC Crossed Rubicon to Expand Mandates? | Joun-yung Sun |
| 2005.11.30. | An Interim Assessment of Six-Party Talks | B. C. Koh |
| 2005.12.10. | Inter-Korean Relations: Evaluation of 2005 & Outlook for 2006 | Moo-jin Yang |
| 2006.01.06. | Inter-Korean Relations: Prospects for 2006 and Beyond | Jae Kyu Park |
| 2006.01.25. | Six-Party Talks and U.S.-DPRK Relations | Tong Kim |
| 2006.02.03. | North Korea since 2000 and Prospe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 Jae Kyu Park |
| 2006.02.20. | English Promotes National Interests | Joun-yung Sun |
| 2006.03.10. | Service Sector Opening Priority in ROK-U.S. FTA | Joun-yung Sun |
| 2006.04.20. | Six Party Rally in Tokyo: Much to Do About Everything? | C. Kenneth Quinones |
| 2006.04.24. | Transforming an Asymmetric Cold War Alliance: Psychological and Strategic Challenges for South Korea and the U.S. | Wonhyuk Lim |
| 2006.05.10. | U.S.-DPRK Structural Conflicts: From a DPRK Nuclear Issue to a North Korea Problem | Kim Keun Shik |
| 2006.05.20. |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of Sou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 Taik-young Hamm |
| 2006.06.01. | U.S.-ROK Free Trade Agreement | Wonhyuk Lim |
| 2006.06.14. | Community-Building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Universities | Su-Hoon Lee |
| 2006.06.30. | In Search of a Model for Northeast Asian Govern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 Wada Haruki |
| 2006.07.19. |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and South Korea's Response | Moo-jin Yang |
| 2006.08.05. |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s Transformation and Alternative Approaches | Ruediger Frank |
| 2006.08.21. |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and Six-Party Talks | B. C. Koh |
| 2006.09.01. |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 Tae-Ik Chung |
| 2006.09.18. | A Regional Community Through Transnational Flow of Human Resources and Cultural Communication | Kwang Ok Kim |
| 2006.10.19. | North Korea and the Bomb | B. C. Koh |
| 2006.11.02. |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the Outlook for Inter-Korean Relations | Haksoon Paik |
| 2006.11.06. |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the Outlook for Inter-Korean Relations | Jong-dae Shin |
| 2006.11.15. |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t a Crossroads | Wonhyuk Lim |
| 2006.11.21. | Will UN Sanctions Against a Nuclear North Korea Work? | Suk Kim |
| 2006.11.27. | The Democratic Party's Victory in the U.S. Midterm Election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Moo-jin Yang |
| 2006.12.04. | U.S.-ROK Economic Cooperation: A U.S. Perspective | Joseph A. B. Winder |
| 2006.12.20. | Out of Order: Northeast Asia in a Linimal Age | John Feffer |
| 2007.01.08. | North Korea in 2007: Pyongyang's View | B. C. Koh |
| 2007.01.15. | DPRK-U.S. Rela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 Kun Young Park |
| 2007.01.25. | North Korea's New Year Editorial and the Outlook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2007 | Keun-sik Kim |
| 2007.02.06. |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Future of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 Lakhvinder Singh |
| 2007.02.15. | The Northeast Asian Order: South Korea's Options and Dilemmas | Heajeong Lee |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2007.02.16. | A Breakthrough or an Illusion?:<br>An Assessment of the New Six-Party Agreement | B. C. Koh |
| 2007.02.26. |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Peacebuilding Commission | Amb. Joun-yung Sun |
| 2007.03.15. | The Implementation of the February 13 Agreement | Moo-jin Yang |
| 2007.03.26. | Six-Party Talks: A Temporary Setback | B. C. Koh |
| 2007.04.12. | KOREA-U.S. FTA: A Giant Step Forward | Amb. Joun-yung Sun |
| 2007.05.14. | Lessons From the BDA Issue | Keun-sik Kim |
| 2007.06.01. | Papers From the Seoul-Washington Forum 2007 | Seoul-Washington Forum |
| 2007.06.18. | A New Approach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 Kun Young Park |
| 2007.07.06. | The Prospects for Institutionalizing the Six-Party Talks | Keun-sik Kim |
| 2007.07.19. | Grand National Party's New Outlook on North Korea | Kevin Shepard |
| 2007.07.30. | Six-Party Talks: Back on Track? | B. C. Koh |
| 2007.08.16. | Expectations For the 2nd Summit Meeting | Yeon Chul Kim |
| 2007.09.13. | Position Vacant: Middle Power Coordinator on the Korean Peninsula | Jeffrey Robertson |
| 2007.10.02. |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Russia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 Sergey Radchenko |
| 2007.10.09. |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 B. C. Koh |
| 2007.10.23. | The Historic Implications of the 2007 Inter-Korean Summit | Keun-sik Kim |
| 2007.11.20. | Bush's "Disablement" Verses Clinton's "Freeze" of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Facilities | C. Kenneth Quinones |
| 2007.12.05. | The Summi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spects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Robert L. Gallucci |
| 2007.12.20. |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2007 Summit:<br>The Economic Future of Northeast Asia | Ruediger Frank |
| 2008.01.04. | The New Era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 Pascal Boniface |
| 2008.01.08. | Prospe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2008 | B. C. Koh |
| 2008.01.23. |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br>Problems and Prospects | Lakhvinder Singh |
| 2008.02.22. | Six-Party Progress and DPRK Nuclear Dismantlement | Su-Hoon Lee & Dean J. Ouellette |
| 2008.03.03. | WMD Proliferation Issues in the DPRK | Daniel A. Pinkston |
| 2008.03.18. | Abandonment of Engagement Policy Not an Option | Keun-sik Kim |
| 2008.04.21. | Six Party Talks: No Breakthrough in Sight | C. Kenneth Quinones |
| 2008.05.08. | The Future of ROK-U.S. Relations: South Korea's Approach | Chaesung Chun |
| 2008.05.15. | Prospe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After the Sunshine | Chong-Sik Lee |
| 2008.05.29. | Chinese Perspectives on Constituting<br>a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in Northeast Asia | Ding Yuanhong |
| 2008.06.20. |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Japanese Perspective | Satoru Miyamoto |
| 2008.06.24. |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eyond Phase II Disablement | Tong Kim |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2008.07.15. | Six-Party Talks: Limited Progress | B. C. Koh |
| 2008.07.31. |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Flawed 'Reciprocity' | Keun-sik Kim |
| 2008.09.23. | Lessons Learned From Kim's Condition | Keun-sik Kim |
| 2008.09.26. | Prospects for Inter-Korea and U.S.-DPRK Relations | Park Jae Kyu |
| 2008.10.14. | A Step Forward in the Six-Party Process | B. C. Koh |
| 2008.11.13. |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U.S.-DPRK Relations: Prospects and Issues | Yoo-hwan Koh |
| 2008.12.08. | Prospects for President Elect Obama's Foreign Policy: An Assessment | C. Kenneth Quinones |
| 2008.12.19. | The Errors of Lee Myung Bak-Style Disengagement | Keun-sik Kim |
| 2009.01.13. | Obama's Options on North Korea | Tong Kim |
| 2009.01.16. | North Korea in 2008 and 2009: The View From Pyongyang | B. C. Koh |
| 2009.01.29. | Economic Upsurge in the 2009 New Year's Joint Editorial | YoungChul Chung |
| 2009.02.12. | North Korea's Transformation: A Legal Perspective | Dae Kyu Yoon |
| 2009.03.06. | North Korea Watches Washington | Tong Kim |
| 2009.03.11. | Restar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 Su-Hoon Lee |
| 2009.04.03. | Economic Crisis & Inter-Korean Relations: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 Keun-sik Kim |
| 2009.04.09. | North Korea's Rocket Launch: Implications for Its Foreign Policy | B. C. Koh |
| 2009.04.20. | On Dealing With North Korea: Policy Obstacles and Opportunities | Mel Gurtov |
| 2009.05.27. | DPRK Succession Issue and Regime Transformation | Kap-sik Kim |
| 2009.06.03. | Kim Jong Il's Impatience and Obama's Indifference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 Keun-sik Kim |
| 2009.06.22. |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North Korea: Pyongyang's Aims and Washington's Dilemmas | B. C. Koh |
| 2009.07.27. | The Third DPRK Nuclear Crisis' and Lessons Learned From U.S.-DPRK Negotiations: What Drives the Ever-Mounting Nuclear Tension? | Kab Woo Koo |
| 2009.08.04. | The Error of Dismissing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 Keun-sik Kim |
| 2009.08.10. | The Significance of Clinton's Visit to North Korea | Tong Kim |
| 2009.08.18. | The Trial of U.S. Journalists and North Korean Criminal Law | Eun-suk Choi |
| 2009.09.04. | U.S.-DPRK Dialogue: Tasks and Prospects | David Straub |
| 2009.09.24. |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In Need of a Complete Overhaul | Moo-Jin Yang |
| 2009.10.15. | Grand Bargain, Grand Error | Keun-sik Kim |
| 2009.10.26. | North Korea's Nuclear Issue: From Here to Eternity? | Aidan Foster-Carter |
| 2009.11.20. | Lee Myung Bak's Grand Bargain: Evaluation and Prospects | Kihl-jae Ryoo |
| 2009.11.23. | Lee Myung Bak's "Grand Bargai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Tae-Hwan Kwak |
| 2009.12.08. | Political and Economic Aims of North Korean Currency Reform | Keun-sik Kim |
| 2010.01.12. | Obama's Nobel Speech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 Scott Snyder |
| 2010.01.18. | A New Strategy Needed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fter Bosworth's Mission | Tae-Hwan Kwak |
| 2010.01.25. |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ix Party Talks' | Chon Hyun Joon |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2010.02.24. | 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Exploring Appropriate Method of Engag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Myung-chul Cho |
| 2010.02.26. | The Stability of North Korea and a Long-term Strategy for Transformation | Rudiger Frank |
| 2010.03.03. | Review of Two Year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Only Principles: No Policy | Keun-sik Kim |
| 2010.03.29. |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Window to Tomorrow's Inter-Korean Relations | Young Kuk Cho |
| 2010.05.06. | Diplomacy toward Korea under the DPJ Government of Japan | Yoshihide Soeya |
| 2010.05.11. | Delay of OPCON Transfer is Unwarranted | Su-Hoon Lee |
| 2010.06.04. | The Cheonan Incident and Its Impact on the Six-Party Process | Tae-Hwan Kwak |
| 2010.06.22. | Content and Outlook of the 3rd Session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 Moo Chul Lee |
| 2010.07.21. | Getting Out from Under the Cheonan Incident" Seeking a Strategy After the UNSC Presidential Statement | Keun-sik Kim |
| 2010.08.03. | Dichotomy of Obama's North Korea Policy: Deterrence and Sanctions Will Not Solve the North Korean Question without Chinese Cooperation | Tong Kim |
| 2010.09.27. |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Five Years On | Su-Hoon Lee |
| 2010.11.02. | Are the Six-Party Talks Dead? | Tae-Hwan Kwak |
| 2010.11.18. | The Kim Jong Un Succession and the Korean Peninsula: Stability and Instability | Keun-sik Kim |
| 2010.12.09. | Korean Peninsula at a New Juncture of War and Peace: Between Aggressive Deterrent and Escalating Risk of War | Tong Kim |
| 2011.01.12. | Time to Shift from Tension to Talks | Tong Kim |
| 2011.01.25. | 2011 Must be Managed Peacefully | Su-Hoon Lee |
| 2011.01.31. | Evaluation of 2010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spects for 2011 | Keun-sik Kim |
| 2011.03.14. | Egypt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China | Min Soon Song |
| 2011.03.21. | Assessing the Korean Impasse | Byung Chul Koh |
| 2011.04.04. | A Creative Formula for Restoring the Six-Party Talks | Tae-Hwan Kwak |
| 2011.05.06. | Fukushima's Implications for Korea's Nuclear Dilemmas | Peter Hayes |
| 2011.06.30. | On the 11th Anniversary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There is No Time to Waste | Su-Hoon Lee |
| 2011.07.20.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ose Problem Is It? | Keun-sik Kim |
| 2011.09.02. | The US-DPRK Dialogue to Resume, Only to Retrogress with the Development of New Stages to the Negotiation | Sun-won Park |
| 2011.09.19. |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the Six-Party Talks: Positions and Prospects | Moo-Jin Yang |
| 2011.10.10. | A Two-Track Approach to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ilding | Tae-Hwan Kwak |
| 2011.12.12. | The ROK-DPRK-Russia Gas Pipeline Project: The Truths and Myths behind the Project | Suk-Hwan Kim |
| 2012.01.16. | The New Kim Jong-un Era: What Do We Do Next? | Su-Hoon Lee |
| 2012.01.20. | Kim Jong-Un Regime and Inter-Korean Relations: A New Framework | Kim Keun-sik |
| 2012.02.06. |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in 2012 Under Kim Jong Un | Tae-Hwan Kwak |
| 2012.02.23. | FTA and South Korean Elections | Tong Kim |
| 2012.05.10. | Witnessing the Official Launch of Kim Jong Un Regime: | Keun-Sik Kim |
| 2012.06.04. | North Korea Claims Status as a Nuclear Power While US Continues Benign Neglect Policy | Phillip H. Park |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2012.07.30. | After 4-Years Shutdown of Mount Kumgang Tourism | Su-Hoon Lee |
| 2012.09.10. | Canada's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 Dean J. Ouellette |
| 2012.09.21. | A Creative Korean Unification Formula through Neutralization as an Alternative | Tae-Hwan Kwak |
| 2012.11.27. | Great Transformation in Northeast Asia and US-China Relations | Su-Hoon Lee |
| 2013.01.04. | The Prospects for the New Administration, Six-Party Talks, and Restarting the Inter-Korean Dialogue | Moo-Jin Yang |
| 2013.02.07. | Pyongyang's Call before Crisis?: The Meeting of Party Cell Secretaries | Dean J. Ouellette |
| 2013.02.25. | The Next Administration's Challenge on North Korean Policy | Keun-Sik Kim |
| 2013.04.22. | Dealing with North Korea: A Time for Diplomacy | Mel Gurtov |
| 2013.05.06. | North Korea's Bellicose Behavior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Tae-Hwan Kwak |
| 2013.07.23. | Obama's New Foreign Policy Team and It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 Tong Kim |
| 2013.08.21. |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Should be Respected | Su-Hoon Lee |
| 2013.10.10. | For the Successful Trust-Building Process | Keun-Sik Kim |
| 2013.12.17. | One Korea Unification Vision through Neutralization | Tae-Hwan Kwak |
| 2014.01.09. | Kim Jong Un, Standing on His Own Feet | Keun-Sik Kim |
| 2014.01.20. | What's Happening on the Korean Peninsula for 2014: An Objective View | Tong Kim |
| 2014.03.06. | The Suffocation of "the Regional Interest" in Northeast Asia | Su-Hoon Lee |
| 2019.05.03. | ROK's New Role i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 Fusion Approach | Tae-Hwan Kwak |
| 2019.07.19. | Time for South Korea to Focus on Denuclearization, Not on a Feud with Japan | Byong-Chul Lee |
| 2019.09.11. | A Five-Phase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Tae-Hwan Kwak |
| 2020.02.10. | There Should Be N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 Tae-Hwan Kwak |
| 2020.07.29. | The 67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N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Tae-Hwan Kwak |
| 2020.11.03. | Should the ROK Maintain Balanced Diplomacy in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 Tae-Hwan Kwak |
| 2021.02.22. | Narrowing the South Korea-U.S. Gap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 Byong-Chul Lee |
| 2021.06.02. | An Evaluation of the US-ROK Summit Joint Statement and Tasks Ahead | Jin-Goo Cho |
| 2021.06.03. | The US-ROK Summit and Major Issues Facing the US-ROK Alliance | Jaewook Chung |
| 2021.07.16. | Core Issues in Denuclearized Peace Regime-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 Tae-Hwan Kwak |
| 2021.10.12. | The AUKUS Affair: What Is Behind France's Anger? | Motin Dylan |
| 2021.11.01. | AUKUS, A Game Changer? | Jaewook Chung |

## NK BRIEF 발간 현황

| 발행번호 | 제목 | 작성일 |
|---|---|---|
| No. 05-4 (2017) | NK Brief, May 22, 2017 | 2017.05.30. |
| No. 06-1 (2017) | NK Brief, June 1, 2017 | 2017.06.05. |

| 발행번호 | 제목 | 작성일 |
|---|---|---|
| No. 06-2 (2017) | NK Brief, June 8, 2017 | 2017.06.13. |
| No. 06-3 [2017] | NK Brief, June 15, 2017 | 2017.06.20. |
| No. 06-4 [2017] | NK Brief, June 22, 2017 | 2017.06.27. |
| No. 06-5 [2017] | NK Brief, June 29, 2017 | 2017.07.05. |
| No. 07-1 [2017] | NK Brief, July 6, 2017 | 2017.07.11. |
| No. 07-2 [2017] | NK Brief, July 13, 2017 | 2017.07.17. |
| No. 07-3 [2017] | NK Brief, July 20, 2017 | 2017.07.24. |
| No. 07-4 [2017] | NK Brief, July 27, 2017 | 2017.08.01. |
| No. 08-1 [2017] | NK Brief, August 3, 2017 | 2017.08.08. |
| No. 08-2 [2017] | NK Brief, August 10, 2017 | 2017.08.17. |
| No. 08-3 [2017] | NK Brief, August 17, 2017 | 2017.08.22. |
| No. 08-4 [2017] | NK Brief, August 24, 2017 | 2017.08.29. |
| No. 08-5 [2017] | NK Brief, August 31, 2017 | 2017.09.05. |
| No. 09-1 [2017] | NK Brief, September 7, 2017 | 2017.09.12. |
| No. 09-2 [2017] | NK Brief, September 14, 2017 | 2017.09.19. |
| No. 09-3 [2017] | NK Brief, September 21, 2017 | 2017.09.26. |
| No. 09-4 [2017] | NK Brief, September 28, 2017 | 2017.10.05. |
| No. 10-1 [2017] | NK Brief, October 12, 2017 | 2017.10.18. |
| No. 10-2 [2017] | NK Brief, October 19, 2017 | 2017.10.25. |
| No. 10-3 [2017] | NK Brief, October 26, 2017 | 2017.10.31. |
| No. 11-1 [2017] | NK Brief, November 2, 2017 | 2017.11.06. |
| No. 11-2 [2017] | NK Brief, November 16, 2017 | 2017.11.20. |
| No. 11-3 [2017] | NK Brief, November 23, 2017 | 2017.11.30. |
| No. 11-4 [2017] | NK Brief, November 30, 2017 | 2017.12.06. |
| No. 12-1 [2017] | NK Brief, December 7, 2017 | 2017.12.13. |
| No. 12-2 [2017] | NK Brief, December 14, 2017 | 2017.12.19. |
| No. 12-3 [2017] | NK Brief, December 21, 2017 | 2017.12.27. |
| No. 12-4 [2017] | NK Brief, December 28, 2017 | 2018.01.04. |
| No. 1-1 [2018] | NK Brief, January 4, 2018 | 2018.01.08. |
| No. 1-2 [2018] | NK Brief, January 11, 2018 | 2018.01.16. |
| No. 1-3 [2018] | NK Brief, January 18, 2018 | 2018.01.24. |
| No. 1-4 [2018] | NK Brief, January 25, 2018 | 2018.01.30. |
| No. 2-1 [2018] | NK Brief, February 1, 2018 | 2018.02.06. |
| No. 2-2 [2018] | NK Brief, February 8, 2018 | 2018.02.13. |
| No. 2-3 [2018] | NK Brief, February 22, 2018 | 2018.02.28. |
| No. 3-1 [2018] | NK Brief, March 2, 2018 | 2018.03.05. |
| No. 3-2 [2018] | NK Brief, March 8, 2018 | 2018.03.13. |

| 발행번호 | 제목 | 작성일 |
|---|---|---|
| No. 3-3 [2018] | NK Brief, March 15, 2018 | 2018.03.20. |
| No. 3-4 [2018] | NK Brief, March 22, 2018 | 2018.03.27. |
| No. 3-5 [2018] | NK Brief, March 30, 2018 | 2018.04.03. |
| No. 4-1 [2018] | NK Brief, April 5, 2018 | 2018.04.11. |
| No. 4-2 [2018] | NK Brief, April 12, 2018 | 2018.04.19. |
| No. 4-3 [2018] | NK Brief, April 19, 2018 | 2018.04.24. |
| No. 4-4 [2018] | NK Brief, April 26, 2018 | 2018.05.15. |

## ICNK FORUM 발간 현황

| 발행번호 | 제목 | 발간일 |
|---|---|---|
| ICNK Forum No. 05-3-15-1 | Recent Legal Transformations of North Korea Toward a Market Economy | 2005.03.15. |
| ICNK Forum No. 05-3-21-1 | Anything Money Can Buy: The Shift to "General Marekts" in North Korea | 2005.03.21. |
| ICNK Forum No. 05-3-29-1 | Trends in Transition 1: Evolution of the DPRK Economy | 2005.03.29. |
| ICNK Forum No. 05-3-30-1 | Trends in Transition 2: North Koreans' Market Mindset and Practical Socialism | 2005.03.30. |
| ICNK Forum No. 05-4-11-1 | Developmen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2005.04.11. |
| ICNK Forum No. 05-4-18-1 | North Korea's Approach to the World Market | 2005.04.18. |
| ICNK Forum No. 05-4-22-1 | Governing Law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2005.04.22. |
| ICNK Forum No. 05-5-2-1 | North Korea Inside and Out: a Rundown of Internal Developments, Reforms, and Inter-Korean Relations | 2005.05.02. |
| ICNK Forum No. 05-7-8-1 | The Current Condition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2005.07.08. |
| ICNK Forum No. 05-7-13-1 | Agricultural Policies Under the Reform in the DPRK | 2005.07.13. |
| ICNK Forum No. 05-7-27-1 | Making the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Experience and Lessons | 2005.07.27. |
| ICNK Forum No. 05-8-5-1 | Overseas Training in Market Economics for DPRK Bureaucrats | 2005.08.05. |
| ICNK Forum No. 05-8-26-1 | Political Choices for Development in North Korea: Four Scenarios | 2005.08.26. |
| ICNK Forum No. 05-9-16-1 |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 2005.09.16. |
| ICNK Forum No. 05-10-24-1 | North Korea's State Ration System | 2005.10.24. |
| ICNK Forum No. 05-12-30-1 |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U.S. Commerce Department | 2005.12.30. |
| ICNK Forum No. 06-3-14-1 | North Korean Market Activity in the 1990s | 2006.03.14. |
| ICNK Forum No. 06-7-13-1 | Kaeseong Industrial Complex: Pending Issues and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2006.07.13. |
| ICNK Forum No. 06-7-28-1 |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Korea-U.S. FTA: Part 1* | 2006.07.28. |
| ICNK Forum No. 06-8-14-1 |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Korea-U.S. FTA: Part 2 | 2006.08.14. |
| ICNK Forum No.06-11-15-1 |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t a Crossroads | 2006.11.15. |
| ICNK Forum No. 07-8-30-1 | 2nd South-North Summit: Prospects for Intensifying Inter-Korean Cooperation | 2007.08.30. |
| ICNK Forum No. 07-9-7-1 |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Foreign Investment | 2007.09.07. |
| ICNK Forum No. 07-10-9-1 | Clause 5 of the October 4 Joint Declaration and DPRK Engagement | 2007.10.09. |

| 발행번호 | 제목 | 발간일 |
|---|---|---|
| ICNK Forum No. 07-11-22-1 | The Influence of the First Inter-Korean Prime Ministerial Talks on Economic Cooperation | 2007.11.22. |
| ICNK Forum No. 08-6-24-1 | Lessons for North Korea from the Economic Reforms in Vietnam and China | 2008.06.24. |
| ICNK Forum No. 08-7-4-1 | The Influence of External Factors on Vietnamese and North Korean Economic Policies | 2008.07.04. |
| ICNK Forum No. 08-7-8-1 | 'Muddling Through' or a North Korean Model of Economic Reform? | 2008.07.08. |
| ICNK Forum No. 09-2-2-1 | Assessment of the 2008 DPRK Economy, Outlook for 2009 | 2009.02.02. |
| ICNK Forum No. 09-2-11-1 | Froze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Impact 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2009.02.11. |
| ICNK Forum No. 09-21-1 |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a Second Reprieve Possible? | 2009.09.21. |
| ICNK Forum No. 10-05-06-1 | North Korean Economy: Where to Go From Here? | 2010.05.06. |
| ICNK Forum No. 10-7-7-1 | Recent Trends in North Korean Markets and Prices | 2010.07.05. |

## 정세평가·전망 보고서 발간 현황

| 제목 | 발행일 |
|---|---|
| [한반도 리포트 2010/2011] 한반도 정세: 2010년 평가 및 2011년 전망 | 2011.01.25. |
| [한반도 리포트 2011/2012] 한반도 정세: 2011년 평가 및 2012년 전망 | 2012.01.11. |
| [한반도 리포트 2012/2013] 한반도 정세: 2012년 평가 및 2013년 전망 | 2012.12.28. |
| [한반도 리포트 2013/2014] 한반도 정세: 2013년 평가 및 2014년 전망 | 2013.12.31. |
| [한반도 리포트 2014/2015] 한반도 정세: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 2014.12.29. |
| [한반도 리포트 2015/2016] 한반도 정세: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 2015.12.04. |
| [한반도 리포트 2017/2018]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 | 2017.12.15. |
| [한반도 리포트 2018/2019]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 | 2018.12.28. |
| [한반도 리포트 2019/2020]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 2020.01.10. |
| [한반도 리포트 2020/2021]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 2020.12.10. |
| [한반도 리포트 2021/2022] 한반도 정세: 2021년 평가 및 2022년 전망 | 2021.12.20. |

## 한반도포커스 발간 현황

| 권호 | 주제 | 발간일 |
|---|---|---|
| 2009년 5·6월호 (창간호) |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 2009.05.01. |
| 2009년 7·8월호 (제2호) | 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 2009.07.01. |
| 2009년 9·10월호 (제3호) | 한반도 정세, 국면전환은 가능한가? | 2009.09.01. |
| 2009년 11·12월호 (제4호) |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과 과제 | 2009.11.01. |
| 2010년 1·2월호 (제5호) |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한반도 | 2010.01.10. |

| 권호 | 주제 | 발간일 |
|---|---|---|
| 2010년 3·4월호 (제6호) |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조건 | 2010.03.01. |
| 2010년 5·6월호 (제7호) | 천안함과 6자회담: 전망과 과제 | 2010.05.01. |
| 2010년 7·8월호 (제8호) | 임기 중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 2010.07.01. |
| 2010년 9·10월호 (제9호) | 북한의 후계체제: 현황과 전망 | 2010.09.01. |
| 2010년 11·12월호 (제10호)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 2010.11.01. |
| 2011년 1·2월호 (제11호) |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한반도 | 2011.01.10. |
| 2011년 3·4월호 (제12호) | 한반도, 봄은 오는가? | 2011.03.01. |
| 2011년 5·6월호 (제13호) | 북핵문제, 다시 보기 | 2011.05.01. |
| 2011년 7·8월호 (제14호) | 북한 경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2011.07.01. |
| 2011년 9·10월호 (제15호) | 발리 비핵화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 2011.09.01. |
| 2011년 11·12월호 (제16호) | 기로에 선 남북관계 | 2011.11.01. |
| 2012년 3·4월호 (제17호) | 이명박 정부 4년: 외교·안보·대북정책 평가 | 2012.03.01. |
| 2012년 5·6월호 (제18호) | 4.11 총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과제 | 2012.05.01. |
| 2012년 7·8월호 (제19호) | 6.15 12주년과 남북관계: 시사점과 교훈 | 2012.07.01. |
| 2012년 9·10월호 (제20호) |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나? | 2012.09.01. |
| 2012년 11·12월호 (제21호) | 2012 대선후보의 외교안보대북정책 평가 | 2012.11.01. |
| 2013년 3·4월호 (제22호)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제언 | 2013.03.01. |
| 2013년 5·6월호 (제23호) |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 1년: 평가와 과제 | 2013.05.01. |
| 2013년 4·5월호 (제24호) |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역할 | 2013.07.01. |
| 2013년 7·8월호 (제25호) |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기대와 우려 | 2013.09.01. |
| 2013년 9·10월호 (제26호) | 북핵 문제의 점검과 전망 | 2013.11.01. |
| 2013년 11·12월호 (제27호) | 박근혜정부 1년, 외교·안보·대북정책 평가 | 2014.03.01. |
| 2014년 여름호 (제28호) | 기로에 선 동북아: 이슈와 전망 | 2014.07.01. |
| 2014년 가을호 (제29호)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해법은? | 2014.10.01. |
| 2014년 겨울호 (제30호) |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변화 그리고 남북관계 | 2015.01.31. |
| 2015년 봄호 (제31호) | 김정은 시대, 주변국의 대북정책: 지속과 변화 | 2015.04.01. |
| 2015년 여름호 (제32권) |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호전되고 있는가? | 2015.07.01. |
| 2015년 가을호 (제33호)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과 우리의 과제 | 2015.10.01. |
| 2015년 겨울호 (제34호) |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와 한반도의 미래 | 2016.01.31. |
| 2016년 봄호 (제35호) | 북핵 위기의 진단과 전망 | 2016.04.11. |
| 2016년 여름호 (제36호) | 김정은 정권의 체제운용전략:<br>제7차 당대회·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 2016.07.19. |
| 2016년 가을호 (제37호) |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 | 2016.10.10. |
| 2016년 겨울호 (제38호) | 2017, 전환기의 한반도와 새로운 미래 | 2017.01.05. |
| 2017년 봄호 (제39호) | 새 정부의 대외정책 | 2017.04.11. |
| 2017년 여름호 (제40호) |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 과제와 전망 | 2017.07.01. |
| 2017년 가을호 (제41호) | 김정은 집권 6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 2017.10.13. |

| 권호 | 주제 | 발간일 |
|---|---|---|
| 2018년 제42호 | 2018년 13기 중국 양회 (정협, 전인대) 평가와 전망 | 2018.03.22. |
| 2018년 제43호 | 6.12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 2018.06.26. |

##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현황

| 발행번호 | 제목 | 저자 | 발간일 |
|---|---|---|---|
| 2004-11 | 부시대통령의 재선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04.11.10. |
| 2016-11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대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과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6.11.10. |
| 2020-01 |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노선 변화와 향후 전망 | 임을출 | 2020.09.23. |
| 2020-02 | 북한의 무력행위에 대한 대남 사과·유감 표명 사례 연구 | 김상범 | 2020.10.14. |
| 2020-03 | 김정은 시대 부동산시장의 평가와 전망 | 최천운 | 2020.12.15. |
| 2020-04 | '핵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본 한국 핵무장 담론의 새로운 방향모색 | 이병철 | 2020.12.24. |
| 2021-05 | 김정은 시대 식량증산정책 - 축산업, 수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 김일한 | 2021.02.19. |
| 2021-06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지경학적 협력의 지속과 변용 | 이상만 | 2021.07.29. |
| 2021-07 |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외신 보도 동향 분석 | 문미리 | 2021.08.27. |
| 2021-08 | 인도-태평양 지역 내 쿼드 (Quad)를 통한 협력과 전망 - 해상 실크로드와 쿼드간 견제와 균형 | 강지연 | 2021.09.02. |
| 2021-09 | 핵무기금지조약 (TPNW)과 세계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소고 (小考) | 이병철 | 2021.09.30. |
| 2021-10 | AUKUS 동맹과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담론 | 이병철 | 2021.10.21. |
| 2021-11 |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 딜레마 - '72' 체제의 지속과 변화 | 이상만 | 2021.12.02.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50년사

**발행일** 2022년 8월
**발행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행인** 박재규
**편집인** 이관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홈페이지** https://ifes.kyungnam.ac.kr
**전화** 02-3700-0700
**FAX** 02-3700-0707
**이메일** ifes@kyungnam.ac.kr
**디자인** (주)늘품플러스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50년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 전화 02-3700-0700
홈페이지 https://ifes.kyungnam.ac.kr | 이메일 ifes@kyungnam.ac.kr